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I)

- 대학교육의 진입, 과정, 성과 관련 정책 분석 -

연구책임자	신혜숙(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김양분(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남수경(강원대학교)
연구조원	이기혜(한국교육개발원)
	민병철(서울대학교)
	김정은(홍익대학교)
	황나영(Univ. of Irvine)

머리말

국내외적으로 교육정책의 성과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2년 이후 매년 다른 교육정책 주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5개년도 계속연구인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의 첫 연구로서 대학교육의 진입과 과정, 성과와 관련한 대학교육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는 대학입학 및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 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학교육의 영향력 또한 높은 현실에서 대학 관련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대학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 정책을, 그리고 대학의 성과와 관련하여 대학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대학입시가 초중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잠재력 높은 대학신입생을 선발하고, 일선 고등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대학교육비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학문적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학자금 지원이 어떤 경로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적응,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 여부 및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성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에서 수집한 자료가 중고등학교 자료에 이어 대학교 신입생자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자료를 제공해준 한국고용정보원의 협조가 있어서 취업관련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들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해준 관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가 다각적인 정책적 이슈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백순근

연구요약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5년간 매년 다른 정책 주제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그 첫해인 2012년에는 “대학교육의 진입, 과정, 성과 관련 정책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각 단계에서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대학 학점이나 취업 성과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각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의 입학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의 과정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 정책을, 그리고 대학의 성과와 관련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결과

대학의 특성화, 대학생활 측면에서의 성과, 형평성, 사교육 영향력 감소 등의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대학별 특성화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과 일반전형의 입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도출되었는데, 국공립대의 경우, 일반전형 입학생에 비하여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의 내신성적, 봉사활동 시간이 더 높았으며, 주요 교과 사교육 참여 참여비율이 더 낮았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학부모의 학업지원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 특성에 따른 차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의 학업지원이 그 외의 경로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더 높았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자기주도성이 입학사정관 학생의 경우 더 높았으며,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특징이 대학별로 다르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부분적으로 대학별 선발의 특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고교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은 기존 방식의 입학생에 비해 고교 내신성적 과 봉사활동시간, 시민의식, 학생회참여정도, 자기주도성 등이 더 높았고, 학생의 가정 배경을 통제된 후에도 봉사활동 시간, 자기주도성, 자치활동 정도가 더 높았으며, 주요교과 사교육 시간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신성적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내신등급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지만 학생의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계열 및 지역규모 등을 통제한 이후 고교내신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그 외의 입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내신성적이 높았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의 정의적 특질 측면에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태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은 대학에서 수업참여정도가 높고, 자발적 학습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더 높았다. 이상의 특징은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학점에 있어서는 특징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는 1학기 교양학점에 국한된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학업지원은 비수도권대학과 사립대 입학사정관제 입학에서 일반전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업지원은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사교육 감소에 대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였을 때,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 전형 학생에 비해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에 비해 기존전형 학생들의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대의 경우 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의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두 전형간 차이도 없었으며, 사립대의 경우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두 전형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 연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논술 사교육에서

는 입학사정관제-기존전형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현저히 논술사교육 정도가 높았고,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논술사교육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과 대학설립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주지교과 사교육 완화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정의적 특질이 우수한 학생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입학전형이 주지교과 성취 수준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선발 방식에 대한 비판 하에 주지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을 ‘대학수학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수학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업참여도가 높고,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태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부모의 배경이 자녀에 대한 학업지원을 매개로 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주요 교과의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 학생들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참고했을 때, 이는 전형에 따른 차이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따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감되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과로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생활 성과의 관계 분석

다음으로 대학생이 경험한 학자금 지원의 실태 및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생활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의 장학금 수혜 비율은 34.2% 정도였으나 대출을 받은 학생 비율은 이보다 낮은 17.3%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의 과정과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학금 수혜율은 국공립대가 가장 높고, 사립대가 가장 낮았다. 반면 대출 비율은 전문대, 사립대, 국공립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여학생의 장학금 수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고 인문, 사회, 교육 계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다른 전공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국공립대에서 관찰된 성별 차이나 전공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대학 유형에서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른 아버지 교육 연한 차이는 없었으나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가구 소득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 여부와 수능등급점수와 관계 분석에서는 국공립대에서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수능등급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사립대와 전문대 재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에 특성 차이가 없었으나, 사립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수능등급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의 성과를 살펴보면, 모든 대학 유형에서 공통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 성과는 물론 학습 과정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수업 참여도, 시간 활용 등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부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출 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 및 대학생활 관련 변인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적응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간에 대학성과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성과에 대한 장학금 및 대출의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수혜 여부는 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 여부는 이들 대학교육 성과변인과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다만 전문대의 경우 대출 여부는 대학생의 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대학의 학자금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대학 학자금 지원 정책은 학생 개인 특성과 함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할 때,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업 준비도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대학 입학 시 학업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대학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대학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공, 사립대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교육 경험과 가정환경, 대학 생활 적응, 학업 성취, 자아개념 등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지원이 대학생의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인으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기 부여가 필요한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대학 입학 초기, 대출이라는 형태를 통한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의 다양한 교육 경험 및 긍정적인 대학생활에 별다른 작용을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학자금 대출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업 등의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3.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과분석

다음으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고, 각 프로그램의 참여했는지 여부 외에도 참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취업성과와 관련이 있는 학생성별과 부모학력, 가구소득, 대학에서의 학점, 출신교 교 계열, 대학에서의 전공, 해외연수 경험 여부, 인턴 경험 여부,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등을 학생수준의 통제변인으로, 대학의 설립유형과 명성, 소재지, 규모, 장학금 수혜율, 1인당 교육비, 재학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을 대학 수준의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진로상담관련과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이 된 경우는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정규직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중모형 분석 결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중 일부 프로그램은 학생 배경 또는 학생 과정 변인을 통제한 후 효과 크기가 다소 줄어들거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 배경이 우수하거나 대학 과정 중에 경험하는 해외연수, 인턴, 직업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며, 또 이러한 학생들이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점인정 교과목에 참여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취업 또는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대학 수준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 모형에 비해 효과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취업여부, 또는 정규직 취업여부를 설명하는 기본모형에 학교수준의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일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의 크기가 일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취업의 질을 설명하는 데 대학의 소재지 같은 일부 변인의 설명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출신대학의 소재지가 비슷할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유무, 그리고 도움 유무에 따른 취업성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준비 과정에 따라 본격적인 취업 전 프로그램, 취업준비 초기 프로그램, 본격적인 취업 기술 습득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을 때, 본격적인 취업 기술 습득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무엇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과 취업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단순히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를 떠나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배경이 우수하거나 대학 과정 중에 경험하는 해외연수, 인턴, 직업교육훈련 등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 개인 배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신대학의 소재지가 비슷한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도움 여부에 따라 취업 및 취업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지 않도록 관련 주체들의 노력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CONTENTS

목 차

par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방법	10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11

part II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선행연구 분석	19
3. 연구 방법	27
4. 연구 결과	42
5. 요약 및 논의	56

part III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9
2. 선행연구 분석	72

3. 연구 방법	85
4. 연구 결과	95
5. 요약 및 논의	137

part IV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143
2. 이론적 배경	146
3. 연구 방법	162
4. 연구 결과	170
5. 요약 및 논의	197

part V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논의	203
2. 정책적 제언	208

참고문헌	217
------------	-----

Abstract	231
----------------	-----

부 록

[부록 1] 한국교육종단연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개요	237
[부록 2]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 개요	241
[부록 3] 장학금 및 대출이 대학교육성과에 미치는 경로분석 결과(경로분해)	243
[부록 4] 취업지원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위한 HLM 결과	251

CONTENTS

표 목 차

〈표 I-1〉 연구 내용 및 분석자료9

〈표 II-1〉 입학사정관전형 운영 대학, 전임입학사정관 현황 및 입학 정원20

〈표 II-2〉 입학사정관 전형의 구성 및 운영21

〈표 II-3〉 분석 대상29

〈표 II-4〉 분석 사용 변인34

〈표 II-5〉 대학 지원 계획 학생의 기술 통계량(연구문제 1)36

〈표 II-6〉 대학 신입생의 기술통계량(연구문제 1, 2011학년도 국내 4년제대)37

〈표 II-7〉 입학사정관제 실시대학 입학생의 기술통계량(연구문제 2와 3)38

〈표 II-8〉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에 따른 차이 분석 (학생 응답 기준)42

〈표 II-9〉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44

〈표 II-10〉 수도권대학 여부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기존전형 고교활동 비교47

〈표 II-11〉 대학설립 유형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기존전형 고교활동 비교47

〈표 II-12〉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고교내신과 학업지원 차이48

〈표 II-13〉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봉사활동과 자기주도성 차이49

〈표 II-14〉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학생회참여 및 사교육 차이50

〈표 II-15〉 수도권대학 여부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기존전형 대학활동 비교52

〈표 II-16〉 대학설립 유형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기존전형 대학활동 비교52

〈표 II-17〉 대학학점, 수업참여 및 자발적 학습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효과53

〈표 II-18〉 대학 프로그램 및 자치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효과54

〈표 III-1〉 학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에 사용된 변인 설명89

〈표 III-2〉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 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량90

〈표 III-3〉 장학금 수혜여부와 대출 경험 여부의 관계 분석	91
〈표 III-4〉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 분석	95
〈표 III-5〉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학생배경 및 수능등급점수의 차이분석	97
〈표 III-6〉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학생 특성 분석(χ^2 검증)	98
〈표 III-7〉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학생배경 및 수능등급점수의 차이분석	99
〈표 III-8〉 대학학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간의 상관분석 결과	101
〈표 III-9〉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간의 상관분석 결과	102
〈표 III-10〉 소속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03
〈표 III-11〉 적응,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03
〈표 III-12〉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변인 차이 분석	104
〈표 III-13〉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변인 차이 분석	106
〈표 III-14〉 장학금의 학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108
〈표 III-15〉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학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09
〈표 III-16〉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학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10
〈표 III-17〉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학점관련 장학금효과 분석모형	111
〈표 III-18〉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 자아개념	112
〈표 III-19〉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자아개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13
〈표 III-20〉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자아개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14
〈표 III-21〉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자아개념관련 장학금효과 분석모형	115
〈표 III-22〉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115
〈표 III-23〉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소속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16
〈표 III-24〉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소속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17
〈표 III-25〉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소속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18
〈표 III-26〉 장학금의 적응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 적응	119
〈표 III-27〉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적응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20
〈표 III-28〉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적응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21

〈표 III-29〉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적응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122
〈표 III-30〉 대출의 학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122
〈표 III-31〉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학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23
〈표 III-32〉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학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24
〈표 III-33〉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학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25
〈표 III-34〉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126
〈표 III-35〉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자아개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27
〈표 III-36〉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자아개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28
〈표 III-37〉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자아개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29
〈표 III-38〉 대출의 소속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129
〈표 III-39〉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소속감관련 대출여부효과 분석모형	130
〈표 III-40〉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소속감관련 대출여부효과 분석모형	131
〈표 III-41〉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소속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32
〈표 III-42〉 대출의 적응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133
〈표 III-43〉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적응관련 대출여부효과 분석모형	134
〈표 III-44〉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적응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35
〈표 III-45〉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적응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136
〈표 IV-1〉 대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주화	151
〈표 IV-2〉 분석 변인의 기술통계량	165
〈표 IV-3〉 통제에 사용된 변인	168
〈표 IV-4〉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움 여부에 따른 취업여부 분석	170
〈표 IV-5〉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움 여부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 분석	171
〈표 IV-6〉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취업여부 분석	173
〈표 IV-7〉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 분석	175
〈표 IV-8〉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학점인정 교과목(취업지원 프로그램 1) 참여/도움여부 분석	177

〈표 IV-9〉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직장체험(취업지원 프로그램 2) 참여/도움여부 분석	179
〈표 IV-10〉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직업 심리검사(취업지원 프로그램 3) 참여/도움여부 분석	181
〈표 IV-11〉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교내 취업 박람회(취업지원 프로그램 4) 참여/도움여부 분석	183
〈표 IV-12〉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진로관련 상담(취업지원 프로그램 5) 참여/도움여부 분석	185
〈표 IV-13〉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면접 기술/이력서 작성(취업지원 프로그램 6) 참여/도움여부 분석	187
〈표 IV-14〉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취업캠프(취업지원 프로그램 7) 참여/도움여부 분석	189
〈표 IV-15〉 취업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 효과 분석 결과	193
〈표 IV-16〉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 효과 분석 결과	196

CONTENTS

그림 목 차

[그림 III-1] 종속변인 유형별 장학금 효과 연구모형93

[그림 III-2] 장학금의 학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109

[그림 III-3] 장학금의 학점 관련 총효과 : 사립대110

[그림 III-4] 장학금의 학점 관련 총효과 : 전문대111

[그림 III-5]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112

[그림 III-6]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사립대113

[그림 III-7]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전문대114

[그림 III-8]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116

[그림 III-9]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사립대117

[그림 III-10]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전문대118

[그림 III-11] 장학금의 적응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119

[그림 III-12] 장학금의 적응 관련 총효과 : 사립대120

[그림 III-13] 장학금의 적응 관련 총효과 : 전문대121

[그림 III-14] 대출의 학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123

[그림 III-15] 대출의 학점 관련 총효과 : 사립대124

[그림 III-16] 대출의 학점 관련 총효과 : 전문대125

[그림 III-17]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126

[그림 III-18]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사립대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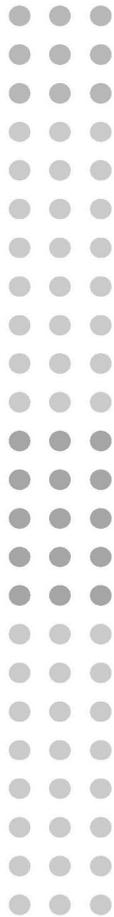
[그림 III-19]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전문대128

[그림 III-20] 대출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130

[그림 III-21] 대출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사립대131

[그림 III-22] 대출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전문대132

[그림 III-23] 대출의 적응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133
[그림 III-24] 대출의 적응 관련 총효과 : 사립대	134
[그림 III-25] 대출의 적응 관련 총효과 : 전문대	135
[그림 IV-1] 대학생의 구직과정과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위	149
[그림 IV-2]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및 진로심리검사 사이트	152
[그림 IV-3]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및 진로심리검사의 방법과 내용	15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 WHO, EU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의 시행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가용한 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았으나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KELS) 자료나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졸업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과 같은 분석 자료 등이 축적되고, 국가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료가 연구 목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성취도 자료나 대학입학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기존에 수집되었던 다수의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의 성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2012년은 5년간 매년 다른 정책 주제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작되는 해로서, “대학교육의 진입, 과정, 성과 관련 정책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각 단계에서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대학학점이나 취업 성과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각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의 입학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의 과정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 정책을, 그리고 대학의 성과와 관련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교육정책연구의 주제가 점점 고등교육 과정 및 성과로 확장되고 있으며, 대학입학 및 대학

교육에 투자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대학교육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대학진입 및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 및 가정환경 특성, 고등학교 이전 교육경험,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정책, 학생들의 대학교육의 경험 등이 대학교육의 과정 및 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목적을 가지는 입학사정관제가 본래의 성과를 보이는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대학성과에 학자금 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취업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대학입학전형 방식인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과학기술부, 2007)로서, 대학과 고등학교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입시우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잠재력 있는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김양분 외, 2011). 입학사정관제는 2008년에 최초의 10개 대학에 도입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41개, 2010년에는 90개, 2011년에는 118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10%를 넘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지나친 점수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안정희, 배성아, 2009; 양성관, 2009). 우선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김회용, 2011; 손희권, 주휘정, 2009), 관찰, 구술, 면접 등 질적 방법을 통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최경호, 한동욱, 2010),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혜림, 2009; 양성관, 2009).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또다른 논쟁은 입학사정관제가 새로운 입학통로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안정희, 배성아, 2009).

따라서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실태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논의하거나 사교육절감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배경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는 사교육비 절감 외에도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의 선발이라는 측면도 정책평가의 준거로서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비 외에도 대학 학업성취도와 자발적 학습활동, 수업 참여도, 대학 프로그램 참여, 자치활동 참여 등의 대학생활 전반에 비추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대학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반값 등록금 문제를 계기로 대학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교육 비용의 대부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비 부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등록금과 치솟는 주거비용 그리고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의 부업에 시간을 쏟고 있고, 학업이나 자기계발, 이후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위한 대학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교육 연구자들은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학자금 용자의 규모, 학비 마련 목적의 근로 시간 등 재정 관련 요인이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등록금 및 생활비 등에 경제적 제한을 가지는 대학생들은 학비 마련을 위한 부업에 치중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대학 수업에는 소홀해지고, 인턴십, 어학연수 등 학습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이 경험하는 재정적 어려움은 고등교육 접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대학교육을 받는 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에서부터 이슈가 되기 전에는 학문적 또는 정책적 관심이 적었으며, 학생 재정지원에 대한 실증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김안나, 김성훈, 2010). 즉 이전 연구에서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학생 수준에서 대학생의 긍정적인 대학학습경험과 같은 대학생활, 그리고 대학학점,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 등과 같은 대학성과와 관련지어 분석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과정 및 설립 유형별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2년제와 4년제,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에 학생 배경 특성이나 교육경험, 그리고 등록금의 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을 마무리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 여부 및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대학입학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고, 선호도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고, 대학입학 이후에는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 졸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경제적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 졸업자의 미취업문제는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낮아지고, 이후 직업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총생산의 손실을 가져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정지선 외, 2011). 이처럼 고학력 미취업이 점점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학 졸업자의 구직과정과 취업 여부 및 취업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과 학교배경 등을 분석하고, 대학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제언하는 연구가 많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개인적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학교 및 학과 차원의 지원과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및 취업 성과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 외에도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를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취업의 질에는 학생 개인 특성 외에도 대학의 구조적인 특성, 대학의 교육적 활동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의 대학입학 이전의 교육적 경험과 학생, 가정, 학교의 요인, 대학입학 준비과정,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 적응, 대학의 다양한 활동, 취업 준비 및 대학 졸업 후의 취업까지 대학교육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입학사정관제와 대학 학자금 지원, 그리고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학년도 이후 매년 수집되고 있는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 자료와 2012년 대학입학 유형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대학 학자금 지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통계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대학정보공시 자료 등 국내의 연계 가능한 대학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였고, 둘째, 장학금 및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이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취업 및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가.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한국교육중단연구의 4~7차년도 자료(고등학교 ~ 대학1학년)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제도적 특징과 제도 속에서의 구성원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이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고 어떤 학생을 선발했는가를 분석하고, 입학사정관제가 중등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의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제 선발방식이 타당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이 대학생활을 더 잘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는 학생의 특성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특성을 분리하여,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 및 입학여부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가정배경, 사교육, 고교내신, 비교과활동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지원 계획여부는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이것이 정책이 의도한 바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배경변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사교육비 및 교과 외 활동 참여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타당도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이 일반전형 입학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하였다. 즉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대학생활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며,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대학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나.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분석

한국교육종단연구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이 경험한 학자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장학금과 대출금 수혜여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되 학생의 개인 배경적 특성과 대학입학 전 학업 준비도, 전공, 주요 대학교육 경험 요인에 따라 학자금 수혜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장학금 및 대출 수혜 학생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학자금 지원, 바람직한 대학교육(학습)경험, 그리고 대학 적응, 대학에 대한 소속감, 학업성취, 학생이 인지한 자아개념 등의 대학교육 성과 간 연계성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지원여부가 대학생의 시간활용과 수업 참여도,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어떻게 연계되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 대학 적응, 대학 소속감, 학문적 역량 및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자아개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학생 배경 특성이나 교육경험 등 여러 측면에서 2년제와 4년제,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차이를 고려하여 각 집단별로 분석 모델을 적용,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 간의 관계가 대학교육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연구

마지막으로 대학의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2년 현재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는 대학 1학년까지 수집되어 있으므로,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통계자료, 대학정보공시자료를 연계하여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취업의 질(정규직 취업여부) 중심으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단계 및 목적으로 구분하여, 취업캠프와 직업심리검사 등의 취업 전단계 프로그램과 학점인정 교과목, 교내 취업박람회 등의 취업준비 초기 프로그램, 그리고 직장체험과 면접기술/이력서작성 등의 본격적인 취업기술 습득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취업 프로그램 참여여부 외에도,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한 결과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대학생의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의 투입 및 과정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공시정보와 사학재단의 대학재정 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학교 수준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을 학교 수준에서 활용하여 대학생 졸업자들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학관련 정책과 분석자료, 성과변인은 다음 <표 I-1>과 같다.

<표 I-1> 연구 내용 및 분석자료

단계	대학정책	분석자료	성과변인
대학입학	입학사정관제	종단연구 4~7차년도 자료 대학정보공시자료	대학 학업성취도, 자발적 학습활동 수업 참여도, 대학프로그램 참여 자치활동 참여
대학생활	대학 학자금 지원	종단연구 7차년도 자료 대학정보공시자료	대학학점,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
대학성과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대졸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 대학정보공시자료 고등통계 자료	취업여부 정규직 취업여부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모형과 분석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정과 선발원칙, 입학사정관제와 지원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사교육 간의 관계 및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교육 성과 및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학교육 경험변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대학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을 분석한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및 노동시장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모형 설정 및 분석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기존 데이터 수집 및 연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연구의 4~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대학입학유형, 대학적응 및 학교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연구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대학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 등의 대학교육 성과와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등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학습경험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의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졸업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와 대학공시자료, 고등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여부 및 취업의 질에 대한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교육 정책 분석 전문가 및 교육통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팀을 구성하여, 연구의 중점 과제, 연구의 방향, 데이터의 성격 및 수집 방법, 분석 모형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의 타당성 및 대학교육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라. 외부 연구용역 의뢰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과 엄격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각각 자료 전문가와 교육정책 전문가에게 용역으로 의뢰하여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와 대학진학자료, 대학 생활 자료를 연계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였고,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보다 타당하고 공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이 연구는 대학의 진입과 대학 교육과정, 그리고 대학교육의 성과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대학입학이 주요 사회적 관심사이고, 대학 졸업 여부 또는 졸업 대학의 순위에 따라 졸업 이후의 직업이동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고 타당한 대학입학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에 지난 2008년 이후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확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한국교육중단연구의 7차년도 자료는 대상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 취업, 입대 등으로 진로가 분화된 첫 해의 자료로서, 입학사정관제가 중등교육의 의도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단연구 4-7차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의도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학생의 가정배경, 과거 교육활동, 사교육비와 대학학점, 대학생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객관적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실증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했고, 이전 연구에서도 학업 지속률이나 학업 성취도 등의 제한된 성과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나 대학생활 적응, 대학에 대한 소속감 등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까지 분석의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

양한 대학생활 및 과정 변인 정보를 포함하는 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학자금 지원과 대학 교육 경험변인, 그리고 대학교육 성과변인의 관계를 대학교육의 과정이나 설립 유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졸업단계의 대학교육의 성과인 취업 및 취업의 질을 성과변인으로 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의 질 향상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취업 성과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주로 학생 개인 요인에 초점을 두었고, 대학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주로 대학의 서열이나 소재지 등이 취업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정보와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대학공시자료와 연계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과 학자금 지원의 효과는 한국교육종단연구에 참여하는 동일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은 다른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대학교육의 진입과 대학생활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지만, 대학 성과는 별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후 한국교육종단연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대학진입과, 대학생활, 그리고 대학 성과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교육종단연구의 경우 자료의 특성상 학생들의 성장이 종단적으로 연계된 것이므로, 대학 이후 자료는 해당학년의 횡단적인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데, 이는 2011년 대학입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Ⅱ .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요약 및 논의

Ⅱ.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사정관제도는 2004년 10월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되었고(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7년(2008입시)에 10개 대학에서 254명의 학생을 이 제도를 통해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이명박정부 들어서 발표된 ‘대학 입시자율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확대, 정착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4년제 대학 총 입학정원의 11.5%가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제도의 도입 초기에 정원 외 특별전형에 주로 활용되던 방식에서 점차 정시 및 수시 일반전형에까지 적용의 폭이 확대되면서 대학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정부 대학입학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으며, 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양성관, 2009; 김신영, 2011). 결국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 현 정부 대학입시정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김신영, 20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을 “성적을 포함하여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대입 전형 전문가”로 규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을 구성하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해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전형요소로는 학업성취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의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형요소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서류심사, 면접, 토론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체험·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학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도를 종합해 볼 때,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는 1)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2) 입학사정관제가 의도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가, 3)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일반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보다 나은 성취를 보이는가, 4)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입시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수행된 교육전문가 및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정부 들어 정책적으로 확대된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대입 자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41.2%(그렇지 않다 21%)로 우세했으나,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11.1%(그렇지 않다 52.4%),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한 5.5%(그렇지 않다 73.2%)에 지나지 않아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는 긍정적이나 이러한 확대된 자율성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나 사교육 완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견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효과 혹은 타당성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각 대학별로 독자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각 대학의 자체연구는 주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성적, 대학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 중도탈락률 등의 측면에서 횡단 혹은 종단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다양한 성취가 일관성 있게 더 높은 학교도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성취영역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등 대학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의 효과에 상당한 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입학사정관제 자료집). 따라서 메타분석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대학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로 진학한 학생과 일반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의 차이는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의도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연구문제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비교가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입학사정관제 선발방식의 타당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이 의도한 변화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현재까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찾아보기 힘들며,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 교사 또는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 등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한국교육종단연구의 7차년도 자료는 대상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 취업, 입대 등으로 진로가 분화된 첫 해의 자료이다. 따라서 7년간의 종단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가 중등교육의 의도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 의도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의 4~7차 자료(고등학교 ~ 대학 1학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 가. 입학사정관제, 어떤 학생이 지원하고 어떤 학생을 선발했는가?
- 나. 입학사정관제는 중등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의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다. 입학사정관제 선발방식은 타당했는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생활을 더 잘 하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는 학생의 특성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특성을 분리하여,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 및 입학여부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가정배경, 사교육, 고교내신, 비교과활동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지원 계획여부는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이것이 정책이 의도한 바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타당성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배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실제로 사교육비를 적게 소비했는지, 다양한 교과 외 활동에 참여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 경우 학생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별로 선발의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예컨대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일반전형 입학생의 비교과활동시간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반영하여 그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대학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예측타당도와 관련하여, 이들의 대학생활이 일반전형 입학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하였다.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선발이라면 선발의 타당성은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대학생활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며,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학에 따라 그 차이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각 분석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에 관련된 문제는 대학입학 여부와 관계없이 가용한 샘플을 이용하였고,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일반전형 입학생의 비교를 포함하는 분석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실제로 대학에 다니더라도, 그 대학이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가.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정 및 선발원칙

입학사정관제는 기존의 시험 위주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07. 8. 3). 즉 입학사정관제는 내신 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의 목적은 수능과 내신 등의 시험점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여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과 특성화를 강화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다(김양분 외, 2011).

이러한 배경에서 2004년 10월 발표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입학사정관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입학사정관제는 2008년 대학입학 전형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다음해인 2009년 입시제도 개선의 주요 방안으로 부각되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선발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안정희, 배성아, 2009). 그리하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각각 10개 대학, 16개 대학, 47개 대학, 11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2012년에는 122개 대학에서 총 41,138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모집인원의 확대와 더불어 전형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배성아, 안정희, 2011), 그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이 2010년에는 236억 그리고 2011년에는 350억으로 증대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2007년(2008학년도 입시)부터 2012년(2013학년도 입시)에 이르기까지의 6년간의 연도별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 및 대학 입학사정관제 운영 현황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입학사정관전형 운영 대학, 전임입학사정관 현황 및 입학 정원

구분	정부 지원		독자 실시 대학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전임 입학사정관 현황 (정규직 비율)	입학 정원 (명)	4년제 대학 총 입학정원 대비 선발 비율
	대학	지원금 (예산)					
2007년	10	20억	-	10	42 (7.2%)		
2008년	40	157억	-	40	22 (7.4%)	4,476	1.3 %
2009년	47	236억	43	90	346 (19.7%)	24,696	7.0 %
2010년	60	350억	57	117	512 (21.7%)	35,421	10.1 %
2011년	60	351억	61	121	593 (29.5%)	42,163	10.7 %
2012년	66	391억	59	125	618 (43.0%)	43,138	11.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2. 3. 21).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사정관전형 운영대학 수와 총 모집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선 전체 정원의 11.5%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할 것이라 보도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1. 12. 9). 구체적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7,035명 감소하였지만,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모집인원은 975명 증가하였다. 수시모집에서의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은 8,061명 증가하였고, 반면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은 7,086명 감소하였다. 특히 수시모집의 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수시모집에서의 입학사정관전형의 비율은 증가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011학년도 대학입학시험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대교협은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교교육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수립하였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운영 모형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원칙을 5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셋째, 대학과 고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 입학 전형에 대하여 대학은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원칙도 상세히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예를 통해 기준을 명시하였다.

〈표 II-2〉 입학사정관 전형의 구성 및 운영

구성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사정관 전형의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
평가요소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에서는 학업성취도,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 - 전형은 서류 심사, 면접, 토론 등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운영
운영 절차 (다수·다단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 평가 시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참여 - 개별 입학사정관의 평정 점수 차이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 -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운영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교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 -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이 제출한 전형자료(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체계를 갖추

나. 입학사정관제 부작용 논란 및 지원학생의 특징

입학사정관제의 목적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 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각종 서류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전형 전문가 활용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안선희 외(2009)는 입학사정관제의 특징을 개별화, 종합적·포괄적 검토, 대학의 재량권 확대, 전형과정 및 결과의 불확실성, 입시의 장기화 등으로 구분한다. 즉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하여 교과 성적 외에도 비인지적 특성과 가정환경까지 종합적·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이전의 전형방식에 비하여 전형과정 및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모든 활동을 입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입시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평가

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적용됨에 따라, 학생들이 성적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대학입시에서 학교 내 활동과 교사의 평가를 중시하는 기준을 마련한 만큼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마다 전형 내용이 다르고, 복잡하고 다양하며 평가 방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제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이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안정희, 배성아, 2009; 양성관, 2009). 먼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김희용, 2011; 손희권, 주휘정, 2009; 이윤미, 2009; 임규홍, 2012; 최경호, 한동욱, 2010).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에서 탈피하여 소질과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배경이었으나 관찰, 구술, 면접 등 질적 방법을 통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최경호, 한동욱, 2010). 이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입학사정관제도 발전방안의 중요부분이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박혜림, 2009; 양성관, 2009).

무엇보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학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의 프로그램 및 학부모의 정보수집역량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여정과 김경근(2011)은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뛰어난 학부모들의 자녀가 입학사정관제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소득수준과 직업지위,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보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학부모가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활용했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종단연구 6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이필남(2011)의 연구 결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할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의 학생일수록, 그리고 전문계고 학생일수록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여 대학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김양분 등(2011)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부모의 교육기대가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내재적 동기가 높고, 학교활동에 더 많이 참여했을수록, 읍·면지역의 학생이 다른 지역 학생에 비하여, 양부모 가정 학생에 비하여 한부모 가정 학생들이 지원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즉 입학사정관제 지원 비율이 높은 집단이 읍면지역학생이나 한부모 가정학생의 경우와 부모의 교육기대 및 교육지원이 높은 경우로 양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동기가 높고 학교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

입학사정관제가 입학전형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잠재력이 있는 신입생을 선발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입학사정관제가 새로운 입학통로로 인식되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안정희, 배성아, 2009; 임규홍, 2012).

안선희 등(2009)은 교육전문직,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중 52.2%가 사교육기관을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교육 기관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하여 진학 컨설팅, 면접·구술 대비반,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면접·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등을 제공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안선희 외, 2009).

김승태(2010)의 연구도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교육기관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의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며,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교수방법과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심층면접과 논술, 자료작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교육과 진학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승태, 2010).

더불어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입학사정관제 관련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의 전형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사교육의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전형 요소 및 전형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사교육 대체제 제공 방안으로 방

과후학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BS 등을 통한 진학컨설팅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을 제안하였다(안선희 외,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생 및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여부, 입학사정관제 합격 여부, 학생들의 배경정보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황여정과 김경근(2011)의 연구는 다양한 가정환경배경 정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여부에 대한 학부모 설문 자료를 포함하는 한국교육중단연구 6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뛰어난 학부모들의 자녀가 입학사정관제에 더욱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부모가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해 알고 있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활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과 사교육 수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중단연구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필남(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계획이 없는 학생과 단순 비교하였을 때,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낮았다. 그러나 로짓모형과 토빗모형을 사용하여 지역과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경향점수매칭 모형을 사용하여 표본 선택편의의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이들 집단 간의 사교육수요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자료를 분석한 김양분 등(2011)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읍·면지역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지원 계획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며,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역전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이 준비하지 않는 학생에 비하여 사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하며,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양분 등(2011)는 읍면지역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학생은 다른 지역의 지원학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전연구는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김양분

외, 2011; 이필남, 2011), 실제 지원여부 혹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통한 대학입학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집단이 일반적인 대입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또는 일반 대입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사실적 추론을 통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소개하거나(양성관, 정일환, 2007; 정일환, 김병주, 2008),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 현황과 특징,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김용기, 2008; 배성아, 안정희, 2011; 이윤미, 2009; 임규홍, 2012; 최경호, 한동욱, 2010),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거나(김양분 외, 2011; 이필남, 2011),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김승태, 2012, 김양분 외, 2011; 안선희 외, 2009; 이필남, 2011).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진학이나 학업성취도, 대학에서의 적응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이는 입학사정관제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대학적응 및 성취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개별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시와 정시모집 학생을 비교한 이경희(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시모집 학생들에 비하여 수시모집 학생들의 대학학업성취도의 평점평균이 낮았다. 그러나 이영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수시모집집단이 정시모집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김지하와 이병식(2010)의 연구에서도 수시모집 입학생들이 정시모집 입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의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학점에 대한 입학전형요소별 영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수능성적에 비하여 대학학업성취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2010) 연구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수능성적보다 대학 1학

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등급이 높으나 수능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기초교육이나 보충 교육 등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노경란과 윤수정(2012)의 연구결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목표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정시 입학생들에 비하여 대학에 대한 적응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공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대학활동 참여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적응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후 일반전형 입학생들의 인식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 적응이나 대학학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윤소정, 윤채영, 2011; 이원석, 2012). 입학사정관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이원석(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제에 내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사후관리 프로그램 역시 합격생을 위한 단기적인 예비학교나 영어, 수학 등 도구과목의 보완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들의 잠재력 발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입학사정관제 지원여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학입학여부, 대학적응 및 만족도, 대학학점 등의 정보를 포함한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대학적응 및 대학생활 등에 대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는 사교육비 차원과 공교육 내실화, 대학학점 및 대학 적응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가.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 6,9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012년 현재 8년째 추적 조사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매년 조사대상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내신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등의 학업성취수준과 학교생활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 결과,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교육통계DB의 물리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인지적·비인지적 발달 등에 대한 정보가 폭넓게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것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10년 조사된 6차년도 자료와 대학에 입학한 2011년 조사된 7차년도 자료이다. 6차년도 자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지원 계획(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 포함)과 학부모의 학업지원, 진학 활동, 학생의 사교육 참여 정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7차년도 자료에는 대학 진학결과와 선발된 전형방법(입학사정관제 선발여부 포함),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교육중단연구는 6차년도를 기준으로 원 표본 6,908명 중 6,205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조사 성공률은 84.9%였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세 가지 연구 문제별로 각기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입학사정관제 지원자와 선발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자의 특성은 조사대상이 고교 3학년인 6차년도 조사 시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3,870명 중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입학사정관제 선발자의 특성은 이듬해인 7차년도 대학생 설문지에 응답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 여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의 대학생 조사대상에는 2011년 대학에 진학한 학생과 더불어 고교를 조기 졸업하고 2011년 이전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2011년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국내 대학이 아닌 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엄밀한 분석을 위해 2011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2011년 입학했다

도 외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1년 국내 4년제 대학 1학년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학생들이 선발된 전형방법은 입학사정관제와 그것이 아닌 기존 전형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대학생용 설문 3번),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특별전형 안에서도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로 구분되기도 한다(대학생용 설문 2-1번). 대학은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특기자나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맞는 학생 등을 선발하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이나 전문계고 출신 학생과 사회배려대상자, 재외국민 등을 선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입전형은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 중 다수(230명 중 60명)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전형과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1,650명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458명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중등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입학사정관제의 효과’와 세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활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선발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기존 전형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을 비교해야 한다. 다만 보다 명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를 제외한 다른 조건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념적으로 같은 대학 안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과 기존 전형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만 두 종류의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1차적인 분석 대상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학생이 된다. 한국교육중단연구 조사대상 6,908명 중 다수가 2011년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 때 대학입학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총 118개교(정부지원 60개교, 독자실시 58개교)이었다(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09. 11. 30; 교육과학기술부·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0. 6. 17). 118개교 중 광주교대, 꽃동네대, 서울기독대 3개 대학에는 조사대상이 없어, 이들 학교를 제외한 총 11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 조사대상 중 11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1,850명(입학사정관제 230명, 기존 전형방법 1,619명, 결측 1명)이었다.

115개 대학 중에는 본교와 분교 혹은 다수의 캠퍼스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었다. 이 중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교는 본교와 캠퍼스 모두 별도 전형단위로 모두 입학사정관

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115개교에 이증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별개 대학으로 판단해 분석하였다. 명지대(서울)와 영산대(부산), 을지대(성남), 전남대(여수) 등 4개교는 일부 캠퍼스만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부 캠퍼스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단국대와 동국대, 상명대, 중앙대, 홍익대 등 5개교는 전형단위에 캠퍼스 구분이 없었지만, 대학 소재지에 따른 비교 분석을 위해 캠퍼스 별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캠퍼스 구분을 적용하였을 때 120개교가 분석단위가 되었다.

다만 일부 대학에는 조사대상이 모두 입학사정관제나 기존 전형방법으로 선발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대학에서는 두 종류의 학생을 비교·분석할 수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포항공대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 2명은 모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되었으며, 가천의과학대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 9명은 모두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전통적 전형 방법으로 선발되었다. 이 두 대학과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생들을 분석 대상에 제외되었다. 분석자료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과 기존 전형방법으로 선발된 학생이 각각 1명 이상 존재하는 학교는 82개 대학이었다. 그리고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474명(입학사정관제 228명, 기존 전형방법 1,245명, 결측 1명)이었다.

분석 대상 1,474명 중에는 분석 변인에 결측이 있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제외한 분석 사례는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1,124명(82개교)이었으며,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1,443명(82개교)이었다.

연구문제별로, 분석 대상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II-3〉 분석 대상

연구문제	분석 대상	사례 수	
(주제1) 입학사정관제 지원자와 선발자의 특성	대학지원 계획 (학생계획 기준)	3,870명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 742명	
	2011년 국내 4년제대 1학년	정원 외 선발자 제외	1,650 명 (입학사정관제 선발 170명)
		정원 외 선발자만	458 명 (입학사정관제 선발 89명)
(주제2) 고교정상화와 관련한 입학사정관제 효과	" (입학사정관제 실시대학 82개교)	정원 외 선발자 포함	1,224명
(주제3) 대학생활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선발자 효과		정원 외 선발자 포함	1,443명

나. 분석 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학사정관제 지원자와 선발자의 특성(연구 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6차년도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7차년도 조사 자료를 일부 포함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생 배경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7차년도 공통설문 34번)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범주형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교육연수로 변환하고 부모 중 높은 값을 선택해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 고등학교 졸업 미만'은 10.5년, '2)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3) 전문학사'는 14년, '4) 학사'는 16년, '5) 석사'는 18년, '6) 박사'는 21년의 값을 부여하였다. 가구소득은 6차년도와 7차년도 모두 조사되었으나, 6차년도 응답에 결측이 많아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아 7차년도 응답 결과(7차년도 공통설문 36번)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에 가구소득은 범주형으로 조사되었는데, 범주의 범위 중 중간값으로 변환했다. 구체적으로 '1) 월 200만원 미만'은 100만원, '2) 월 2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은 300만원, '3) 월 400만원 이상~월 600만원 미만'은 500만원, '4) 월 600만원 이상~월 800만원 미만'은 700만원, '5) 월 800만원 이상~월 1000만원 미만'은 900만원, '6) 월 1000만원 이상'은 1100만원의 값을 부여하였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7차년도 학생을 통해 조사(7차년도 공통설문 12번)되었다. 조사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평균 내신등급에 대해 1~9등급까지 9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 이루어졌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및 선발은 학생의 배경뿐 아니라, 가정의 교육적 지원과 학교생활,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회 참여나 봉사활동과 같은 학교생활, 부모의 학업지원이나 진학활동, 사교육 참여와 같은 교육적 지원 정도, 시민의식이나 자기개념, 자기주도성과 같은 학생의 가치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측정해 사용하였다. 학생회 참여여부(6차년도 학생 설문 3번)는 학생회와 관련해 (6가지 활동¹⁾에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와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봉사활동 시간은 6차년도 교사가 학생평가지에서 응답한 고1~고3 1학기까지의 총 봉사활동 시간(6차년도 학생평가 13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단 200시간 이상 값의 경우 이상값으로 처리하여, 모두 200시간으로 대체하였다.

1) 6가지 활동은 구체적으로 1) 학생회 회장 또는 부회장, 2) 학생회 부장(임원), 3) 학급 회장(반장) 또는 부회장(부반장) 4) 동아리활동 회장(부장) 또는 부회장(차장), 5) 학급부장(총무, 부총무 포함), 6) 신문반, 방송반, 교지 편집위원 등이다.

부모의 학업지원은 같은 문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조사하였는데, 두 가지 측정값(6차년도 학생설문 14번, 학부모 설문 8번)을 모두 각각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은 10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2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문항 응답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²⁾. 학부모의 진학활동(6차년도 학부모설문 4번)은 학부모가 자녀의 진학과 관련해 ‘대학(교) 주최 진학설명회’, ‘사설업체 주최 진학설명회’, ‘유료 입학컨설팅’ 등의 활동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세 가지 활동에 대한 참여여부를 각각 더미변인으로 구성하고, 그 값을 합쳐 사용하였다. 사교육 참여여부(6차년도 학부모설문)는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교과)와 논술의 사교육 참여여부(9-1번)를 사용하였다. 참여여부는 영역별로 각각 조사되었는데, 3개 주요 영역의 경우 한 영역이라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더미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시민의식(6차년도 학생설문 18번)은 공동체 의식에 대해 묻고 있는 4개 문항의 응답값을 평균해 사용하였다³⁾. 자기개념(6차년도 학생설문 17번)은 학업적 자기개념과 사회적 자기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업적 자기개념은 ‘16)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등의 5개 문항⁴⁾, 사회적 자기개념은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등 5개 문항⁵⁾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해 사용하였다. 자기주도성(6차년도 담임교사의 학생평가 11번)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4개 문항⁶⁾에 동

2) 부모의 학업지원과 관련된 문항은 1)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신다(한다), 2)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신다(한다), 3) 성적 관리에 신경 쓰신다(쓴다), 4) 과외나 학원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신다(한다), 5) 나(자녀)의 공부를 위한 지출(학원, 과외, 문제지 등)은 아끼지 않으신다(않는다), 6) 평소 나의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신다(한다), 7) 나(자녀)를 격려하신다(한다), 8) 내(자녀의) 기분을 맞추어 주신다(준다), 9)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신다(한다), 10) 진학 상담을 받으신다(받는다) 등이다. 이 중 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7번과 8번 문항을 제외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학생의 경우 $\alpha=.850$, 학부모의 경우 $\alpha=.844$ 였다.

3) 시민의식과 관련된 문항은 ‘9)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관심을 갖고 듣는다’, ‘10) 성인이 되면 선거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11)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12)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4개이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alpha=.701$ 이었다.

4) 학업적 자기개념과 관련된 5개 문항은 ‘16)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17)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18)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19)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20)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등이다. 학업적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alpha=.838$ 이었다.

5) 사회적 자기개념과 관련된 5개 문항은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2)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이를 좋아한다’, ‘3) 나는 단체생활을 잘 한다’, ‘4)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5)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 등이다. 사회적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alpha=.891$ 이었다.

6) 자기주도성은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중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들이 가진 특성을 서술한 ‘1) 학급 일을

의하는 정도를 평균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 입학사정관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연구문제 2)에 대해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변인을 구성해 사용하였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으로 고교 내신성적(1~9등급), 학부모의 교육지원정도, 봉사활동시간(10시간), 자기주도성, 학생회 임원 여부, 주요교과 사교육 여부, 논술 사교육 여부(참여=1)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측정 방법은 연구문제1과 같다. 첫째, 고교 내신성적은 7차년도에 학생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9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그 응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내신 성적이 가장 좋은 1등급이 1의 값을, 내신 성적이 가장 낮은 9등급이 9의 값을 갖도록 해, 측정값이 작을수록 고교내신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지원정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조사되었는데, 여기서는 학생 응답을 사용하였다. 셋째, 봉사활동시간은 6차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총 봉사활동 시간을 기재하게 하여 조사되었는데, 회귀계수가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10시간을 한 단위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넷째, 자기주도성은 첫 번째 연구문제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가졌는지에 대해 6차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평균해 사용하였다. 다섯째, 학생회 참여여부는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해 6가지 역할 중 하나라도 맡아 본 학생은 1, 그렇지 않은 학생은 0의 값을 갖도록 측정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주요교과와 논술 사교육 여부는 사교육을 받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더미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변인으로는 입학사정관계 입학여부를 사용하였다. 이 변인은 입학사정관계로 입학한 경우 1, 기존 전형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인으로 변환하였다. 이를 통해, 계수값이 기존 전형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 비해 입학사정관계로 입학한 경우 얼마나 더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게 하였다.

통제를 목적으로 사용한 변인은 수준에 따라 학생과 대학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 수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3) 이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 ‘4) 이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학업 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갖추고 있다’ 등 3개 문항의 응답값과 자기주도성이 낮은 학생들이 가진 특성을 서술한 ‘2) 이 학생은 수동적이거나 내성적인 편이다’의 응답을 역코딩한 값을 평균해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alpha=.749$ 이었다.

준에서는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 계열 및 소재지 등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 여자가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부모교육수준은 앞의 연구문제와 같이 교육연한으로 변환해 사용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선택지의 범위 중 중간값을 선택해 사용하였다. 다만 회귀계수가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측정해 사용하였다. 고교 계열은 일반고, 특목고, 전문고 등 3개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여, 특목고와 전문고에 대해 각각 더미변인을 구성해 사용하였다. 고교소재지도 마찬가지로인데, 5개 범주(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지역, 면지역, 특수지역)로 구성된 것을 3개 범주(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로 재구성한 후, 읍/면/특수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특별/광역시와 중소도시에 대해 각각 더미변인을 구성해 사용하였다. 6차년도 조사 결과 부모교육수준과 고교 계열, 고교 소재지의 경우 결측값이 많아, 결측이 있는 경우 1~5차년도 조사결과를 보완해 사용하였다.

대학수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정부지원여부는 대학 자체로 실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대학설립 유형과 소재지의 경우, 대학 유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대학 전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얼마나 대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연구주제 3)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인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에서의 성과는 7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대학학점, 자발적 학습(학습활동 참여정도), 수업 참여정도, 비정규 프로그램 참여(대학제공 프로그램 참여), 기타 교내활동(자치활동) 참여정도 등을 통해 측정해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점은 2012년 1학기 학점이 조사(7차년도 대학생설문 16번)되었는데, 학교별 만점이 4.0점, 4.3점, 4.5점 등으로 달라 이를 보정해 비교할 필요가 있어, 100점 만점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대학에서의 학습활동 참여정도는 '1) 수업시간에 질문한다' 등 9개 문항⁷⁾에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후 평균해 사용하였다. 수업 참여도는 2011년 1학기 온라인 강의를 포함

7)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은, '1) 수업시간에 질문한다', '2)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 '3)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좋은지에 대해 평가한다', '4)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에 도전한다', '5) 자발적으로 글쓰기를 연습한다', '6) 학술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본다', '7)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공부한다', '8) 실수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 '9) 내가 한 일이나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등 9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평균해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797$ 이었다.

한 수업에서 토론 참여, 질문, 팀 프로젝트 참여, 발표, 수업 준비 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측정(7차년도 대학생설문 14번)해 그 값을 평균해 사용하였다⁸⁾. 비정규 프로그램 참여정도(7차년도 대학생설문 13번 5~10))는 2011년 1학기 리더십 개발, 현장실습 프로그램, 멘토링, 튜터링, 진로개발 또는 취업역량 개발, 진로상담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를 각각 더미 코딩한 후 이 값들을 합쳐 측정하였다. 기타 교내 활동 참여정도(7차년도 대학생설문 13번 13~16)) 또한 같은 시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 활동, 교내 축제 또는 문화행사, 대학 간 교류(체육, 학술) 활동 등 4개 활동에 대한 참여여부를 더미 코딩한 후 이 값들을 합쳐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은 학생들의 전공계열이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제의 목적으로 학생 수준에서는 전공계열을 사용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등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약계열에 속하는 사례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예체능계열을 기준으로 삼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공학계열 등을 각각 더미변인으로 변환했다.

대학수준 변인은 앞의 연구문제(연구문제 2)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즉, 입학사정관제 정부지원여부는 대학자체 실시의 경우 0, 정부지원의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더미변인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반면에 대학 설립 유형과 소재지는 대학 유형별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인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II-4>와 같다.

<표 II-4> 분석 사용 변인

	변인명	변인설명
관심변인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_부모	부모 지원 계획 (학부모 6차년도 3-1번)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_학생	학생 지원 계획 (학생 6차년도 27번)
	입학사정관제 합격여부	대학생 7차년도 3번
학생배경	부모학력	공통 7차년도 34번
	가구소득	공통 7차년도 36번
	고등학교 평균 내신	공통 7차년도 12번

8) 수업 참여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811$ 이었다.

	변인명	변인설명
학생과정	학생회 참여여부	학생 6차년도 3번
	봉사활동 시간	교사 6차년도 13번
	부모학업지원_부모	학부모 6차년도 8번 문항 평균 (7,8번 제외)
	부모학업지원_학생	학생 6차년도 14번 문항 평균 (7,8번 제외)
	진학활동	대학주체, 사설기관, 입시컨설팅 참여여부의 합
	주요 교과 사교육참여	국영수 사교육참여 (학부모 6차년도 9-1번)
	논술 사교육참여	학부모 6차년도 9-1번
	시민의식 (참여 의식)	학생 6차년도 18번 9-12번 평균
	학업 자기개념	학생 6차년도 17번 16-20번 평균
	사회 자기개념	학생 6차년도 17번 1-5번 평균
	자기 주도성	교사 6차년도 11번 평균 (2번 역코딩)
대학생활 (종속변인)	대학 학업성취도	대학생 7차 16번, 100점 환산 점수
	자발적 학습활동	대학생 7차 9번 평균
	수업 참여도	대학생 7차 14번 평균
	대학 프로그램참여	대학생 7차 13번 5-10 합
	자치활동 참여	대학생 7차 13번 14-16 합
학교배경 (고등학교)	학교소재지	특별광역시:1 그 외:0
		시:1 그 외:0
		읍면특수지역:1 그 외:0
	고교계열	특목고:1 그 외:0
		일반고:1 그 외:0
		전문고:1 그 외:0
통제변인	전공 계열	인문사회:1 그 외:0
		자연:1 그 외:0
		공학:1 그 외:0
	대학설립 유형	국공립:1, 사립:0
대학 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각 연구문제별로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5>, <표 II-6> <표 II-7>과 같다. <표 II-5>는 6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표 II-5〉 대학 지원 계획 학생의 기술 통계량(연구문제 1)

변인명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남=1)	3,233	.51	.50	.00	1.00
부모학력	3,131	13.78	2.40	10.50	21.00
가구소득	3,216	402.49	222.51	100	1100
고교계열(특목고=1)	3,949	.03	.16	.00	1.00
고교계열(전문고=1)	3,949	.13	.33	.00	1.00
고교소재지(특별광역시=1)	3,949	.39	.49	.00	1.00
고교소재지(중소도시=1)	3,949	.38	.49	.00	1.00
학부모의 학업지원 (학부모 응답)	3,925	3.33	.60	1.00	5.00
학부모의 학업지원 (학생 응답)	3,957	3.00	.70	1.00	5.00
학부모의 진학활동	3,633	.95	1.07	.00	3.00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1)	3,939	.51	.50	.00	1.00
논술 사교육 (참여=1)	3,939	.06	.25	.00	1.00
고교내신(1~9등급)*	3,232	3.74	1.43	1.00	9.00
시민의식	3,956	3.66	.63	1.00	5.00
봉사활동시간	3,721	57.89	33.25	.00	200
학업자기개념	3,962	3.10	.72	1.00	5.00
사회자기개념	3,962	3.94	.63	1.00	5.00
자기주도성	3,779	3.54	.68	1.00	5.00
학생회 참여 (참여=1)	3,964	.46	.50	.00	1.00

* 고교내신은 가장 우수한 1등급에 1, 가장 우수하지 않은 9등급에 9의 값을 부여하였음.
즉, 고교내신이 1에 가까울수록 성적이 좋은 학생임(이하 동일)

이어서 2011년 국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면, 아래 〈표 II-6〉과 같다. 이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구분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량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전형이나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가정배경(부모학력, 가구소득 등)이 불리했으며, 학업성취수준(고교 내신성적)이 떨어졌다. 또한 전문고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6) 대학 신입생의 기술통계량(연구문제 1, 2011학년도 국내 4년제대)

변인	일반전형/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성별(남=1)	1,651	.49	.49	.00	1.00	458	.55	.50	.00	1.00
부모학력	1,611	14.03	2.45	10.50	21.00	458	12.77	1.91	10.50	21.00
가구소득	1,644	415.21	218.64	100	1100	457	331.51	207.88	100	1100
고교계열 (특목고=1)	1,634	.03	.18	.00	1.00	449	.00	.05	.00	1.00
고교계열 (전문고=1)	1,634	.08	.27	.00	1.00	449	.58	.49	.00	1.00
고교소재지 (특별광역시=1)	1,634	.41	.49	.00	1.00	449	.32	.47	.00	1.00
고교소재지 (중소도시=1)	1,634	.37	.48	.00	1.00	449	.37	.48	.00	1.00
학부모의 학업지원 (학부모응답)	1,511	3.38	.58	1.00	5.00	390	3.17	.60	1.00	5.00
학부모의 학업지원 (학생응답)	1,501	3.03	.67	1.00	5.00	392	2.89	.66	1.00	5.00
학부모의 진학활동	1,391	.95	1.04	.00	3.00	366	.76	1.07	.00	3.00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1)	1,517	.56	.50	.00	1.00	393	.25	.43	.00	1.00
논술 사교육 (참여=1)	1,517	.08	.27	.00	1.00	393	.01	.10	.00	1.00
고교내신 (1~9등급)	1,648	3.43	1.40	1.00	9.00	458	3.62	1.50	1.00	9.00
시민의식	1,499	3.70	.62	1.00	5.00	389	3.56	.69	1.00	5.00
봉사활동시간	1,443	61.94	34.54	4.00	200	372	57.44	36.18	.00	200
학업자기개념	1,501	3.17	.70	1.00	5.00	391	3.06	.71	1.00	5.00
사회자기개념	1,502	3.91	.62	2.00	5.00	392	3.88	.67	1.00	5.00
자기주도성	1,464	3.72	.65	2.00	5.00	376	3.49	.66	2.00	5.00
학생회참여	1,504	.50	.50	.00	1.00	393	.50	.50	.00	1.00

연구문제 2와 3에 대한 분석에 사용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II-7>과 같다. 연구문제별로 분석 변인과 결측으로 인해 사례수가 상이하여 분석은 각각 실시하였다. 다만 비교를 위해 결과는 함께 제시하였다.

<표 II-7> 입학사정관제 실시대학 입학생의 기술통계량(연구문제 2와 3)

변인	연구문제 2 (82개교, 1,224명)				연구문제 3 (82개교, 1,443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고교 내신성적(1~9등급)	3.36	1.43	1.00	9.00				
학부모의 교육지원	3.03	.68	1.00	5.00				
봉사활동시간(10시간)	6.25	3.54	.40	20.00				
자기주도성	3.73	.65	1.75	5.00				
학생회 임원 여부	.50	.50	.00	1.00				
주요교과 사교육 여부	.54	.50	.00	1.00				
논술 사교육 여부(참여=1)	.08	.28	.00	1.00				
학점(100점 만점)					83.00	6.32	60.00	100.00
대학에서의 교육활동					3.07	.53	1.22	4.89
수업 참여도					3.29	.62	1.00	5.00
비정규활동 참여정도					1.35	1.41	.00	6.00
기타활동 참여정도					2.43	.98	.00	4.00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 (입학사정관제=1)	.15	.36	.00	1.00	.15	.36	.00	1.00
성별(남=1)	.50	.50	.00	1.00				
부모교육수준	13.98	2.46	9.00	21.00				
가구소득(100만원)	4.08	2.18	1.00	11.00				
고교계열(특목고=1)	.04	.19	.00	1.00				
고교계열(전문고=1)	.10	.31	.00	1.00				
고교소재지(특별/광역시=1)	.38	.49	.00	1.00				
고교소재지(중소도시=1)	.39	.49	.00	1.00				
대학전공(인문사회=1)					.43	.50	.00	1.00
대학전공(자연과학=1)					.19	.40	.00	1.00
대학전공(공학=1)					.28	.45	.00	1.00
대학설립 유형(국공립=1)	.22	.42	.00	1.00	.24	.43	.00	1.00
대학소재지(수도권=1)	.37	.48	.00	1.00	.38	.49	.00	1.00

*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은 동일한 대상(입학사정관제 실시대학 82개교의 입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하나, 분석 변인의 결측으로 인해 사례수가 상이함.

다. 분석 모형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는 학생과 다른 학생들 사이에 배경, 가정의 교육적 지원, 학교생활, 그리고 학생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입학사정관제 지원하는 학생은 6차년도 학생 설문을 참고하여 학생의 응답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학력, 가구소득, 고등학교 평균 내신 등의 학생 배경과 부모 학업지원여부, 시민의식, 고등학교 봉사활동 시간, 자기개념(학업 자기개념, 사회 자기개념), 자기주도성, 부모의 진학활동 등을 비교하였다. 성별, 주교과목 사교육여부, 논술 사교육 여부, 학생회 참여여부, 지역 규모(특별광역시, 시, 읍면특수지역), 고교 계열은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 연구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을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생 응답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학부모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도 참고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대학입학 전형은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누어지며, 다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별전형 안에서도 정원 내에서 선발되었는지, 정원 외에서 선발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선발하려는 학생의 특성이 다른 전형과 구분되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분리하고자 한다. 먼저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제외한 국내 4년제 대학생 신입생 1650명 중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학생배경과 가정의 교육적 지원, 학교생활, 학생의 가치관,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성별, 주교과목 사교육여부, 논술 사교육 여부, 학생회 참여여부, 지역 규모(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 고교 계열(일반고, 특목고, 전문고)은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458명의 학생들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의 특성을 확인해보았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배경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실제로 사교육에 적게 참여했는지, 다양한 교과 외 활동에 참여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 경우 학생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별로 선발의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뿐만 아니라 수도권/비 수도권 대학, 국공립/사립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자료는 학생들이 대학에 배속되어 있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을 1수준, 대학을 2수준에 두고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를 핵심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층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여부에 따른 성과변인의 차이가 대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제 선발여부에 따른 차이의 대학별 무선효과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성과변인으로는 고등학교에서의 인지적 성취와 비교과 활동(봉사활동, 학생회), 부모의 학업적 지원, 교과 및 논술 사교육 등이 포함되었고, 통제변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배경, 거주지역등이 사용되었다. 기본모형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여부만을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최종모형에서는 학생의 배경과 관련한 변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최종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수준)

연속형 종속변인: 고교내신, 부모의 학업지원, 봉사활동, 자기주도성

$$Y_{ij} = \beta_{0j} + \beta_{1j}X_{ij} + \beta_{2j}C1_{ij} + \dots + \beta_{6j}C5_{ij} + r_{ij}, r_{ij} \sim N(0, \sigma^2) \quad (\text{식 1-1})$$

범주형 종속변인: 학생회임원, 주요교과 사교육 및 논술사교육 여부

$$\log\left(\frac{p(y_{ij} = 1)}{1 - p(y_{ij} = 1)}\right) = \beta_{0j} + \beta_{1j}X_{ij} + \beta_{2j}C1_{ij} + \dots + \beta_{6j}C5_{ij} \quad (\text{식 1-2})$$

Y_{ij} : 고교생활과 관련된 성과변수

X_{ij} : 입학사정관제 선발여부 (입학사정관제=1, 기존 전형방법=0)

$C1_{ij} \sim C5_{ij}$: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계열 및 지역규모

(학교수준)

$$\begin{aligned} \beta_{0j} &= \gamma_{00} + u_{0j}, \\ \beta_{1j} &= \gamma_{10} + u_{1j}, \\ \beta_{qj} &= \gamma_{q0}, q = 2 \dots 6. \end{aligned} \quad \begin{pmatrix} u_{0j} \\ u_{1j} \end{pmatrix} \sim N \begin{p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pmatrix} \quad (\text{식 1-3})$$

세 번째 연구문제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활과 관련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학생의 전공계열이나 대학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다

층모형을 적용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대학생활 관련 성과를 종속변인으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를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여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대학생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입학사정관제의 효과는 대학별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증하였고, 최종모형에서는 전공계열을 통제한 이후에도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고자 학생수준에서 예체능계열을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등 3개의 더미변인을 사용하였다. 대학의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학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적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1j}X_{ij} + \beta_{2j}LIB_{ij} + \beta_{3j}SCI_{ij} + \beta_{4j}ENG_{ij} + r_{ij}, r_{ij} \sim N(0, \sigma^2) \quad (\text{식 2-1})$$

Y_{ij} 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성과변수

X_{ij} 는 입학사정관제 선발여부 (입학사정관제=1, 기존 전형방법=0)

LIB_{ij} 는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1, 기타계열=0)

SCI_{ij} 는 전공계열(자연계열) (자연계열=1, 기타계열=0)

ENG_{ij} 는 전공계열(공학계열) (공학계열=1, 기타계열=0)

(학교수준)

$$\begin{aligned} \beta_{0j} &= \gamma_{00} + u_{0j}, \\ \beta_{1j} &= \gamma_{10} + u_{1j}, \\ \beta_{qj} &= \gamma_{q0}, q = 2 \dots 4. \end{aligned} \quad \begin{pmatrix} u_{0j} \\ u_{1j} \end{pmatrix} \sim N \begin{p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pmatrix} \quad (\text{식 2-2})$$

4. 연구 결과

가. 입학사정관제는 어떤 학생이 지원하고, 선발되는가?

먼저 <표 II-8>은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특성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이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 중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고 이들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다만 입학사정관전형의 지원 의사는 학부모와 학생 응답 중 학생의 것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다.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에 따라 부모 학력이나 가구 소득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고교 내신 성적은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할 계획을 갖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0.38등급 정도 높았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부모의 학업지원수준(학생응답)이 0.07, 시민의식이 0.14 높았으며, 봉사활동시간도 평균적으로 10.33시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자기개념과 사회 자기개념, 자기 주도성과 같은 심리요인도 입학사정관제로 지원할 예정인 학생들이 더 우수했다.

교차분석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생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도 주요 교과인지 논술인지 상관없이 모두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할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교 계열별로는 전문고 학생들이 지원 계획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원 의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II-8>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에 따른 차이 분석 (학생 응답 기준)

	지원 계획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p
부모학력	있음	554	13.80	2.38	.01	.10	.92
	없음	2,502	13.78	2.39			
가구소득	있음	577	389.43	223.40	-15.53	-1.51	.13
	없음	2,561	404.96	223.00			

	지원 계획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t	p
고교내신	있음	580	3.42	1.56	-0.38	-5.77	.00
	없음	2,575	3.80	1.39			
부모 학업지원 (학부모응답)	있음	731	3.36	.62	.03	1.08	.28
	없음	3,102	3.33	.60			
부모 학업지원 (학생응답)	있음	740	3.05	.71	.07	2.45	.01
	없음	3,124	2.98	.69			
시민의식	있음	741	3.78	.66	.14	5.62	.00
	없음	3,124	3.63	.62			
봉사활동	있음	689	66.22	40.91	10.33	7.44	.00
	없음	2,942	55.89	30.60			
학업 자기개념	있음	741	3.23	.74	.16	5.33	.00
	없음	3,127	3.07	.72			
사회 자기개념	있음	741	4.00	.64	.08	3.28	.00
	없음	3,127	3.92	.63			
자기주도성 (교사평가)	있음	698	3.66	.73	.13	4.57	.00
	없음	2,989	3.52	.67			
진학활동	있음	676	1.04	1.11	.12	2.57	.01
	없음	2,873	.93	1.06			
		입사제(%)	기존전형	전체	×2	df	p
성별	남자	323 (20.26)	1,271	1,594	7.59	1	.01
	여자	257 (16.46)	1,304	1,561			
학생회 참여여부	참여	437 (24.30)	1,361	1,798	57.07	1	.00
	미참여	305 (14.72)	1,767	2,072			
주요 교과 사교육	참여	322 (16.33)	1,650	1,972	20.27	1	.00
	미참여	413 (22.04)	1,461	1,874			
논술 사교육	참여	59 (23.89)	188	247	3.90	1	.05
	미참여	676 (18.78)	2,923	3,599			
지역규모	특별/광역시	270 (17.94)	1,235	1,505	3.571	2	.17
	중소도시	288 (19.43)	1,194	1,482			
	읍면지역	183 (21.08)	685	868			
고교계열	일반고	579 (17.68)	2,696	3,275	37.94	2	.00
	특목고	20 (20.20)	79	99			
	전문고	142 (29.52)	339	481			

다음으로 <표 II-9>는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기존 전형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우선 일반전형 혹은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II-9>의 왼쪽 단이며,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II-9>의 오른쪽 단이다.

우선 부모학력이나 가구소득은 정원 내/외 공히 입학사정관제 입학자와 그 외 입학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고교내신은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43등급과 .61 등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업지원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학생이 인식하기에는 정원 내 입학자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자가 .13점정도 높았다. 시민의식은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이 .22와 .26 높았으며, 봉사활동은 10.01시간과 11.85시간 더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내 입학자의 경우에만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21 정도 학업자기 개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교 담임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22와 .23 정도 자기주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 사교육 참여여부, 지역규모, 고교 계열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원 내/외 공히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이 6.4%와 11.3% 정도 학생회에 참여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표 II-9>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변인	전형방법	일반전형/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p)
부모학력	입사제	165	13.96	2.39	-.38 (.70)	86	12.77	1.77	.04 (.97)
	기존전형	1,446	14.04	2.46		353	12.76	1.95	
가구소득	입사제	169	417.16	224.14	.13 (.90)	89	340.45	227.99	.45 (.65)
	기존전형	1,475	414.93	218.14		368	329.35	203.00	
고교내신	입사제	170	3.04	1.67	-3.79 (.00)	89	3.13	1.58	-3.45 (.00)
	기존전형	1,481	3.47	1.37		369	3.74	1.46	
부모 학업지원 (학부모응답)	입사제	147	3.40	.61	.39 (.70)	81	3.13	.59	-0.81 (.42)
	기존전형	1,365	3.38	.58		309	3.19	.60	
부모 학업지원 (학생응답)	입사제	148	3.15	.67	2.22 (.03)	82	2.90	.65	.21 (.83)
	기존전형	1,354	3.02	.67		310	2.88	.66	

변인	전형방법	일반전형/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시민의식	입사제	149	3.89	.58	4.06 (.00)	81	3.77	.66	3.05 (.00)
	기존전형	1,351	3.67	.62		308	3.51	.68	
봉사활동	입사제	143	70.96	41.83	3.30 (.00)	73	66.96	38.83	2.53 (.01)
	기존전형	1,300	60.95	33.52		299	55.11	35.18	
학업 자기개념	입사제	148	3.36	.71	3.43 (.00)	81	3.16	.74	1.47 (.14)
	기존전형	1,354	3.15	.70		310	3.03	.69	
사회 자기개념	입사제	149	3.92	.60	.18 (.86)	82	3.96	.66	1.22 (.22)
	기존전형	1,354	3.91	.62		310	3.86	.67	
자기주도성 (교사응답)	입사제	143	3.92	.66	3.90 (.00)	76	3.67	.69	2.65 (.01)
	기존전형	1,322	3.70	.64		300	3.44	.65	
진학활동	입사제	134	1.01	1.07	.68 (.50)	73	.84	1.13	.66 (.51)
	기존전형	1,257	.94	1.04		293	.74	1.05	
		입사제 (%)		기존 전형	χ ² (p)	입사제 (%)		기존 전형	χ ² (p)
성별	남자	78	(9.65)	730	0.71 (.40)	55	(28.06)	196	2.18 (.14)
	여자	92	(10.91)	751		34	(19.65)	173	
학생회 참여여부	있음	99	(13.11)	656	17.53 (.00)	52	(26.53)	144	7.60 (.01)
	없음	50	(6.67)	700		30	(15.23)	167	
주요 교과 사교육	참여	76	(8.91)	777	1.36 (.24)	20	(20.20)	79	.01 (.91)
	미참여	71	(10.69)	593		61	(20.75)	233	
논술 사교육	입사제	17	(13.82)	106	2.61 (.11)	2	(50.00)	2	2.13 (.14)
	기존전형	130	(9.33)	1,264		79	(20.31)	310	
지역규모	특별/광역시	69	(10.18)	609	.06 (.97)	29	(20.42)	113	2.78 (.25)
	중소도시	62	(10.20)	546		38	(23.03)	127	
	읍면지역	37	(10.63)	311		22	(15.49)	120	
고교계열	일반고	142	(9.81)	1,305	4.96 (.08)	45	(23.81)	144	3.45 (.18)
	특목고	5	(9.09)	50		-	(.00)	1	
	전문고	21	(15.91)	111		44	(16.99)	215	

입학사정관제 지원의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지원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대학의 선발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원의도에 따른 차이와 선발결과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지원의도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가정의 소득이나 부모의 학력과 같은 귀속요인 및 거주지역의 분포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학기준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였다. 내신의 경우 등급이 높은 학생이 지원의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선발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내신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부모의 학업지원, 시민의식, 봉사활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지원의사를 가진 학생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정원 내 전형의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에게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정원의 전형의 경우 입학사정관-기존전형 간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이는 사례수의 제한으로 인해 분석의 민감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결과는 단변인 비교의 결과이므로 이후 제시되는 통제모형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입학사정관제는 중등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의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표 II-10〉, 〈표 II-11〉에 대학 유형(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별로 학생들의 고교생활에 대한 주요 성과변인의 기술통계치가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기존 전형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고교 내신성적이 높고, 더 많은 봉사활동 시간을 보이며, 주요 교과 사교육 참여경험이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비수도권 및 국공립/사립에서 그 차이가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부모의 학업지원의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서 기존전형 선발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보다 정교한 고교활동 관련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분석을 위해 〈표 II-12〉 ~ 〈표 II-14〉에서 학생의 배경 관련 변인들을 통제된 이후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기존전형 입학생의 고교활동을 비교하였다.

〈표 II-10〉 수도권대학 여부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기존전형 고교활동 비교

	수도권대학 (입사제 18.6%)				비수도권대학 (입사제 13.9%)			
	입사제		기존전형		입사제		기존전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고교내신	2.19	1.31	2.78	1.26	3.49	1.57	3.72	1.32
학업지원	3.48	0.60	3.51	0.60	3.22	0.60	3.30	0.56
봉사활동	7.70	4.02	6.90	3.76	6.62	4.20	5.69	3.12
자기주도성	4.20	0.62	3.97	0.56	3.68	0.58	3.57	0.65
주요교과사교육	0.60	0.49	0.70	0.46	0.38	0.49	0.49	0.50
논술사교육	0.20	0.40	0.20	0.40	0.03	0.16	0.03	0.16

〈표 II-11〉 대학설립 유형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기존전형 고교활동 비교

	국공립대 (입사제 15.9%)				사립대 (입사제 15.3%)			
	입사제		기존전형		입사제		기존전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고교내신	2.37	1.38	3.03	1.27	3.20	1.62	3.57	1.38
학업지원	3.22	0.66	3.34	0.59	3.38	0.59	3.38	0.58
봉사활동	8.52	4.57	6.02	3.05	6.47	3.83	6.06	3.48
자기주도성	4.01	0.63	3.84	0.60	3.84	0.65	3.64	0.66
주요교과사교육	0.36	0.48	0.51	0.50	0.52	0.50	0.57	0.50
논술사교육	0.07	0.25	0.04	0.19	0.11	0.31	0.09	0.29

〈표 II-12〉 ~ 〈표 II-14〉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이 기존전형을 통한 입학생과 비교하여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및 다양한 활동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통제모형 분석에서는 학생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계열 및 지역규모를 통제하고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차이를 (식 1-1)~(식1-3)에 제시된 다층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전체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교 내신성적은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정배경을 통제한 이후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입학유형에 따른 내신의 차이는 대학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입학사정관제-기존전형 간 고교내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고교내신이 기존전형보다 0.25등급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부모의 학업지원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기존전형 입학생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비수도권대학 및 사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기존전형 입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참조).

〈표 II-12〉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고교내신과 학업지원 차이

		고교 내신성적		학부모의 학업지원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전체대학 (n=82)	입학사정관제효과	-.19(.10) *	-.08(.09)	.04(.06)	.07(.05)
	학생간 분산	1.33	1.26	.44	.40 *
	대학간 분산	.65 ***	.79 ***	.14 ***	.09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13 ***	.10 *	-	-
수도권 대학 (n=30)	입학사정관제효과	-.39(.17) *	-.27(.17)	-.06(.08)	-.05(.07)
	학생간 분산	1.30	1.20	.47	.44
	대학간 분산	.27 ***	.37 ***	.01 *	.00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28 **	.14 *		
비수도권 대학 (n=52)	입학사정관제효과	-.11(.11) ***	-.03(.11)	.09(.07)	.13(.06) *
	학생간 분산	1.35	1.30	.64	.38
	대학간 분산	.63 ***	.71 ***	.04	.00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	-		
국공립대 (n=18)	입학사정관제효과	-.36(.14) **	-.25(.15) **	-.14(.09)	-.04(.07)
	학생간 분산	1.25	1.12	.68	.41
	대학간 분산	.63 ***	.78 ***	.01 †	.00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	-		
사립대 (n=64)	입학사정관제효과	-.15(.12)	-.05(.12)	.11(.06) †	.13(.06) *
	학생간 분산	1.35	1.30		.40
	대학간 분산	.60 ***	.72 ***		.01 ***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22 **	.14 *		-

† p<.10, *p<.05, **p<.01, ***p<.001

봉사활동의 경우 가정배경 및 지역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이 기존전형 입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이 더 많았고,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이 기존전형 입학생보다 약 24시간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대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주도성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자기주도성이 기존전형 입학생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학 유형별로는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자기주도성이 기존전형에 비해 높았으며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표 13 참조).

〈표 II-13〉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봉사활동과 자기주도성 차이

		봉사활동				자기주도성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전체대학 (n=82)	입학사정관제효과	.77(.33)	*	.81(.32)	*	.12(.04)	**	.11(.04)	*
	학생간 분산	11.37		11.41		.33		.33	
	대학간 분산	.65	***	.39	*	.10	***	.09	***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2.22	**	1.95	*	-		-	
수도권 대학 (n=30)	입학사정관제효과	.73(.44)	†	.86(.42)	*	.19(.07)	**	.86(.42)	*
	학생간 분산	14.1		14.1		.29		14.1	
	대학간 분산	.47	†	.32		.03	***	.32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		-		-		-	
비수도권 대학 (n=52)	입학사정관제효과	.65(.46)		.63(.29)	***	.06(.05)		.05(.05)	
	학생간 분산	10.05		9.95		.35		.35	
	대학간 분산	.23	†	.17		.06	***	.06	***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4.12	**	4.01	**	-		-	
국공립대 (n=18)	입학사정관제효과	2.44(.40)	***	2.37(.40)	***	.12(.09)		.11(.08)	***
	학생간 분산	10.84		10.57		.33		.32	
	대학간 분산	.32	*	.18		.04	***	.04	***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		-		-		-	
사립대 (n=64)	입학사정관제효과	.27(.36)		.38(.35)		.12(.05)	*	.11(.05)	*
	학생간 분산	11.62		11.85		.33		.33	
	대학간 분산	.74	***	.39	*	.10	***	.10	***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1.44	†	-		-		-	

† p<.10, *p<.05, **p<.01, ***p<.001

학생회임원, 주요교과 및 논술 사교육의 경우 경험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한 다층로짓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경험의 로짓이 기존전형 입학생의 약 2.3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입학사정관제의 승산비는 2.17~2.76 정도로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학생회 임원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중을 두고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은 학생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 경향이 나타나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감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 유형별 분석 결과는 유형별로 이러한 경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대학 및 비수도권대학, 국공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사교육 경감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사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기존전형 입학생의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확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술사교육의 경우 어느 유형의 대학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주요교과 사교육과 달리 자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많지 않고, 응답자가 주로(수리논술이 아닌) 문과계열의 논술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응답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표 14 참조).

〈표 II-14〉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학생회참여 및 사교육 차이

		학생회참여		주요교과 사교육		논술사교육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전체 대학 (n=82)	입사제효과	.77(.16) ***	.82(.16) ***	-.42(.14) **	-.28(.15) †	-.09(.31)	.10(.29)
	odds-ratio	2.16	2.25	.66	.76	.92	1.10
	대학간 분산	.20 ***	.15 **	.16 *	.08 †	1.48 ***	1.10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
수도권 대학 (n=30)	입사제효과	.80(.27) **	.84(.29) **	-.48 *	-.46(.23) *	-.11(.32)	-.01(.37)
	odds-ratio	2.23	2.31	.62	.62	.90	.99
	대학간 분산	.10	.10	.00	.00	.31 **	.25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
비 수도권 대학 (n=52)	입사제효과	.72(.20) **	.78(.19) ***	-.45(.19) *	-.29(.20)	-.03(.80)	.20(.79)
	odds-ratio	2.03	2.17	.64	.75	.97	1.22
	대학간 분산	.12 *	.10 *	.11 *	.01	.56 *	.87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

		학생회참여		주요교과 사교육		논술사교육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국 공립대 (n=18)	입사제효과	1.00(.27) ***	1.02(.26) ***	-.80(.25) **	-.47(.28) †	.13(.82)	.30(.80)
	odds-ratio	2.72	2.76	.45	.63	1.14	1.34
	대학간 분산	.27 †	.05	.23 **	.02	1.80. **	2.08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
사립대 (n=64)	입사제효과	.70(.19) **	.78(.19) ***	-.26(.17)	-.18(.18)	-.13(.32)	.04(.36)
	odds-ratio	2.01	2.19	.77	.83	.88	1.04
	대학간 분산	.23 ***	.15 **	.22 ***	.09 †	1.32 ***	.98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

† p<.10, *p<.05, **p<.01, ***p<.001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배경 및 지역을 통제한 이후에 대학들은 대체로 입학사정관제의 정책 의도를 반영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유형별로는 어느 정도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대학 및 국공립대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낮고 봉사활동 및 리더십이 강하며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들이 선발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 및 사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차별성이 있더라도 국공립대 및 수도권대학에 비해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가족으로부터의 학업지원 수준이 기존전형 입학생보다 더 높고, 사교육 참여율과 봉사활동 시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학업관리 및 대학입학 관련 정보제공 등이 입학사정관제 합격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생활을 더 잘 하는가?

〈표 II-15〉, 〈표 II-16〉에 대학 유형 (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별로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주요 성과변인의 기술통계치가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기존 전형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자발적 학습활동 및 수업 참여도에서 모든 대학 유형에서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기존전형 입학생보다 학점이 높고 자치활동 참여가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대학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국공립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는 등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

여정도,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참여 및 대학학점 등에서는 대학 유형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기존전형 입학생이 차이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고교활동 관련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분석을 위해 <표 II-17> 및 <표 II-18>에서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통제한 이후 입학사정관제 입학생과 기존전형 입학생의 대학활동을 비교하였다.

<표 II-15> 수도권대학 여부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기존전형 대학활동 비교

	수도권대학 (입사제 18.6%)				비수도권대학 (입사제 13.9%)			
	입사제		기존전형		입사제		기존전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발적학습활동	3.25	0.50	3.15	0.51	3.16	0.53	3.00	0.53
수업 참여도	3.49	0.68	3.36	0.59	3.37	0.68	3.22	0.62
대학프로그램참여	1.20	1.42	1.09	1.33	1.72	1.58	1.44	1.39
자치활동참여	2.40	1.00	2.43	0.88	2.47	1.08	2.42	1.00
대학학점	84.23	6.37	83.66	6.05	82.03	6.33	83.30	6.49

<표 II-16> 대학설립 유형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기존전형 대학활동 비교

	국공립대 (입사제 15.9%)				사립대 (입사제 15.3%)			
	입사제		기존전형		입사제		기존전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발적학습활동	3.11	0.45	3.05	0.55	3.23	0.54	3.05	0.52
수업 참여도	3.31	0.63	3.25	0.66	3.46	0.70	3.27	0.60
대학프로그램참여	1.26	1.33	1.28	1.32	1.61	1.60	1.35	1.40
자치활동참여	2.32	1.05	2.41	0.91	2.49	1.04	2.43	0.98
대학학점	82.38	6.18	83.14	6.45	83.12	6.52	83.51	6.32

<표 II-17>, <표 II-18>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이 기존전형을 통한 입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을 비롯한 다양한 대학생활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통제모형 분석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통제하고 입학사정관제 입학여부에 따른 차이를 식(2-1) ~ 식(2-1)에 제시된 다중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은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82개 대학 전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비수도권, 국공립대, 사립대로 하위집단을 나누어서도 수행되었다. 대학학점의 경우 각 대학의 학점체계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했다.

통제모형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기존전형에 비해 1.24점 정도 낮았던 것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의 결과이고, 대부분 전공학점 보다는 교양과목의 학점으로, 학생들의 노력에 의한 차별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개별 대학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의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대학교육협의회, 2012), 추후 장기적인 학점자료 축적을 통해 학업성취의 변화양상을 정밀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기존전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기존전형 간 수업 참여도의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활동의 경우도 수업참여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활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17 참조)

〈표 II-17〉 대학학점, 수업참여 및 자발적 학습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효과

		대학학점 (1학년1학기)		수업참여		자발적 학습활동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전체대학 (n=82)	입사제효과	-.41(.47)	-.45(.47)	.15(.05) **	.15(.05) **	.14(.04) ***	.15(.04) ***
	학생간 분산	38.30	37.89	.38	.38	.27	.27
	대학간 분산	1.63 ***	1.72 ***	.01 *	.01 **	.01 **	.01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
수도권 대학 (n=30)	입사제효과	.65(.81)	.74(.82)	.13(.07) †	.14(.07) *	.10(.06) †	.11(.06) †
	학생간 분산	34.95	33.82	.37	.40	.26	.26
	대학간 분산	1.79 *	1.94 **	.00	.00	.00	.00
	입사제 효과 분산	4.70 *	3.80 †	-	-	-	.01 †
비수도권 대학 (n=52)	입사제효과	-1.18(.53) *	-1.24(.52) *	.14(.06) *	.14(.06) *	.16(.04) **	.16(.04) ***
	학생간 분산	39.48	39.15	.39	.39	.27	.27
	대학간 분산	1.63 **	1.75 **	.00	.00	.00 *	.00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
국공립대 (n=18)	입사제효과	-.73(.76)	.89(.76)	.05(.08)	.05(.08)	.04(.05)	.04(.05)
	학생간 분산	38.95	38.07	.43	.43	.28	.28
	대학간 분산	1.39 *	1.50 *	.00	.00	.01 **	.01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
사립대 (n=64)	입사제효과	-.30(.59)	-.30(.58)	.18(.05) **	.18(.05) **	.18(.04) ***	.18(.04) ***
	학생간 분산	38.10	37.86	.37	.37	.26	.26
	대학간 분산	1.74 ***	1.82	.01 †	.01 †	.01 *	.01 **
	입사제 효과 분산	-	-	-	-	-	.01 †

† p<.10, *p<.05, **p<.01, ***p<.001

대학이 제공하는 리더십, 취업, 현장실습 등의 경우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참여도가 기존전형 입학생에 비해 더 높은 편이었다. 대학 유형별로는 비수도권 대학과 사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참여도가 기존전형에 비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부담이 덜한 수도권의 위세 높은 대학보다 사립 및 비수도권 대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이나 현장실습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 보다 분명한 경향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회,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어느 유형의 대학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표 II-18 참조)

〈표 II-18〉 대학 프로그램 및 자치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입학사정관제 효과

		대학 프로그램 참여		자치활동 참여	
		기본모형	통제모형	기본모형	통제모형
전체대학 (n=82)	입학사정관제효과	.29(.10) **	.29(.10) **	.02(.07)	.02(.07)
	학생간 분산	1.73	1.74	.93	.93
	대학간 분산	.26 ***	.26 ***	.02 *	.02 *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	-	-	-
수도권 대학 (n=30)	입학사정관제효과	.17(.14)	.19(.13)	-.04(.12)	-.04(.12)
	학생간 분산	1.66	1.65	.78	.77
	대학간 분산	.17 ***	.16 ***	.03 *	.04 **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	-	.10 *	.12 *
비수도권 대학 (n=52)	입학사정관제효과	.37(1.77) ***	.37(.13) **	.05(.08) ***	.05(.08)
	학생간 분산	1.77	1.77	1.00	1.02
	대학간 분산	.25 ***	.25 ***	.02 †	.02 †
	입학사정관제효과분산	-	-	-	-
국공립대 (n=18)	입학사정관제효과	.18(.15)	.18(.15)	-.08(.14)	-.07(.14)
	학생간 분산	1.52	1.53	.88	.88
	대학간 분산	.25 ***	.25 ***	.00	.00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	-	-	-
사립대 (n=64)	입학사정관제효과	.33(.12) **	.34(.12) **	.05(.07)	.06(.07)
	학생간 분산	1.81	1.81	.95	.97
	대학간 분산	.26 ***	.26 ***	.03 **	.18 **
	입학사정관제효과 분산	-	-	-	-

† p<.10, *p<.05, **p<.01, ***p<.001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배경 및 지역을 통제한 이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은 대체로 기존전형 합격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대학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분석과는 달리 대학생활에서는 사립대 및 비수도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의도하는 바 공교육 정상화, 다양한 활동 및 리더십 등의 입학사정관제 선발원칙이 보다 분명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 국공립대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입학 전 교육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프로그램의 국공립대-사립대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입학사정관제의 효과가 일반학생들에게까지 전이되는 효과(carry over effect)가 국공립대에서 강하게 나타났다면 이것이 국공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후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논의

가.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성과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공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도입과 확대와 최근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맞물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촉발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배경과 도입목적에 따른 성과 분석, 입학사정관제가 촉발한 사회적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한국교육중단연구의 7차년도 자료로서 대상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 취업, 입대 등으로 진로가 분화된 첫 해의 자료이다. 따라서 7년간의 종단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가 중등교육의 의도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 의도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중단연구의 4~7차 자료(고등학교~대학1학년)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대학의 특성화, 대학생활측면에서의 성과, 형평성, 사교육 영향력 감소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은 1) 대학진학의사가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원의사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비교, 2) 4년제 대학 진학자 중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자와 기존전형 선발자의 비교, 3)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입학사정관제 및 기존전형방식으로 합격한 학생의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대학별 특성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사립대에 비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내신성적, 봉사활동 시간이 더 높았으며, 주요 교과 사교육 참여 참여비율이 더 낮았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학부모의 학업지원이 입학사정관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더 커서 국공립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소재지 특성에 따른 차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의 학업지원이 그 외의 경로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더 높았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자기주도성이 입학사정관 학생의 경우 더 높았으며,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입학사정관제의 시행에서 나

타나는 대학별 차이는 입학사정관제가 부분적으로 대학별 선발의 특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학사정관제는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기존 방식의 입학생에 비해 고교 내신성적과 봉사활동시간, 시민의식, 학생회참여정도, 자기주도성 등이 더 높았고, 학생의 가정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봉사활동 시간, 자기주도성, 자치활동 정도가 더 높았으며, 주요교과 사교육 시간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성적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내신등급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지만 학생의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계열 및 지역규모 등을 통제한 이후 고교내신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그 외의 입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내신성적이 높아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주지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초점을 두어 전형을 개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의 정의적 특질 측면에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태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은 대학에서 수업 참여도가 높고, 자발적 학습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더 높았다. 이상의 특징은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학점에 있어서는 특징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는 1학기 교양학점에 국한된 결과이므로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학업지원은 비수도권대학과 사립대 입학사정관제 입학에서 일반전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황여정과 김경근(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득수준과 직업지위 등이 높은 학부모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이들 학부모 배경변인이 학업지원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학부모의 학업지원은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사교육의 영향력 감소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 전형 학생에 비해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에 비해 기존전형 학생들의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대의 경우 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의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두 전형 간 차이도 없었으며, 사립대의 경우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두 전형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 연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논술 사교육에서는 입학사정관제-기존전형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현저히 논술사교육 정도가 높았고,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논술사교육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과 대학설립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주지교과 사교육 완화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성과는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분석 결과만으로 향후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는 없다. 이는 현재 분석된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2009년 당시 약 7.0%만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 자료를 토대로 할 뿐만 아니라 정원 외 입학생을 포함한 자료이므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흔히 문제로 삼고 있는 교육 기회 형평성 측면에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보다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분석 자료는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대학생활에서도 학점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한편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기존의 대학입학전형이나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지적 성취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성취가 다른 전형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처럼 큰 노동력이 투입되는 전형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대학별 인재상과 이들의 향후 진로 등에 따라 성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입학사정관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재정적 노력을 고려할 때,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얻는 인재에 대한 기대와 이들을 교육시켜 얻을 결과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매년 예산을 크게 확대해왔으며, 2012년 현재 391억의 정부지원금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설계된 바와 같은 성과 평가와 함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한 고등학교의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대학입학사정관제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 학생의 부담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성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논의

본 연구는 크게 입학사정관제의 제도적 특성과 제도 속에서의 구성원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입학사정관제는 크게 보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일부로서,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대학 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을 개발하여 학생 선발의 특성화와 전문성을 개발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제도적 특성은 입학사정관제 선발과정 혹은 선발기준 등이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대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 속에서의 구성원 특성은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책적 배경이 되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고교 생활과 대학생활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제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세간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입학사정관제가 고등학교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기를 기대했다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기대했던 정책 효과에 달성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해 이런 선발 과정이 대학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던 것인지에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더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입학사정관제의 제도적 특성: 대학자율화

입학사정관제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학의 자율성 확대라는 기초에서 맞추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대학은 국가의 가장 큰 규제 조항 중 하나로서 선발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주장해왔으며, 2008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 때,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입학전형제도가 학교 자체의 지역적 특성, 교육적 독자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대학별 특성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성취정도, 학부모의 학업지원정도, 봉사활동, 자기주도성, 학생회임원활동, 사교육참여 등을 보았을 때, 국공립대의 경우 사립대에 비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 봉사활동 시간이 더 높았으며, 주요 교과 사교육 참여비율이 더 낮았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학부모의 학업지원이 입학사정관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더 커서 국공립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소재지 특성에 따른 차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의 학업지원이 그 외의 경로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더 높았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자기주도성이 입학사정관 학생의 경우 더 높았으며,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입학사정관제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대학별 차이는 입학사정관제가 부분적으로 대학별 선발의 특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될 수 있다. 즉, 분석 대상이 된 변수 중 선발에 고려되는 요소를 고려하면, 내신 성적과 봉사활동 시간이 국공립대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그 외의 전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전형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주도성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생의 주요 특성이었다.

2) 입학사정관제 입학생 특성

대학입학은 고등학교 생활의 종료이며 대학생생활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학이 가지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대학입학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고등학교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입학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입학 과정은 고등학교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정광희 외, 2005; 김미숙, 강영혜 외, 2006).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생생활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수학 적격자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하는 2008 대학입학전형은 크게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수학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의 의미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용되었던 용어는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내실화’, ‘좋은 교육(수업)’ 등이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정광희 등(2005: 24)는 고교-대학 연계의 관점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를 ‘교육부 고시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가 의도하는 교육활동을 대입 등에 의해 왜곡됨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교육부 고시에 나타난 고등학교 교육의 교육목표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하였다(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한편, 대학입학전형은 고등학교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성공적 학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대학수학 적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정광희 등(2005: 27-28)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2항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학의 선발 영역은 타고난 품성과 인간성,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력,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학업관련 능력 등으로 이에 따른 선발 준거는 교과영역 외 다양한 활동 내용, 특정 교과 또는 전공영역에서의 높은 성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등이 예가 된다(정광희 외, 2005: 28). 정광희 외(2005: 28)의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의 대학입학전형에서 주지 교과 중심의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비판 하에 2008 대입 개선안에서 대학 적격자의 의미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학 적격자는 ‘수능과 내신 전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공부벌레보다는 잠재력과 창의력 및 장인정신을 갖춘 학생’으로 ‘시험성적 우수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특기, 품성, 장인정신, 개성 등 지·덕·체를 조화롭게 겸비한 학생’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개념 정의는 나름의 구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방대하여,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질과 관련한 교과 영역 외 다양한 활동 내용으로 봉사활동, 자치활동(학생회 참여), 자기개념, 시민의식 등을, 적성과 관련하여 진학활동을, 능력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성과 학생의 내신성적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다른 입학생에 비해 고교 내신성적과 봉사활동시간, 시민의식, 학생회참여정도, 자기주도성 등이 더 높았고, 학생의 가정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봉사활동 시간, 자기주도성, 자치활동 정도가 더 높았으며, 주요교과 사교육 시간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공통적인 것은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양분 외, 2011). 내신성적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기술통계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내신등급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지만 학생의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계열 및 지역규모 등을 통제한 이후 고교내신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그 외의 입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내신성적이 높아 국공립대의 내신성적 영향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기존의 대학입학전형이 주지교과 중심의 선발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 하에 주지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수학적격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점에서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주지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초점을 두어 전형을 개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상의 성과가 대학생에서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입학사정관제 입학학생의 성취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 지표 역시 불분명하다.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유현숙 외, 2010; 2011),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대체로 수업과 관련된 학업성취 활동, 수업 외 자발적 학습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치 활동과 대학 제공 프로그램 참여 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특성은 학점, 수업 참여정도, 자발적 학습활동, 대학 프로그램 참여도, 학생 자치활동 참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은 수업 참여도가 높고, 자발적 학습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더 높았다. 이상의 특징은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학의 프로그램 제공 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자발적 학습활동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의 정의적 특질 측면에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태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점은 전반적으로 일반 전형 학생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오히려 학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학점은 1학년 1학기 교양교과 학점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전공과 관련된 학습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3) 입학사정관제와 형평성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교육기회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는 의도를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의 시도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객관적인 성취를 나타내는 시험 점수 이외의 학생의 다양한 소질이나 적성, 학생의 환경 변수를 고려하지는 취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열악한 환경의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도의 악용가능성이 염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학생의 가정배경변수가 대학입학에 미칠 가능성과 관련된 대학기회 획득에 대한 문제와 학생의 사교육 조장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시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보접근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입학 기회 제한 등에 대한 논란과 사교육 영향력 확대 등의 논란을 점검하였다.

(1) 교육기회 형평성

교육기회의 형평성은 대체로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교육기회 형평성 논란은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가정, 학교소재지, 사회적 배려대상 여부 등의 변수가 대학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되거나 이들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역시 부모 학력이나 가구소득, 부모의 학업지원, 고교소재 지역규모 등을 통제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이들 학생의 배경 변수가 학

생의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간 부모 학력, 가구 소득, 고교소재 지역규모 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사정관전형 입학 여부와 부모의 특성 변인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필남(2011)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읍면지역 학생일수록, 전문계고 학생일수록 입학사정관 전형으로의 입학의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이필남(2011)의 연구가 입학결과가 아닌 입학의도로 분석한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양분 등(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입학사정관제 지원 학생이 읍면지역 학생이나 한부모 가정학생의 경우와 부모의 교육기대 및 교육지원이 높은 경우로 양분되어 마치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원 외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 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가정환경 변수가 양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학부모의 학업지원은 비수도권대학과 사립대 입학사정관제 입학에서 일반전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황여정과 김경근(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득수준과 직업지위 등이 높은 학부모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이들 학부모 배경 변수가 학업지원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학부모의 학업지원은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2) 사교육 영향력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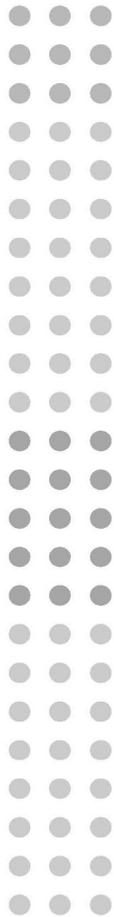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사교육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된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감소시키시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입학제도와 사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교육의 영향력은 공교육 영향력 확대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사교육과 관련된 대학입학전형의 효과 분석은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⁹⁾

본 연구 결과 입학사정관전형 학생과 일반 전형 학생 간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여부를 분석한 결

9)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실시된 설문조사(김미숙, 강영혜, 2006: 62-63)에서 고교교육 정상화란 사교육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학부모의 약 40.7%(학생 28%, 교사 33.2%)라고 응답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 전형 학생에 비해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일반 전형 입학생의 경우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가장 높은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에 비해 일반전형 학생들의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대의 경우 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의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두 전형 간 차이도 없었으며, 사립대의 경우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두 전형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 연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한편, 논술 사교육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사교육의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논술 사교육은 입학사정관 전형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현저히 논술사교육 정도가 높았고,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논술사교육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술 사교육이 입학한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차이보다는 지역적 특색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모든 유형의 입학 전형을 준비하는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정광희 외, 2009: 113). 즉, 한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입학준비과정을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의 전형에 기회가 닿는 한 원서를 넣으며, 이를 준비하므로 특별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한 사교육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형 간 사교육비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며, 사교육비 절대 규모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Ⅲ.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 교육 성과의 관계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요약 및 논의

Ⅲ.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 등록금 급증에 따른 대학 학자금 부담은 대학 입학 단계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기간 중의 대학교육 경험과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반값 등록금 문제를 계기로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육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의 대학교육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 학자금 부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등록금과 치솟는 주거비용 그리고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의 부업에 시간을 쏟고 있으며, 학업이나 자기계발, 이후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등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학 학자금 부담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주로 대학 등록금 수준을 낮추거나 학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고민하고 대학 기관의 재정을 효율화하는 거시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분석의 초점을 학생에 두는 미시적 연구도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대학 학자금 부담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자금 부담과 학업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또한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연구자들은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학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지

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학자금 지원의 영향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축적되었다. 정부나 재단, 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대학 학자금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 수요가 높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가 주요 정책 과제인 미국에서는 학자금 부담 여부가 대학 진학이나 대학 선택,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년 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대학이 제공하는 대학 학자금 지원액이 늘고 지원 방식도 다양해져 관련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자금 때문에 제대로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대학 학자금 지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즉, 대학 학자금 지원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학자금은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야 대학 학자금 제도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학자금 지원 실태나 영향에 대한 학문적 또는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연구자가 접근할 만한 고등교육 실증 데이터 기반이 취약한 국내 현실 또한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실증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다(김한나, 김성훈, 2010).

외국에서 수행된 대학 학자금 연구는 주로 장학금, 대출, 근로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학자금 지원여부나 규모가 대학 진학, 대학 선택, 대학생활 적응, 학업지속, 학업성취, 대학 졸업 후 노동 시장 진입 등과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Cabrera, Nora, & Castamed, 1992; Dynarski, 2003; Nora, Barlow, & Crisp, 2006; Perna, 1998; St. John, Paulsen, & Skarkey, 1996). 국내 연구자들은 주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형태의 학비 지원여부와 대학 선택, 학업성취도, 휴학과의 관계를 탐색해 왔다(김안나, 이병식, 2008; 김안나, 김성훈, 2010; 김지하, 이병식, 2009).

선행연구는 학자금 지원이 대체로 대학생의 학업 지속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히긴 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주제로 다룬

실증 연구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욱이 학자금 지원의 영향을 분석한 제한된 수의 연구에서도 종속 변인의 설정이 주로 학업 지속에 국한되어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폭넓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이 대학교육 이수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학생이 학자금 지원을 받음으로써 대학에 더 잘 적응하게 되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더 나은 학업성취와 정서적 발달을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Boatman & Long, 2009). 즉, 대학 학자금 지원이 장·단기적으로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간다면, 학자금 지원이 수혜자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기여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 대학 적응이나 학업성취를 포함한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학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 학업성취나 대학 적응 등의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장학금과 대출 수혜여부를 중심으로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자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의 대학교육 경험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대학 학자금 지원은 수혜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대학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경험 중 이러한 영향에 작용하는 바람직한 학습 활동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장학금과 대출금 형태의 학자금 지원여부는 대학생의 바람직한 학습 경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다시 대학 적응, 대학에 대한 소속감, 학업성취, 학생이 인지한 자아개념 등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의 대학교육 성과 요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2.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현황

1) 장학금 지원 현황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크게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구분된다. 대학정보공시자료상 교외장학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설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며,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 내부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을 합한 것이다.

(1) 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2010년 기준 4년제 대학교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은 국공립대가 약 120만원이며, 사립대는 약 147만 5천원이었다. 이들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교내장학금의 비율이 교외장학금보다 다소 높은 반면, 사립대는 교내장학금의 비율이 교외장학금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¹⁰⁾ 전체적으로 대학의 장학금 총액 가운데 교내장학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 유형은 수도권의 사립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소재지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은 국공립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이, 사립대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액이 더 많았다. 또한 대학의 규모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대규모 대학(재학생 1만 이상)보다는 중소규모 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액이 더 많았다.

다음으로 2010년 기준 설립별·소재지별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은 국공전문대가 약 102만 8천 원, 사립전문대가 약 120만 2천 원이었다.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공립전문대의 교외장학금 비율은 교내장학금 비율보다 높았으며, 사립전문대의 경우는 교내장학금의 비율이 교외장학금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사립전문대가 대학의 장학금 총액 가운데 교내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문대학의 소재지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전문대의 경우 수도권 전문대

10)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교내장학금의 비율이 56.2%, 교외장학금의 비율이 43.8%였고,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내장학금의 비율이 73.5%, 교외장학금의 비율이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국공립전문대의 교외장학금 비율은 60.1%, 교내장학금 비율은 39.9%였고, 사립전문대의 경우 교내장학금 비율이 72.0%, 교외장학금 비율이 28.0%였다.

와 비수도권 전문대 간에 학생 1인당 장학금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수도권 소재 국공립전문대의 경우 교외장학금의 유치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립전문대의 경우 소재지에 따라 비수도권 전문대의 학생 1인당 장학금액이 수도권 전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의 교내장학금 운영 현황

대학의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 내부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을 합한 것이다. 학비감면과 내부 장학금은 대학등록금 면제 및 감액제도에 의한 등록금 수입의 일부 또는 발전기금전입금, 기타 학과별로 조성 지원하는 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교내장학금 수혜율과 1인당 수혜금액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4년제 대학교 교내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과 1인당 수혜금액은 각각 80.1%와 약 102만 6백 원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1인당 수혜율은 5.4%p, 수혜금액은 약 2만 원정도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 전문대학의 교내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과 1인당 수혜금액은 각각 92.5%와 약 90만 5,200원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1인당 수혜율은 4.1%p 증가하였으나 수혜금액은 약 10만 원정도 감소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의 장학금 지원 현황

교과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는 크게 학자금 대출사업과 장학금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정부의 장학금사업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되었고, 지원목적에 따라 저소득층 장학금과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우수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으로 구분된다.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의 종류와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학년도 2학기 기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과부 장학금으로는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과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이 있다. 이들 장학금은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향의 세부계획(2007년 7월)’에 의해서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었는데, 2008학년도 1학기에는 대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2008학년도 2학기에는 1, 2학년으로, 2009학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이 지원되었다.

둘째, 성적우수장학금은 인문사회계 국가장학금과 이공계 국가장학금이 있다. 먼저 인문사회계 국가장학금은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2007년 7월)’ 중 교육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2008학년도

에 도입되었다. 이 장학금은 인문계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방대학에 장학생 수를 배정하고, 대학이 자체 선발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 왔다. 한편,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은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2002년 7월)’의 일환으로 2003학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 이공계 국가장학생, 이공계 대학원 연구장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근로 장학금은 2005학년도에 지방의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되다가, 2006학년도부터 전국의 전문대학으로 확대되었다. 2009학년도부터는 4년제 대학교까지 확대하고 2010학년도부터 국가근로장학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의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9학년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2008학년도까지는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의 규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9학년도부터는 저소득층 장학금의 규모가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정부 장학금 사업의 기본방향은 성적우수자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현황

2011년 기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상환방식에 따라서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학자금은 약정된 거치기간 후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제도이다. 한편 2010년 1학기에 새롭게 도입된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일정소득에 도달한 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대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학자금은 소득 분위 산정 기준, 가구 소득분위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¹²⁾ 일반학자금의 1인당 등록금 대출 한도는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 포함)과 생활비¹³⁾, 어학연수비로 이루어지며, 학제에 따라 4천-8천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학자금은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대출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과 상환기간(원금상환과 이자 납부를 함께하는 기간)으로 구성되어 학제와 계열에 따라 최장 17년에서 20년 내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든든학자금은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발

12)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에서 제외하며,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의 성적 또는 전체 1학기 성적 평균 평점을 활용한다.

13) 생활비의 대출 한도는 연간 200만 원(학기 당 100만 원)이다.

표한 학자금 제도이다. 든든학자금은 기존 대출제도 아래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하고자 대학등록금 실소요 전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업 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학자금의 대출 자격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부과정’ 학생들(만 35세 이하)에 한정되어 있으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의 성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소득인정액 7분위 이하의 대학생이며,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인 경우, 소득 8-10분위 해당자도 가능하다. 든든학자금의 대출 범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연간 200만 원 이내의 생활비로 이루어진다.¹⁴⁾ 든든학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회 변동금리로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 시행 후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부터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한다.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며, 원금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의 주요 특징은 [부록 II]에 제시되어 있다.

나. 학자금 지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의 학습경험 및 학습성과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우선 학습성과 변인 중 학업지속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학자금 지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자금 지원과 대학에서의 학습경험과의 관계 탐색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 관계 모델 설정에 참고하기 위해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학습 경험 변인을 탐색한 연구도 개관하였다.

1)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

일찍이 우리보다 앞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정책을 도입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고등교육 학자

14)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학생회비 포함)이며, 개인별 한도 없다.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이내,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다만 가구소득 3분위까지는 생활비에 대해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들이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대학교육 성과는 인지적·정의적 능력의 발달, 학업성취, 학업 지속 및 학위 취득, 취업 및 진로 개발 등이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 중 ‘학자금 지원’ 연구자들은 주로 학업 지속 및 학위 취득과 학업성취를 대학교육 성과변인으로 보고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학자금 지원 효과 연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두 개의 대학교육 성과변인인 학업 지속 및 학위 취득과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학업지속과 학업성취 변인은 학자금 지원의 효과에 관한 문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높은 구미 지역에서는 학업 지속이 핵심적인 대학교육 성과로 간주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중요한 정책 목표인 대학생 학업 지속률(궁극적으로는 학위 취득률)에 학자금 지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밝히려는 실증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대학교육 성과, 특히 학업 지속에 중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자들은 학자금 지원이 학생으로 하여금 그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수학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arroll, 1987; Cabrera, Stammen, Hansen, 1990; Nora, Barlow & Crisp, 2006; St. John, 1990), 궁극적으로 학위 취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Nora, Barlow & Crisp(2006)은 학자금 지원이 학업성취,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 학업지속 및 학생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고, 학자금 지원의 특성이 대학 입학 첫해와 6년간의 재학기간 동안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유형의 학자금 지원이 저소득 학생들의 고등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우선, 학자금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스터디그룹 활동이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학비에 대해 걱정을 하는 학생은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삶 및 학업에 필요한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하게 되지만 학자금 지원을 받음으로서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되고 이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초기 4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St. John(1990)은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학업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1980년에 조사된 High School and Beyond Base Senior Cohort 데이터와 Delta P 통계를 사용하여 대학 4년 동안 매해 학생의 학업지속과 관련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개인배경 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소득,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교육 프로그램, 대학교육에 대한 본인의 계획이 학업지속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 John(1990)의 연구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중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학생의 학업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과 학업지속이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상당수 연구와의 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학자금 지원과 학업지속 간의 관계에 대해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업 지속이나 학위 취득에 대한 학자금 지원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것이다(Stampen & Cabrera, 1986). 동 문제에 주목하고 학자금 지원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Murdock(1987)은 대학생의 학업성취 요인을 엄격하게 통제한 모델을 사용한 연구에서 학자금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학자금에 대한 부담의 부정적 영향이나 학자금 지원의 긍정적 영향이 수입, 부모의 학력 등 학생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동 주제에 대한 학문적 탐색이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연구자들은 주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형태의 학비 지원여부와 대학 선택, 휴학과의 관계를 탐색해 왔다(김안나, 김성훈, 2010; 김안나, 이병식, 2008).

김안나와 김성훈(2010)은 서울에 소재한 여자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휴학의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소득계층별로 학자금지원이 휴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6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2008년도 전체 휴학률은 31.43%로 수도권 4년제 대학 휴학률(통계청) 30.0%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대학인 점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나 조사대상 학년이 4학년이라는 점 및 휴학의 일차적인 원인이 외국어 공부, 자격증 취득, 외국 대학 연구, 인턴 활동 등으로 취업준비와 관련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집단별 휴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휴학률이 44.44%로 중간집단 27.90%, 상위집단 33.13%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난 등으로 인한 휴학생의 증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휴학률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집단 학생들의 휴학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

소득 집단에서는 학비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일차적인 휴학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별 학자금 지원 수혜율을 비교하면, 상위집단은 34.46%, 중위집단은 60.09%, 하위집단은 79.63%가 장학금 또한 학자금대출을 통한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학자금지원이 저소득 집단의 휴학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득 집단에서는 장학금지원의 경우가 휴학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학자금지원 정책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지속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대로 학자금 지원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학업 중단 및 학위 취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일부 연구에서 학업성취 수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종속변인으로서의 학업성취에 다양한 형태의 학자금 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Starter, 2009). 대학에서의 학점 자체가 학업지속이나 학위 취득의 강력한 예측변인이기도 하거나 학위 취득에 비해 학점이 대학졸업자의 직업 성취나 임금 등 다른 대학교육 성과 요인에 대해 장기적 영향을 준다(Jones & Jackson, 1990)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점 자체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 및 학업지속과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 투입이 증가하면서 상기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거감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 측면에서 볼 때,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학자금 수혜와 학업성취와의 정적인 관계가 진정한 인과관계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자금 수혜 정도와 학업성취(Grade Point Average)와의 인과관계 탐색에 중점을 둔 Starter(2009)는 성적 기반 학자금 수혜액과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학자금 수혜액이 대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인디애나, 콜로라도, 오레건 주의 거점주립대학(Flagship University)의 재학생 18,700여명을 표본으로 활용한 이 연구에서 Starter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연도별 평점평균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분석 모델에 성적 기반 학자금 수혜액과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학자금 수혜액을 핵심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인종, 대학 진학 시 연령), 대학입학 시점의 학업 준비도(SAT 시험 성적, 고등학교 내신 성적), 재학하였던 고등학교 특성(공사립 여부, 고등학교의 평균 SAT) 등의 통제변인을 OLS 회귀모형과 토빗 모형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성적 기반 학자금과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학자금 수혜 정도 모두 학점

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전 학년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액보다 성적 기반 장학금 지원액이 성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rter(2009)는 성적 기반 장학금 자체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사실로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밖에 경제적 기반 학자금 지원금의 경우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 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기반 학자금 지원액의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은 변인 특성을 포착해 내는 심리구인측면의 약점 때문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이 같은 제한점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국내에서는 학업성취와 대학생 개인의 학자금 부담의 연계성을 탐색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김안나, 이병식, 2008).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의 대학교육 비용 부담 실태에 관한 실증 조사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학자금 지원 정책의 역사가 길지 않고 학자금 지원에 관한 실증 자료 축적도 매우 최근에 시작되었다는 점 등이 이러한 문헌 축적의 한계를 설명해 준다. 다만 최근 동 주제를 다룬 연구 한 편이 주목할 만하다.

김지하와 이병식(2009)은 한국교육고용패널 2005~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유형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자금 지원유형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인으로 성별과 대학수학능력 시험 백분위 점수, 아르바이트 여부와 동아리 활동 유무, 부모의 학력과 소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1,2,3학년 각각의 GPA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앞서 계산된 GPA 백분위 점수에 국내 대학의 서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주어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장학금 지급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몰두 및 학업성취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 지원이 학자금 대출지원보다 실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학업성취나 학업지속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이 자발적·능동적으로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역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수혜와 같은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고등교육 연구에서 이론화 되었다(Tinto, 1993; Pascarella, 1985). 또한 고등교육 연구자들은 실증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이론적 개념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Cabrera, Castaneda, et al., 1992; Cabrera, Nora & Castaneda,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대학교육 경험 변인과의 연계성이 연구에서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사례가 많지 않다. 대체로 학업성취 변인처럼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관련 변인과 학업 지속과의 관계 분석 모델에서 일종의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Cabrera 등(1990)은 대학 등록금 지불 능력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동 모델을 토대로 대학생의 대학 적응에 대한 대학생의 학자금 비용 부담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의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s)를 탐색하였다.

한편, 동 주제를 탐구한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관련 요인과 자발적·능동적 학습활동과의 연계성을 심층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Nora, Barlow, & Crisp, 2006). Nora와 그의 동료들은 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 장학금 등의 학자금 지원이 심리적, 활동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Nora 외, 1996). 대학생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 등록금 지불이나 주거비, 교재비 등 각종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줄일 수 있어 수업 참여도, 학습시간 등 학업 관련 학습활동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고 또한 동아리 활동, 동료 학생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 학업 이외 학습 활동 참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학자들은 학자금 부담 요인과 자발적·능동적 학습활동과의 관계 탐색에서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료학생이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학생이 사회적으로 대학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러한 작용은 궁극적으로 학업 지속 등 대학교육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데 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학업 관련 활동보다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자발적·능동적 학습활동과 학자금 지원의 상호관계성 분석에 초점을 둔 최근 연구로 Boatman과 Long(2009)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Bill & Melinda 재단이 주관하는 Gate Millennium Scholar(GMS)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 5,500명과 동 장학금 수혜자와 학업준비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비교 그룹 학생 2,000여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Boatman과 Long(2009)은 집단 간 비교, Regression Discontinuity 등의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 학점, 대학교수와의 상호작용, 근로 활동 시간, 동료 친구들과 일한 경험, 지역 봉사활동 참여 경험, 대학 기숙사에서 이루지는 각종 학습활동 참여 경험 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학금 수혜

여부가 근로 활동 시간을 낮추고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지역 봉사 참여도 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습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학교육 경험 변인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 및 경험 변인에 학자금 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봄으로써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다 폭넓게 조망할 수 있다. 학업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학자금 지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변인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대학 학자금 지원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학자금 지원과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대학교육 성과 및 과정 변인에 대한 문헌을 간략히 개관해 보았다.

학자금 지원의 영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대학 적응이다. 많은 연구에서 대학 소속감과 대학 적응은 대학교육 성과의 핵심적인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대학생 학업지속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Tinto(1993)는 대학생의 학업지속여부에 대한 전조(precursor)로서 작용하는 대학 소속감과 대학 적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학 입학생들은 개인이나 가족배경, 학습경험이나 준비 수준,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채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입학 시점에 대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은 대학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함께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대학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신만의 목표에 대한 헌신에 작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학업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학업지속(또는 학위 취득) 연구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성과 연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어, 많은 학자들이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대학 소속감 및 대학 적응의 역할과 이들 요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Tinto의 이론에서 출발한 이들 요인은 학자금 지원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Cabrera, Nora, & Castaneda, 1993; Cabrera, Stammen, & Hansen, 1990).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학업지속, 학업성취,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학교육 경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외국에서 수행된 대학교육 성과 연구에서는 상당한 수의 대학교육 경험 요인이 사용되었다. Chickering과 Gamson(1987)은 광범위한 문헌 분석 후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대학교육 경험 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대학교육 경험은 ①교수-학생 상호작용, ②학습에서 학생들간의 상호협력 경험, ③능동적 학습, ④적절한 피드백, ⑤학습에 투입된 시간, ⑥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 ⑦다양한 배경의 학생 및 다양한 지식에 대한 존중이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결과,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대학교육 경험 요인으로는 수업 준비도와 수업 몰입, 수업에서의 고차원적 사고 활동, 교수-학생 상호작용, 각종 학습활동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최정윤과 이병식(2009)의 연구는 고등교육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특성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고등교육 학습 성과에 있어서 대학 간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대학의 특성 요인 중 구조적 특성 요인과 재정 및 교육 여건 요인이 대학생의 학습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63개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및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530명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학생수준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학수준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통계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재정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학생들이 대학에 내재된 위계적 구조를 지닌 분석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교육 경험 변인은 학업성취에 대한 교수의 적절한 평가, 교수의 질, 고차적 능력 강조, 협동학습경험, 다양성경험, 적극적 수업참여, 학습량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재지(수도권), 대학의 핵심기능(연구중심대학), 규모, 장학금지급률, 학생1인당 도서관입비가 등의 대학 특성 변인이 대학 간 차이를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정철 등(2008)의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인과모형으로 설정, 구조방정식을 통해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입학하면서 가지고 있던 특성을 투입변인(대학 입학 전 요인인 정의적, 인지적, 가정 수준 요인), 대학이 제공하거나 대학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이나 활동을 과정변인으로 보고 학업성취도를 산출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인지적 요인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학 만족도 및 강의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가능하나,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정 변인이었던 학생들의 강의태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요인, 그리고 좋은 강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리활동 참가는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혜숙(2004)의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중 학교학습관련 환경 변인과 학업성취,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폈다. 분석결과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에 관련된 전망 및 동료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교수와의 관계, 동아리 활동 참여 및 학교 행사의 참여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김현철(2005)의 연구에서는 1999년에 서울시내 한 대학의 신입생 21개의 모집단 중 각각 한 개씩의 신입생 대상강좌를 무작위로 선택, 선택강좌를 수강하는 1,018명의 신입생으로부터 다양한 대학교육 경험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Duncan의 양자 간 다중비교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만족도, 강의 만족도, 졸업년도 이외에 출석률로서 측정된 수업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 및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관련 연구 동향을 조망한 결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실증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을 시도한 연구 자체가 매우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우 제한된 수의 연구자들만이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와 대학교육 경험과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김안나와 김성훈(2010)이 지적하였듯이, 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사부담 비중에도 불구하고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데서 이러한 제한점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연구자가 접근할 만한 실증 데이터 기반이 취약한 현실도 동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학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 대상이 학업지속(또는 학위 취득) 등 일정한 대학교육 성과변인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학업지속률이 낮은 구미 선진국의 여건이 반영된

것이다. 학업지속률(학위취득률)이 아직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학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 대상은 학업지속을 넘어 다른 대학교육 성과변인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나 대학생활 적응, 대학에 대한 소속감 등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까지 분석의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학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자금 수혜여부와 중요한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의 학자금 수혜여부가 긍정적인 대학교육 경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이들이 대학교육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학자금 지원이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업성취나 학업지속에 영향을 주는 대학교육 학습경험에는 학자금 수혜 등 재정적 요인 이외에 다양한 대학교육 경험 요인이 작용하며 이들 요인이 학자금 부담과 학업지속, 학업성취 및 자발적·능동적 학습 활동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결과를 염두에 두고 분석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선행연구를 개관한 결과 일부 연구자들만이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가 특정 그룹의 학생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김안나, 김성훈, 2010; 김지하, 이병식, 2009), 학자금 지원의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 중 대학 특성에 따라 학자금 지원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석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대학 학자금 지원에 차이를 가져오는 개인 특성 요인이나 대학 특성 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구성이나 학자금 지원 특성, 대학등록금 등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의 과정이나 설립 유형별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가.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중단교육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과 자발적·능동적 학습경험 및 학습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경험 및 학습,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수준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8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인 2011년에 조사된 7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교육중단연구 7차년도 자료의 참여자 유형은 분석 대상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 또는 취업, 입대, 진학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이들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 유형을 분류해낼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대학생이면서 취업을 한 자, 대학생이면서 진학을 준비 중인 자, 대학생이면서 입대한 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대학입학 후 1학기를 재학했던 학생들이다. 또한 본 연구는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장학금 수혜여부가 학생들의 자발적, 능동적 학습경험과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은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과정과 설립 유형을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즉,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대학의 설립 목적과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구분하였고, 설립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 가운데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설립 유형에 따라 대학 등록금액의 분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분석 변인

본 연구에서 장학금 및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학생 변인은 다음과 같다. 학생 배경적 특성으로 성별, 아버지의 교육연한, 가구소득,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 재학 중인 대

학의 학과 계열이 사용되었다. 성별은 남학생을 1, 여학생을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인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연한(7차년도 공통설문 34번)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로 조사된 것을 각 학교급의 교육연한에 해당하는 10.5년, 12년, 14년, 16년, 18년, 21년으로 변환하였다. 가구소득(7차년도 공통설문 36번)은 가정의 월평균 총 소득이 범주형으로 조사된 것을 각 범주의 중간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월 2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 ‘월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월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500만 원, ‘월 6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은 700만 원, ‘월 8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900만 원, ‘월 1,000만 원 이상’은 1,100만 원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7차년도 공통설문 13번)은 본래 설문에서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역의 등급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때의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성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역코딩하여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성적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였다. 분석 대상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과의 계열은 학과 분석 및 학과 분류 체계연구에 따라 1을 인문계열, 2를 사회계열, 3을 자연계열, 4를 공학계열, 5를 교육계열, 6을 예체능계열, 7을 의약계열로 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학습결과로 볼 수 있는 대학에서의 학점(7차년도 대학생 설문 16번)은 각각 4.0, 4.3, 4.5점 만점으로 조사된 것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소속감(7차년도 대학생 설문 21번) 역시 5점 척도로 조사된 16개 문항¹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이들 가운데 부정문항으로 조사된 문항은 역코딩하였다(신뢰도=.908). 다음으로 대학생의 학교에 대한 적응(7차년도 대학생 설문 22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 2) 학업 측면에서 교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했다. 3)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졌다. 4) 해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 5) 대학에서 학업과

15) 1)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2)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3)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 소속감을 느낀다. 4)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5)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6) 대학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7) 학과(학부 또는 계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8) 대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9)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서 소외되고 있다. 10) 동료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 11)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12) 대학 내의 환경에 잘 맞는 것 같다. 13)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귄다. 14) 현재의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15) 대학생활을 잘한다. 16) 휴학을 했다가 후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함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쉬웠다. 6)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7)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 8)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흥미롭고 유익한 것 같았다. 9) 마음이 잘 맞아서 공부, 취미활동 등을 함께 하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다.’의 문항에 대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총 9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684이다. 대학생의 수업 참여도(7차년도 대학생 설문 14번)는 ‘지난 1학기 동안 토론 참여, 질문, 팀 프로젝트, 발표, 수업준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라는 각 질문에 대해 ‘① 매우 소극적, ② 소극적, ③ 보통, ④ 적극적, ⑤ 매우 적극적’의 5점 척도로 조사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이들 5문항의 신뢰도는 .808이다. 대학생의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상호작용(7차년도 대학생 설문 25-26번)은 ‘지난 1학기 동안 각각 교수님과 친구 및 선후배와 함께한 여러 활동의 빈도’를 질문한 문항¹⁶⁾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870이다. 대학생의 시간활용(7차년도 공통 설문 4번)은 평상 시 한 주 동안 독서 및 자기계발 또는 진로준비, 강의수강, 공부 등에 할애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학금 수혜여부 또는 대출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위하여 응답자 공통 설문과 대학생만 응답하는 총 21 문항 가운데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 계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묻는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① 하지 않음 ② 주당 1시간 미만 ③ 주당 1-2시간 ④ 주당 3-5시간 ⑤ 주당 6-10시간 ⑥ 주당 11-15시간 ⑦ 주당 16-20시간 ⑧ 주당 21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각각의 값을 중간값으로 변환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이들의 신뢰도는 .473이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6차년도 학생설문 17번, 7차년도 공통 설문 7번)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16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7차년도 조사에서 질문한 자아개념 문항은 1) 일반적인 교양 2) 경쟁심 3) 협동심 4) 창의력 5) 의욕 6) 정서적 안정도 7) 리더십 8) 끈기(인내심) 9) 도전정신 10)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11) 타인에 대한 이해 12) 지적인 자신감 13) 대인관계 자신감 14) 학

16) 지난 1학기 동안 수업 외에 교수님과 ‘1) 가벼운 인사 2) 간단한 대화 3) 수업내용에 대한 대화 또는 질의응답 4) 수업내용 이외의 주제에 대한 대화 5) 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학업, 진로 등) 6) 성적에 대한 문의 7) 행사 준비 등 학과(학부 또는 계열)의 일’을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지난 1학기 동안 수업 외에 친구 및 선후배와 ‘1) 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 2) 수업 관련 학습활동 3) 수업 이외 학습활동 4)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나눔 5) 학과(학교) 행사 또는 모임 참석 6)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 7) 야외활동 또는 운동 8) 오락 활동 9) 기타’를 얼마나 자주 하였습니까?

업능력 15) 예술적인 능력 16) 우리말 글쓰기 능력 17) 발표능력 18) 영어 의사소통 능력 19) 수리적인 능력 20) 컴퓨터 사용 능력 21) 책임감 22) 시간관리 능력 23) 예의범절이다. 이상의 23개 문항을 학문적 자아개념과 정서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6차년도 자료¹⁷⁾에서는 정서적 자아개념 관련 문항이 설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 후 자료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7차년도 자료에서도 사회적 자아개념과 학문적 자아개념 문항을 사용하였다. 7차년도 자료의 학문적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719이고, 사회적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754이다. 6차년도 자료의 학문적 자아개념 신뢰도는 .888이며, 학문적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824이다. 학생들이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7차 대학생 설문 31번)은 학기 중(3-6월)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1) 했다, 2) 하지 않았다'로 조사되었고, 근무한 경우를 1, 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학자금 관련 변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의 장학금과 관련된 변인은 장학금 수혜 경험(7차년도 대학생 설문 28번)이다. 이는 '2011년 1학기 동안 지출된 등록금은 어디에서 얼마나 충당했습니까?'라는 하위 질문 '장학금을 받음'에 대해 '1) 있다 2) 없다'로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로,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인을 만들었다. 학자금 관련 변인 두 번째는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험(7차년도 대학생 설문 28번)이다. 역시 상술한 문항의 하위 질문 '대출을 받음(학자금 용자, 개인대출 포함)'에 대해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장학금 수혜여부와 마찬가지로 대출 경험 역시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1, '없다'로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인을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문항은 대학정보공시 2011학년도 대학 등록금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종단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대학 등록금은 천 원 단위로 조사된 것을 만 원 단위로 환산하여

17) 1)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2)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3) 나는 단체생활을 잘한다. 4)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5)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 6)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8)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9)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도와준다. 1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11) 나는 나의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12) 나는 나의 몸매에 만족한다. 13) 나는 운동 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15) 나의 용모는 매력적인 편이다. 16)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17)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18)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19)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20)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 불안정도(7차년도 대학생 설문 32번)는 ‘귀하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십니까?’라는 질문에 ‘①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②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걱정된다. ④ 매우 걱정된다.’로 응답한 것을 그대로 투입하였다.

다음은 이상의 분석 변인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I-1〉 학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에 사용된 변인 설명

	변인명	변인 설명	
관심변인	장학금 수혜여부	7차 대학생 설문 28번 - 경험 유: 1, 무: 0	
	대출여부	7차 대학생 설문 28번 - 경험 유: 1, 무: 0	
학생배경	성별	남: 1, 여: 0	
	아버지의 교육연한	7차 공통 설문 34번	
	가구소득	7차 공통 설문 36번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	7차 공통 설문 13번 - 1-9등급 역코딩	
	학과 계열	1: 인문 2: 사회 3: 자연 4: 공학 5: 교육 6: 예체능 7: 의약	
대학생활	학점	7차 대학생 설문 16번 - 100점 환산 점수	
	자아개념	학문적 자아개념	7차 공통 설문 7번 - 총 23문항 중 10문항
		사회적 자아개념	7차 공통 설문 7번 - 총 23문항 중 5문항
		학문적 자아개념	6차 학생 설문 17번 - 총 10문항 중 5문항
		사회적 자아개념	6차 학생 설문 17번 - 총 10문항 중 5문항
	소속감	7차 대학생 설문 21번 - 16문항 평균	
	적응	7차 대학생 설문 22번 - 9문항 평균	
	수업 참여도	7차 대학생 설문 14번 - 5문항 평균	
상호작용	7차 대학생 설문 25, 26번 - 총 16문항 평균		
시간활용	7차 공통 설문 4번 - 총 21문항 중 4문항 평균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7차 대학생 설문 31번	

위에 기술된 학생 수준의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재학 중인 대학의 과정과 설립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 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1) 국공립대 (n=594)		(2) 사립대 (n=1,759)		(3) 전문대 (n=1,218)		F	p	사후분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정책 변인	장학금 수혜여부	.476	.500	.289	.453	.353	.478	35.763	.000	(1)-(2)*** (1)-(3)*** (2)-(3)***
	대출여부	.088	.283	.170	.375	.221	.415	25.443	.000	(1)-(2)*** (1)-(3)*** (2)-(3)***
개인 변인	성별	.574	.495	.476	.500	.428	.495	17.289	.000	(1)-(2)*** (1)-(3)* (2)-(3)*
	대학전공	3.332	1.414	3.271	.1771	.4226	1.909	113.445	.000	(1)-(3)*** (2)-(3)***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276	.447	.270	.444	.337	.473	8.582	.000	(1)-(3)** (2)-(3)***
	부교육연한	13.576	2.368	13.732	2.420	12.614	1.836	84.058	.000	(1)-(3)*** (2)-(3)***
	가구소득	3.836	2.109	4.103	2.178	3.334	2.011	47.584	.000	(1)-(2)** (1)-(3)*** (2)-(3)***
	수능등급 점수	6.274	1.303	5.827	1.425	4.735	1.220	259.996	.000	(1)-(2)*** (1)-(3)*** (2)-(3)***
종속 변인	대학학점	72.599	13.459	73.663	14.099	77.156	14.603	28.764	.000	(1)-(3)*** (2)-(3)***
	학문적 자아개념	3.050	.450	3.049	.480	2.957	.478	15.123	.000	(1)-(3)*** (2)-(3)***
	사회적 자아개념	3.457	.525	3.537	.558	3.491	.582	5.381	.005	(1)-(2)** (2)-(3)*
	소속감	3.548	.566	3.504	.615	3.442	.594	7.142	.001	(1)-(3)*** (2)-(3)**
	적응	3.021	.466	3.024	.477	3.079	.426	5.936	.003	(1)-(3)* (2)-(3)**

Ⅲ.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 분석

		(1) 국공립대 (n=594)		(2) 사립대 (n=1,759)		(3) 전문대 (n=1,218)		F	p	사후분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매 개 변 인	수업 참여도	3.247	.631	3.289	.662	3.210	.724	4.886	.008	(2)-(3)**
	상호작용	2.812	.756	2.967	.803	3.149	.903	36.107	.000	(1)-(2)*** (1)-(3)*** (2)-(3)***
	시간활용	25.911	11.420	24.600	12.865	22.982	13.945	11.237	.000	(1)-(2)* (1)-(3)*** (2)-(3)**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대출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설립 유형별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장학금 수혜여부와 대출 경험 여부의 관계 분석

구 분		대출 경험 유		대출 경험 무		전체		χ^2	p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 여부	경험 유	12	(4.2)	271	(95.8)	283	(100.0)	13.788	.000
	경험 무	40	(12.9)	271	(87.1)	311	(100.0)		
사립대									
장학금 수혜 여부	경험 유	68	(13.4)	440	(86.6)	508	(100.0)	6.484	.011
	경험 무	230	(18.4)	1019	(81.6)	1249	(100.0)		
전문대									
장학금 수혜 여부	경험 유	85	(19.8)	344	(80.2)	429	(100.0)	2.082	.149
	경험 무	184	(23.4)	602	(76.6)	786	(100.0)		

위에서 나타나듯이 사립대에 비하여 국공립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비율이 더 높았고 대출 비율은 더 낮았다. 검증 결과 국공립대에서는 χ^2 값이 13.788, 유의확률이 .00이었고, 사립대에서는 χ^2 값이 6.484, 유의확률 .011로서 유의수준 $p < .05$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즉 4년제 대학에서는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대출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었고, 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을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대 학생의 경우 장학금 여부와 대출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대학의 과정 및 설립 유형에 따라 장학금 및 대출여부가 가지는 의미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지원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학의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 분석 모형

1) 장학금 및 대출여부에 따른 학생 배경에 대한 기초분석

우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및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학생의 성별, 대학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대학의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카이검증을 실시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대출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성별, 대학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연한, 가구소득, 수능 등급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대학의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대출여부에 따른 아버지 교육연한과, 가구소득, 수능등급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활용된 주요 대학교육 성과변인들 간의 상관을 대학의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대학교육의 성과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의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2) 장학금 및 대출여부가 대학교육의 성과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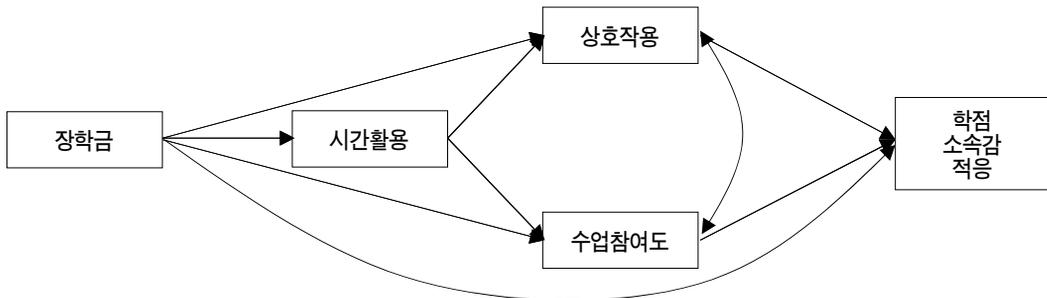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점이나 자아개념, 소속감과 적응에 미치는 장학금 및 대출의 영향이 발생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대학의 교육과정의 차이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의 격차에 따라 장학금 및 대출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학금 여부와 대출여부가 동일한 경로로 대학생들의 대학 성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를 장학금 여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이룰 수 있는 인지적, 정의적 발달이 학점과 자아개념이며, 대학 1학년생들이 그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1단계 목표가 소속감과 적응이기 때문에 이들 변인들을 종속변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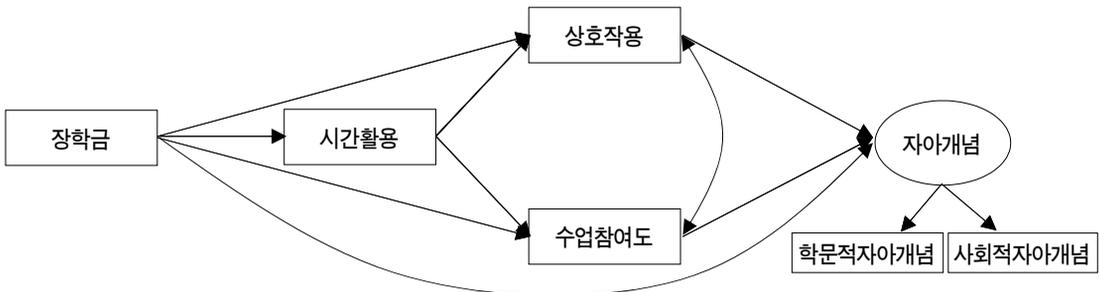
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장학금 여부가 등록금 마련에 대한 시간 소비를 줄여줌으로써 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교수 및 선후배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 그리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하였다. 대출 여부가 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 그리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동일한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학점,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으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인은 위의 4가지 종속변인에 대해 장학금의 효과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3가지 변인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장학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3가지의 매개변인을 모두 사용하여 동일한 경로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종속변인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학점, 소속감, 적응은 단일한 관찰변인으로 측정된 반면 자아개념은 두 개의 측정변인을 통해 측정된 잠재변인이다. 따라서 종속변인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 학점, 소속감, 적응관련 효과 연구모형



○ 자아개념관련 효과 연구모형



[그림 Ⅲ-1] 종속변인 유형별 장학금 효과 연구모형

[그림 Ⅲ-1]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은 장학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유형에 따라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대학 유형별로 각 종속변인에 대한 장학금의 효과를 동일한 매개변인과 경로를 갖는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기초통계 분석 결과 (누가 장학금을 받았는가? 누가 대출을 받았는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및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장학금과 대출여부 순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학생 특성(성별, 대학 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 분석

구 분		장학금 수혜 유		장학금 수혜 무		전체		χ^2	p
국공립대									
성별	남	141	(41.3)	200	(58.7)	341	(100.0)	12.715	.000
	여	142	(56.1)	111	(43.9)	253	(100.0)		
대학 전공	인문	35	(53.0)	31	(47.0)	66	(100.0)	19.141	.004
	사회	60	(53.1)	53	(46.9)	113	(100.0)		
	자연	58	(47.9)	63	(52.1)	121	(100.0)		
	공학	80	(39.4)	123	(60.6)	203	(100.0)		
	교육	32	(71.1)	13	(28.9)	45	(100.0)		
	예체능	13	(37.1)	22	(62.9)	35	(100.0)		
	의학	5	(45.5)	6	(54.5)	11	(100.0)		
아르바이트경 험 여부	있음	209	(48.6)	221	(51.4)	430	(100.0)	.577	.447
	없음	74	(45.1)	90	(54.9)	164	(100.0)		
사립대									
성별	남	234	(28.0)	601	(72.0)	835	(100.0)	.612	.434
	여	274	(29.7)	648	(70.3)	922	(100.0)		
대학 전공	인문	65	(27.2)	174	(72.8)	239	(100.0)	3.071	.800
	사회	162	(28.2)	412	(71.8)	574	(100.0)		
	자연	62	(32.6)	128	(67.4)	190	(100.0)		

구 분		장학금 수혜 유		장학금 수혜 무		전체		χ^2	p
	공학	111	(29.2)	269	(70.8)	380	(100.0)		
	교육	22	(31.0)	49	(69.0)	71	(100.0)		
	예체능	52	(26.5)	144	(73.5)	196	(100.0)		
	의학	34	(32.4)	71	(67.6)	105	(100.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있음	387	(30.1)	897	(69.9)	1284	(100.0)	3.495	.062
	없음	121	(25.6)	352	(74.4)	473	(100.0)		
전문대									
성별	남	190	(36.7)	328	(63.3)	518	(100.0)	.743	.389
	여	239	(34.3)	458	(65.7)	697	(100.0)		
대학 전공	인문	12	(30.0)	28	(70.0)	40	(100.0)	5.332	.502
	사회	101	(32.5)	210	(67.5)	311	(100.0)		
	자연	35	(34.0)	68	(66.0)	103	(100.0)		
	공학	97	(36.5)	169	(63.5)	266	(100.0)		
	교육	24	(35.8)	43	(64.2)	67	(100.0)		
	예체능	77	(34.1)	149	(65.9)	226	(100.0)		
의학	83	(41.5)	117	(58.5)	200	(100.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있음	302	(37.5)	503	(62.5)	805	(100.0)	5.087	.024
	없음	127	(31.0)	283	(69.0)	410	(100.0)		

먼저 성별에 따른 χ^2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분석한 결과 장학금 수혜율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715$; 유의확률= .000). 즉 국공립대에서는 여학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이는 사립대와 전문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학 전공별 장학금 수혜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전공별 장학금 수혜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chi^2= 19.141$; 유의확률= .004). 구체적으로 인문, 사회, 교육 계열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의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율이 50% 이하였다. 사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모든 전공에서 장학금 수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전공 영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에서 장학금 수혜여부는 아르바이트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전문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와 아르바이트 여부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였는데($\chi^2=5.087$; 유의확률=.024),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일수록 장학금 수혜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연한, 가구소득, 수능등급점수¹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5〉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학생배경 및 수능등급점수의 차이분석

구 분	장학금 수혜 유			장학금 수혜 무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대								
부 교육연한	255	13.606	2.486	291	13.550	2.263	.276	.763
가구소득	282	3.525	2.034	309	4.120	2.139	-3.458	.001
수능등급점수	266	6.500	1.277	292	6.069	1.296	3.975	.000
사립대								
부 교육연한	438	13.601	2.348	1163	13.783	2.440	-1.345	.179
가구소득	502	3.661	2.132	1246	4.276	2.170	-5.386	.000
수능등급점수	432	5.921	1.511	1089	5.790	1.389	1.625	.104
전문대								
부 교육연한	356	12.531	1.958	709	12.654	1.773	-1.035	.301
가구소득	429	.2995	1.931	779	3.516	2.032	-4.337	.000
수능등급점수	275	4.874	1.218	540	4.664	1.216	2.333	.020

우선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부의 교육연한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대학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와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모든 대학 유형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가구소득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대학생들의 수능등급점수가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수능등급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경향이 있었고, 사립대의 경우 장학금을

18) 수능등급점수는 2011학년도 수능등급을 역코딩하여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의 등급점수를 평균한 값이다. 1점에서 9점까지 분포하며,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수능등급점수가 높다.

받은 학생들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의 수능등급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출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 별로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6〉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학생 특성 분석(χ^2 검증)

구 분		대출 경험 유		대출 경험 무		전체		χ^2	p
국공립대									
성별	남	28	(8.2)	313	(91.8)	341	(100.0)	.296	.587
	여	24	(9.5)	229	(90.5)	253	(100.0)		
대학 전공	인문	5	(7.6)	61	(92.4)	66	(100.0)	3.202	.783
	사회	6	(5.3)	107	(94.7)	113	(100.0)		
	자연	12	(9.9)	109	(90.1)	121	(100.0)		
	공학	21	(10.3)	182	(89.7)	203	(100.0)		
	교육	3	(11.4)	42	(93.3)	45	(100.0)		
	예체능	4	(11.4)	31	(88.6)	35	(100.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있음	36	(8.4)	394	(91.6)	430	(100.0)	.285	.594
	없음	16	(9.8)	148	(90.2)	164	(100.0)		
사립대									
성별	남	135	(16.2)	700	(83.8)	835	(100.0)	.711	.399
	여	163	(17.7)	759	(82.3)	922	(100.0)		
대학 전공	인문	40	(16.7)	199	(83.3)	239	(100.0)	7.941	.242
	사회	102	(17.8)	472	(82.2)	574	(100.0)		
	자연	23	(12.1)	167	(87.9)	190	(100.0)		
	공학	57	(15.0)	323	(85.0)	380	(100.0)		
	교육	16	(22.5)	55	(77.5)	71	(100.0)		
	예체능	39	(19.9)	157	(80.1)	196	(100.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있음	207	(16.1)	1077	(83.9)	1284	(100.0)	2.385	.122
	없음	91	(19.2)	382	(80.8)	473	(100.0)		
전문대									
성별	남	108	(20.8)	410	(79.2)	518	(100.0)	.711	.399
	여	161	(23.1)	536	(76.9)	697	(100.0)		

Ⅲ.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 분석

구 분		대출 경험 유		대출 경험 무		전체		χ^2	p
대학 전공	인문	9	(22.5)	31	(77.5)	40	(100.0)	2.878	.824
	사회	74	(23.8)	237	(76.2)	311	(100.0)		
	자연	27	(26.2)	76	(73.8)	103	(100.0)		
	공학	56	(21.1)	210	(78.9)	266	(100.0)		
	교육	14	(20.9)	53	(79.1)	67	(100.0)		
	예체능	50	(22.1)	176	(77.9)	226	(100.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있음	161	(20.0)	644	(80.0)	805	(100.0)	6.337	.012
	없음	108	(26.3)	302	(73.7)	410	(100.0)		

먼저 대출여부와 대학생 성별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χ^2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대학 유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출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았고, 성별에 따른 대출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모든 대학 유형에서 전공간 대출여부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출여부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에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대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일수록 대출 받는 비율이 높았다($\chi^2=6.337$; 유의확률=0.012).

다음으로 대출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연한, 가구소득, 수능등급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7〉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학생배경 및 수능등급점수의 차이분석

구 분	대출 경험 유			대출 경험 무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대								
부 교육연한	47	12.734	1,805	499	13,655	2,400	-2.563	.011
가구소득	51	2,922	1,262	540	3,922	2,152	-3.266	.001
수능등급점수	46	5,986	1,104	512	6,300	1,318	-1.570	.117
사립대								
부 교육연한	264	13,676	2,450	1337	13,744	2,416	-.417	.676
가구소득	297	3,202	1,827	1451	4,283	2,197	-7.938	.000

구 분	대출 경험 유			대출 경험 무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수능등급점수	253	5.626	1.346	1268	5.867	1.438	-2.464	.014
전문대								
부 교육연한	235	12.489	1.746	830	12.648	1.862	-1.170	.242
가구소득	266	2.895	1.811	942	3.544	2.049	-4.032	.000
수능등급점수	175	4.735	1.223	640	4.734	1.221	.008	.993

우선 대출여부에 따른 부 교육연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의 경우 대출 받는 학생들의 부 교육연한이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값=-2.563; 유의확률=.011). 반면 사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부 교육연한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출여부에 따른 가구소득의 차이를 검증했을 때, 모든 대학 유형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에 비하여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가구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출여부에 따른 수능등급점수의 차이를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국공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대출여부에 따라 수능등급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립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수능등급점수가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t 값=-2.464; 유의확률= .014).

나. 기초통계 분석 결과 II (대학 성과변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핵심 성과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학점과 자아개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소속감과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장학금과 대출이 이들 핵심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함에 있어서 시간활용과 상호작용, 그리고 수업 참여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인과 매개변인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8〉 대학학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 분	대학학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국공립대				
대학학점				
수업 참여도	.266**			
상호작용	.035	.390**		
시간활용	.128**	.226**	.183**	
사립대				
대학학점				
수업 참여도	.218**			
상호작용	.034	.334**		
시간활용	.130**	.235**	.189**	
전문대				
대학학점				
수업 참여도	.215**			
상호작용	.100**	.369**		
시간활용	.183**	.242**	.193**	

분석 결과 모든 대학 유형에서 대학학점은 수업 참여도, 시간활용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수업 참여도는 상호작용, 시간활용과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경우 대학학점은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전문대의 경우 대학학점과 상호작용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과정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수업 참여도와 시간활용이 학습결과 변인인 대학학점과 일정 수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과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9〉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 분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국공립대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450**				
수업 참여도	.341**	.391**			
상호작용	.230**	.296**	.390**		
시간활용	.234**	.100*	.226**	.183**	
사립대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463**				
수업 참여도	.409**	.379**			
상호작용	.252**	.305**	.334**		
시간활용	.210**	.087**	.235**	.189**	
전문대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574**				
수업 참여도	.446**	.473**			
상호작용	.295**	.289**	.369**		
시간활용	.226**	.177**	.242**	.193**	

다음으로 학문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 유형에서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수업 참여도 변인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변인과 시간활용 변인 역시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데, 즉 교수, 친구 및 선후배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및 자기 계발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학문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소속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 분	소속감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국공립대				
소속감				
수업 참여도	.403**			
상호작용	.408**	.390**		
시간활용	.138**	.226**	.183**	
사립대				
소속감				
수업 참여도	.346**			
상호작용	.407**	.334**		
시간활용	.153**	.235**	.189**	
전문대				
소속감				
수업 참여도	.415**			
상호작용	.403**	.369**		
시간활용	.195**	.242**	.193**	

다음으로 소속감과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 유형에서 소속감과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과 시간활용 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교수와 친구, 선후배 간의 교류가 많을수록,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11〉 적응,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 분	적응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국공립대				
적응				
수업 참여도	.320**			
상호작용	.280**	.390**		
시간활용	.176**	.226**	.183**	

구 분	적응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사립대				
적응				
수업 참여도	.362**			
상호작용	.357**	.334**		
시간활용	.205**	.235**	.189**	
전문대				
적응				
수업 참여도	.363**			
상호작용	.319**	.369**		
시간활용	.203**	.242**	.193**	

마지막으로 적응과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시간활용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 유형에서 이들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수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교수와 친구, 선후배 간의 교류가 많을수록,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학교에 대한 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기초통계 분석 결과 III (장학금 및 대출여부와 대학 성과변인들 간의 관계)

다음으로 장학금 여부 및 대출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대학교육 성과변인 및 학습활동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를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2〉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변인 차이 분석

구 분	장학금 수혜 유			장학금 수혜 무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대								
대학학점	279	77.159	11.907	307	68.455	13.466	8.255	.000
학문적 자아개념	282	3.092	.460	311	3.013	.437	2.143	.032
사회적 자아개념	283	3.471	.549	311	3.444	.503	.624	.533

Ⅲ.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 분석

구 분	장학금 수혜 유			장학금 수혜 무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소속감	283	3.586	.555	311	3.514	.575	1.542	.124
적응	283	3.087	.510	311	2.960	.414	3.317	.001
수업 참여도	283	3.319	.625	311	3.181	.631	2.690	.007
상호작용	283	2.852	.716	311	2.776	.789	1.232	.219
시간활용	283	26.949	11.581	311	24.966	11.206	2.119	.034
사립대								
대학학점	503	79.440	12.430	1228	71.304	14.066	11.291	.000
학문적 자아개념	508	3.108	.470	1245	3.025	.482	3.306	.001
사회적 자아개념	508	3.572	.540	1249	3.522	.564	1.683	.093
소속감	508	3.607	.612	1249	3.461	.612	4.529	.000
적응	508	3.125	.495	1249	2.982	.463	5.738	.000
수업 참여도	508	3.403	.654	1249	3.243	.660	4.619	.000
상호작용	508	3.061	.803	1249	2.929	.799	3.131	.002
시간활용	508	25.823	13.202	1249	24.122	12.691	2.518	.012
전문대								
대학학점	420	80.638	13.151	756	75.220	15.022	6.189	.000
학문적 자아개념	428	3.019	.477	783	2.920	.471	3.481	.001
사회적 자아개념	429	3.538	.597	783	3.465	.570	2.100	.036
소속감	429	3.507	.615	786	3.407	.579	2.831	.005
적응	429	3.138	.456	786	3.046	.406	3.586	.000
수업 참여도	429	3.293	.748	786	3.164	.704	2.986	.003
상호작용	429	3.256	.913	786	3.092	.892	3.031	.002
시간활용	429	23.913	14.112	786	22.510	13.814	1.679	.093

국공립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대학학점, 적응, 수업 참여도, 시간활용, 학문적 자아개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학생들의 학점 평균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000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장학금을 수혜한 집단이 학교에의 적응 정도가 높았고, 수업에 대한 참여 역시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독서, 자기계발 및 진로준비, 강의를 수강하거나 진로를 준비하는 데 평균

1.983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학문적 자아개념은 평균 .0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감이나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자아개념은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사립대에서는 사회적 자아개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학학점과 학교에의 소속감, 적응, 수업 참여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시간활용 및 학문적 자아개념의 평균이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대의 경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대학학점, 소속감, 적응,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활용에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모든 대학 유형에서 공통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 성과는 물론 학습과정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수업 참여도, 시간활용 등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부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학금의 수혜여부가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시간활동 등과 같이 학교생활 변인과의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출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대학교육 성과변인 및 학습활동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3〉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변인 차이 분석

구 분	대출 경험 유			대출 경험 무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대								
대학학점	49	73.079	9.249	537	72.556	13.785	.361	.719
학문 자아개념	52	2.987	.410	541	3.057	.453	-1.073	.284
사회 자아개념	52	3.327	.536	542	3.469	.523	-1.868	.062
소속감	52	3.442	.604	542	3.559	.562	-1.416	.157
적응	52	2.908	.423	542	3.031	.469	-1.824	.069
수업 참여도	52	3.169	.644	542	3.254	.630	-.928	.354
상호작용	52	2.697	.689	542	2.823	.761	-1.152	.250
시간활용	52	25.317	13.316	542	25.968	11.234	-.392	.695

Ⅲ.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 분석

구 분	대출 경험 유			대출 경험 무			t	p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립대								
대학학점	296	73.764	13.960	1435	73.649	14.134	.127	.899
학문 자아개념	297	3.075	.500	1456	3.044	.476	1.022	.307
사회 자아개념	298	3.554	.597	1459	3.534	.550	.569	.570
소속감	298	3.516	.618	1459	3.501	.615	.368	.713
적응	298	3.010	.495	1459	3.027	.474	-.544	.587
수업 참여도	298	3.352	.681	1459	3.277	.658	1.784	.075
상호작용	298	2.930	.788	1459	2.975	.805	-.897	.370
시간활용	298	24.488	12.410	1459	24.640	12.955	-.185	.853
전문대								
대학학점	257	77.438	14.494	919	77.077	14.648	.350	.726
학문 자아개념	269	2.976	.459	942	2.950	.480	.799	.424
사회 자아개념	268	3.493	.575	944	3.490	.582	.057	.955
소속감	269	3.410	.543	946	3.452	.608	-1.027	.305
적응	269	3.023	.417	946	3.095	.428	-2.435	.015
수업 참여도	269	3.206	.701	946	3.211	.729	-.097	.923
상호작용	269	3.119	.885	946	3.159	.908	-.644	.520
시간활용	269	23.106	14.050	946	22.978	13.905	.133	.894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와는 상이하게, 대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 및 대학 생활 관련 변인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적응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 간에 대학 성과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대출 경험 여부와 학생들의 학교생활 변인, 학습과정 변인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라. 학점,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에 미치는 장학금 효과에 관한 경로분석 결과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에 대한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대학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의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간접효과 발생 경로는 [부록 III]에 제시되어 있다.

1) 장학금의 학점 관련 효과

본 장에서는 대학생의 학점 및 생활에 대한 장학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III-14>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과, 국공립대 학생들을 분석한 모형은 χ^2 의 유의확률이 5% 이상으로 모형에 의해 구성된 공분산 행렬이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을 충분히 재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MSEA와 CFI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이 자유도보다 작아 각각 0과 1로 고정되었다. 사립대의 경우 χ^2 값이 유의확률 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RMSEA와 CFI 등의 적합도 지수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χ^2 값이 유의확률 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RMSEA 적합도 지수도 0.1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4> 장학금의 학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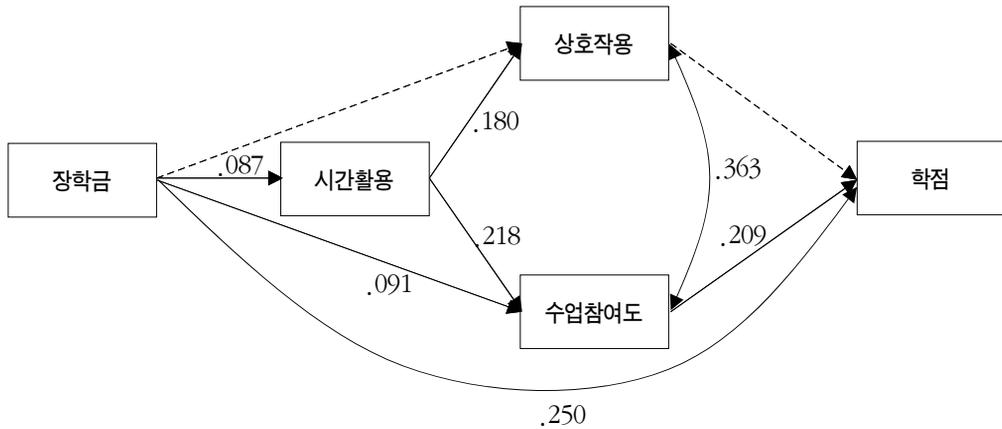
	χ^2	df	P	RMSEA	CFI
국공립대	0.577	1	0.447	0.000	1.000
사립대	11.591	1	0.001	0.078	0.980
전문대	22.530	1	0.000	0.133	0.940

(1)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국공립대)

국공립대에서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5>와 [그림 III-2]에 제시하였다. <표 III-15>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경로의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를 표시하였으며 [그림 III-2]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III-2]에서 나타나듯이 장학금은 학점과 시간활용,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학금은 수업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학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활용과 수업 참여도를 통해 학점에 미치는 장학금의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50($p=.000$)이며 수업 참여도를 통해 학점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19($p=.037$), 장학금이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의 총효과는 .269($p=.000$)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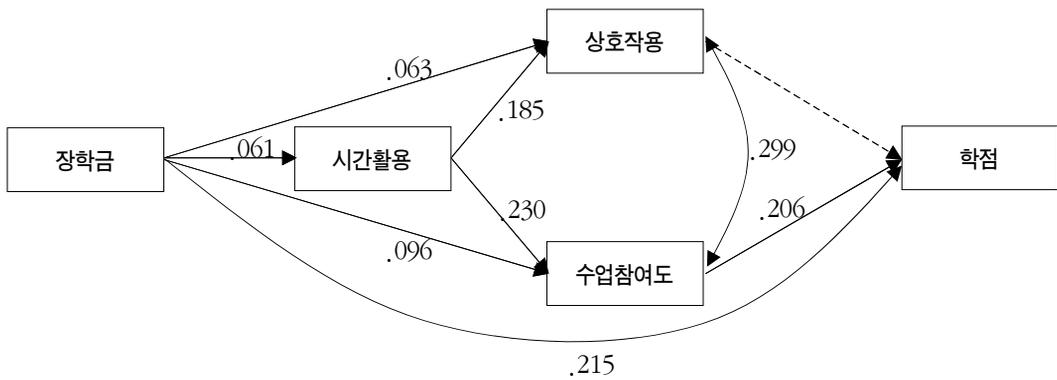
[그림 Ⅲ-2] 장학금의 학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표 Ⅲ-15>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학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학점	0.209	0.042	5.028	0.000
상호작용→학점	-0.069	0.042	-1.646	0.100
장학금→학점	0.250	0.038	6.607	0.000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18	0.039	5.585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1	0.040	2.286	0.022
시간활용→상호작용	0.180	0.040	4.512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35	0.040	0.864	0.387
장학금→시간활용	0.087	0.041	2.131	0.033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3	0.036	10.191	0.000

(2)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사립대)

사립대에서 학점에 미치는 장학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6>와 [그림 III-3]에 제시하였다. [그림 III-3]에 제시된 장학금의 효과를 살펴보면, 장학금은 학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간활용, 수업 참여도는 매개역할을 하여 장학금이 학점에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상호작용을 통한 학점에 미치는 장학금의 간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학금이 수업 참여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020($p=.000$)이며 시간활용과 수업 참여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003($p=.018$)로 나타났다.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15($p=.000$)이며 총효과는 .234($p=.0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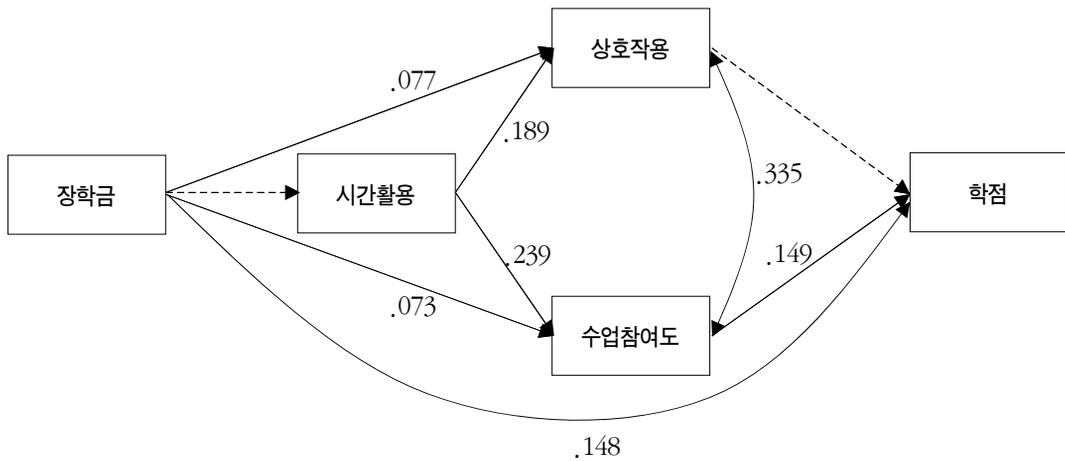
[그림 III-3] 장학금의 학점 관련 총효과 : 사립대

<표 III-16>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학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학점	0.206	0.024	8.671	0.000
상호작용→학점	-0.039	0.024	-1.600	0.110
장학금→학점	0.215	0.022	9.596	0.000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0	0.022	10.21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6	0.023	4.171	0.000
시간활용→상호작용	0.185	0.023	8.048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63	0.023	2.708	0.007
장학금→시간활용	0.061	0.024	2.552	0.011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299	0.022	13.779	0.000

(3)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전문대)

전문대에서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17>와, [그림 Ⅲ-4]에 제시하였다. 우선 장학금은 학점,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공립대와 사립대와 다르게 장학금 시간활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학금이 학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수업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011(p=.020)로 나타났다. 장학금이 학점에 대한 직접효과는 .148(p=.000)이며 총효과는 .162(p=.00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4] 장학금의 학점 관련 총효과 : 전문대

<표 Ⅲ-17>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학점관련 장학금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학점	0.149	0.030	4.999	0.000
상호작용→학점	0.012	0.030	0.398	0.690
장학금→학점	0.148	0.028	5.335	0.000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9	0.027	8.856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73	0.028	2.625	0.009
시간활용→상호작용	0.189	0.028	6.876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77	0.028	2.769	0.006
장학금→시간활용	0.049	0.029	1.724	0.085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35	0.025	13.155	0.000

2)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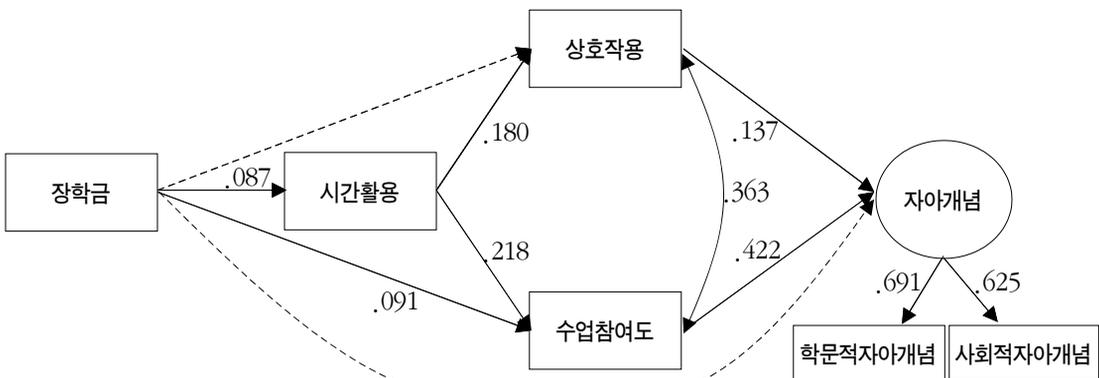
대학 유형에 따른 장학금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위한 구조회귀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III-18>에 제시하였다. χ^2 값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에서 모두 유의확률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RMSEA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3개의 경로모형에서 모두 허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III-18>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 자아개념

	χ^2	df	P	RMSEA	CFI
국공립대	13,474	4	0,009	0,063	0,974
사립대	29,903	4	0,000	0,061	0,980
전문대	21,476	4	0,000	0,060	0,983

(1) 장학금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국공립대)

국공립대에서 장학금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19>와 [그림 III-5]에 제시되었다. 우선 장학금은 직접적으로 자아개념이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시간활용 및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장학금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수업 참여도를 매개로한 경로를 통해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되었으며($\beta=.038$) 장학금의 총효과는 .105($p=.04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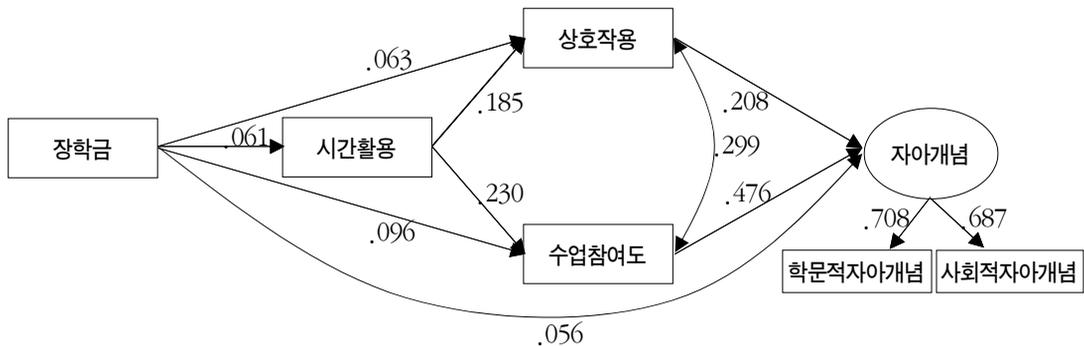
[그림 III-5]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표 Ⅲ-19〉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자아개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자아개념→학문적자아개념	0.691	0.049	13.992	0.000
자아개념→자기개념	0.625	0.047	13.193	0.000
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422	0.051	8.291	0.000
상호작용→자아개념	0.137	0.053	2.607	0.009
장학금→자아개념	0.051	0.049	1.057	0.291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18	0.039	5.585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1	0.040	2.286	0.022
시간활용→상호작용	0.180	0.040	4.512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35	0.040	0.864	0.387
장학금→시간활용	0.087	0.041	2.131	0.033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3	0.036	10.191	0.000

(2) 장학금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사립대)

사립대에서 자아개념에 미치는 장학금의 효과 분석 결과는 〈표 Ⅲ-20〉와 [그림 Ⅲ-6]에 제시되었다. 국공립대와는 달리 장학금은 다양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아개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장학금은 다양한 간접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수업 참여도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경로가 .046(p=.00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학금→상호작용→자아개념 경로 .013(p=.011),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자아개념 경로는 .002(p=.02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아개념에 미치는 장학금의 총효과는 .124(p=.000)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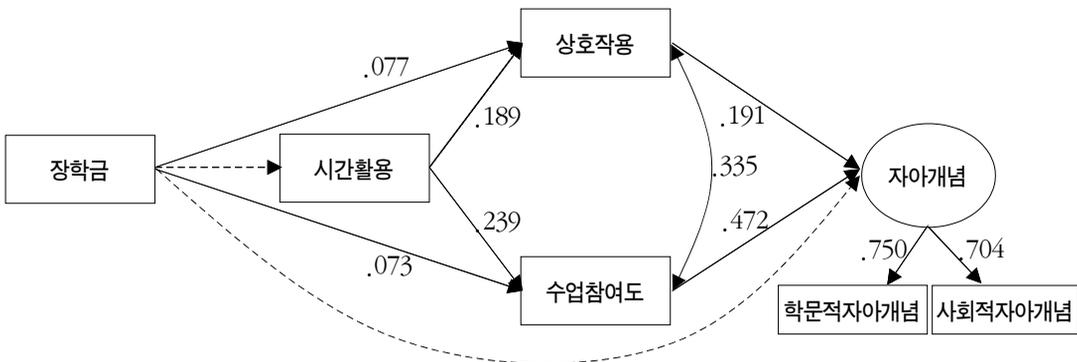
[그림 Ⅲ-6]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사립대

〈표 III-20〉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자아개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자아개념→학문적자아개념	0.708	0.023	31.478	0.000
자아개념→자기개념	0.687	0.022	30.671	0.000
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476	0.026	18.669	0.000
상호작용→자아개념	0.208	0.027	7.625	0.000
장학금→자아개념	0.056	0.026	2.157	0.031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0	0.022	10.21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6	0.023	4.170	0.000
시간활용→상호작용	0.185	0.023	8.048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63	0.023	2.708	0.007
장학금→시간활용	0.061	0.024	2.552	0.011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299	0.022	13.779	0.000

(3) 장학금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전문대)

전문대에서 자아개념에 미치는 장학금의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21〉와 [그림 III-7]에 제시되었다. 우선 장학금은 상호작용과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아개념과 시간활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학금은 수업 참여도를 통해 .034(p=.010), 상호작용을 통해 .015(p=.012)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아개념에 미치는 총효과는 .112(p=.0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7] 장학금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전문대

〈표 III-21〉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자아개념관련 장학금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자아개념→학문자아개념	0.750	0.026	29.126	0.000
자아개념→자기개념	0.704	0.026	27.512	0.000
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472	0.030	15.793	0.000
상호작용→자아개념	0.191	0.032	5.922	0.000
장학금→자아개념	0.055	0.030	1.825	0.068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9	0.027	8.856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73	0.028	2.625	0.009
시간활용→상호작용	0.189	0.028	6.876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77	0.028	2.769	0.006
장학금→시간활용	0.049	0.029	1.724	0.085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35	0.025	13.155	0.000

3)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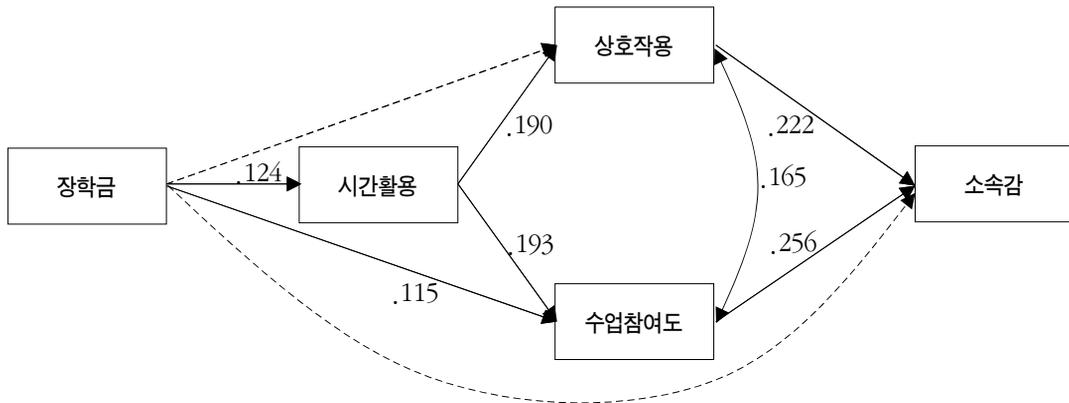
장학금이 학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과 같은 경로모형 방식으로 대학 유형에 따른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표 III-22〉에 제시하였다. χ^2 값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사립대에서 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데이터의 공분산행렬을 모형이 적절하게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RMSEA와 CFI 적합도 지수는 국공립대의 경우 χ^2 값이 자유보다 작아 각각 0과 1로 고정되었으며 사립대도 허용 가능한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문대에서 χ^2 값은 5%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RMSEA와 CFI 등의 적합도 지수가 허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나고 있어 분석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III-22〉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χ^2	df	P	RMSEA	CFI
국공립대	0.260	1	0.610	0.000	1.000
사립대	2.676	1	0.102	0.031	0.998
전문대	7.052	1	0.008	0.070	0.990

(1)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국공립대)

국공립대에서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23>와 [그림 III-8]에 제시되었다. 장학금은 소속감과 상호작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시간활용과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학금은 수업 참여도를 통하여 소속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beta=.026, p=.029$) 총효과는 .063($p.121$)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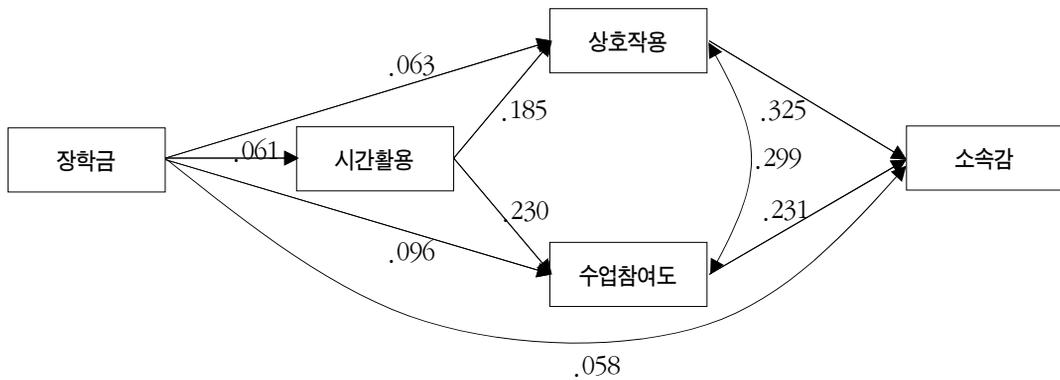
[그림 III-8]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표 III-23>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소속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소속감	0.256	0.035	7.289	0.000
상호작용→소속감	0.222	0.029	7.612	0.000
장학금→소속감	0.019	0.041	0.472	0.637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193	0.035	5.453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115	0.050	2.277	0.023
시간활용→상호작용	0.190	0.043	4.439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53	0.061	0.864	0.388
장학금→시간활용	0.124	0.058	2.123	0.034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165	0.020	8.317	0.000

(2)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사립대)

사립대에서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Ⅲ-24>와 [그림 Ⅲ-9]에 제시되었다. 국공립대와 달리 장학금은 소속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대한 모든 직접적인 경로에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모든 간접적인 경로 역시 소속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업 참여도를 통한 간접효과가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beta=.022$), 다음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는 $0.021(p=.008)$ 로 나타나고 있다.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소속감은 $.004(p=.017)$ 이며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소속감은 $.003(p=.016)$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058(p=.006)$ 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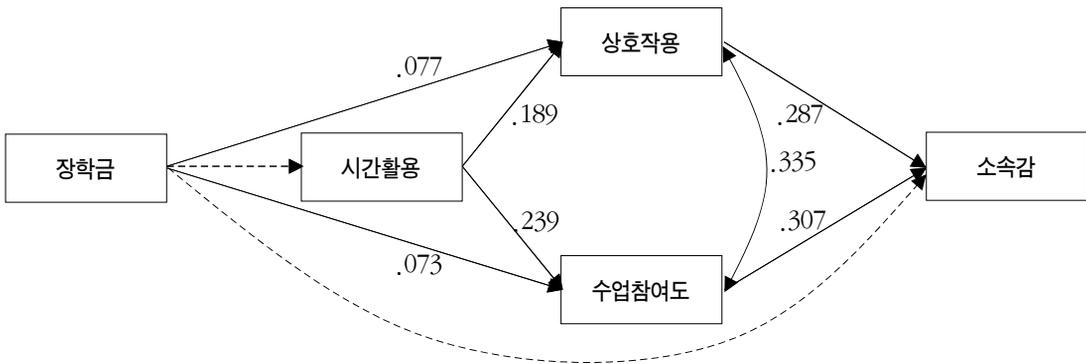
[그림 Ⅲ-9]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사립대

<표 Ⅲ-24>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소속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소속감	0.231	0.022	10.493	0.000
상호작용→소속감	0.325	0.021	15.204	0.000
장학금→소속감	0.058	0.021	2.725	0.006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0	0.022	10.21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6	0.023	4.171	0.000
시간활용→상호작용	0.185	0.023	8.048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63	0.023	2.708	0.007
장학금→시간활용	0.061	0.024	2.552	0.011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299	0.022	13.779	0.000

(3)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전문대)

전문대에서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25>와 [그림 III-10]에 제시되었다. 장학금은 소속감과 시간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상호작용과 수업 참여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을 매개로 하여 소속감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장학금은 수업 참여도를 통해 소속감에 .022(p=.010),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에 .022(p=.007)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효과는 .082(p=.00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10] 장학금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전문대

<표 III-25>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소속감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소속감	0.307	0.026	11.876	0.000
상호작용→소속감	0.287	0.026	11.045	0.000
장학금→소속감	0.031	0.025	1.228	0.219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9	0.027	8.856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73	0.028	2.625	0.009
시간활용→상호작용	0.189	0.028	6.876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77	0.028	2.769	0.006
장학금→시간활용	0.049	0.029	1.724	0.085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35	0.025	13.155	0.000

4) 장학금의 적응 관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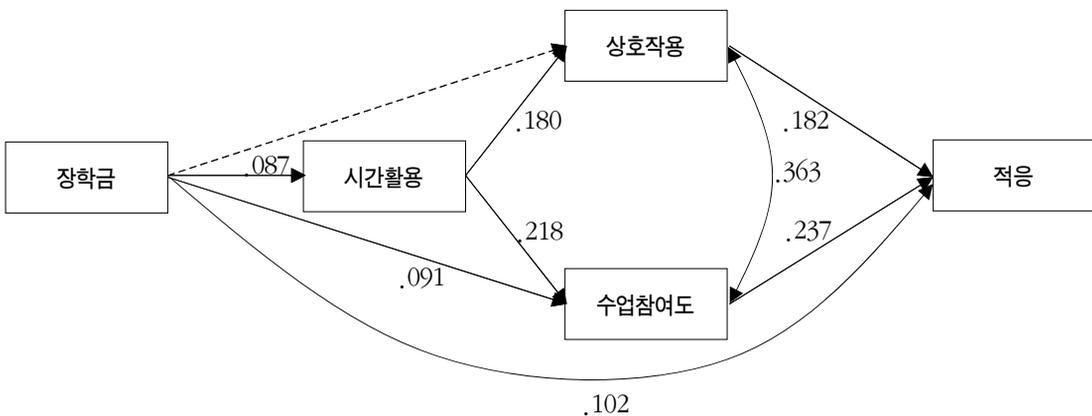
대학 유형에 따른 장학금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위한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Ⅲ-26>에 제시하였다. χ^2 값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에서 모두 유의확률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RMSEA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대에서 모두 허용가능한 수준이므로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사립대와 전문대에서는 RMSEA 적합도 지수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Ⅲ-26> 장학금의 적응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 적응

	χ^2	df	P	RMSEA	CFI
국공립대	4.815	1	0.028	0.080	0.983
사립대	18.506	1	0.000	0.100	0.977
전문대	13.437	1	0.000	0.101	0.976

(1) 장학금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국공립대)

국공립대에서 장학금이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Ⅲ-27>와 [그림 Ⅲ-11]에 제시되었다. 장학금은 적응, 시간활용,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업 참여도를 통해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beta=.022$)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응에 대한 장학금의 총효과는 .137($p=.001$)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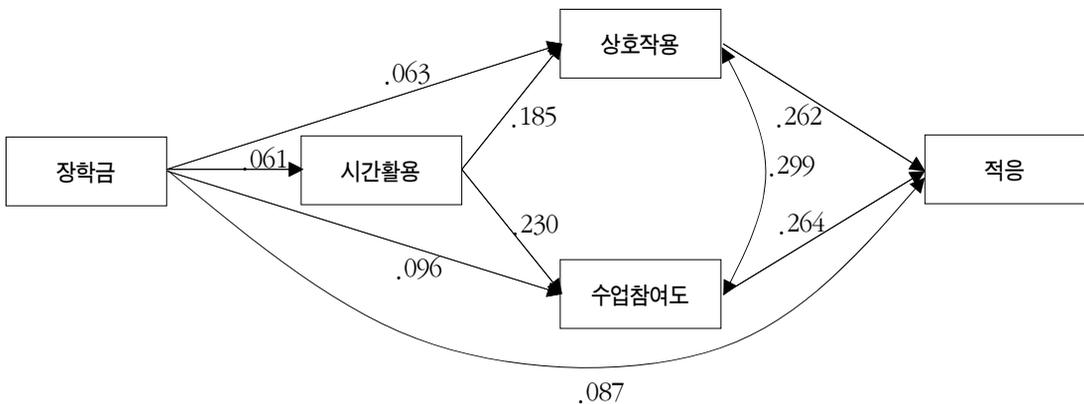
[그림 Ⅲ-11] 장학금의 적응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표 III-27〉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적응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적응	0.237	0.041	5.839	0.000
상호작용→적응	0.182	0.041	4.475	0.000
장학금→적응	0.102	0.038	2.665	0.008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18	0.039	5.585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1	0.040	2.286	0.022
시간활용→상호작용	0.180	0.040	4.512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35	0.040	0.864	0.387
장학금→시간활용	0.087	0.041	2.131	0.033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3	0.036	10.191	0.000

(2) 장학금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사립대)

장학금이 사립대에서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28〉와 [그림 III-12]에 제시되었다. 장학금은 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나면서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장학금은 가능한 모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쳤는데 수업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025(p=.000), 상호작용을 매개로 .017(p=.008)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경로를 통해서서는 .004(p=.016),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을 통해서서는 .003(.017)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효과는 .136(p=.0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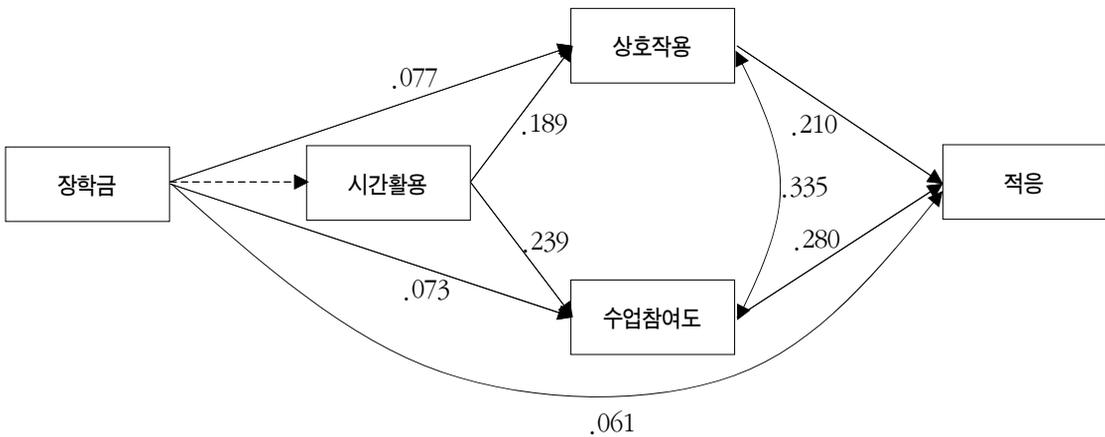
[그림 III-12] 장학금의 적응 관련 총효과 : 사립대

〈표 III-28〉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적응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적응	0.264	0.022	11.985	0.000
상호작용→적응	0.262	0.022	11.894	0.000
장학금→적응	0.087	0.021	4.074	0.000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0	0.022	10.21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96	0.023	4.17	0.000
시간활용→상호작용	0.185	0.023	8.048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63	0.023	2.708	0.007
장학금→시간활용	0.061	0.024	2.552	0.011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299	0.022	13.779	0.000

(3) 장학금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전문대)

장학금이 전문대에서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29〉와 [그림 III-13]에 제시되었다. 장학금은 적응,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업 참여도를 통해서 .020(p=.011),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016(p=.009)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학금이 적응에 미치는 총 효과는 .102(p=.000)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13] 장학금의 적응 관련 총효과 : 전문대

〈표 III-29〉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적응 관련 장학금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적응	0.280	0.027	10.312	0.000
상호작용→적응	0.210	0.028	7.616	0.000
장학금→적응	0.061	0.026	2.317	0.020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9	0.027	8.856	0.000
장학금→수업 참여도	0.073	0.028	2.625	0.009
시간활용→상호작용	0.189	0.028	6.876	0.000
장학금→상호작용	0.077	0.028	2.769	0.006
장학금→시간활용	0.049	0.029	1.724	0.085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35	0.025	13.155	0.000

마. 학점,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에 미치는 대출 효과에 관한 경로분석 결과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대출의 영향에 대한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과정 및 설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대학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의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간접효과 발생 경로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1) 대출의 학점 관련 효과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대학생의 학점 및 생활에 대한 대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III-30〉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과, 국공립대의 경우 χ^2 값이 유의확률 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RMSEA와 CFI 적합도 지수도 허용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모형에 의해 구성된 공분산 행렬이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을 충분히 재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립대의 경우 χ^2 값이 유의확률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RMSEA와 CFI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χ^2 값이 유의확률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RMSEA 지수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는 허용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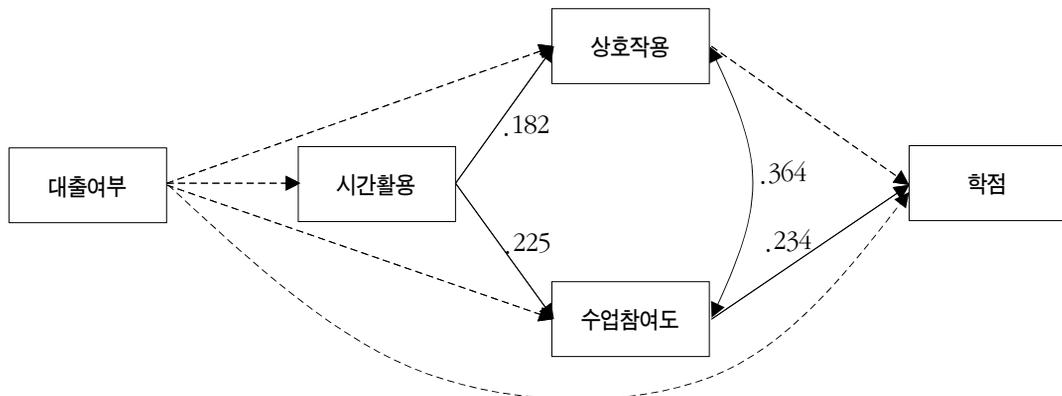
〈표 III-30〉 대출의 학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χ^2	df	P	RMSEA	CFI
국공립대	1,263	1	0.261	0.021	0.998
사립대	13,059	1	0.000	0.083	0.972
전문대	23,216	1	0.000	0.135	0.930

(1) 대출이 학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국공립대)

국공립대에서 대출여부가 학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경로모형은 <표 Ⅲ-31>와 [그림 Ⅲ-14]에 제시하였다. <표 Ⅲ-31>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표시하였으며 [그림 Ⅲ-14]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유의미하지 않는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Ⅲ-14]에서 나타나듯이 대출여부는 학점과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출여부가 매개변인을 통하여 학점으로 이어지는 모든 간접적인 경로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Ⅲ-14] 대출의 학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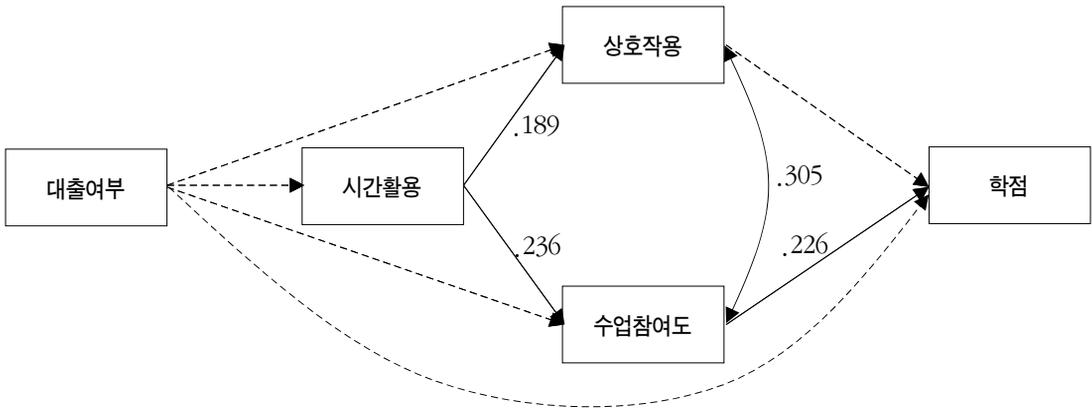
<표 Ⅲ-31>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학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학점	0.234	0.042	5.522	0.000
상호작용→학점	-0.069	0.043	-1.585	0.113
대출여부→학점	-0.049	0.040	-1.213	0.225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25	0.039	5.785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34	0.040	-0.863	0.388
시간활용→상호작용	0.182	0.040	4.591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44	0.040	-1.099	0.272
대출여부→시간활용	-0.016	0.041	-0.393	0.695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4	0.036	10.209	0.000

(2) 대출이 학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사립대)

다음으로 사립대에서 대출여부가 학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32>와 [그림 III-15]에 제시하였다.

[그림 III-15]에서 보듯이 국공립대의 경우와 같이 대출여부는 학점 및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15] 대출의 학점 관련 총효과 : 사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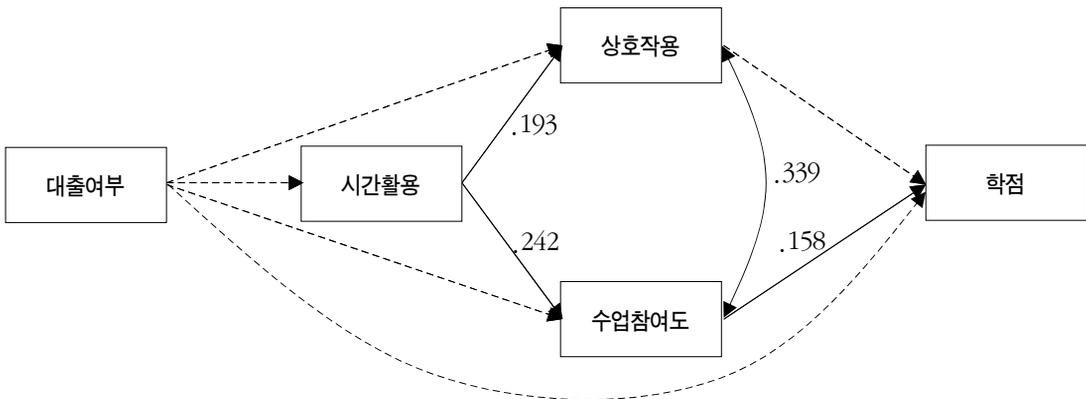
<표 III-32>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학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학점	0,226	0,024	9,355	0,000
상호작용→학점	-0,029	0,025	-1,176	0,240
대출여부→학점	0,010	0,023	0,416	0,677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6	0,022	10,473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44	0,023	1,888	0,059
시간활용→상호작용	0,189	0,023	8,218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20	0,023	-0,875	0,382
대출여부→시간활용	-0,004	0,024	-0,165	0,869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05	0,022	14,088	0,000

(3) 대출이 학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전문대)

전문대에서 대출여부가 학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33>와 [그림 Ⅲ-16]에 제시하였다.

대출여부의 직접적인 효과는 국공립대 및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학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출여부의 학점으로의 간접적인 효과 역시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Ⅲ-16] 대출의 학점 관련 총효과 : 전문대

<표 Ⅲ-33>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학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학점	0.158	0.030	5.260	0.000
상호작용→학점	0.021	0.030	0.700	0.484
대출여부→학점	-0.014	0.028	-0.511	0.609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42	0.027	8.986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04	0.028	-0.158	0.875
시간활용→상호작용	0.193	0.028	7.012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19	0.028	-0.677	0.499
대출여부→시간활용	0.005	0.029	0.165	0.869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39	0.025	13.348	0.000

2)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효과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대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III-34>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과, χ^2 값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에서 모두 유의확률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RMSEA와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대학 유형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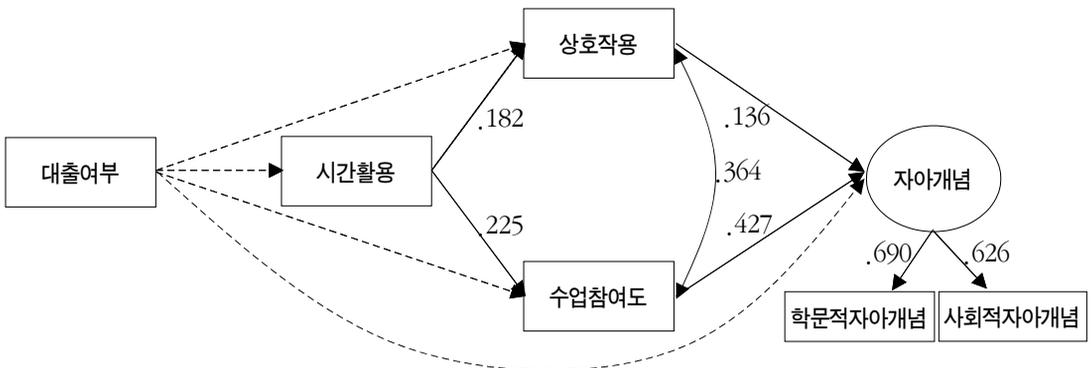
<표 III-34>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χ^2	df	P	RMSEA	CFI
국공립대	13.871	4	0.008	0.064	0.972
사립대	31.328	4	0.000	0.062	0.979
전문대	23.310	4	0.000	0.063	0.981

(1) 대출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국공립대)

대출여부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국공립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I-35>와 [그림 III-17]에 제시되었다.

대출여부는 자아개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모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출여부가 자아개념으로 가는 모든 간접적인 경로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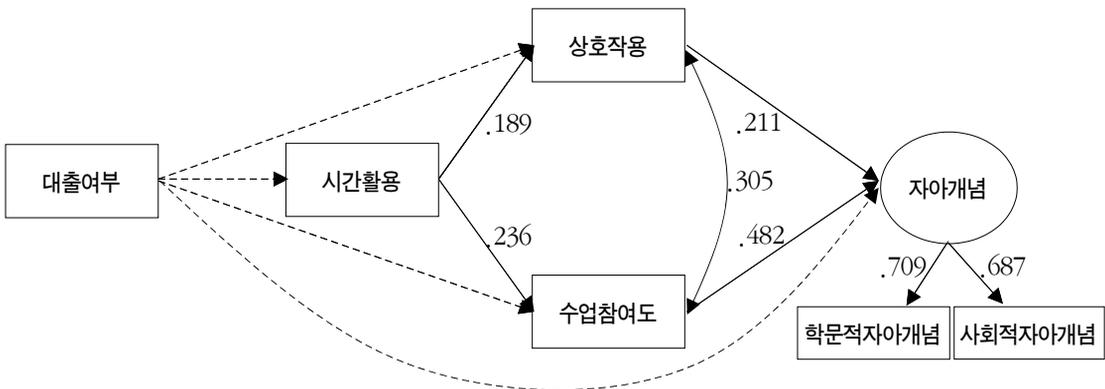
[그림 III-17]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표 Ⅲ-35〉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자아개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자아개념→학문적자아개념	0.690	0.049	13.954	0.000
자아개념→자기개념	0.626	0.047	13.180	0.000
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427	0.051	8.437	0.000
상호작용→자아개념	0.136	0.053	2.582	0.010
대출여부→자아개념	-0.038	0.049	-0.775	0.438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25	0.039	5.785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34	0.040	-0.863	0.388
시간활용→상호작용	0.182	0.040	4.591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44	0.040	-1.099	0.272
대출여부→시간활용	-0.016	0.041	-0.393	0.695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4	0.036	10.209	0.000

(2) 대출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사립대)

사립대에서 자아개념에 미치는 대출의 효과 분석 결과는 〈표 Ⅲ-36〉와 [그림 Ⅲ-18]에 제시되었다. 대출여부는 자아개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국공립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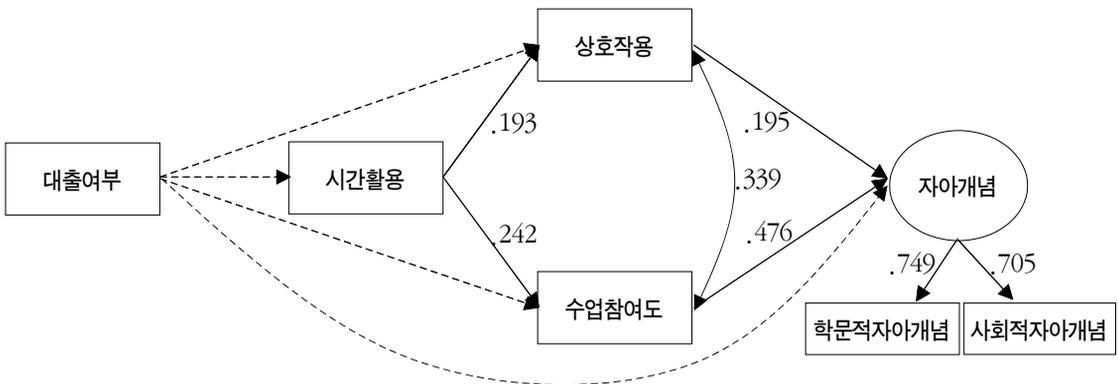
[그림 Ⅲ-18]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사립대

〈표 III-36〉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자아개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자아개념→학문자아개념	0.709	0.023	31.346	0.000
자아개념→자기개념	0.687	0.023	30.519	0.000
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482	0.025	18.980	0.000
상호작용→자아개념	0.211	0.027	7.696	0.000
대출여부→자아개념	-0.005	0.026	-0.185	0.853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6	0.022	10.473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44	0.023	1.888	0.059
시간활용→상호작용	0.189	0.023	8.218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20	0.023	-0.874	0.382
대출여부→시간활용	-0.004	0.024	-0.165	0.869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05	0.022	14.088	0.000

(3) 대출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전문대)

전문대에서 자아개념에 미치는 대출의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37〉와 [그림 III-19]에 제시되었다. 대출여부의 직접적인 효과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와 동일하게 자아개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출여부가 자아개념으로의 모든 간접적인 경로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림 III-19] 대출의 자아개념 관련 총효과 : 전문대

〈표 III-37〉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자아개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자아개념→학문자아개념	0.749	0.026	28.936	0.000
자아개념→자기개념	0.705	0.026	27.406	0.000
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476	0.030	15.939	0.000
상호작용→자아개념	0.195	0.032	6.055	0.000
대출여부→자아개념	0.019	0.030	0.621	0.534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42	0.027	8.985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04	0.028	-0.158	0.875
시간활용→상호작용	0.193	0.028	7.012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19	0.028	-0.677	0.499
대출여부→시간활용	0.005	0.029	0.165	0.869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39	0.025	13.348	0.000

3) 대출의 소속감 관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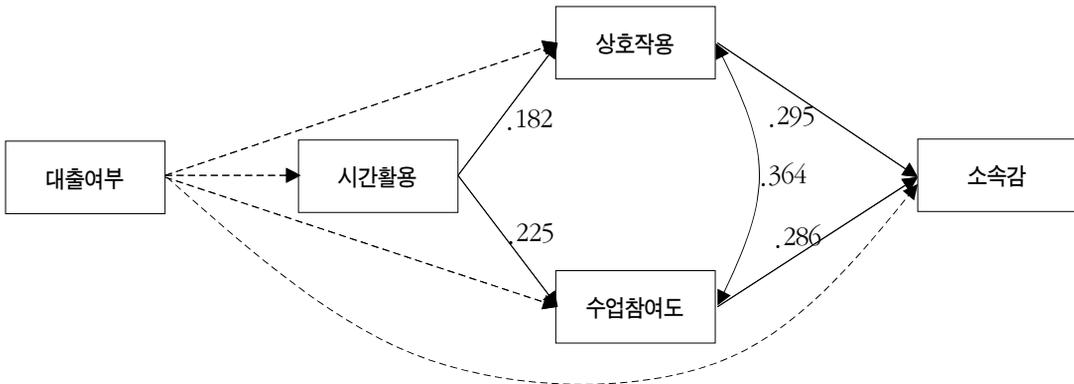
대출여부가 학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과 동일한 경로모형 적용하여 대학 유형에 따른 대출이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표 III-38〉에 제시하였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χ^2 값을 살펴보면 유의확률 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데이터의 공분산행렬을 모형이 적절하게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RMSEA와 CFI 적합도 지수는 국공립대의 경우 χ^2 값이 자유보다 작아 각각 0과 1로 고정되었으며 사립대의 경우 모두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χ^2 값이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RMSEA와 CFI 등이 적합도 지수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8〉 대출의 소속감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χ^2	df	P	RMSEA	CFI
국공립대	0.287	1	0.592	0.000	1.000
사립대	2.957	1	0.086	0.033	0.997
전문대	7.236	1	0.007	0.072	0.990

(1) 대출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국공립대)

국공립대에서 대출여부가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39>와 [그림 III-20]에 제시되었다. 대출여부는 소속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며 소속감에 대한 대출여부의 모든 간접적인 경로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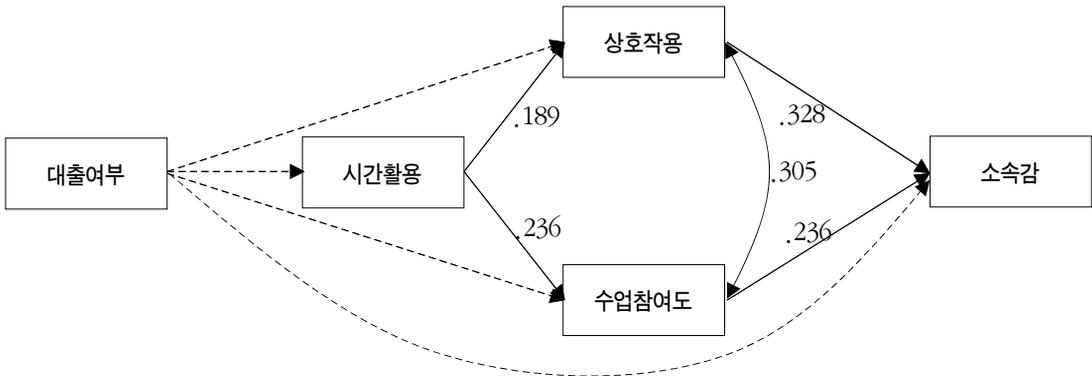
[그림 III-20] 대출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표 III-39>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소속감관련 대출여부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소속감	0.286	0.038	7.594	0.000
상호작용→소속감	0.295	0.038	7.850	0.000
대출여부→소속감	-0.033	0.036	-0.934	0.350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25	0.039	5.785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34	0.040	-0.863	0.388
시간활용→상호작용	0.182	0.040	4.591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44	0.040	-1.099	0.272
대출여부→시간활용	-0.016	0.041	-0.393	0.695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4	0.036	10.209	0.000

(2) 대출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사립대)

사립대에서 대출이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Ⅲ-40>와 [그림 Ⅲ-21]에 제시되었다.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대출여부는 소속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며 소속감에 대해 간접적인 모든 경로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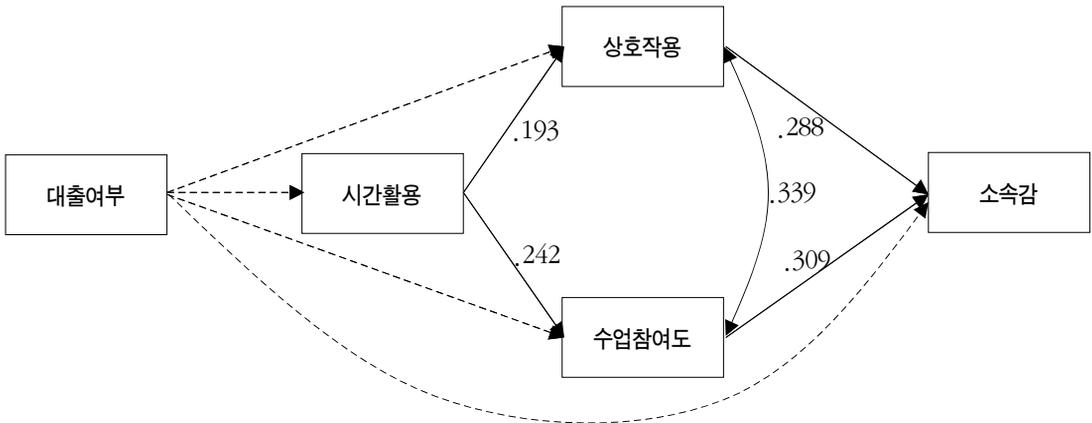
[그림 Ⅲ-21] 대출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사립대

<표 Ⅲ-40>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소속감관련 대출여부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소속감	0.236	0.022	10.749	0.000
상호작용→소속감	0.328	0.021	15.314	0.000
대출여부→소속감	0.006	0.021	0.262	0.793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6	0.022	10.473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44	0.023	1.888	0.059
시간활용→상호작용	0.189	0.023	8.218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20	0.023	-0.874	0.382
대출여부→시간활용	-0.004	0.024	-0.165	0.869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05	0.022	14.088	0.000

(3) 대출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전문대)

전문대에서 대출이 소속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41>와 [그림 III-22]에 제시되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결과와 동일하게 대출여부는 소속감,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며 소속감에 대한 간접적인 경로에 있어서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III-22] 대출의 소속감 관련 총효과 : 전문대

<표 III-41>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소속감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소속감	0.309	0.026	11.976	0.000
상호작용→소속감	0.288	0.026	11.125	0.000
대출여부→소속감	-0.023	0.025	-0.912	0.362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42	0.027	8.986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04	0.028	-0.157	0.875
시간활용→상호작용	0.193	0.028	7.012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19	0.028	-0.677	0.499
대출여부→시간활용	0.005	0.029	0.165	0.869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39	0.025	13.348	0.000

4) 대출의 적응 관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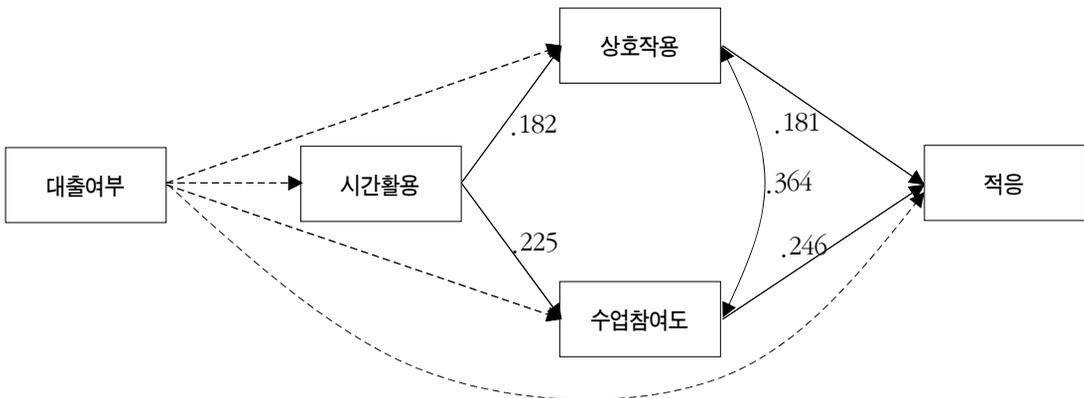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적응에 대한 대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 <표 III-42>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과, χ^2 값이 모든 대학 유형에서 유의확률 5% 이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RMSEA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대에서 모두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립대와 전문대에서 RMSEA 지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CFI 등의 적합도 지수가 허용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42> 대출의 적응 관련 효과 분석모형 적합도

	χ^2	df	P	RMSEA	CFI
국공립대	5.493	1	0.019	0.087	0.979
사립대	19.358	1	0.000	0.102	0.975
전문대	13.986	1	0.000	0.103	0.974

(1) 대출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국공립대)

국공립대에서 대출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43>와 <그림 III-23>에 제시되었다. 대출여부는 직접적으로 적응,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응에 대한 대출여부의 간접적인 효과도 모든 간접경로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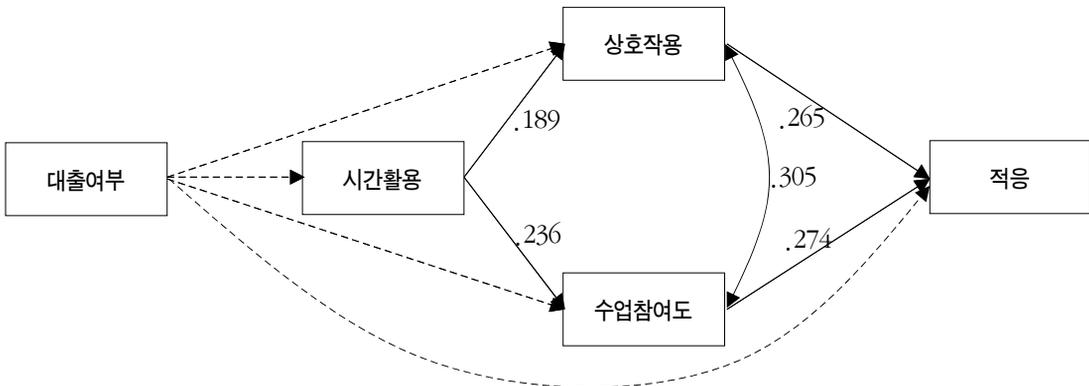
[그림 III-23] 대출의 적응 관련 총효과 : 국공립대

〈표 III-43〉 표준화 경로계수 : 국공립대 적응관련 대출여부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적응	0.246	0.040	6.091	0.000
상호작용→적응	0.181	0.041	4.423	0.000
대출여부→적응	-0.057	0.038	-1.493	0.135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25	0.039	5.785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34	0.040	-0.863	0.388
시간활용→상호작용	0.182	0.040	4.591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44	0.040	-1.099	0.272
대출여부→시간활용	-0.016	0.041	-0.393	0.695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64	0.036	10.209	0.000

(2) 대출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사립대)

대출여부가 사립대에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III-44〉와 [그림 III-24]에 제시되었다.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대출여부는 적응,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응에 대한 유의미한 간접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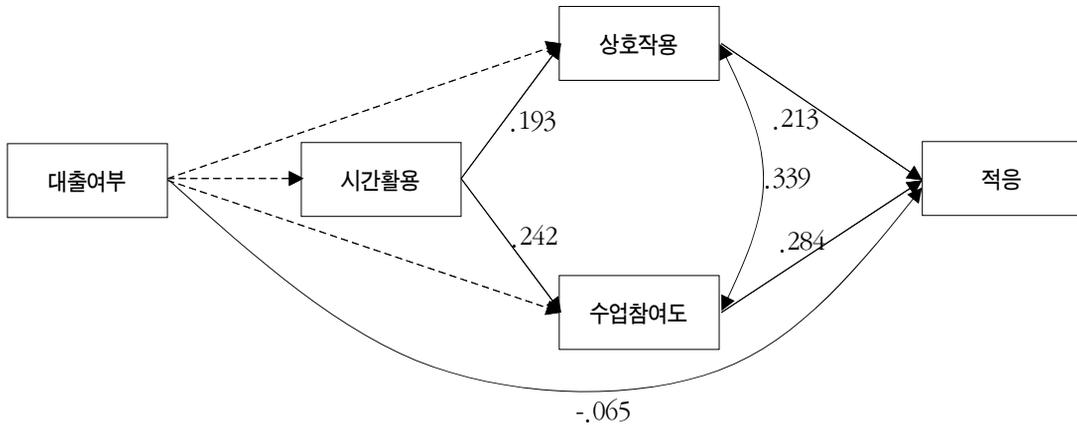
[그림 III-24] 대출의 적응 관련 총효과 : 사립대

〈표 Ⅲ-44〉 표준화 경로계수 : 사립대 적응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적응	0,274	0,022	12,423	0,000
상호작용→적응	0,265	0,022	11,987	0,000
대출여부→적응	-0,019	0,021	-0,885	0,376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36	0,022	10,473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44	0,023	1,888	0,059
시간활용→상호작용	0,189	0,023	8,218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20	0,023	-0,875	0,382
대출여부→시간활용	-0,004	0,024	-0,165	0,869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05	0,022	14,088	0,000

(3) 대출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전문대)

대출여부가 전문대에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는 〈표 Ⅲ-45〉와 [그림 Ⅲ-25]에 제시되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와 다르게 대출여부는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065(P=.012)$ 로 부적인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시간활용,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에 있어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림 Ⅲ-25] 대출의 적응 관련 총효과 : 전문대

〈표 III-45〉 표준화 경로계수 : 전문대 적응 관련 대출여부 효과 분석모형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효과/표준오차	p
수업 참여도→적응	0.284	0.027	10.488	0.000
상호작용→적응	0.213	0.028	7.730	0.000
대출여부→적응	-0.065	0.026	-2.512	0.012
시간활용→수업 참여도	0.242	0.027	8.986	0.000
대출여부→수업 참여도	-0.004	0.028	-0.158	0.875
시간활용→상호작용	0.193	0.028	7.012	0.000
대출여부→상호작용	-0.019	0.028	-0.677	0.499
대출여부→시간활용	0.005	0.029	0.165	0.869
상호작용↔수업 참여도	0.339	0.025	13.348	0.000

5. 요약 및 논의

본 장에서는 한국교육중단연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이 경험한 학자금 지원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자금 지원과 대학 교육경험 및 대학교육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장학금과 대출 수혜여부에 따른 학생 개인 배경적 특성과 대학 입학 전 학업준비도, 전공, 주요 대학교육 경험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대학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과 적응을 대학교육의 성과로 선정하고, 장학금 여부와 대출여부가 이들 대학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각각 탐색하였다. 이때 시간활용과 교수 및 선후배와의 상호작용, 수업 참여도 등의 대학교육 경험 요인을 경로분석의 매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의 장학금 수혜 비율은 34.2% 정도였으나 대출을 받은 학생 비율은 이보다 낮은 17.3%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의 과정과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47.6%, 사립대는 28.9%, 전문대는 35.3%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하였다. 즉 장학금 수혜율은 국공립대가 가장 높고, 사립대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국공립대의 8.8%, 사립대의 17.0%, 전문대의 22.1%의 학생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출 비율은 전문대, 사립대, 국공립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공립대 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장학금 수혜 비율이 높았고 인문, 사회, 교육 계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 전공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국공립대에서 관찰된 성별 차이나 전공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모든 대학 유형에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아버지 교육연한 차이는 없었으나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가구 소득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여부와 수능등급점수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국공립대에서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수능등급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사립대와 전문대 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출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대출여부에 따른 이변인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립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수능등급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대학 유형에서 공통으

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 성과는 물론 학습과정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수업 참여도, 시간활용 등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부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 및 대학생활 관련 변인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적응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간에 대학 성과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장학금 및 대출의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도 이와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수혜여부는 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여부는 이들 대학교육 성과변인과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다만 전문대의 경우 대출여부는 대학생의 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장학금 수혜자와 대출자의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대학 유형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 특성과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성별이나 전공, 수능등급점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국공립대가 장학금 배분 시 형평성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업 준비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아버지 교육 수준이나 가구 소득이 낮았으며 특히 사립대 대출자의 경우 수능등급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자에게는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학업 등 다른 교육적 처치도 지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장학금 수혜자 모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과 비교해 바람직한 교육경험을 더 많이 하고 대학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 인지적·정의적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학금 지원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아버지 교육연한 차이는 없었고 가구 소득은 오히려 더 낮았으며 특히 사립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대학 입학 전 학업성취수준도 더 높지 않았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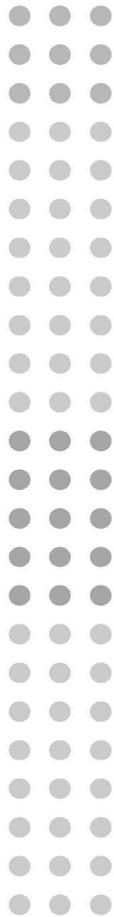
대출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대학교육 경험 및 성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대학 입학 초기에는 대출이라는 형태를 통한 학자금 지원은 대학생이 바람직한 교육 경험을 하고 학업적 성취를

이루고 대학에 잘 적응하여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데 별다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장학금 분석과 매우 대비되는 결과로 대출 수혜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교육 성과 요인별로 장학금의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학점과 대학 적응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확인되었다. 대학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직접적인 영향은 사립대에서만 관찰되었고 국공립대와 전문대에서는 시간활용이나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 확인되었다. 인지적, 대인적,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한 자아개념 역시 학자금 수혜의 직접적인 영향은 사립대에서만 관찰되었고 국공립대와 전문대에서는 시간 활용이나 수업 참여도,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 확인되었다. 장학금 지원이 학생들의 대학 적응과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연구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의 영향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나 인지적, 대인적,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한 자아개념에 크게 미치는 못하였다. 중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장학금 지원의 효과가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로 확대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 유형별 분석 결과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4년제 사립대에 비해 4년제 국공립대와 전문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장학금 지원의 직간접적 영향이 덜 명료하게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경우, 사립대에 비해 장학금 수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경험 요인과 대학교육 성과 요인 간의 관계는 이에 대한 부분적 설명을 제공해 주는데 국공립대에서는 장학금 지원여부와 동료와의 상호작용 및 대학교육 성과 요인 간 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났다. 즉, 사립대에 비해 국공립대에서는 교수와 학생 또는 동료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교육적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국공립대에서는 대학 구성원 내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대학교육 경험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시간활용과 수업 참여도,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선별하여 장학금 지원 영향이 작동하는 경로로 보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3개 요인은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장학금 지원의 영향이 대학교육 성과로 이어지는 통로로서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역할은 시간활용이나 수업 참여도에 비해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빈도나 내용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 연구 결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IV.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요약 및 논의

IV.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미국 고등교육의 팽창을 탐구한 Trow(1973)에 따르면, 진학률이 늘어나면서 고등교육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엘리트 교육은 진학률이 15%를 넘어가면서 대중화(mass)되며, 50%를 넘어가면서 보편화(universal)되고, 각 단계별 고등교육의 성격이 달라진다. 엘리트 교육단계에서는 고등교육의 목적이 “교양교육을 통한 지배 엘리트의 양성”이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학졸업장 소지여부에 따라서 분배되었다. 반면에 보편화된 교육단계에 들어서면, 그 목적이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력 양성”으로 바뀌고,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단순히 대학 졸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게 된다.

국내에서도 고등교육 진학률이 80%를 넘어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대학 모형이 분화되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종결교육기관으로서 졸업생의 취업성도가 그 주된 산출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취업성도를 주된 평가지표로 사용함으로써 대학의 역량을 졸업생의 취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의 급상승과 더불어 연간 50여만 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변모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억제하면서 대학졸업의 취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2년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취업이 가능한 대졸자 257,933명 중 144,836명만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56.2%에 불과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8. 22). 고학력 공급과잉이 고학력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학교육의 연장과 고학력 취업경쟁의 심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한 취업시장의 경쟁력 심화까지 겹쳐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취업사이트(Job Korea) 온라인 방문자수는 2007년 600만 명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였다. 대학생의 30.3%가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대답하며, 4·5년차 대학생의 경우 65%가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대답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닌 취업자체를 걱정하고 있으며, 청년취업난은 이제 더 이상 대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학등록금의 인상은 고등교육의 목적을 취업(취업 여부 또는 보다 안정적인 정규직이나 대기업의 취업)과 같은 경제적, 세속적 가치로 평가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이 높은 등록금(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재(취업과 소득 보장)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자금대출 중심의 학자금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기금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재원의 원활한 흐름(대출-상환 간 순환 구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졸업생의 취업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대학은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하며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각 단위 대학의 인적자원 투자는 각 기관의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졸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이 진로준비기관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의 교육이 실제 일터의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면 그 교육에 대한 효용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노경란 외, 2011b).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적극적 변화를 유도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성과중심 사업의 발굴과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이 ‘전략적 행동가’가 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히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전략지표로써 활용되어 왔다. 즉,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학자금 대출 및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사업 등의 사업 선정 과정에서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준거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취업 여부 및 취업의 질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모두 중요한 변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여건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 및 취업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현행 대학차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들 각각의 유형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여부 및 취업의 질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어떠한 학생 및 대학의 변인이 졸업생들의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과 연관이 있는가를 찾아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개과정과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가.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유도한 사업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부터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이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 실업자의 취업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에서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더불어 그동안 대학들은 노동시장의 주된 인적자원 공급자이면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에 상대적으로 미흡해 청년실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미흡했다. 그래서 취업지원노력을 강화하는 대학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청년실업해결 노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노동부, 2005).

재정지원 대학은 각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형평성의 측면에서 학교급(전문대/4년제대)이나 대학 소재지(수도권/지방) 등에 따라 고르게 지원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예산 지원액은 학생 수에 비례해 지원 상한액을 두고 대학의 사업계획에 따라 배부되었다. 사업 예산은 사업직전년도 취업지원예산에 비해 증액된 예산 중 국가가 75%를 지원하고, 이에 대응하여 각 대학이 25%를 대응 투자(matching fund)하도록 하였다. 사업 첫 해인 2006년에는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하여, 105개 대학(수도권 4년제대 26개교, 수도권 전문대 17개교, 지방 4년제대 31개교, 지방 전문대 22개교, 추가지정 9개교 포함)에 대해 총 100억 원이 지원되었다(노동부, 2006a; 2006b). 이후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20%(19개교)를 제외한 대학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예산이 계속 지원되도록 하고, 매년 추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노동부, 2007; 2008).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직업 진로개발·지도 프로그램과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사업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기존의 취업지원실을 취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던 직업지도 프로그램(Career Assistant Program; CAP)이나 직업개발 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rogram; CDP)을 학교 내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하였다. 더불어,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취업교과목을 운영하거나 잡카페 혹은 잡섹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노동부, 2008). 각 대학들은 지역이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영대와 윤형한(2007)에 따르면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취업박람회, 취업 관련 교육, 취업 캠프, 취업특강, 취업동아리와 커뮤니티 육성, 취업 준비 프로그램, 취업 멘토링,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진로·취업 인·적성 및 심리검사, 진로·취업 상담 프로그램, 취업 인프라 구축, 전공 관련 프로그램, 취업담당자 능력개발 등 13개로 유형화 해 볼 수 있었다.

취업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임언 등(2006), 이영대와 윤형한(2007), 이상호 등(2010)이 분석하였다. 우선 임언 등(2006)은 사업 첫 해인 2006년의 중간보고서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취업지원부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취업지원인력이 확충되며, 취업지원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추진되면서 대학의 취업지원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교 만족도가 증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취업률이 제고되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영대와 윤형한(2007)은 2년간 시행된 취업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계자들이 직면하는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취업담당자 대상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앞의 연구와 같이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대학에서 취업담당자들이 증원되고 이들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학 내에서 타부서나 교수로부터 협조 받는 경우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취업담당자들이 느끼기에는 취업지원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증가하였고,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취업률이 높아졌거나 청년실업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별로는 취업캠프가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으로 취업준비 프로그램(이력서, 면접클리닉 등), 취업관련교과목, 취업특강, 진로와 취업상담 등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취업박람회를 효과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취업멘토링,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순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호 등(2010)은 2008년 3년간의 사업기간이 완료된 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년 계속

지원받은 학교 82개 대학과 1년만 지원받은 58개교에 대해 취업지원부서의 위상, 취업지원 예산, 물적·인적 인프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생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지원부서의 교내 위상과 관련해 부처급 비율이 증가하였고, 취업지원사업 예산 중 40% 정도를 대학에서 대응 투자함으로써 물적·인적 인프라가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한 잡 카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인프라는 그리 많이 확충되지는 않았고, 인적 측면에서도 사업 인력은 늘어났으나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은 그리 확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지양한 자격증 및 어학 관련 프로그램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민간업체에 위탁이 용이한 경력관련 학습프로그램과 이력서 및 면접에 관한 구직스킬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내 취업지원부서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 방문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고 단순히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구직 및 취업정보를 얻고자 방문하여, 양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이하 NURI 사업)을 수행하였다. NURI 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대학이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핵심기관으로 가능하도록 추진되었다. 즉, 지역 우수인재들이 지역소재대학에 진학하고 지방대학은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며,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NURI 사업에는 5년간 정부에서 1조 1,906억원이 투자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 및 산업체, 대학 등에서 3,520억원이 투자되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인원 37,434명의 교원과 853,460명의 학생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취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체 21,712개 기관에 76,222명이 참여하였으며, 141,064명이 산업체 위탁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산업체와 공동 혹은 위탁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총 4,500건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총 27,625명이 참여하였다.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학 및 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받은 학생이 498,002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받은 학생이 125,865명, 해외연수를 지원받은 학생이 53,799명, 졸업후 리콜 교육을 받은 학생이 43,212명에 달할 정도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률이 2004년 당시 58.9%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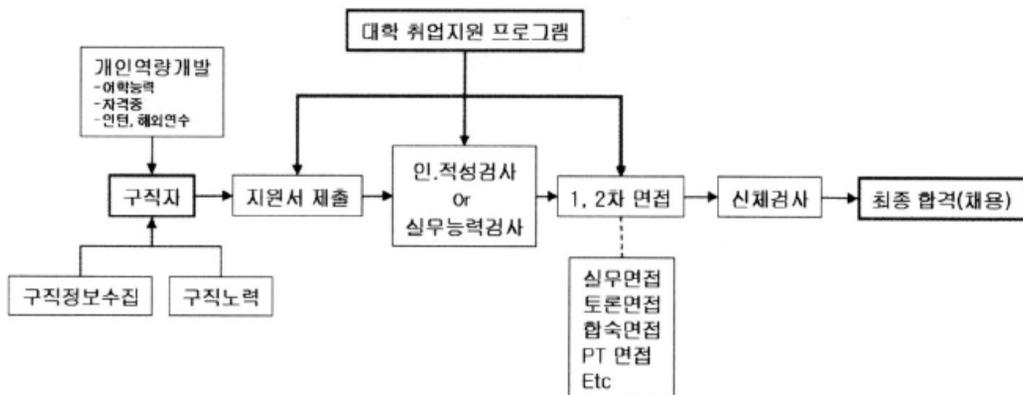
2008년 74.7%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류장수 외, 2010).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외국과 같이 현장경험이나 산학협력에 기반한 직업교육이 부족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취업률을 단기에 올릴 수 있는 일자리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체험의 경우 심리적인 효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기업과 구직자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률 향상에 초점을 두기보다 단기적 취업 마인드 강화에 더욱 영향을 주고 있다(강원준 외, 2008).

나.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념과 유형

1)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념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구직과정을 중심으로 구직자로서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때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광의에서 보면 구직자로서 대학생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구직정보의 수집과 구직노력까지 포함하는 구직과정 단계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반면 협의에서 보면 [그림 IV-1]과 같이 지원서 제출부터 면접까지의 일련의 구직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21).

[그림 IV-1] 대학생의 구직과정과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위

한편 노경란 등(2011b)은 취업지원 대신 ‘진로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광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로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다. 진로개발이라는 용어와도 관련되듯이 광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업무는 진로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 설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업결정은 진로결정의 첫 단계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직업가치관, 근무조건 및 환경 등을 토대로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이다. 진로결정과정에는 대학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졸업 후에 자신이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권재기 외, 2011: 53).

진로결정 과정에서 미래 직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특성으로는 성별, 학업성취, 자아개념(자아관), 적성인지, 진로고민 등이 있다. 둘째, 가정환경으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포부 및 기대수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학교환경에서는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주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은 목적 및 내용과 취업 준비단계를 토대로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서는 크게 취업 마인드의 향상과 실질적인 취업역량의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 준비단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본격적인 취업준비 전(前)단계, 취업준비 초기단계, 본격적인 취업준비 단계의 세 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 준비단계별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의 향상 또는 실질적인 취업역량의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본격적인 취업준비 전단계의 프로그램은 주로 취업 마인드 향상에 초점을 두는 반면, 취업준비 초기단계와 본격적인 취업준비 단계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실질적인 취업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표 IV-1〉 참고).

〈표 IV-1〉 대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범주화

구분	단계	목적	대표적인 유형
취업 마인드 향상	본격적인 취업 전(前)	자기이해 증진과 적성 및 진로 파악	- 취업캠프 - 진로나 적성심리검사 등
취업 역량 강화	취업준비 초기	취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을 배우고 각종 직업 탐색	- 학점인정 교과목 - 학기별 취업강좌 - 교내 취업박람회 등
	본격적인 취업기술 습득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익 히고 연습하거나 직업이나 직장체험을 구체적으로 시행	- 각종 직업체험 - 취업 동아리 - 창업 강좌 및 동아리 지원 등

첫째, 본격적인 취업준비 전(前)단계에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은 자기이해 증진과 적성 및 진로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캠프, 진로나 적성심리검사 등이 있다.

둘째, 취업준비 초기단계 프로그램들은 취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을 배우고 각종 직업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취업 관련 학점인정 과목, 학기별 취업강좌, 교내 취업박람회 등이 있다.

셋째, 본격적인 취업준비단계의 프로그램들은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거나 직업이나 직장체험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각종 직업체험이나 취업 동아리 등이 있다.

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주요 내용

(1) 취업 캠프

취업캠프는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며,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교내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취업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고용동향, 직업심리검사, 기업인사 담당자의 특강, 모의면접, 취업 성공 사례 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취업캠프는 다양한 취업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팀 프로젝트와 같은 경험을 통해 자발적 취업준비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이 인사 담당자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에 대한 역량 평가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취업캠프는 자신에 대한 분석 및 직무 탐색, 취업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롤플레이팅 등을 통한 자기 진단 등의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 선택을 고민하는 저학년 때부터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진로나 적성심리검사

대학생들이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첫 단계에서 하는 활동의 하나가 바로 진로나 적성심리검사이다. 대학별로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오프라인 상에서 진로나 적성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학 또는 학과별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진로나 적성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로나 적성심리검사를 다루기도 하지만, 대학별로는 취업캠프의 한 과정으로서 진로나 적성심리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대학생들은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이후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다.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www.work.go.kr)

[그림 IV-2]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및 진로심리검사 사이트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성인 대상 심리검사				
심리검사 명	검사시간	실시가능	검사안내	결과예시	검사실시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9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직업선호도검사 S형	25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직업선호도검사 L형	6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구직준비도검사	2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창업진단검사	2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직업전환검사	2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직업가치관검사	2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5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IT직무 기본역량검사	95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준고형자 직업선호도검사	2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	20분	인터넷, 지필	<input type="button" value="안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예시보기"/>	<input type="button" value="↔ 검사실시"/>	

출처: <http://www.work.go.kr/constJobCarpa/jobPsyExam/jobPsyExam.do>

[그림 IV-3]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및 진로심리검사의 방법과 내용

(3) 학점인정교과목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기별 학점인정교과목을 개설하여,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점인정교과목은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과 직업탐색, 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 습득의 세 단계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진로탐색은 선배와의 교류를 통하여 실제 구직활동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이후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실습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취업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로 자신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과제물로 제출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학점이 부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찍부터 취업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고학년에게는 취업 준비와 함께 졸업 학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있다.

(4) 취업 특강(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등의 취업 기술 특강)

교내 취업특강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는 정보만을 얻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 및 취업활동 방법을 제공한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취업에 도

움이 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 취업을 위한 면접 요령 소개, 취업 정보 안내,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선택 정보 제공, 꼭 알아야 하는 창업 준비 사항 안내, 근로기준법 해설 등이 있다.

취업특강은 교내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고, 학생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취업특강을 보다 용이하게 접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여러 번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완해 온 취업 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기업의 면접유형을 대다수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프로그램의 직접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5) 취업박람회

취업박람회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채용을 원하는 구인 사업체에는 용이한 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박람회는 주로 기업 공채시즌에 개최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대기업 역시 회사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취업박람회는 원하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인재 선발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고, 실제 면접 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면담 후 즉시 채용될 가능성도 있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취업박람회 참여 비율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원준 등(2008)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경우, 취업캠프보다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취업 리크루팅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으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지방 소재 대학의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참여 학생 수 역시 지방대학과 비교해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각종 직장체험

첫째,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학습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체험 대학’ 60개를 지정, 이·공학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연수 및 성공 중소기업 CEO 강좌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4년제 이공계 대학과 동등한 학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며, 참여 학생에게는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둘째,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이·공학계열 출신자에게 6개월 내외의 현장실무교육(전문연수 4개월·기업연수 2개월)을 실시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으로, 이·공학계열 대졸(전문대 및 대학원졸 포함) 미취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연수는 전문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 직무 소양 및 기초 이론 습득 교육이 실시되며, 기업연수에서는 연수기관의 유관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체험하는 연수가 실시된다.

셋째, 출연기관 인턴 연구원 사업이 있다. 이는 이·공학계열 졸업자 중 석·박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장에서 R&D와 관련하여 실무 경험을 배양하고, 연구역량을 제고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넷째, 학습지원 보조교사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대졸자를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채용하여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학력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7) 취업 동아리

취업동아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준비를 하도록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에서는 관심 있는 직종 또는 기업이 같은 학생들 5-20명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취업관련 특강을 실시한다.

한편, 동아리 자체적으로는 구성원 간의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실제 구직 활동을 돕고, 구직 방법을 나누는 등 자발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실제적인 취업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취업동아리는 취업을 위한 기술 함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체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 창업 강좌 및 동아리 지원

창업 강좌 지원프로그램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 아니라 창업 교육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고자 지방중소기업청이 대학 내 정규 창

업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대학에서 창업 관련 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한편, 창업동아리 지원프로그램은 대학(고등학교 포함)내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 및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저변을 확충하고 예비창업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대학 총(학)장, 산학협력단장 등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교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며, 이들의 창업아이템을 평가하고 선정하여 동아리 별로 아이템 개발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 선행연구 검토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강원준 등(2008)의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취업특강, 학기별 취업강좌, 취업 동아리 등 다섯 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 254명(최종 분석대상 기준)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취업성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자 대비 취업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취업동아리(80.7%), 취업박람회(75.7%), 학기별 강좌(75.0%), 교내 취업특강(73.0%), 취업역량강화캠프(70.3%)의 순으로 상대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주입식 또는 단기적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며, 둘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가운데는 모의면접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강길훈(2011)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설정 및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에 대한 참여자의 내용 만족도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4년제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5점 만점에 최소 1.5점 ~ 최대 2.3점 범위). 세부적으로 직업정보탐색이나 기업정보탐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입사서류 작성법이나 모의면접은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한편 프로그램의 참여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학년이 높을

수록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이, 학교 소재지별로는 서울과 경인 지역 대학생들이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분석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일회적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만족도와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경란 등(2011a)은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GOMS을 활용하여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 개인의 배경변인 가운데는 성별과 모의 학력 수준이 취업가능성, 정규직 진입가능성, 취업 후 일자리 만족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육인프라나 교육과정 등 대학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과, 대학 재학 중 진로목표의 명확화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능력개발이 취업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노경란 등(2011b)은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GOMS을 활용하여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능력개발 노력과 취업 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학 중 진로개발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능력개발 노력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취업 후 직무적합도와 직장만족도에 대한 주는 직접 효과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능력개발 노력을 매개로 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진로결정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인다 할지라도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초직업능력을 갖추고자 스스로 노력할 때 비로소 개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으며 직장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노경란 외, 2011b: 69).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심리적 의식 고취, 인지적 진로의사결정,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진로개발역량 강화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노경란 외, 2011a).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 재학 중 진로개발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취업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취업준비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마인드 활성화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기존 진로개발 역량 강화 중심에서 진

로개발 역량 부문과 능력개발 부문의 통합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주재현 등(2010)은 2001년부터 도입된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학과)의 졸업자 148명(최종 분석 대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이 제도가 직업능력 향상에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취업과 자격 취득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수준이나 노력에 따라, 그리고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운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재형 등(2011)은 한국교육고용종단자료(KEEP)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의 직업결정의 발달양상을 분석하였다. 5년간 직업결정 변화양상을 토대로 직업결정의 잠재계층을 결정한 집단, 결정혼란 집단, 결정약화 집단, 미결정한 집단 등의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진로결정집단보다는 혼란이나 미결정집단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에서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대학 4년 동안 자신에 대한 확신 및 자부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대학의 취업률이 각종 대학평가에서 중요 지표로 활용되면 대학이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 장애 요인 파악이나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지영 등(2005)은 수도권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최종 분석대상 1,085명)으로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구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업탐색행동이 진로미결정과 구직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준비적 탐색행동이 서류통과, 면접통보, 최종합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적 탐색행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구인광고 읽기, 구인광고 보며 자격이 되는지 생각해보기, 미리 이력서 작성하거나 수정해보기, 입사지원 초안 작성해보기, 취업관련 서적이나 기사 읽기 등이 있다.

해외 대학의 경우 유럽 국가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창업가정신’을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근로장학(Work-Study) 프로그램의 효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취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연방정부의 근로장학을 포함하여 대학 재학 중에 대학 내 또는 캠퍼스 밖에서의 다양한 시간제 근로경험이 졸업 이후 취업에 주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직장경험의 연장선상에서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그 효과의 크기는 학생의 개인 특성(개인역량이나 진로에 대한 준비도)이나 학과 특성(전공계열 등) 등에 따라서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났다(Hossler, et. al., 2008).

한편 호주의 사례를 연구한 Robinson(1999)은 시간제 근로경험을 학업성취도와 관련시켜 효과를 논의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취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업성취에 부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이후 진로경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2)에서는 졸업생 개개인의 취업에 창업주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럽 각국에서 9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여기서 취업 성과는 초기 입직, 직업의 유지, 새로운 직업 찾기 등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직무경험, 직업만족, 연봉, 직무관여도 등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생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EE 프로그램은 직무경험, 현직에서 창의성 발휘, 연봉 등의 측면에서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E를 받은 졸업생은 졸업후 바로 취업하는 데, 즉 구직활동에 보다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수준의 변인과 학교수준의 변인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수준의 변인은 가정배경과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학교수준의 변인은 학교(대학)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기존의 연구에서 거론된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수준의 변인

가정배경은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다고 보고되어왔다. 방하남과 김기현(2001)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지위획득 과정을 분석한 결과, 부의 학력이 본인의 지위획득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채창균과 김태기(2009)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박환보와 김성식(2011)도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직업지위와 임금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황여정과 백병부(2008)도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이 대졸자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는 부모의 학력과 가계소득과 같은 귀속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뒷받침하였다.

성별, 학점, 전공, 어학연수경험,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등의 개인적 특성 또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다수의 연구는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성고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금재호, 2004; 김정숙, 2009; 박성재, 반정호, 2006; 박환보, 김성식, 2011; 방하남, 김기현, 2001; 임천순, 양병무, 2006; 채구묵, 2007; 최문경, 이기엽, 2008; 황여정, 백병부, 2008). 이와 관련하여 정지선 등(2011)은 남성일수록 단순한 취업여부가 아닌 취업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분석하였으며 황여정과 백병부(2008)도 남성인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먼저 학점 또한 노동시장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박성재와 반정호(2006)는 학점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으며 황여정과 백병부(2008)와 채창균과 김태기(2009)도 높은 학점이 취업여부뿐만 아니라 정규직 취업여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대졸자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채구묵(2007)의 연구도 학교성적이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여 학점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뒷받침하였다.

아울러 전공도 노동시장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지목되었다(채창균, 김태기, 2009; Eide, 1994; Rumberger & Thomas, 199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공계와 비교하여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은 취업의 가능성이 낮지만 의약계열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황여정, 백병부, 2008). 채창균과 김태기(2009)는 인문계열보다는 의약계열, 공학계열이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전공계열에 따른 대졸청년층의 취업 성과 차이를 분석한 정지선 등(2011)은 교육계열의 경우 고용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 의약계열 및 사회계열은 정규직의 고용형태가 타 전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어학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외국어 능력 또한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박성재, 반정호, 2006; 임천순, 양병무, 2006). 같은 맥락에서 어학연수 경험은 일자리 획득을 용이하게 하며(김정숙, 2009) 나아가 어학연수 지출 비용은 취업여부 및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취업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여정, 백병부, 2008).

또한 재학 중 일의 경험 또한 대학생의 취업성과에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대학교 재학 중 일의 경험은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성재, 반정호, 2006; 안주엽, 홍서연, 2002). 그런데 근로경험이 전문대학 졸업생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4년제 대

학 졸업자의 취업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들도 있다(채창균, 김태기, 2009). 또한 이규용과 김용현(2003), 이병희(2003)는 재학 중 근로경험이 취업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임금수준을 높이는 효과는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록(2004)은 단순한 재학 중 근로경험은 진로준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여 재학 중 경험하는 일의 종류와 맥락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학교수준(대학수준)의 변인

대학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의 요인으로는 대학의 서열과 대학의 소재지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상위권 대학의 졸업자들은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의 졸업자보다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규용, 김용현, 2003). 비명문대 졸업자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명문대 졸업자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임천순, 양병무, 2006). 미국사회의 경우에도 사립명문대학교 졸업생에게는 임금이 프리미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ewer, Eide, Ehrenberg, 1996)

다음으로 지역 또한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컨대 서울지역 대학의 졸업자들은 기타의 지역보다 취업의 가능성 뿐 아닌 대기업 정규직 취업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황여정, 백병부, 2008).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이 지방 대학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채창균, 김태기; 2009). 또한 류장수(2005)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대학의 졸업생이 수도권대학의 졸업생보다 정규직으로 입직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삼(2010)의 연구에서도 서울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대학의 졸업자들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들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환보와 김성식(2011) 연구에서는 서울 4년제, 기타 4년제, 전문대로 구분하여 대학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서울 4년제 대학이 기타의 대학보다 취업성과가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3. 연구 방법

가. 분석 자료

본 장에서는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200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GOMS 2009)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취업성과에 대한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는 전국의 2~3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중 졸업자의 3~4%를 선정하여 졸업 후 약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졸업자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이다. 2006년에 시작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네 번째 코호트 자료로서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2~3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18,011명에 대해 2010년 조사된 결과(GOMS 2009)이다.

전체 조사대상 18,011명 중에서 대학 재정 관련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4년제 대학 졸업자 11,397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자 11,397명은 취업결과에 따라 취업자 8,155명과 미취업자 1,066명, 비경제활동자 2,176명으로 구분되며, 이 중 비경제활동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자 9,221명의 대학전공 계열을 보면 인문계열은 1,194명, 사회계열은 2,365명, 교육계열은 574명, 공학계열은 2,417명, 자연계열은 1,244명, 의약계열은 392명, 예체능계열은 1,0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을 하는 상황이 다른 전공계열에 비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하였다. 총 7,794명 중에서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대학학점, 고교계열 등의 응답에 일부 결측이 있는 사례를 제외한 분석 대상은 총 7,037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대학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4년제 대학 중에서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GOMS 2009)에 포함된 졸업자가 있는 대학은 162개교였다. 이 중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7개교는 본교와 분교로 나누어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169개교),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가톨릭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등 4개 학교의 재학생은 모두 의약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등 3개교는 학생 수준 변인에 결측이 존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학교 수준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례가 10명 이하인 37개 대학과 148명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고, 중앙대학교의 경우 본교에 대한 대학 재정 자료만 있어, 본교에 속한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은 124개 대학의 졸업자 6,817명이다.

나. 분석 변인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성과를 크게 취업여부와 정규직 취업여부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성과변인인 취업여부는 취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미취업)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이 때 취업하지 못한 경우인 ‘미취업’을 기준범주로 삼아 0의 값을 부여하고, 취업한 경우인 ‘취업’에 1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인인 정규직 취업여부는 정규직 취업, 비정규직 취업, 미취업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미취업’을 기준 범주로 삼고, ‘정규직 취업’과 ‘비정규직 취업’에 대해 각각 더미변인을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명변인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학교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취업에 관해 학점 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 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기타 프로그램’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참여여부와 도움여부를 묻고 있다. 각 프로그램 별로 참여여부와 도움여부를 조합하면, ‘참여하고 도움이 된 경우(도움)’, ‘참여했으나 도움이 안 된 경우(미도움)’, ‘참여하지 않은 경우(미참여)’ 등 3가지 범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사례가 매우 적은 ‘기타 프로그램’을 제외한 7개 프로그램에 대해, ‘미참여’를 기준 범주로 하고 ‘도움’과 ‘미도움’에 대해 각각 더미변인을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7개 프로그램은 다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임의로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였다. 취업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으로는 직업심리검사, 진로관련상담, 취업캠프 등의 3개 프로그램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학점

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교내 취업 박람회,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등 개 프로그램을 구분하였다.

통제에 사용된 변인은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생 수준에서는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대학학점, 고교계열, 대학전공, 해외연수 경험 여부, 인턴 경험 여부, 자격증 수,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등이 사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학생을 기준으로 삼아 0의 값을 부여하고, 남학생에게는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인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부모학력은 최종으로 다닌 학교급과 졸업여부로 조사되었는데, 졸업한 경우 최종 교육연한으로 변환하고, 중퇴한 경우 이전 학교급의 최종 교육연한과의 중간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¹⁹⁾. 가구소득은 선택지의 범위 중 백만원 단위에서 중간값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²⁰⁾. 고교 계열은 일반고와 전문고, 특목고로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여 전문고와 특목고에 대해 각각 더미변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대학 전공은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등 7개 계열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취업을 하는 상황이 다른 전공계열과 많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5개 계열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교육 계열을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4개 전공계열에 대해 각각 더미변인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대학학점은 학교별로 만점이 4.0점, 4.3점, 4.5점 등으로 달라 이를 보정해 비교할 필요가 있어, 100점 만점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해외연수 경험 여부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인턴 경험 여부도 마찬가지로 인턴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해 변환하였다. 자격증 수는 자격증이 전혀 없는 경우와 1~2개 있는 경우, 3개 이상 있는 경우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1~2개 있는 경우와 3개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해 각각 더미변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해

19) 부모교육수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였다. '무학'은 0년, '초등학교 중퇴'는 3년, '초등학교 졸업'은 6년, '중학교 중퇴'는 7.5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중퇴'는 10.5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전문대 중퇴'는 13년, '전문대 졸업'은 14년, '대학 중퇴'는 14년, '대학 졸업'은 16년, '대학원 중퇴'는 17년, '대학원 졸업'은 18년의 값을 부여하였다.

20) 소득이 없는 경우 0만원, 10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25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 350만원,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450만원,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85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으로 변환하였다.

더미변인으로 변환한 후 사용하였다.

대학수준에서는 설립 유형과 위세, 소재지, 규모, 장학금 수혜율, 1인당 교육비,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율 등을 사용하였다. 설립 유형은 국립대, 공립대, 사립대 등 3가지 범주로 조사되었는데, 사립대를 기준으로 삼고, 국립대와 공립대에 1을 부여한 하나의 더미변인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대학 위세는 학생들이 졸업할 당시인 2008-2009년의 중앙일보 대학 순위 정보를 활용하였다. 2008년과 2009년 중, 한 해라도 30위권 내에 속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해 사용하였다. 대학 소재지는 수도권에 1, 비수도권에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인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대학 규모와 장학금 수혜율, 1인당 교육비는 대학 재정 자료를 변환해 사용하였는데, 회귀계수가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대학규모는 100명, 장학금 수혜율은 10%, 1인당 교육비는 100만원 단위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율은 앞에서 언급한 7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학교별 참여율을 산출해 사용하였는데, 회귀계수가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10% 단위로 변환해 분석하였다.

이렇게 변환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았다.

〈표 IV-2〉 분석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생수준					
취업여부(취업=1)	6,817	.88	.32	.00	1.00
정규직 취업여부(정규직=1)	6,817	.59	.49	.00	1.00
정규직 취업여부(비정규직=1)	6,817	.30	.46	.00	1.00
학점인정교과목(도움=1)	6,817	.25	.43	.00	1.00
직장체험(도움=1)	6,817	.16	.37	.00	1.00
직업심리검사(도움=1)	6,817	.26	.44	.00	1.00
교내취업박람회(도움=1)	6,817	.23	.42	.00	1.00
진로관련상담(도움=1)	6,817	.15	.35	.00	1.00
면접기술/이력서작성(도움=1)	6,817	.21	.41	.00	1.00
취업캠프(도움=1)	6,817	.08	.27	.00	1.00
학점인정교과목(미도움=1)	6,817	.06	.23	.00	1.00
직장체험(미도움=1)	6,817	.03	.16	.00	1.00
직업심리검사(미도움=1)	6,817	.09	.29	.00	1.00

변인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내취업박람회(미도움=1)	6,817	.07	.26	.00	1.00
진로관련상담(미도움=1)	6,817	.03	.18	.00	1.00
면접기술/이력서작성(미도움=1)	6,817	.03	.17	.00	1.00
취업캠프(미도움=1)	6,817	.02	.12	.00	1.00
성별(남=1)	6,817	.60	.49	.00	1.00
부모교육수준(교육연한)	6,817	13.02	2.90	3.00	18.00
가구소득(100만원)	6,817	3.65	1.99	.00	10.00
고교계열(전문고=1)	6,817	.05	.22	.00	1.00
고교계열(특목고=1)	6,817	.02	.14	.00	1.00
대학전공(인문=1)	6,817	.15	.35	.00	1.00
대학전공(사회=1)	6,817	.30	.46	.00	1.00
대학전공(자연=1)	6,817	.16	.37	.00	1.00
대학전공(공학=1)	6,817	.31	.46	.00	1.00
대학학점(100점 만점)	6,817	87.20	4.49	70.00	100.00
해외연수경험(경험=1)	6,817	.24	.43	.00	1.00
인턴경험(경험=1)	6,817	.17	.38	.00	1.00
자격증 수(1~2개=1)	6,817	.49	.50	.00	1.00
자격증 수(3개 이상=1)	6,817	.17	.38	.00	1.00
직업교육훈련(경험=1)	6,817	.15	.36	.00	1.00
대학수준					
설립유형(국공립대=1)	124	.19	.39	.00	1.00
대학위세(30위권 이내=1)	124	.25	.43	.00	1.00
대학소재지(수도권=1)	124	.44	.50	.00	1.00
대학규모(100명)	124	131.58	83.44	14.88	371.15
장학금수혜율(10%)	124	1.86	.58	1.01	4.65
1인당교육비(100만원)	124	9.06	3.19	4.91	27.49
학점인정교과목 참여율(10%)	124	3.08	1.06	.83	5.22
직장체험 참여율(10%)	124	1.92	.94	.37	6.36
직업심리검사 참여율(10%)	124	3.56	1.12	.91	6.52
교내취업박람회 참여율(10%)	124	2.86	1.28	.59	6.50
진로관련상담 참여율(10%)	124	1.82	.80	.00	4.55
면접기술/이력서작성 참여율(10%)	124	2.55	1.05	.00	7.27
취업캠프 참여율(10%)	124	1.03	.74	.00	4.00

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성가를 취업여부(취업/미취업)와 정규직 취업여부(정규직/비정규직/미취업)로 규정하고, 여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각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여부와 참여한 학생에 대해 도움여부를 질문한 결과를 재조직하여 도움/미도움/미참여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즉,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미도움/미참여’에 따라 취업성가(취업/미취업 혹은 정규직/비정규직/미취업)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모형을 구안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범주변인이다. 취업여부는 취업과 미취업 등 2개 범주로, 정규직 취업여부는 정규직 취업과 비정규직 취업, 미취업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이 아닌 범주변인에 적합한 회귀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취업여부는 미취업의 경우 0, 취업의 경우 1의 값을 갖게 더미변인으로 변환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정규직 취업여부는 미취업을 기준 범주로 삼아, 정규직에 취업한 경우와 비정규직에 취업한 경우가 각각 1의 값을 갖게 변환한 다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는 다수의 학생들이 한 대학에 속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층적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다층모형으로 확장시킨 일반화위계선형모형(HGLM, Raudnebush & Bryk, 2002)을 적용하였다.

설명변인의 경우, 각 프로그램별 참여/도움여부이다. 이 변인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미참여)를 기준 범주로 삼아,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도움)와 참여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미도움)가 각각 2의 값을 갖도록 두 개의 더미변인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통제변인은 그 성격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 통제변인은 학생의 배경과 관련된 변인으로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계열, 대학전공 등이다. 두 번째 통제변인은 학생의 과정과 관련된 변인으로 대학학점, 해외연수 경험 여부, 인턴경험 여부, 자격증 수, 직업교육훈련 여부 등이다. 세 번째 통제변인은 대학과 관련된 변인으로, 설립 유형, 대학위세, 대학소재지, 대학 규모, 장학금 수혜율, 1인당 교육비,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통제 변인에 성격에 따라 5개 모형을 구성해 적용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참여/도움여부와 관련된 도움 더미변인과 미도움 더미변인만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에 학생의 배경과 관련된 변인을 통제하였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에 학생의 과정과 관련된 변인을 통제하였다. 네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에 대학과 관련된 변인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에 모든 통제변인을 투입해 통제하였다. 모형별로 통제에 사용한 변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3〉 통제에 사용된 변인

	모형	통제변인
모형1	기본모형	프로그램 참여/도움여부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1+학생배경변인(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계열, 대학전공)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1+학생과정변인(대학학점, 해외연수경험, 인턴경험, 자격증 수, 직업교육훈련)
모형4	대학변인통제	모형1+대학(설립유형, 대학위세, 대학소재지, 대학규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수혜율, 프로그램 참여율)
모형5	최종모형	모형1+모형2~4의 통제변인

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수준(학생수준)

$$\ln\left(\frac{p(Y_{ij} = 1)}{1 - p(Y_{ij} = 1)}\right) = \beta_{0j} + \beta_{1j}(\text{도움})_{ij} + \beta_{2j}(\text{미도움})_{ij} + \beta_{pj}C_{(p)ij}$$

2수준(학교수준)

$$\begin{aligned} \beta_{0j} &= \gamma_{00} + \gamma_{0q}W_{qj} + u_{0j}, \quad u_{0j} \sim N(0, \tau_{00}) \\ \beta_{1j} &= \gamma_{10} \\ \beta_{2j} &= \gamma_{20} \end{aligned}$$

위 모형에서 Y_{ij} 는 j 대학의 i 학생의 취업성과를 나타낸다. 즉 취업여부에 대해 분석할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 1, 그 반대인 미취업한 경우 0의 값을 갖게 된다.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해 분석할 경우에는 두 개의 더미변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더미변인인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취업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게 되고, 두 번째 더미변인인 비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취업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게 된다. 이 변인들

이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i 학생의 취업/정규직 취업/비정규직 취업할 확률인 $p(Y_{ij} = 1)$ 를 로지스틱 변환을 통해 종속변인을 $\ln\left(\frac{p(Y_{ij} = 1)}{1 - p(Y_{ij} = 1)}\right)$ 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도움을 받은 경우 $(\text{도움})_{ij}=1$, $(\text{미도움})_{ij}=0$ 의 값을 갖게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text{도움})_{ij}=0$, $(\text{미도움})_{ij}=1$ 의 값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text{도움})_{ij}=0$, $(\text{미도움})_{ij}=0$ 의 값을 갖게 된다. 이 때, β_{1j} 는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업/정규직취업/비정규직취업 확률이 몇 로짓 정도 높은지를 의미한다. 이 때, β_{2j} 는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업/정규직취업/비정규직취업 확률이 몇 로짓 정도 높은지를 의미한다. 실제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는 이를 오즈비(odds ratio)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통제모형에서는 계수값들이 학생배경이나 과정, 대학수준변인이 동일할 때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학생수준 통제변인인 $C_{(p)ij}$ 나 학교수준 통제변인인 W_{qj} 를 통제하고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우선 프로그램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성과의 차이와 학생 및 학교변인에 따른 취업성과와 프로그램 참여/도움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범주변인의 경우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연속변인의 경우 범주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이어서 취업성과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도움여부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생 및 대학수준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차이값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기초분석 결과

〈표 IV-4〉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움 여부에 따른 취업여부 분석

		취업		미취업		전체		χ^2	p
		인원	(%)	인원	(%)	인원	(%)		
학점인정	도움	1,506	(90.1)	166	(9.9)	1,672	(100.0)	13.543	.001
	미도움	327	(83.6)	64	(16.4)	391	(100.0)		
	미참여	4,188	(88.1)	566	(11.9)	4,754	(100.0)		
직장체험	도움	1,011	(92.2)	86	(7.8)	1,097	(100.0)	18.889	.000
	미도움	160	(86.5)	25	(13.5)	185	(100.0)		
	미참여	4,850	(87.6)	685	(12.4)	5,535	(100.0)		
직업 심리검사	도움	1,602	(89.4)	189	(10.6)	1,791	(100.0)	3.683	.159
	미도움	547	(88.9)	68	(11.1)	615	(100.0)		
	미참여	3,872	(87.8)	539	(12.2)	4,411	(100.0)		
교내취업 박람회	도움	1,417	(89.9)	160	(10.1)	1,577	(100.0)	5.184	.075
	미도움	437	(86.9)	66	(13.1)	503	(100.0)		
	미참여	4,167	(88.0)	570	(12.0)	4,737	(100.0)		
진로관련 상담	도움	902	(90.4)	96	(9.6)	998	(100.0)	4.847	.089
	미도움	189	(87.5)	27	(12.5)	216	(100.0)		
	미참여	4,930	(88.0)	673	(12.0)	5,603	(100.0)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도움	1,286	(89.9)	145	(10.1)	1,431	(100.0)	4.399	.111
	미도움	177	(88.9)	22	(11.1)	199	(100.0)		
	미참여	4,558	(87.9)	629	(12.1)	5,187	(100.0)		
취업캠프	도움	492	(90.4)	52	(9.6)	544	(100.0)	2.631	.268
	미도움	96	(88.9)	12	(11.1)	108	(100.0)		
	미참여	5,433	(88.1)	732	(11.9)	6,165	(100.0)		
계		6,021	(88.3)	796	(11.7)	6,817	(100.0)		

첫 번째 성과변인인 취업여부는 취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미취업)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설명변인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7개의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하고 도움이 된 경우(도움)’, ‘참여했으나 도움 되지 않은 경우(미도움)’, ‘참여하지 않은 경우(미참여)’의 3가지 범

주로 구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90.1%가 취업하였으며, ‘미도움’, ‘미참여’로 응답한 학생에 비해 취업률이 높았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과 취업률은 $\chi^2 = 13.54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취업률이 92.2%로 다른 응답에 비해 높았으며, $\chi^2 = 18.88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다. 직업심리검사, 교내취업박람회, 진로관련 상담,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취업캠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취업률이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취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표 IV-5〉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움 여부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 분석

		정규직		비정규직		미취업		전체		χ^2	p
학점인정	도움	1,003	(60.0)	503	(30.1)	166	(9.9)	1,672	(100.0)	29.591	.000
	미도움	183	(46.8)	144	(36.8)	64	(16.4)	391	(100.0)		
	미참여	2,810	(59.1)	1,378	(29.0)	566	(11.9)	4,754	(100.0)		
직장체험	도움	669	(61.0)	342	(31.2)	86	(7.8)	1,097	(100.0)	24.667	.000
	미도움	92	(49.7)	68	(36.8)	25	(13.5)	185	(100.0)		
	미참여	3,235	(58.4)	1,615	(29.2)	685	(12.4)	5,535	(100.0)		
직업 심리검사	도움	1,056	(59.0)	546	(30.5)	189	(10.6)	1,791	(100.0)	14.063	.007
	미도움	331	(53.8)	216	(35.1)	68	(11.1)	615	(100.0)		
	미참여	2,609	(59.1)	1,263	(28.6)	539	(12.2)	4,411	(100.0)		
교내취업 박람회	도움	997	(63.2)	420	(26.6)	160	(10.1)	1,577	(100.0)	21.648	.000
	미도움	268	(53.3)	169	(33.6)	66	(13.1)	503	(100.0)		
	미참여	2,731	(57.7)	1,436	(30.3)	570	(12.0)	4,737	(100.0)		
진로관련 상담	도움	598	(59.9)	304	(30.5)	96	(9.6)	998	(100.0)	8.052	.090
	미도움	114	(52.8)	75	(34.7)	27	(12.5)	216	(100.0)		
	미참여	3,284	(58.6)	1,646	(29.4)	673	(12.0)	5,603	(100.0)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도움	876	(61.2)	410	(28.7)	145	(10.1)	1,431	(100.0)	8.217	.084
	미도움	109	(54.8)	68	(34.2)	22	(11.1)	199	(100.0)		
	미참여	3,011	(58.0)	1,547	(29.8)	629	(12.1)	5,187	(100.0)		
취업캠프	도움	333	(61.2)	159	(29.2)	52	(9.6)	544	(100.0)	8.426	.077
	미도움	53	(49.1)	43	(39.8)	12	(11.1)	108	(100.0)		
	미참여	3,610	(58.6)	1,823	(29.6)	732	(11.9)	6,165	(100.0)		
계		3,996	(58.6)	2,025	(29.7)	796	(11.7)	6,817	(100.0)		

다음으로 성과변인을 정규직 취업과 비정규직 취업 그리고 미취업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설명 변인은 앞에서 제시한 7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응답을 기준으로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통계적인 연관성을 확인해보았다. 먼저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60%가 정규직에 취업하였고, 30.1%가 비정규직에 취업하였다. 반면 참여했지만 ‘미도움’으로 응답한 학생의 46.8%가 정규직에 취업하였고, 36.8%가 비정규직에 취업하였다. 또한 ‘미참여’로 응답한 학생의 59.1%가 정규직에 취업하였고, 29.0%가 비정규직에 취업하였다. ‘미도움’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에 취업할 비율은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미참여’ 학생의 비율보다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chi^2 = 29.59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61%가 정규직에 취업하였으며, 31.2%는 비정규직에 취업하였다. ‘미도움’으로 응답한 학생의 정규직 취업비율은 49.7%, 비정규직 취업비율은 36.8%이다. ‘미참여’ 학생의 경우 58.4%가 정규직에 취업하였고, 29.2%가 비정규직에 취업하였다. 정규직 취업률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의 경우 ‘미도움’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과 ‘미참여’ 학생의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률은 큰 차이는 없었으나, $\chi^2 = 24.66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의 경우 ‘미참여’학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59.1%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은 28.6%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과 큰 차이는 없었다. ‘미도움’으로 응답한 학생은 정규직 취업률이 53.8%로 가장 낮았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이 35.1%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chi^2 = 14.06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교내취업박람회 프로그램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정규직 취업비율이 63.2%로 다른 응답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또한 비정규직 취업비율도 26.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미도움’으로 응답한 학생은 정규직 취업비율이 53.3%이고 비정규직 취업비율이 33.6%, 미취업률이 13.1%로 미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미참여’학생에 비해 ‘미도움’학생은 정규직 취업비율은 낮고, 비정규직 취업비율은 높은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값은 $\chi^2 = 21.64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진로관련 상담,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취업캠프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정규직 취업비율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나,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IV-6〉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취업여부 분석

		취업		미취업		전체		χ^2	p
성별	남	3,659	(89.0)	450	(11.0)	4,109	(100.0)	5.274	.022
	여	2,362	(87.2)	346	(12.8)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5,565	(88.1)	751	(11.9)	6,316	(100.0)	4.141	.126
	전문고	325	(91.5)	30	(8.5)	355	(100.0)		
	특목고	131	(89.7)	15	(10.3)	146	(100.0)		
대학전공	인문	857	(85.1)	150	(14.9)	1,007	(100.0)	19.754	.001
	사회	1,833	(89.0)	226	(11.0)	2,059	(100.0)		
	교육	450	(88.9)	56	(11.1)	506	(100.0)		
	자연	963	(86.6)	149	(13.4)	1,112	(100.0)		
	공학	1,918	(89.9)	215	(10.1)	2,133	(100.0)		
해외연수	있음	1,483	(90.0)	164	(10.0)	1,647	(100.0)	6.224	.013
	없음	4,538	(87.8)	632	(12.2)	5,170	(100.0)		
인턴	있음	1,043	(88.5)	135	(11.5)	1,178	(100.0)	.065	.799
	없음	4,978	(88.3)	661	(11.7)	5,639	(100.0)		
자격증	없음	2,013	(86.5)	315	(13.5)	2,328	(100.0)	13.277	.001
	1~2개	2,959	(88.9)	368	(11.1)	3,327	(100.0)		
	3개이상	1,049	(90.3)	113	(9.7)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958	(91.1)	94	(8.9)	1,052	(100.0)	9.064	.003
	없음	5,063	(87.8)	702	(12.2)	5,765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	1,562	(89.7)	180	(10.3)	1,742	(100.0)	4.097	.043
	사립대	4,459	(87.9)	616	(12.1)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2,397	(89.2)	290	(10.8)	2,687	(100.0)	3.361	.067
	초과	3,624	(87.7)	506	(12.3)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3,005	(89.2)	364	(10.8)	3,369	(100.0)	4.914	.027
	비수도권	3,016	(87.5)	432	(12.5)	3,448	(100.0)		
대학규모	소	268	(89.0)	33	(11.0)	301	(100.0)	.166	.920
	중	1,227	(88.2)	164	(11.8)	1,391	(100.0)		
	대	4,526	(88.3)	599	(11.7)	5,125	(100.0)		
계		6,021	(88.3)	796	(11.7)	6,817	(10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부모교육수준		13.029	2.911	12.965	2.843	13.021	2.903	.584	.559
가구소득(100만원)		3.683	2.003	3.422	1.867	3.653	1.989	3.679	.000
학점(100점 만점)		87.274	4.477	86.627	4.554	87.198	4.490	3.824	.000
학교규모(100명)		177.228	88.338	174.249	84.953	176.881	87.949	.898	.369
장학금 수혜율(10%)		1.999	.623	1.925	.565	1.990	.617	.3145	.002
1인당 교육비(100만원)		10.142	3.887	9.735	3.406	10.095	3.836	3.119	.002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범주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취업률이 89%로 여학생(87.2%)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chi^2 = 5.27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교계열은 전문고 학생의 취업률이 91.5%로 일반고(88.1%) 특목고(89.7%)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대학 전공은 공학을 전공한 학생의 취업률이 89.9%로 인문, 사회, 교육, 자연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인문 전공학생이 85.1%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hi^2 = 19.75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취업률이 90%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자격증의 경우 0개 혹은 1~2개를 지닌 학생보다 3개 이상 갖고 있는 학생의 취업률이 90.3%로 가장 높았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91.1%가 취업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는 국공립대의 경우 89.7%로 사립대에 비해 취업비율이 높았으며, 대학위세 3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취업률은 89.2%로 30위 밖의 대학에 비해 약간 높았다.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대학의 취업률은 89.2%로 비수도권에(87.5%)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반면 대학 규모(대, 중, 소)에 따른 취업률은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구분은 취업한 학생과 미취업한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과 학교 규모는 취업, 미취업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 학점, 장학금 수혜율, 1인당 교육비는 취업한 학생들의 평균이 미취업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

〈표 IV-7〉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 분석

		정규직(1)		비정규직(2)		미취업(3)		전체		χ^2	p
성별	남	2,610	(63.5)	1,049	(25.5)	450	(11.0)	4,109	(100.0)	107.763	.000
	여	1,386	(51.2)	976	(36.0)	346	(12.8)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3,696	(58.5)	1,869	(29.6)	751	(11.9)	6,316	(100.0)	6.502	.165
	전문고	207	(58.3)	118	(33.2)	30	(8.5)	355	(100.0)		
	특목고	93	(63.7)	38	(26.0)	15	(10.3)	146	(100.0)		
대학전공	인문	498	(49.5)	359	(35.7)	150	(14.9)	1,007	(100.0)	171.483	.000
	사회	1,231	(59.8)	602	(29.2)	226	(11.0)	2,059	(100.0)		
	교육	227	(44.9)	223	(44.1)	56	(11.1)	506	(100.0)		
	자연	599	(53.9)	364	(32.7)	149	(13.4)	1,112	(100.0)		
	공학	1,441	(67.6)	477	(22.4)	215	(10.1)	2,133	(100.0)		
해외연수	있음	1,030	(62.5)	453	(27.5)	164	(10.0)	1,647	(100.0)	14.730	.001
	없음	2,966	(57.4)	1,572	(30.4)	632	(12.2)	5,170	(100.0)		
인턴	있음	665	(56.5)	378	(32.1)	135	(11.5)	1,178	(100.0)	3.920	.141
	없음	3,331	(59.1)	1,647	(29.2)	661	(11.7)	5,639	(100.0)		
자격증	없음	1,382	(59.4)	631	(27.1)	315	(13.5)	2,328	(100.0)	26.049	.000
	1~2개	1,961	(58.9)	998	(30.0)	368	(11.1)	3,327	(100.0)		
	3개이상	653	(56.2)	396	(34.1)	113	(9.7)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650	(61.8)	308	(29.3)	94	(8.9)	1,052	(100.0)	10.214	.006
	있음	3,346	(58.0)	1,717	(29.8)	702	(12.2)	5,765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	1,036	(59.5)	526	(30.2)	180	(10.3)	1,742	(100.0)	4.098	.129
	사립대	2,960	(58.3)	1,499	(29.5)	616	(12.1)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1,701	(63.3)	696	(25.9)	290	(10.8)	2,687	(100.0)	41.177	.000
	초과	2,295	(55.6)	1,329	(32.2)	506	(12.3)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2,047	(60.8)	958	(28.4)	364	(10.8)	3,369	(100.0)	13.166	.001
	비수도권	1,949	(56.5)	1,067	(30.9)	432	(12.5)	3,448	(100.0)		
대학규모	소	165	(54.8)	103	(34.2)	33	(11.0)	301	(100.0)	22.720	.000
	중	752	(54.1)	475	(34.1)	164	(11.8)	1,391	(100.0)		
	대	3,079	(60.1)	1,447	(28.2)	599	(11.7)	5,125	(100.0)		
계		3,996	(58.6)	2,025	(29.7)	796	(11.7)	6,817	(10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부모교육수준		13.058	2.881	12.971	2.969	12.965	2.843	13.021	2.903	.782	.458
가구소득(100만원)		3.701	1.988	3.648	2.032	3.422	1.867	3.653	1.989	6.558 (1=2)>3	.001
학점(100점 만점)		87.362	4.410	87.100	4.602	86.627	4.554	87.198	4.490	9.616 (1=2)>3	.000
학교규모(100명)		182.137	89.660	167.542	84.863	174.249	84.953	176.881	87.949	19.010 1)2	.000
장학금 수혜율(10%)		2.031	.629	1.934	.607	1.925	.565	1.990	.617	21.704 1)(2=3)	.000
1인당 교육비 (100만원)		10.351	3.941	9.731	3.746	9.735	3.406	10.095	3.836	21.627 1)(2=3)	.000

다음으로 취업의 여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유목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학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63.5%로 여학생(51.2%)에 비해 높았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은 25.5%로 여학생(36%)에 비해 낮았다. $\chi^2=107.763$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교계열은 특목고 학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63.7%로 일반고(58.5%) 전문고(58.3%)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대학 전공은 공학을 전공한 학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67.6%로 인문, 사회, 교육, 자연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교육 전공학생이 44.9%로 가장 낮은 정규직 취업률을 보였다. 비정규직 취업의 경우 인문 전공학생이 35.7%로 가장 높았고, 공학 전공학생이 22.4%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chi^2=171.48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62.5%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은 27.5%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한 개도 없는 학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은 27.1%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학생의 미취업률은 13.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61.8%가 정규직에 취업하였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대학위세 3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은 63.3%로 30위 밖의 대학(55.6%)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비정규직 취업률은 대학 위세 30위권의 대학이 25.9%로 그렇지 않은 대학(32.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chi^2=41.17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은 60.8%로 비수도권(56.5%)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비정규직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이(28.4%) 비수도권 대학(30.9%)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chi^2=13.16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설립 유형(국공립, 사립)과 대학 규모(대, 중, 소)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률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였다. 집단 구분은 정규직 취업, 비정규직 취업, 미취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그 외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구소득과 학점은 정규직 취업과 비정규직 취업이 미취업 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학교 규모의 경우 정규직 취업 학생 집단이 비정규직 학생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율과 1인당 교육비는 정규직 취업 학생들의 집단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8〉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학점인정 교과목(취업지원 프로그램 1) 참여/도움여부 분석

		도움(1)		미도움(2)		미참여(3)		전체		χ^2	p
성별	남	950	(23.1)	218	(5.3)	2,941	(71.6)	4,109	(100.0)	16.693	.000
	여	722	(26.7)	173	(6.4)	1,813	(66.9)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1,565	(24.8)	361	(5.7)	4,390	(69.5)	6,316	(100.0)	3.499	.478
	전문고	76	(21.4)	23	(6.5)	256	(72.1)	355	(100.0)		
	특목고	31	(21.2)	7	(4.8)	108	(74.0)	146	(100.0)		
대학전공	인문	225	(22.3)	50	(5.0)	732	(72.7)	1,007	(100.0)	14.900	.061
	사회	532	(25.8)	132	(6.4)	1,395	(67.8)	2,059	(100.0)		
	교육	120	(23.7)	23	(4.5)	363	(71.7)	506	(100.0)		
	자연	263	(23.7)	77	(6.9)	772	(69.4)	1,112	(100.0)		
	공학	532	(24.9)	109	(5.1)	1,492	(69.9)	2,133	(100.0)		
해외연수	있음	493	(29.9)	114	(6.9)	1,040	(63.1)	1,647	(100.0)	44.739	.000
	없음	1,179	(22.8)	277	(5.4)	3,714	(71.8)	5,170	(100.0)		
인턴	있음	401	(34.0)	90	(7.6)	687	(58.3)	1,178	(100.0)	88.182	.000
	없음	1,271	(22.5)	301	(5.3)	4,067	(72.1)	5,639	(100.0)		
자격증	없음	475	(20.4)	112	(4.8)	1,741	(74.8)	2,328	(100.0)	72.240	.000
	1~2개	845	(25.4)	181	(5.4)	2,301	(69.2)	3,327	(100.0)		
	3개이상	352	(30.3)	98	(8.4)	712	(61.3)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371	(35.3)	79	(7.5)	602	(57.2)	1,052	(100.0)	93.249	.000
	없음	1,301	(22.6)	312	(5.4)	4,152	(72.0)	5,765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	399	(22.9)	80	(4.6)	1,263	(72.5)	1,742	(100.0)	10.409	.005
	사립대	1,273	(25.1)	311	(6.1)	3,491	(68.8)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684	(25.5)	143	(5.3)	1,860	(69.2)	2,687	(100.0)	3.053	.217
	초과	988	(23.9)	248	(6.0)	2,894	(70.1)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883	(26.2)	205	(6.1)	2,281	(67.7)	3,369	(100.0)	13.049	.001
	비수도권	789	(22.9)	186	(5.4)	2,473	(71.7)	3,448	(100.0)		
대학규모	소	78	(25.9)	22	(7.3)	201	(66.8)	301	(100.0)	2.886	.577
	중	338	(24.3)	86	(6.2)	967	(69.5)	1,391	(100.0)		
	대	1,256	(24.5)	283	(5.5)	3,586	(70.0)	5,125	(100.0)		
계		1,672	(24.5)	391	(5.7)	4,754	(69.7)	6,817	(10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부모교육수준		13.074	2.878	13.091	2.980	12.997	2.905	13.021	2.903	.556	.573
가구소득(100만원)		3.845	2.130	3.826	2.061	3.571	1.926	3.653	1.989	13.320 1)3	.000
학점(100점 만점)		87.869	4.193	86.708	4.409	87.003	4.574	87.198	4.490	25.672 1)(2=3)	.000
학교규모(100명)		176.823	86.657	166.753	83.066	177.734	88.752	176.881	87.949	2.818	.060
장학금 수혜율(10%)		1.937	.526	1.872	.455	2.018	.655	1.990	.617	18.278 3)(1=2)	.000
1인당 교육비 (100만원)		9.893	3.256	9.662	2.956	10.201	4.076	10.095	3.836	6.656 3)(1=2)	.001

다음으로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여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범주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참여 비율은 여학생이 높았으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26.7%)과 ‘미도움’으로 응답한 비율(6.4%) 모두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chi^2=16.69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교계열은 일반고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24.8%로 전문고(21.4%) 특목고(21.2%)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대학 전공은 사회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25.8%로 인문, 교육, 자연, 공학 전공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은 29.9%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턴 경험의 경우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로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22.5%)에 비해 높았으며,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 참여 비율도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은 값을 보였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많은 학생일수록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할 비율이 높았으며, ‘미도움’으로 응답할 비율도 높았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35.3%가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22.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반면 국공립대의 학생들은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9%로 사립대 학생(25.1%)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학생의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26.2%로 비수도권(22.9%)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학위세 3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25.5%로 30위 밖의 대학(23.9%)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대학 규모(대, 중, 소)에 따른 ‘도움’, ‘미도움’, ‘미참여’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였다. 집단은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그 외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구소득은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을 만족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학점은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에 만족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율은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 미참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1인당 교육비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IV-9〉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직장체험(취업지원 프로그램 2) 참여/도움여부 분석

		도움(1)		미도움(2)		미참여(3)		전체		χ^2	p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성별	남	591	(14.4)	102	(2.5)	3,416	(83.1)	4,109	(100.0)	25.614	.000
	여	506	(18.7)	83	(3.1)	2,119	(78.2)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1,017	(16.1)	176	(2.8)	5,123	(81.1)	6,316	(100.0)	13.505	.009
	전문고 특목고	44	(12.4)	6	(1.7)	305	(85.9)	355	(100.0)		
대학전공	인문	150	(14.9)	31	(3.1)	826	(82.0)	1,007	(100.0)	14.675	.066
	사회	359	(17.4)	61	(3.0)	1,639	(79.6)	2,059	(100.0)		
	교육	61	(12.1)	12	(2.4)	433	(85.6)	506	(100.0)		
	자연	191	(17.2)	22	(2.0)	899	(80.8)	1,112	(100.0)		
	공학	336	(15.8)	59	(2.8)	1,738	(81.5)	2,133	(100.0)		
해외연수	있음	346	(21.0)	54	(3.3)	1,247	(75.7)	1,647	(100.0)	43.199	.000
	없음	751	(14.5)	131	(2.5)	4,288	(82.9)	5,170	(100.0)		
인턴	있음	525	(44.6)	88	(7.5)	565	(48.0)	1,178	(100.0)	1029.957	.000
	없음	572	(10.1)	97	(1.7)	4,970	(88.1)	5,639	(100.0)		
자격증	없음	305	(13.1)	42	(1.8)	1,981	(85.1)	2,328	(100.0)	78.750	.000
	1~2개	525	(15.8)	94	(2.8)	2,708	(81.4)	3,327	(100.0)		
	3개이상	267	(23.0)	49	(4.2)	846	(72.8)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270	(25.7)	38	(3.6)	744	(70.7)	1,052	(100.0)	91.346	.000
	없음	827	(14.3)	147	(2.5)	4,791	(83.1)	5,765	(100.0)		
설립유형	국립대	255	(14.6)	51	(2.9)	1,436	(82.4)	1,742	(100.0)	3.911	.142
	사립대	842	(16.6)	134	(2.6)	4,099	(80.8)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489	(18.2)	66	(2.5)	2,132	(79.3)	2,687	(100.0)	15.183	.001
	초과	608	(14.7)	119	(2.9)	3,403	(82.4)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659	(19.6)	99	(2.9)	2,611	(77.5)	3,369	(100.0)	62.229	.000
	비수도권	438	(12.7)	86	(2.5)	2,924	(84.8)	3,448	(100.0)		
대학규모	소	56	(18.6)	11	(3.7)	234	(77.7)	301	(100.0)	5.161	.271
	중	232	(16.7)	44	(3.2)	1,115	(80.2)	1,391	(100.0)		
	대	809	(15.8)	130	(2.5)	4,186	(81.7)	5,125	(100.0)		
계		1,097	(16.1)	185	(2.7)	5,535	(81.2)	6,817	(10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부모교육수준		13.328	2.994	13.054	2.900	12.959	2.881	13.021	2.903	7.415 1)3	.001
가구소득 (100만원)		3.979	2.225	3.911	2.287	3.580	1.921	3.653	1.989	20.112 (1=2))3	.000
학점 (100점 만점)		87.788	4.049	87.151	4.482	87.083	4.565	87.198	4.490	11.312 1)3	.000
학교규모 (100명)		180.107	94.019	172.559	93.020	176.386	86.519	176.88 1	87.949	1.049	.350
장학금 수혜율 (10%)		2.004	.608	1.987	.581	1.987	.620	1.990	.617	.335	.715
1인당 교육비 (100만원)		10.526	4.039	10.426	3.730	9.998	3.792	10.095	3.836	9.413 1)3	.000

다음으로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여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범주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참여 비율은 여학생이 높았으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18.7%)과 '미도움'으로 응답한 비율(3.1%) 모두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chi^2 = 25.61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교계열은 특목고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24.7%로 일반고(16.1%) 전문고(12.4%)에 비해 높으며, 전체적인 참여 비율도 특목고 학생이 높았다. $\chi^2 = 16.5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학 전공은 사회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17.4%, 참여 비율이 20.4%로 인문, 교육, 자연, 공학 전공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은 21%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턴 경험의 경우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44.6%로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14.5%)에 비해 높았으며,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비율도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은 값을 보였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많은 학생일수록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할 비율이 높았으며, '미도움'으로 응답할 비율도 높았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25.7%가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14.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반면 국공립대의 학생들은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6%로 사립대 학생(16.6%)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대학위세 3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18.2%로 30위 밖의 대학(14.7%)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chi^2 = 15.18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학생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19.6%로 비수도권(12.7%)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chi^2 = 62.22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학 규모(대, 중, 소)에 따른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도움', '미도움', '미참여'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였다. 집단은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과 학점, 1인당 교육비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도움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미참여 학생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가구소득은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반면 학교규모, 장학금 수혜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IV-10〉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직업 심리검사(취업지원 프로그램 3) 참여/도움여부 분석

		도움(1)		미도움(2)		미참여(3)		전체		χ^2	p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성별	남	999	(24.3)	336	(8.2)	2,774	(67.5)	4,109	(100.0)	35.874	.000
	여	792	(29.2)	279	(10.3)	1,637	(60.5)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1,691	(26.8)	570	(9.0)	4,055	(64.2)	6,316	(100.0)	12.780	.012
	전문고	66	(18.6)	32	(9.0)	257	(72.4)	355	(100.0)		
	특목고	34	(23.3)	13	(8.9)	99	(67.8)	146	(100.0)		
대학전공	인문	269	(26.7)	84	(8.3)	654	(64.9)	1,007	(100.0)	5.237	.732
	사회	545	(26.5)	189	(9.2)	1,325	(64.4)	2,059	(100.0)		
	교육	148	(29.2)	38	(7.5)	320	(63.2)	506	(100.0)		
	자연	288	(25.9)	106	(9.5)	718	(64.6)	1,112	(100.0)		
	공학	541	(25.4)	198	(9.3)	1,394	(65.4)	2,133	(100.0)		
해외연수	있음	512	(31.1)	182	(11.1)	953	(57.9)	1,647	(100.0)	44.783	.000
	없음	1,279	(24.7)	433	(8.4)	3,458	(66.9)	5,170	(100.0)		
인턴	있음	408	(34.6)	180	(15.3)	590	(50.1)	1,178	(100.0)	146.785	.000
	없음	1,383	(24.5)	435	(7.7)	3,821	(67.8)	5,639	(100.0)		
자격증	없음	556	(23.9)	163	(7.0)	1,609	(69.1)	2,328	(100.0)	56.016	.000
	1~2개	877	(26.4)	310	(9.3)	2,140	(64.3)	3,327	(100.0)		
	3개이상	358	(30.8)	142	(12.2)	662	(57.0)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403	(38.3)	134	(12.7)	515	(49.0)	1,052	(100.0)	135.326	.000
	없음	1,388	(24.1)	481	(8.3)	3,896	(67.6)	5,765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	445	(25.5)	128	(7.3)	1,169	(67.1)	1,742	(100.0)	9.821	.007
	사립대	1,346	(26.5)	487	(9.6)	3,242	(63.9)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739	(27.5)	248	(9.2)	1,700	(63.3)	2,687	(100.0)	4.186	.123
	초과	1,052	(25.5)	367	(8.9)	2,711	(65.6)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907	(26.9)	368	(10.9)	2,094	(62.2)	3,369	(100.0)	34.465	.000
	비수도권	884	(25.6)	247	(7.2)	2,317	(67.2)	3,448	(100.0)		
대학규모	소	77	(25.6)	33	(11.0)	191	(63.5)	301	(100.0)	3.269	.514
	중	361	(26.0)	137	(9.8)	893	(64.2)	1,391	(100.0)		
	대	1,353	(26.4)	445	(8.7)	3,327	(64.9)	5,125	(100.0)		
계		1,791	(26.3)	615	(9.0)	4,411	(64.7)	6,817	(10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부모교육수준		13.243	2.928	13.067	3.106	12.925	2.858	13.021	2.903	7.775 1)3	.000
가구소득 (100만원)		3.843	2.067	3.902	2.201	3.541	1.916	3.653	1.989	20.129 (1=2))3	.000
학점 (100점 만점)		87.751	4.274	86.980	4.304	87.004	4.583	87.198	4.490	18.500 1)(2=3)	.000
학교규모 (100명)		177.422	87.069	169.055	86.528	177.752	88.465	176.881	87.949	2.686	.068
장학금 수혜율 (10%)		1.984	.607	1.910	.564	2.004	.627	1.990	.617	6.384 3)2	.002
1인당 교육비 (100만원)		10.137	3.812	9.985	3.628	10.093	3.874	10.095	3.836	.361	.697

다음으로 ‘직업 심리검사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여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범주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참여 비율은 여학생이 높았으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29.2%)과 ‘미도움’으로 응답한 비율(10.3%) 모두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chi^2 = 35.97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교계열은 일반고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24.8%로 전문고(18.6%) 특목고(23.3%)에 비해 높았으며 $\chi^2 = 12.78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학 전공은 교육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29.2%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전공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은 31.1%로 해외연수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24.7%)에 비해 높았으며, 인턴 경험의 경우 직업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4.6%로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24.5%)에 비해 높았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많은 학생일수록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미도움’으로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38.3%가 직업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24.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반면 국공립대의 학생들은 직업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도움’ 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5%로 사립대 학생(26.5%)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학생의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26.9%로 비수도권(25.6%)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앞에서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학위세 3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27.5%로 30위 밖의 대학(25.5%)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대학 규모(대, 중, 소)에 따른 ‘도움’, ‘미도움’, ‘미참여’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였다. 집단은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은 직업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소득은 직업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학점의 경우 직업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장학금 수혜율은 미참여 학생들이 ‘미도움’으로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교교과와 1인당 교육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다.

〈표 IV-11〉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교내 취업 박람회(취업지원 프로그램 4) 참여/도움여부 분석

		도움(1)		미도움(2)		미참여(3)		전체		χ^2	p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성별	남	984	(23.9)	303	(7.4)	2,822	(68.7)	4,109	(100.0)	3.939	.140
	여	593	(21.9)	200	(7.4)	1,915	(70.7)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1,476	(23.4)	473	(7.5)	4,367	(69.1)	6,316	(100.0)	31.036	.000
	전문고	50	(14.1)	21	(5.9)	284	(80.0)	355	(100.0)		
	특목고	51	(34.9)	9	(6.2)	86	(58.9)	146	(100.0)		
대학전공	인문	238	(23.6)	74	(7.3)	695	(69.0)	1,007	(100.0)	63.030	.000
	사회	457	(22.2)	167	(8.1)	1,435	(69.7)	2,059	(100.0)		
	교육	64	(12.6)	20	(4.0)	422	(83.4)	506	(100.0)		
	자연	252	(22.7)	85	(7.6)	775	(69.7)	1,112	(100.0)		
	공학	566	(26.5)	157	(7.4)	1,410	(66.1)	2,133	(100.0)		
해외연수	있음	519	(31.5)	152	(9.2)	976	(59.3)	1,647	(100.0)	108.676	.000
	없음	1,058	(20.5)	351	(6.8)	3,761	(72.7)	5,170	(100.0)		
인턴	있음	406	(34.5)	145	(12.3)	627	(53.2)	1,178	(100.0)	180.164	.000
	없음	1,171	(20.8)	358	(6.3)	4,110	(72.9)	5,639	(100.0)		
자격증	없음	500	(21.5)	145	(6.2)	1,683	(72.3)	2,328	(100.0)	32.523	.000
	1~2개	787	(23.7)	235	(7.1)	2,305	(69.3)	3,327	(100.0)		
	3개이상	290	(25.0)	123	(10.6)	749	(64.5)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312	(29.7)	116	(11.0)	624	(59.3)	1,052	(100.0)	63.851	.000
	없음	1,265	(21.9)	387	(6.7)	4,113	(71.3)	5,765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	351	(20.1)	99	(5.7)	1,292	(74.2)	1,742	(100.0)	25.498	.000
	사립대	1,226	(24.2)	404	(8.0)	3,445	(67.9)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829	(30.9)	200	(7.4)	1,658	(61.7)	2,687	(100.0)	152.925	.000
	초과	748	(18.1)	303	(7.3)	3,079	(74.6)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954	(28.3)	299	(8.9)	2,116	(62.8)	3,369	(100.0)	140.357	.000
	비수도권	623	(18.1)	204	(5.9)	2,621	(76.0)	3,448	(100.0)		
대학규모	소	58	(19.3)	20	(6.6)	223	(74.1)	301	(100.0)	40.328	.000
	중	242	(17.4)	98	(7.0)	1,051	(75.6)	1,391	(100.0)		
	대	1,277	(24.9)	385	(7.5)	3,463	(67.6)	5,125	(100.0)		
계		1,577	(23.1)	503	(7.4)	4,737	(69.5)	6,817	(10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부모교육수준		13.423	2.892	13.095	2.964	12.880	2.888	13.021	2.903	20.987 1)(2=3)	.000
가구소득 (100만원)		3.979	2.119	3.806	2.092	3.528	1.919	3.653	1.989	32.374 (1=2)3	.000
학점 (100점 만점)		87.604	4.236	86.851	4.056	87.100	4.607	87.198	4.490	9.082 1)(2=3)	.000
학교규모 (100명)		194.620	91.308	173.735	87.755	171.309	86.050	176.881	87.949	42.417 1)(2=3)	.000
장학금 수혜율 (10%)		2.078	.689	1.890	.565	1.971	.593	1.990	.617	24.808 1)3)2	.000
1인당 교육비 (100만원)		11.030	4.459	10.002	3.660	9.793	3.572	10.095	3.836	62.764 1)(2=3)	.000

다음으로 ‘교내 취업 박람회’의 참여여부를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여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범주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참여 비율은 남학생이 높았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23.9%)도 여학생(21.9%)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고교계열은 특목고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34.9%로 일반고(23.4%) 전문고(14.1%)에 비해 높았으며 $\chi^2 = 31.03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대학 전공은 공학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26.5%로 인문, 사회, 교육, 자연 전공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참여율도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은 31.5%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내 취업 박람회에도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턴 경험의 경우 교내 취업 박람회가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5%로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20.8%)에 비해 높았으며, 교내 취업 박람회 참여 비율도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은 값을 보였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많은 학생일수록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할 비율이 높았으며, ‘미도움’으로 응답할 비율도 높았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29.7%가 교내 취업 박람회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21.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교내 취업 박람회에도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국공립대의 학생들은 교내 취업 박람회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사립대 학생(24.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위세 3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교내 취업 박람회의 ‘도움’ 응답 비율은 30.8%로 30위 밖의 대학(18.1%)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다. 대학 규모가 ‘대’인 대학의 학생이 교내 취업 박람회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할 비율은 24.9%로 다른 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였다. 집단은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6개의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과 학점, 학교규모, 1인당 교육비는 교내 취업 박람회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값을 보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교내 취업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장학금 수혜율은 ‘도움’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도움’ 학생 순이었다.

〈표 IV-12〉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진로관련 상담(취업지원 프로그램 5) 참여/도움여부 분석

		도움(1)		미도움(2)		미참여(3)		전체		χ^2	p
성별	남	562	(13.7)	127	(3.1)	3,420	(83.2)	4,109	(100.0)	8.106	.017
	여	436	(16.1)	89	(3.3)	2,183	(80.6)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940	(14.9)	206	(3.3)	5,170	(81.9)	6,316	(100.0)	8.760	.067
	전문고	38	(10.7)	9	(2.5)	308	(86.8)	355	(100.0)		
	특목고	20	(13.7)	1	(.7)	125	(85.6)	146	(100.0)		
대학전공	인문	182	(18.1)	31	(3.1)	794	(78.8)	1,007	(100.0)	16.655	.034
	사회	305	(14.8)	74	(3.6)	1,680	(81.6)	2,059	(100.0)		
	교육	63	(12.5)	11	(2.2)	432	(85.4)	506	(100.0)		
	자연	154	(13.8)	35	(3.1)	923	(83.0)	1,112	(100.0)		
해외연수	있음	326	(19.8)	62	(3.8)	1,259	(76.4)	1,647	(100.0)	50.568	.000
	없음	672	(13.0)	154	(3.0)	4,344	(84.0)	5,170	(100.0)		
인턴	있음	269	(22.8)	53	(4.5)	856	(72.7)	1,178	(100.0)	89.015	.000
	없음	729	(12.9)	163	(2.9)	4,747	(84.2)	5,639	(100.0)		
자격증	없음	302	(13.0)	62	(2.7)	1,964	(84.4)	2,328	(100.0)	21.796	.000
	1~2개	498	(15.0)	101	(3.0)	2,728	(82.0)	3,327	(100.0)		
	3개이상	198	(17.0)	53	(4.6)	911	(78.4)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256	(24.3)	52	(4.9)	744	(70.7)	1,052	(100.0)	112.133	.000
	있음	742	(12.9)	164	(2.8)	4,859	(84.3)	5,765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	219	(12.6)	47	(2.7)	1,476	(84.7)	1,742	(100.0)	10.306	.006
	사립대	779	(15.3)	169	(3.3)	4,127	(81.3)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414	(15.4)	72	(2.7)	2,201	(81.9)	2,687	(100.0)	5.174	.075
	초과	584	(14.1)	144	(3.5)	3,402	(82.4)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563	(16.7)	119	(3.5)	2,687	(79.8)	3,369	(100.0)	27.105	.000
	비수도권	435	(12.6)	97	(2.8)	2,916	(84.6)	3,448	(100.0)		
대학규모	소	45	(15.0)	20	(6.6)	236	(78.4)	301	(100.0)	15.418	.004
	중	213	(15.3)	50	(3.6)	1,128	(81.1)	1,391	(100.0)		
	대	740	(14.4)	146	(2.8)	4,239	(82.7)	5,125	(100.0)		
계		998	(14.6)	216	(3.2)	5,603	(82.2)	6,817	(10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부모교육수준		13,285	2,935	13,014	2,994	12,975	2,892	13,021	2,903	4.834 1)3	.008
가구소득 (100만원)		3,935	2,159	3,789	2,204	3,597	1,944	3,653	1,989	12.756 1)3	.000
학점 (100점 만점)		87,560	4,033	87,528	4,482	87,121	4,564	87,198	4,490	4.652 1)3	.010
학교규모 (100명)		175,445	87,880	160,716	87,204	177,759	87,941	176,881	87,949	4.065 3)2	.017
장학금 수혜율 (10%)		1,944	.589	1,886	.577	2,002	.623	1,990	.617	6.995 3)(1=2)	.001
1인당 교육비 (100만원)		10,021	3,640	9,908	3,779	10,115	3,872	10,095	3,836	.515	.598

다음으로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여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범주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참여 비율은 여학생이 높았으나,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16.1%)과 ‘미도움’으로 응답한 비율(3.3%) 모두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chi^2 = 8.1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교계열은 일반고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14.9%로 전문고(10.7%) 특목고(13.7%)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대학 전공은 인문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18.1%로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전공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은 19.8%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인턴 경험의 경우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22.8%로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12.9%)에 비해 높았으며,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 참여 비율도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은 값을 보였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많은 학생일수록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미도움’으로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24.3%가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12.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국공립대의 학생들은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2.6%로 사립대 학생(16.7%)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학생의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16.7%로 비수도권(12.6%)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대학 규모가 중간인 대학의 학생들이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비율이 15.3%로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작은 학교의 참여율이 21.6%로 가장 높았다. 앞에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반면 대학위세 3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15.4%로 30위 밖의 대학(14.1%)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였다. 집단은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과 가구소득 학점은 모두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 반면 학교 규모의 경우 미참여 학생들이 ‘미도움’으로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장학금 수혜율은 미참여 학생들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앞에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1인당 교육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3〉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면접 기술/이력서 작성(취업지원 프로그램 6) 참여/도움여부 분석

		도움(1)		미도움(2)		미참여(3)		전체		χ^2	p
성별	남	833	(20.3)	115	(2.8)	3,161	(76.9)	4,109	(100.0)	4,020	.134
	여	598	(22.1)	84	(3.1)	2,026	(74.8)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1,332	(21.1)	188	(3.0)	4,796	(75.9)	6,316	(100.0)	2,200	.699
	전문고	71	(20.0)	9	(2.5)	275	(77.5)	355	(100.0)		
	특목고	28	(19.2)	2	(1.4)	116	(79.5)	146	(100.0)		
대학전공	인문	213	(21.2)	31	(3.1)	763	(75.8)	1,007	(100.0)	18,471	.018
	사회	455	(22.1)	54	(2.6)	1,550	(75.3)	2,059	(100.0)		
	교육	72	(14.2)	14	(2.8)	420	(83.0)	506	(100.0)		
	자연	235	(21.1)	40	(3.6)	837	(75.3)	1,112	(100.0)		
	공학	456	(21.4)	60	(2.8)	1,617	(75.8)	2,133	(100.0)		
해외연수	있음	452	(27.4)	56	(3.4)	1,139	(69.2)	1,647	(100.0)	58,509	.000
	없음	979	(18.9)	143	(2.8)	4,048	(78.3)	5,170	(100.0)		
인턴	있음	349	(29.6)	57	(4.8)	772	(65.5)	1,178	(100.0)	89,406	.000
	없음	1,082	(19.2)	142	(2.5)	4,415	(78.3)	5,639	(100.0)		
자격증	없음	409	(17.6)	60	(2.6)	1,859	(79.9)	2,328	(100.0)	42,780	.000
	1~2개	729	(21.9)	89	(2.7)	2,509	(75.4)	3,327	(100.0)		
	3개이상	293	(25.2)	50	(4.3)	819	(70.5)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364	(34.6)	46	(4.4)	642	(61.0)	1,052	(100.0)	155,849	.000
	없음	1,067	(18.5)	153	(2.7)	4,545	(78.8)	5,765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	305	(17.5)	46	(2.6)	1,391	(79.9)	1,742	(100.0)	18,496	.000
	사립대	1,126	(22.2)	153	(3.0)	3,796	(74.8)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550	(20.5)	68	(2.5)	2,069	(77.0)	2,687	(100.0)	3,354	.187
	초과	881	(21.3)	131	(3.2)	3,118	(75.5)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786	(23.3)	114	(3.4)	2,469	(73.3)	3,369	(100.0)	29,161	.000
	비수도권	645	(18.7)	85	(2.5)	2,718	(78.8)	3,448	(100.0)		
대학규모	소	73	(24.3)	16	(5.3)	212	(70.4)	301	(100.0)	19,913	.001
	중	334	(24.0)	39	(2.8)	1,018	(73.2)	1,391	(100.0)		
	대	1,024	(20.0)	144	(2.8)	3,957	(77.2)	5,125	(100.0)		
계		1,431	(21.0)	199	(2.9)	5,187	(76.1)	6,817	(10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부모교육수준		13,042	2,941	12,809	3,015	13,024	2,888	13,021	2,903	.569	.566
가구소득 (100만원)		3,815	2,067	3,957	2,173	3,596	1,956	3,653	1,989	9,199 (1=2)3	.000
학점 (100점 만점)		87,560	4,029	87,302	4,746	87,095	4,595	87,198	4,490	6,079 1)3	.002
학교규모 (100명)		170,999	87,518	166,997	88,619	178,882	87,960	176,881	87,949	5,808 3)1	.003
장학금 수혜율 (10%)		1,923	.561	1,854	.531	2,014	.633	1,990	.617	17,267 3)(1=2)	.000
1인당 교육비 (100만원)		9,871	3,480	9,475	3,196	10,180	3,946	10,095	3,836	6,322 3)(1=2)	.002

다음으로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여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범주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참여 비율과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여학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았다. 고교계열은 일반고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21.1%로 전문고(20%) 특목고(19.2%)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대학 전공은 사회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22.1%로 인문, 교육, 자연, 공학 전공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chi^2 = 18.47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은 27.4%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인턴 경험의 경우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29.6%로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19.2%)에 비해 높았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많은 학생일수록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할 비율이 높았으며, ‘미도움’으로 응답할 비율도 높았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34.6%가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18.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국공립대의 학생들은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사립대 학생(22.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학생의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23.3%로 비수도권(18.7%)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인다. 대학 규모에 따른 차이는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할 비율이 높았다. 앞에서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반면 대학위세 3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의 ‘도움’ 응답 비율은 20.5%로 30위 밖의 대학(21.3%)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였다. 집단은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그 외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가구소득은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학점은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만족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교 규모는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미참여한 학생들이 ‘도움’이라 응답한 학생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장학금 수혜율과 1인당 교육비는 미참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 IV-14〉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취업캠프(취업지원 프로그램 7) 참여/도움여부 분석

		도움(1)		미도움(2)		미참여(3)		전체		χ^2	p
성별	남	327	(8.0)	63	(1.5)	3,719	(90.5)	4,109	(100.0)	.182	.913
	여	217	(8.0)	45	(1.7)	2,446	(90.3)	2,708	(100.0)		
고교계열	일반고	513	(8.1)	102	(1.6)	5,701	(90.3)	6,316	(100.0)	4.057	.398
	전문고	23	(6.5)	3	(.8)	329	(92.7)	355	(100.0)		
	특목고	8	(5.5)	3	(2.1)	135	(92.5)	146	(100.0)		
대학전공	인문	79	(7.8)	17	(1.7)	911	(90.5)	1,007	(100.0)	20.267	.009
	사회	165	(8.0)	37	(1.8)	1,857	(90.2)	2,059	(100.0)		
	교육	17	(3.4)	7	(1.4)	482	(95.3)	506	(100.0)		
	자연	87	(7.8)	16	(1.4)	1,009	(90.7)	1,112	(100.0)		
	공학	196	(9.2)	31	(1.5)	1,906	(89.4)	2,133	(100.0)		
해외연수	있음	181	(11.0)	41	(2.5)	1,425	(86.5)	1,647	(100.0)	39.560	.000
	없음	363	(7.0)	67	(1.3)	4,740	(91.7)	5,170	(100.0)		
인턴	있음	141	(12.0)	29	(2.5)	1,008	(85.6)	1,178	(100.0)	39.054	.000
	없음	403	(7.1)	79	(1.4)	5,157	(91.5)	5,639	(100.0)		
자격증	없음	146	(6.3)	33	(1.4)	2,149	(92.3)	2,328	(100.0)	34.861	.000
	1~2개	260	(7.8)	59	(1.8)	3,008	(90.4)	3,327	(100.0)		
	3개이상	138	(11.9)	16	(1.4)	1,008	(86.7)	1,162	(100.0)		
직업교육 훈련	있음	157	(14.9)	27	(2.6)	868	(82.5)	1,052	(100.0)	91.382	.000
	없음	387	(6.7)	81	(1.4)	5,297	(91.9)	5,765	(100.0)		
설립유형	국공립대	128	(7.3)	24	(1.4)	1,590	(91.3)	1,742	(100.0)	1.984	.371
	사립대	416	(8.2)	84	(1.7)	4,575	(90.1)	5,075	(100.0)		
대학위세 (30위)	이내	195	(7.3)	37	(1.4)	2,455	(91.4)	2,687	(100.0)	4.531	.104
	초과	349	(8.5)	71	(1.7)	3,710	(89.8)	4,130	(100.0)		
소재지	수도권	275	(8.2)	57	(1.7)	3,037	(90.1)	3,369	(100.0)	.827	.661
	비수도권	269	(7.8)	51	(1.5)	3,128	(90.7)	3,448	(100.0)		
대학규모	소	27	(9.0)	8	(2.7)	266	(88.4)	301	(100.0)	10.817	.029
	중	111	(8.0)	33	(2.4)	1,247	(89.6)	1,391	(100.0)		
	대	406	(7.9)	67	(1.3)	4,652	(90.8)	5,125	(100.0)		
계		544	(8.0)	108	(1.6)	6,165	(90.4)	6,817	(100.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부모교육수준		12,939	2,964	12,519	3,130	13,037	2,893	13,021	2,903	1,931	.145
가구소득 (100만원)		3,847	2,085	3,611	1,828	3,637	1,983	3,653	1,989	2,810	.060
학점 (100점 만점)		87.741	3.869	88.278	4.493	87.132	4.536	87.198	4.490	7.788 (1=2))3	.000
학교규모 (100명)		173.057	84.414	160.470	95.504	177.505	88.095	176.881	87.949	2.551	.078
장학금 수혜율 (10%)		1,914	.552	1,844	.513	1,999	.623	1,990	.617	7.827 3)(1=2)	.000
1인당 교육비 (100만원)		9,860	3,374	9,636	3,048	10,123	3,886	10,095	3,836	1,967	.140

마지막으로 ‘취업캠프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여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및 학교 변인 중 이분변인과 범주변인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율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고교계열은 일반고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8.1%로 전문고(6.5%) 특목고(2.1%)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대학 전공은 공학 분야를 전공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이 9.2%로 인문, 사회, 교육, 자연전공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chi^2 = 20.26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해외연수를 경험한 학생의 ‘도움’ 응답 비율은 11%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캠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턴 경험의 경우 취업캠프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로 인턴 경험이 없는 학생(7%)에 비해 높았으며, 취업캠프 프로그램 참여 비율도 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은 값을 보였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많은 학생일수록 프로그램이 도움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직업교육훈련을 참여한 학생은 14.9%가 취업캠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6.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시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다. 반면 국공립대의 학생들은 취업캠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사립대 학생(8.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갖지 않았다. 대학위세 변인과 소재지(수도원, 비수도권)도 취업캠프 프로그램도움여부와 참여에 따른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았다. 대학 규모는 작을수록 ‘도움’되었다고 응답할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chi^2 = 10.81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다.

연속변인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적용하였다. 집단은 ‘도움’, ‘미도움’,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학교규모, 1인당 교육비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그 외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학점은 취업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장학금 수혜율은 취업캠프 프로그램 미참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나. 다층분석 결과

본 연구는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와 정규직/비정규직 취업 여부로 규정하고, 여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다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그램으로 임의로 구분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유형화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취업 전의 프로그램을 전자로, 취업준비를 위해 배우고 익히는 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후자로 구분하였다. 취업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에는 직업심리검사와 취업캠프가 포함되며, 진로관련상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학점인정 교과목, 직업심리검사, 진로관련상담, 취업캠프, 직장체험, 교내 취업 박람회, 면접기술/이력서 작성이 속한다.

아래 <표 IV-15>는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참여/도움 여부에 따른 취업 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기초 모형(모형 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관련 상담만이 취업에 효과를 나타냈다.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 취업할 확률의 오즈가 28.7% 높았으나, 정규직에 취업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비정규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진로관련 상담에 참여해 도움을 받은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관련 상담에 참여해 도움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의 오즈가 29.5% 높았다.

학생의 배경변인을 통제한 모형(모형 2)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초 모형과 마찬가지로 직업심리검사나 취업캠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취업성과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진로관련 상담은 참여하여 도움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 확률의 오즈가 29.1% 높았다. 정규직 취업과 관련해서는 진로관련 상담이 앞의 모형과 조금 다른 효과를 나타냈다. 기초 모형에서는 진로관련 상담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규직 취업 확률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 배경을 통제했을 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진로관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았을 경우 취업할 확

률의 오즈가 약 29.5%가 높았다. 이 결과는 학생 배경이 불리한 학생들이 진로관련상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도움을 받고 있고, 배경이 부족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정규직 취업의 차이를 보충해 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 모형(모형 3)에서는 학생수준의 과정변인을 통제하였다. 이 때 진로관련상담 프로그램이 취업이나 정규직 취업에 보였던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 의미를 잃었다. 이는 대학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취업 혹은 정규직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교 수준의 변인을 통제한 네 번째 모형(모형 4)에서는 진로관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적으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형에서는 진로관련 상담에 참여해 도움을 받은 경우 취업 확률의 오즈가 28.7% 높았는데, 학교통제모형에서는 2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비도 대학 여건이 동일할 때, 진로관련상담의 경우 128.3%에서 129.7%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비 또한 대학 여건이 동일할 때, 진로관련 상담의 경우 129.5%에서 130.0%로 증가하였다. 이는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대학 여건이 불리한 학교의 학생들이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취업에 대한 불리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모형(모형 5)에서는 앞의 모형에서 통제를 위해 사용된 모든 변인을 통제하였다. 이 때, 진로관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는 학생 과정 변인을 통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의미를 잃었다.

〈표 IV-15〉 취업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 효과 분석 결과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직업 심리 검사 (프로 그램3)	도움	B	.166	.145	.210	.164	.151	.188	.093	.065	.146	.172	.150	.211	.104	.082	.140
		(SE)	(.105)	(.110)	(.108)	(.106)	(.111)	(.107)	(.105)	(.110)	(.107)	(.105)	(.110)	(.108)	(.106)	(.112)	(.107)
		OR	1,181	1,156	1,233	1,178	1,163	1,207	1,098	1,067	1,157	1,187	1,162	1,235	1,109	1,085	1,150
	미 도움	B	.103	.007	.288	.089	-.010	.269	.043	-.049	.218	.110	.011	.285	.043	-.055	.208
		(SE)	(.140)	(.137)	(.167)	(.140)	(.139)	(.166)	(.142)	(.141)	(.166)	(.140)	(.135)	(.169)	(.142)	(.141)	(.167)
		OR	1,109	1,007	1,334	1,094	.990	1,308	1,043	.952	1,243	1,116	1,011	1,330	1,044	.946	1,231
진로 관련 상담 (프로 그램5)	도움	B	.252*	.249	.259*	.256*	.258*	.251	.184	.177	.198	.261*	.260*	.263*	.203	.200	.207
		(SE)	(.122)	(.128)	(.130)	(.121)	(.128)	(.129)	(.121)	(.126)	(.130)	(.122)	(.128)	(.130)	(.121)	(.127)	(.128)
		OR	1,287	1,283	1,295	1,291	1,295	1,286	1,201	1,194	1,219	1,299	1,297	1,300	1,225	1,222	1,230
	미 도움	B	-.036	-.116	.119	-.038	-.128	.125	-.102	-.185	.053	-.018	-.098	.118	-.096	-.191	.061
		(SE)	(.198)	(.199)	(.228)	(.199)	(.205)	(.225)	(.199)	(.201)	(.228)	(.199)	(.201)	(.233)	(.203)	(.210)	(.232)
		OR	.964	.890	1,126	.962	.880	1,133	.903	.831	1,055	.982	.906	1,126	.909	.826	1,062
취업 캠프 (프로 그램7)	도움	B	.240	.275	.189	.226	.248	.209	.142	.175	.098	.250	.281	.192	.140	.153	.130
		(SE)	(.149)	(.156)	(.161)	(.150)	(.156)	(.163)	(.152)	(.157)	(.164)	(.151)	(.157)	(.161)	(.155)	(.160)	(.167)
		OR	1,271	1,316	1,208	1,254	1,281	1,232	1,152	1,191	1,103	1,284	1,325	1,212	1,150	1,165	1,138
	미 도움	B	.067	-.119	.356	.077	-.122	.368	-.025	-.227	.290	.082	-.105	.351	.000	-.221	.301
		(SE)	(.318)	(.318)	(.347)	(.320)	(.320)	(.350)	(.322)	(.320)	(.351)	(.319)	(.318)	(.352)	(.326)	(.324)	(.360)
		OR	1,069	.888	1,428	1,080	.886	1,444	.975	.797	1,337	1,085	.900	1,420	1,000	.802	1,352

*p<.05, **p<.01, ***p<.001

다음으로 〈표 IV-16〉는 취업 역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인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교내취업 박람회, 면접기술/이력서작성의 참여/도움 여부에 따른 취업 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기초 모형(모형 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점인정 교과목과 직장체험, 면접기술/이력서작성은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학점인정 교과목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할 확률의 오즈가 23.6% 높았다. 직장체험의 경우 오즈가 65.2%, 면접기술/이력서 작성은 오즈가 22.4% 높았다. 하지만 교내 취업박람회는 취업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정규직 취업에는 네 가지 프로그램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은 경우 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학점인정 교과목의 경우 24.0%, 직장체험의 경우 63.9%, 교내취업박람회의 경우 24.7%, 면접기술/이력서작성의 경우 27.2% 더 높았다. 학점인정 교과목과 직장체험은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움을 받은 경우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24.3%와 68.3% 높았다. 반면에 취업인정 교과목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할 확률의 오즈가 30.6%,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의 오즈가 40.9% 감소하였다.

학생 배경변인을 통제한 모형(모형 2)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직장체험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 앞의 모형에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조금 적어지기는 하지만 취업 혹은 정규직 취업, 비정규직 취업 등의 취업성과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확률의 오즈가 63.8%, 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63.0%,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66.8% 높았다.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또는 정규직 취업과 관련해 그 영향력이 줄기는 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확률의 오즈가 21.1%, 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21.5% 높았다. 면접기술/이력서작성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 또한 정규직 취업과 관련해 오즈가 20.0% 높아 영향력이 매우 조금 줄기는 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면접기술/이력서작성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와 교내취업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가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의미를 잃었다. 이를 볼 때,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중 일부는 그 정도가 프로그램 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생 배경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덧붙여 학점인정 교과목에 참여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앞의 모형과 같이 취업 혹은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확률의 오즈가 32.0%, 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42.5%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다음 모형(모형 3)에서는 학생수준의 과정변인을 통제하였다. 모형 2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장체험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은 경우 기본 모형에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조금 적어지기는 하지만 취업 혹은 정규직 취업, 비정규직 취업 등의 취업성과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확률의 오즈가 62.7%, 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63.9%,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61.5% 높았다. 하지만 학점 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의 도움여부가 취업과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의 도움여부가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의미를

있었다. 더불어 학생 배경을 통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 과정변인을 통제했을 때 교내취업박람회에서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과 면접기술/이력서작성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취업할 확률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 의미를 잃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모형과 비교해, 취업 성과에 대한 차이 중 일부가 학생 과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학생 수준의 과정 변인을 통제했을 때 학점인정 교과목에 참여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 혹은 정규직 취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할 확률의 오즈는 34.1%,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의 오즈는 43.5% 낮았다.

학교 수준의 변인을 통제한 네 번째 모형(모형 4)에서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가 적으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모형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학점인정 교과목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 취업할 확률의 오즈가 123.6%에서 125.7%로,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의 오즈비가 124.0%에서 126.1%로, 비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의 오즈비가 124.3%에서 124.9%로 다소 증가하였다.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었는데, 도움을 받은 경우 취업할 확률의 오즈비가 165.2%에서 166.8%로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의 오즈비가 163.9%에서 165.5%로, 비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의 오즈비가 168.3%에서 169.5%로 다소 증가하였다. 더불어, 면접기술/이력서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은 경우 취업할 확률의 오즈비가 122.4%에서 123.3%로,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의 오즈비가 127.2%에서 127.9%로 증가하였다. 다만, 교내취업박람회의 도움여부가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대학 여건이 불리한 학교의 학생들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취업에 대한 불리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 교과목에 참여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과 정규직 취업 모두 앞의 모형과 같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모형(모형 5)에서는 앞의 모형에서 통제를 위해 사용된 모든 변인을 통제하였다. 이 때,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직장체험에서 도움 받은 경우 취업 성과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확률의 오즈가 63.4%, 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64.4%, 비정규직 취업 확률의 오즈가 63.0% 더 높았다. 하지만 취업 성과에 대한 오즈비는 기초 모형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더불어, 기초 모형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던 프로그램의 효과들은 통계적 의미를 모두 잃었다.

〈표 IV-16〉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 효과 분석 결과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취업	정규직	비 정규직
학점 인정 교과목 (프로 그램1)	도움	B	.212*	.215*	.218*	.192*	.195*	.197	.130	.130	.142	.229*	.232*	.223*	.132	.127	.144
		(SE)	(.096)	(.098)	(.104)	(.096)	(.098)	(.104)	(.093)	(.095)	(.101)	(.099)	(.101)	(.107)	(.094)	(.096)	(.104)
	OR	1.236	1.240	1.243	1.211	1.215	1.218	1.139	1.139	1.153	1.257	1.261	1.249	1.141	1.136	1.155	
	미 도움	B	-.366*	-.526**	-.092	-.386*	-.553**	-.109	-.417**	-.571**	-.152	-.334*	-.496**	-.084	-.398*	-.562**	-.150
		(SE)	(.150)	(.161)	(.160)	(.149)	(.160)	(.160)	(.153)	(.165)	(.161)	(.153)	(.164)	(.165)	(.155)	(.167)	(.166)
	OR	.694	.591	.912	.680	.575	.897	.659	.565	.859	.716	.609	.919	.672	.570	.861	
교내 취업 박람회 (프로 그램4)	도움	B	.174	.221*	.048	.152	.183	.067	.109	.153	-.017	.176	.220*	.080	.082	.103	.040
		(SE)	(.109)	(.112)	(.114)	(.109)	(.112)	(.115)	(.111)	(.113)	(.117)	(.109)	(.112)	(.116)	(.111)	(.113)	(.119)
	OR	1.190	1.247	1.049	1.164	1.200	1.069	1.115	1.166	.983	1.192	1.247	1.083	1.086	1.108	1.041	
	미 도움	B	-.098	-.172	.024	-.111	-.201	.042	-.153	-.220	-.053	-.082	-.158	.050	-.150	-.240	-.001
		(SE)	(.141)	(.142)	(.158)	(.140)	(.140)	(.157)	(.148)	(.148)	(.165)	(.143)	(.144)	(.160)	(.151)	(.150)	(.168)
	OR	.907	.842	1.024	.895	.818	1.043	.858	.802	.949	.921	.854	1.051	.861	.787	.999	
면접 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 그램6)	도움	B	.202*	.241*	.133	.192	.226*	.132	.123	.159	.058	.210*	.246*	.136	.122	.147	.073
		(SE)	(.103)	(.106)	(.112)	(.102)	(.106)	(.109)	(.104)	(.106)	(.115)	(.104)	(.106)	(.113)	(.105)	(.108)	(.115)
	OR	1.224	1.272	1.142	1.212	1.254	1.141	1.131	1.172	1.060	1.233	1.279	1.146	1.130	1.159	1.076	
	미 도움	B	.094	.048	.202	.092	.047	.190	.041	.002	.139	.106	.055	.199	.055	.013	.139
		(SE)	(.219)	(.227)	(.233)	(.220)	(.230)	(.230)	(.218)	(.226)	(.233)	(.220)	(.228)	(.237)	(.219)	(.229)	(.234)
	OR	1.098	1.049	1.223	1.096	1.049	1.210	1.042	1.002	1.150	1.112	1.057	1.220	1.057	1.013	1.150	
직장 체험 (프로 그램2)	도움	B	.502***	.494***	.520***	.494***	.489***	.512***	.487***	.494***	.479**	.512***	.504***	.528***	.491***	.497***	.488**
		(SE)	(.123)	(.125)	(.138)	(.124)	(.124)	(.139)	(.132)	(.132)	(.149)	(.126)	(.127)	(.140)	(.134)	(.133)	(.151)
	OR	1.652	1.639	1.683	1.638	1.630	1.668	1.627	1.639	1.615	1.668	1.655	1.695	1.634	1.644	1.630	
	미 도움	B	-.105	-.252	.136	-.113	-.264	.128	-.102	-.228	.093	-.090	-.236	.138	-.091	-.221	.094
		(SE)	(.210)	(.221)	(.230)	(.210)	(.221)	(.233)	(.215)	(.225)	(.239)	(.211)	(.222)	(.231)	(.216)	(.227)	(.241)
	OR	.900	.777	1.145	.893	.768	1.137	.903	.796	1.098	.914	.790	1.148	.913	.801	1.099	

*p<.05, **p<.01, ***p<.001

5.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와 도움여부가 취업 여부 또는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통제변수는 크게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생 수준에서는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대학학점, 고교계열, 대학전공, 해외연수 경험여부, 인턴 경험여부,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대학 수준에서는 설립유형과 명성, 소재지, 규모, 장학금 수혜율, 1인당 교육비, 재학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 사용되었다.

첫째, 7개의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에 영향을 준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학점인정교과목과 직장체험’의 두 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취업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정규직 취업 여부에 영향을 준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학점인정교과목, 직장체험, 직업심리검사, 교내취업박람회’의 4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취업 여부 또는 정규직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였으나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취업률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학생보다 낮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학점인정 교과목에 참여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도리어 취업 혹은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의 질이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행정활동은 실질적으로 대학의 취업률은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취업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분 없이 일부 프로그램에서 취업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진로 관련 상담과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면접기술/이력서작성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도움을 받은 경우, 취업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 정규직에 취업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중 일부는 학생배경 혹은 과정과 관련된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그 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은 양이지만 줄어들거나 통계적 의미를 잃었다. 이는 가정배경이 우수하거나 대학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취업 혹은 정규직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 및 학교 변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및 도움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학생, 자격증 3개 이상 소유 학생, 해외연수나 인턴, 직업교육 훈련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리고 사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 학점, 장학금 수혜율 등이 높을수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고비용에 취업성도가 높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직장체험과 취업박람회의 경우 부모학력이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의 상대적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수준의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 모형에 비해 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는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대학 여건이 불리한 학교의 학생들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취업에 대한 불리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별로 우수한 취업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점인정 교과목과 같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취업 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인 취업 전 프로그램(취업캠프,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준비 초기 프로그램(진로·취업에 관한 학점인정 교과목과 교내 취업박람회), 본격적인 취업기술 습득 프로그램(직장체험 프로그램,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등으로 범주화했을 때, 본격적인 취업기술 습득 프로그램의 취업 효과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현재 대학에서는 운영상의 편이성 등의 측면에서 1회적 또는 단기적인 본격적인 취업 전 프로그램이나 취업준비 초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과 관계가 있다. 강원준 등(2008)이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률을 단기에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장경험이나 산학협력에 기반한 직업교육이 부족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비중을 두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업과 구직자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취업 마인드를 강화하고자 진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차 대학에서는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취업기술 습

득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설 여부가 아닌 유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토대로 ‘도움이 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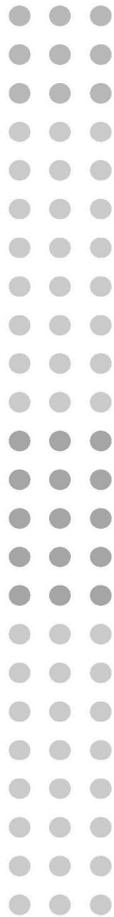
다만 본 연구의 일부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취업동아리와 취업박람회와 취업 성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인 강원준 등(2008)의 선행연구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수가 많을수록 취업 및 정규직 진입가능성이 크다고 본 노경란 등(2011a)의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강원준 등(2008)은 주입식 또는 단기적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취업동아리’가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았다. 강길훈(2011)의 연구에서도 1회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취업 효과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가 가진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사 문항에서 7개로 구분해 놓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미분화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취업 캠프의 경우 취업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기도 하지만, 취업 캠프가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면접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취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취업 캠프 안에서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취업 캠프 프로그램에는 직업심리검사나 진로관련상담, 면접기술/이력서작성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이 대학 생활 중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점 인정 교과목이 저학년에 이루어질 경우 교육과정 속에서 취업 강좌와 같이 취업 마인드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고학년에 학점 인정이 되는 교과목이 이루어질 경우, 학점 부담을 줄여 학생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등의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심리검사나 진로 관련 상담의 경우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저학년 때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성을 아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직종 혹은 직장과 같이 매우 구체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취업프로그램 참여/도움 여부와 더불어 어떤 시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대학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프로그램이 누락되어 있었다. 취업 강좌나 취업 동아리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장차 조사 항목으로서 취업동아리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과별로 실시하는 졸업생 취업멘토링 등 특색있는 사업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는 참여여부와 도움여부를 이분변인으로 질문하여 참여 학생과 도움을 받은 학생 사이 내에서의 질적 차이를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는 항목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대학에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서인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장시간 참여를 요구하는 취업캠프나 직장체험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논의
2. 정책적 제언

V.

요약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진입과 과정 및 성과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입학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의 과정과 관련하여 장학금 정책을, 그리고 대학의 성과와 관련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및 논의

가.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결과

한국교육중단연구의 고등학교 및 대학1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제의 성과를 대학의 특성화, 대학생활측면에서의 성과, 형평성, 사교육 영향력 감소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선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대학별 특성화라는 관점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과 일반전형의 입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일반전형 입학생에 비하여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의 내신성적, 봉사활동 시간이 더 높았으며, 주요 교과 사교육 참여 참여비율이 더 낮았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학부모의 학업 지원이 입학사정관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 특성에 따른 차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의 학업지원이 그 외의 경

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더 높았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자기주도성이 입학사정관 학생의 경우 더 높았으며,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특징에 대학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입학사정관제가 부분적으로 대학별 선발의 특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제는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기존 방식의 입학생에 비해 고교 내신성적과 봉사활동시간, 시민의식, 학생회참여정도, 자기주도성 등이 더 높았고, 학생의 가정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봉사활동 시간, 자기주도성, 자치활동 정도가 더 높았으며, 주요교과 사교육 시간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성적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내신등급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지만 학생의 성별,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고교계열 및 지역규모 등을 통제한 이후 고교내신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이 그 외의 입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내신성적이 높았다.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의 정의적 특질 측면에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태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은 대학에서 수업참여정도가 높고, 자발적 학습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더 높았다. 이상의 특징은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학점에 있어서는 특징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는 1학기 교양학점에 국한된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학업지원은 비수도권대학과 사립대 입학사정관제 입학에서 일반전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업지원은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관계를 분석했을 때,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 전형 학생에 비해 주요교과 사교육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에 비해 기존전형 학생들의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더 높

게 나타났고, 국공립대의 경우 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의 주요교과 사교육 정도가 현저히 낮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두 전형간 차이도 없었으며, 사립대의 경우 사교육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두 전형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 연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논술 사교육에서는 입학사정관제-기존전형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현저히 논술사교육 정도가 높았고,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논술사교육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과 대학설립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주 지교과 사교육 완화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학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생활 성과의 관계 분석

다음으로 한국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이 경험한 학자금 지원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장학금과 대출 수혜 여부에 따른 학생 개인 배경적 특성과 대학 입학 전 학업준비도, 전공, 주요 대학교육 경험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고, 다음으로 장학금 여부와 대출여부가 대학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각각 탐색하였다. 이때 시간활용과 교수 및 선후배와의 상호작용, 수업참여도, 그리고 시간활용 등의 대학교육 경험 요인을 경로분석의 매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의 장학금 수혜 비율은 34.2% 정도였으나 대출을 받은 학생 비율은 이보다 낮은 17.3%로 나타났다. 이를 대학의 과정과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학금 수혜율은 국공립대가 가장 높고, 사립대가 가장 낮았다. 반면 대출 비율은 전문대, 사립대, 국공립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장학금 수혜 비율이 높았고 인문, 사회, 교육 계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 전공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국공립대에서 관찰된 성별 차이나 전공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대학 유형에서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른 아버지 교육 연한 차이는 없었으나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가구 소득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수혜 여부와 수능등급점수와의 관계 분석

에서는 국공립대에서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수능등급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사립대와 전문대 재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대학교육성과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대학 유형에서 공통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 성과는 물론 학습 과정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수업 참여도, 시간 활용 등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부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출 여부에 따른 대학교육 성과 및 대학생활 관련 변인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적응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간에 대학성과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학교육성과에 대한 장학금 및 대출의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도 이와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수혜 여부는 학점과 자아개념, 소속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 여부는 이들 대학교육 성과변인과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다만 전문대의 경우 대출 여부는 대학생의 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다.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과분석

다음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졸업생의 취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고, 각 프로그램의 참여했는지 여부 외에도 참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졸자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학생 성별과 부모학력, 가구소득, 대학에서의 학점, 출신고교 계열, 대학에서의 전공, 해외연수 경험 여부, 인턴 경험 여부,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등을 학생수준의 통제변인으로, 대학의 설립유형과 명성, 소재지, 규모, 장학금 수혜율, 1인당 교육비, 재학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을 대학 수준의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진로상담관련과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이 된 경우는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정규직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층모형 분석 결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중 일부 프로그램은 학생 배경 또는 학생 과정 변인을 통제한 후 효과 크기가 다소 줄어들거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 배경이 우수하거나 대학 과정 중에 경험하는 해외연수, 인턴, 직업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며, 또 이러한 학생들이 취업 및 정규직 취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대학 수준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 모형에 비해 효과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취업여부, 또는 정규직 취업여부를 설명하는 기본모형에 학교수준의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일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의 크기가 일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취업의 질을 설명하는 데 대학의 소재지 같은 일부 변인의 설명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출신대학의 소재지가 비슷할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유무, 그리고 도움 유무에 따른 취업성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점인정 교과목에 참여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취업 또는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준비 과정에 따라 본격적인 취업 전 프로그램, 취업준비 초기 프로그램, 본격적인 취업 기술 습득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을 때, 본격적인 취업 기술 습득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제언

이상과 같은 분석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언을 연구소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평가

■ 대학의 특성화 제고 필요

대학입학사정관제 운영에 있어 대학별 입학전형의 특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학 자율화 이후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각 대학은 대학의 설립유형과 소재지 구분에 따라 부분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선발에서 대학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의 특성이 국공립 여부, 수도권 소재 여부 등에 지나지 않아 실제 대학의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006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학은 대학별 특성에 적합하게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학생의 33%, 교사의 45%, 학부모의 2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대학의 학생선발 특성화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김미숙, 강영혜 외, 2006:99-101). 만약 2012년 현재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특성화에 대해 긍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 대학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입학사정관 제도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동안 제도의 발전이 대학의 자율성 확보보다는 선발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하는 ‘모든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의 대학교육협의회 심의’에 대한 규제와 고교 재학생 제출 서류 양식의 통일 등은 대학의 선발 특성화를 저해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의 이러한 조치는 제도 도입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이로 인한 대학별로 특성화된 전형의 개발에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학별 특성화라는 관점과 제도 도입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고등학교에 대한 영향력이나 사회적 반향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 확보 노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제공하는 대학교육협의회 기준 서류 이외에 대학별 특성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안이나 현재 고교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대학 특성별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대학 수학 적격자에 대한 합의 필요

대학별 특성화 제고를 통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학수학 적격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즉, 모든 대학에서 그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한 한편, 최소한 대학이라는 고등 전문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 능력이라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대학교육협의회 심의’에서 제시하는 제출 서류 등은 이런 최소한의 공통 기반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 수학 적격자에 대한 특성을 대학입학 이후 학점, 수업참여, 자발적 학습활동, 대학 프로그램 참여, 자치활동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수업참여, 자발적 학습활동, 대학 프로그램 참여 등의 정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대학 학점과 자치 활동 참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이나 적극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학생들의 지적 측면에서의 수월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제도 도입 당시 학생의 지적 능력보다는 여타의 활동에 대해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전형 개발이 향후 입학사정관 전형이 30%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도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동안 특별 전형으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일반 전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전에 강조되던 요소 이외의 요소(예를 들어 지적 능력)가 강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학사정관 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입학 후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현재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입학 전, 입학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수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의 특징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선발 특성에 따른 것인지 입학사정관제 추수지도 프로그램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학생이 대학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학생에 대한 추수 지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때, 입학 후 추수 지도 프로그램의 내실화는 입학생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교 생활을 비교한 분석 결과에서 국공립대 입학생과 사립대 입학생 간 차이가 없거나 국공립대 입학생이 더 활발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입학생의 대학 프로그램 참여도가 더 높은 것을 보면, 이는 사립대의 입학사정관제 입학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현재 분석된 결과만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향후 연구 필요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입학사정관제 성과 분석은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을 분석하면, 입학사정관제인가 아닌가 사이에 구분되는 전형 요소나 선발 기준 등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에 대해 입학사정관제라는 전형의 특성이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전형의 특성과 어떻게 구분 되는가 혹은 구분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연구는 대체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연구이거나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과나 특징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물론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고, 결과가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입학사정관제로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고려한다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가 가지는 비용 효과성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학생의 교육적 성과에 대해 비용 효과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 제도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나.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학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

■ 대학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와 적용

본 연구 결과, 장학금 수혜자와 대출자의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대학 유형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개인 특성과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국공립대의 경우 사립대나 전문대에 비해 장학금 수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성별이나 전공, 수능 등급점수 등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국공립대가 장학금 배분 시 형평성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출 유경험자의 경우 대출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아버지 교육 수준이나 가구 소득이 낮았으며 특히 사립대 대출자의 경우 수능등급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학업 준비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학자금 대출자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대학 입학 시 학업 준비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대학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 수준에서 학자금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학 내에서도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나 대학 모두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대학 특성을 감안하여 어떤 측면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할지 고려하면서 대학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특화된 집중 적용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장학금 수혜자 모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과 비교해 바람직한 교육 경험을 더 많이 하고 대학생활 적응이나 학업 성취, 인지적·정의적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학금 지원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아버지 교육 연한 차이는 없었고 가구 소득은 오히려 낮았으며 특히 사립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대학 입학 전 학업성취 수준도 더 높지 않았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장학금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해 가정환경이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대학교육 경험과 성과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장학금의 긍정적 영향을 밝힌 연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예컨대, 학자금 지원이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Nora와 그의 동료들은 학자금 지원이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스터디 그룹 활동이나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 필요한 대학교육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는 학업 성취 등 대학교육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Nora, Barlow & Crisp, 2006). 국내에서 관련 주제를 탐색한 김지하와 이병식도 장학금 지급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장학금 지원의 영향은 학생 배경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유효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대출보다 장학금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학금 지원이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인으로서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정책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동기 부여가 필요한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 도입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 이외에 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받은 경험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대출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대학교육 경험 및 성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대학 입학 초기에는 대출이라는 형태를 통한 학자금 지원은 대학생이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하고 대학에 잘 적응하여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데 별다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출 경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출 유경험자의 경우 대출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아버지 교육 수준이나 가구 소득이 낮았으며 특히 사립대 대출자의 경우 수능등급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장학금 수혜자에 관한 분석 결과와 대비되는 사안으로, 대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학생층이 다양해지고 학업준비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외국 대학에서는 remedial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학업 보충을 돕는

수업이나 진로 탐색 지도, 기타 대학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학자금 지원 업무와 학생 생활 지원 업무가 연계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점이다. 이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학습이나 기타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 대학처럼 학자금 대출 수요자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다. 학자금 지원과 학습 및 생활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교육적 처치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바로 학업이나 기타 대학 생활 지원 측면에서 이러한 교육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자에게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학업 등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다.

■ 학자금 지원과 대학교육 경험 및 성과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 축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교육 성과 요인별로 장학금의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학점과 대학 적응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확인되었다. 대학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직접적인 영향은 사립대에서만 관찰되었고 국공립대와 전문대에서는 시간 활용이나 수업참여도,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 확인되었다. 인지적, 대인적,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한 자아개념 역시 학자금 수혜의 직접적인 영향은 사립대에서만 관찰되었고 국공립대와 전문대에서는 시간 활용이나 수업참여도,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 확인되었다. 장학금 지원이 학생들의 대학 적응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연구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의 영향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나 인지적, 대인적,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한 자아개념에 크게 미치는 못하였다. 중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장학금 지원의 효과가 다양한 대학교육 성과로 확대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대학별 학자금 지원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대학 유형별 연구 결과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4년제 사립대에 비해 4년제 국공립대와 전문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장학금 지원의 직간접적 영향이 덜 명료하게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경우, 사립대에 비해 장학금 수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경험 요인과 대학교육 성과 요인 간의 관계는 이에 대한 부분적 설명을 제

공해 주는데 국공립대에서는 장학금 지원 여부와 동료와의 상호작용 및 대학교육 성과 요인 간 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났다. 즉, 사립대에 비해 국공립대에서는 교수와 학생 또는 동료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교육적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국공립대에서는 대학 구성원 내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다. 대학졸업생의 취업 및 취업을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필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진로상담관련과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이 된 경우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서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프로그램 실시 여부를 떠나 실제로 학생들의 취업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진로상담, 학점인정 교과목, 직장체험, 면접기술/이력서 작성 등의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실제 취업 과정과 취업 결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 학생 개인배경 영향력의 최소화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동기화가 중요

다층 분석 결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중 일부 프로그램은 학생 배경 또는 학생 과정 변인을 통제된 후 효과 크기가 다소 줄어들거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가정 배경이 우수하거나 대학 과정 중에 경험하는 해외연수, 인턴, 직업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대학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결과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어 다루지는 않았으나 대학 재학 중 경험하는 해외연수 혹은 직업교육훈련과 같이 개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험 역시 학생들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해 본다면, 학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도가 달라지고, 이를 통해 취업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일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파악하고, 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지역별 동등한 기회 확보가 중요

대학 수준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 모형에 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의 질을 설명하는 데 대학의 소재지 같은 일부 변인의 설명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출신대학의 소재지가 비슷할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유무, 그리고 도움 유무에 따른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준 외(2008)에서 지적하였듯이, 기업의 취업박람회와 같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주로 수도권 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유치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취업박람회와 같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하는 등의 대학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학교 소재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사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실제적인 취업 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필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취업 또는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실제적인 취업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또는 정규직 취업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별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실시 여부와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학생들의 취업 준비 과정은 물론, 긍정적인 취업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장기적 관점에서 취업 기술 습득 프로그램에 중점

대학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본격적인 취업 기술 습득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취업률을 높이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강원준 외(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현재의 취업 프로그램은 현장경험이나 산학협력에 기반한 직업교육, 기업과 구직자의 연계를 통한 취업을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취업 마인드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차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각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고루 운영하되, 취업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길훈(2011).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14(1), 125-144.
- 강영혜, 차성현, 김양분, 신인수 (2010). **학력격차 해소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10-01.
-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17-36.
- 강태중, 이성호, 김동민 (2012).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4), 151-175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10년 업무 보고: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22).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8. 22). 대학정보공시, 2012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공개.
-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12. 3. 21).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공고.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교육인적자원부(2004. 10. 28).
- 권재기, 김진호(2011). 청년기 직업결정의 변화양상에 따른 진로특성 변화 및 예측: 대학 4년간의 진로고민·고등학교 3학년 때의 진로특성. **직업능력개발연구**, 14(1), 49-74.
- 금재호(2004).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6(3), 259-289.
- 김경식, 이현철(2008). 대졸자의 취업준비가 소득 및 직업지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심포지엄 발표대회**. 한국고용정보원.
- 김기현(2005). 교육과 직무의 불일치: 한일 대학졸업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5(3), 92-103.
- 김미숙, 강영혜, 황여정, 박소영, 이희숙(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 외(2008).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V): 대입 전형 요소와 대학수학능력의 관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8-16-01.

- 김병주(1999). 전공별 교육비차이도, 수익률 및 수요탄력성에 근거한 대학등록금의 책정. **교육행정학연구**, 17(1), 1-33.
- 김병주, 박정수, 이영, 나민주(2009).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포물러 지표 개발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병진(2007). 홀랜드식 검사에 의한 직업유형 일치정도와 직무 만족 및 직무성과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승태(2012). 입학사정관제도와 사 규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1), 237-264.
- 김상대(1995). 대졸 실업자의 발생 원인과 대책. **노동경제논집**, 17(2), 55-87.
- 김성식(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성식, 김준엽, 오범호(2011).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VI) 대학 이후 및 신규 코호트 조사 설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0-24-2.
- 김성식, 남궁지영(2009).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V)**.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8-29.
- 김수리, 박미진(2008). 대졸자의 구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심포지엄 발표대회**. 한국고용정보원.
- 김수연(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4), 33-62.
- 김신영(2011).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주제발표 III). **입학사정관제 성과와 발전 방안(제34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8. 26).
- 김안나, 김성훈(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지원의 영향. **교육과학연구**, 41(2), 163-180.
- 김안나, 이병식(2003). 대학생들의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0(1), 367-392.
- 김안나, 이병식(2008).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교육 선택의 차이와 학자금 지원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39(1), 67-84.
- 김양분 외(2009). **주요 교육정책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09-09.
- 김양분, 신혜숙 (2009). 학생 성취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 및 학교 효과 분석. **제4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연구자료 ORM 2009-40.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양수경, 김위정, 이재경(2011).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 공교육 내실화에 기반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24.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양수경, 임후남, 최정윤(2011).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V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21.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정순원, 김성기(2011). **분석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제공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 연구 CR 2011-32.
- 김용기(2008).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교육논단**, 7(2), 127-147.
- 김정숙(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효과. **교육과학연구**, 40, 141-165.
- 김종성, 이병훈(2009). 대졸자의 일자리 진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구직활동방식의 효과성 비교를 중심으로. **200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OES, YP, GOMS) 심포지엄**.
- 김지하, 이병식(2009). 대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 분석. **교육행정연구**, 27(3), 447-470.
- 김지하, 이병식(2010).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42(2), 209-230.
- 김현진(2007).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5(4), 485-508.
- 김희용(2011).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교육사상연구**, 25(1), 21-50.
- 김희삼(2010). 지방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 55-92.
- 남기곤(200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 **노동정책연구**, 8, 39-61.
- 남수경(2009).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52차 학술대회 자료집, 69-111.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a).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1), 63-92.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b).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대졸 청년의 능력개발 노력과 주관적 취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2), 55-81.

- 노경란, 윤수경(2012).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 적응 특성에 대한 이해: 4년제 여자대학교의 입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1), 91-118.
- 노동부(2005).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사업계획(안) 및 직업진로지도 지원방안.
- 노동부(2006a). 2006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대학 명단.
- 노동부(2006b). 2006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추가선정대학 명단
- 노동부(2007). '07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요강.
- 노동부(2008).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요강.
- 노동부(2009). 청년취업지원사업 안내팸플렛.
-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1-27.
- 류장수 외(2010).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평가(정책연구-2009-007-NURI). 한국연구재단.
- 민혜리(2003).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3), 133-149.
- 박병영, 김미란, 김기선, 류기락(2011).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V):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재,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박혜림(2009).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교육방법연구**, 21(1), 21-46.
- 박환보, 김성식(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 77-98.
- 방하남, 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 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배성아, 안정희(2011). '입학사정관 전형 유형' 분석을 통한 입학사정관제도의 발전 방향 탐색. **교육문제연구**, 40, 115-139.
- 변수용, 김경근(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2), 53-82.
- 변수용, 김경근(2010).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1), 73-102.

- 손희권, 주희정(2009). 신문이 제시한 대학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34, 1-24.
- 신선미(2004). 여학생의 이공계 진로선택의 직업세계 이행 성과. **교육학연구**, 42(3), 205-226.
- 신선미, 김종숙, 임후남(2010).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실태와 과제-능력성장관련 전공 과 기타 전공 간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정철, 정지선, 신택수(2008).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287-312.
- 안선희, 정일환, 주동범(2009).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 안정희, 배성아(2009).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사회적 논의 과정 분석: 일간지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0(3), 1-30.
- 안주엽, 홍서연(2002). 청년의 학교 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 **노동정책연구**, 2(1), 19-46.
- 양성관(2009).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분석: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교육정치학연구**, 16(3), 125-148.
- 양성관, 정일환(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 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 어윤경(2010). 대졸 청년층의 전공-직업 일치 여부에 따른 직무 만족도 변화 추이. **201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OES, YP, GOMS) 심포지엄 자료집**.
- 오세규(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 외(2009). **대학정보공시제를 활용한 대학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16.
- 유현숙, 임후남, 최정윤, 여승수, 서영인, 고장완, 신현석, 한상임(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0-17.
- 유현숙, 임후남, 서영인, 신현석, 고장완, 박승호(201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유홍준(2000). **직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 윤소정, 윤채영(2011). 입학사정관제 신입생을 위한 대학적응프로그램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23(1), 23-34.
- 이규용, 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 요인. **노동정책연구**, 3(2), 69-94.
- 이경희(2010). 고교성적, 수능성적, 대학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찰: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313-342
- 이기종, 김은주(2006). 취업 및 미취업을 결정하는 요인 탐색. **교육논총**, 26(1), 17-37.
- 이병희(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 1-22.
- 이상록(2004). 지방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및 진로준비태도의 영향 분석: 전북지역 K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1), 5-39.
- 이상호, 장윤희, 진대선(2010).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효과성 분석. (주)커리어파트너.
- 이영대(2010).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과 학교진로교육의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대, 윤형한(2007).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활성화 방안(수탁과제 07-4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재, 임연기, 서광수(2005).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수시·정시 합격자의 수능·학생부 성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활용방안 모색 연구. **교육연구**, 19, 73-96.
- 이원석(2012). 입학사정관전형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사정관과 입학생의 인식조사: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중심. **교육문제연구**, 43, 113-133.
- 이윤미(2009). 입학사정관제도 확대를 우려하며. **초등우리교육**, 239, 72-79.
- 이정미 외(2009). **대학재정 실태와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15.
- 이정미, 이필남, 서영인, 나민주, 박소영, 이희숙(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2010). 현 정부의 교육정책 리더쉽과 한국교육의 이슈. **한국교육학회, 2010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0.
- 이지영, 장재운, 김명연(2005). 대학 4학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23.

- 이필남 (2011).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과 사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제5회 한국교육중단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2011-021.
- 이형석, 박완성(2008). 대졸 취업과 관련된 구직활동 요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1(2), 105-117.
- 임규홍(2012). 입학사정관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K대학교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리뷰**, 3(1), 153-170.
- 임언, 최동선, 강혜영(2006).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수탁과제 06-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천순, 양병무(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3), 1-26.
- 임후남, 여승수, 이광현, 이선호(2009). **교육통계 및 공시정보의 관리·활용 방안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장상수(2008).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한국사회학**, 42(6), 106-139.
- 장서영, 정영순(2009). 프로그램 운영자의 역할과 경험 이해 -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2(3), 73-101.
- 정광희, 김홍원, 이종재, 정진공, 박소영, 남수경, 조덕주, 이희숙(2005). 고교교육정상화와 대학적격자 선발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방안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정광희, 박영영, 조덕주, 손민호, 서영주(200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IV): 한국 고교생의 대학진학 준비 과정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정광희, 김미란, 박병영 (2011).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VIII):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정미나, 임영식(2010). 대졸 청년층의 노동 시장 진입 관련 변인에 대한 경로 분석. **진로교육연구**, 23(2), 135-152.
- 정일환, 김병주(2008).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4), 113-139.
-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 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53-78.

- 조우현(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2), 67-89.
- 조지민, 김양분, 김진영, 채창균, 황철연, 김완수, 김순강, 염동호(2009). **연구 기반 정책 수행을 위한 학업성취도 DB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재형, 기정훈, 임형백(2010).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성 평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3), 55-78.
- 주휘정(2012). 신규 대졸자 임금에 대한 개인 및 대학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1), 603-626.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35-61.
- 채재은, 임천순, 우명숙(2009). 방과후학교와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3), 37-62.
- 채창균 외(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2003). 대학생의 재학 중 일자리 경험과 취업 전망. **취업교육연구**, 22(1), 169-184.
-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최경호, 한동욱(2010). 입학사정 전형요소 상대적 중요도 결정에 대한 퍼지 계층분석적 접근방법-스대학교 사례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4), 699-708.
- 최정윤, 신혜숙(2010). 한국 대학에서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성격과 대학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대학 특성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131-154.
- 최정윤, 이병식(2009).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223-246.
- 최정윤, 이정미, 나민주, 이병식(2008).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 및 발전과제(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07. 8. 3). 2007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결과 발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2011. 12. 9). 대교협,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cue.go.kr>
- 황여정, 김경관(2011).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5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77-308.

- 황여정,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 Astin, A.(1977). *Four critical years: Effects of college on beliefs, attitudes, and knowledge*. San Francisco: Jossey-Bass.
- Astin, A.(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 Barnett, R.(2005). Convergence in Higher Education: The Strange Case of "Entrepreneurialism". *Higher Education Management and Policy*, 17(3), 51-89.
- Bowen, H. (1977). *Investment in learning: The individual and social value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Breser, D. J., Eide, E., & Ehrenberg, R. G.(1996). *Does it pay to attend an elite private college? Cross cohort evidence on the effects of college quality on earnings*. NBER Working Paper 5613
- Burns, T. & Schuller, T. Ed(2007). *Evidence in Education: Linking research and policy*. CERI/OECD
- Cabrera, A., Colbeck, C., & Terenzini, P.(2001).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assessing classroom teaching practices and student learning: The case of Engineering.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2(3), 327-352.
- Cabrera, A. F., Nora, A., & Castaneda, M. B. (1993). College Persistence: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Test of an Integrated Model of Student Reten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4(2), 123-139.
- Cabrera, A. F., Stampen, J. O., & Hansen, W. L. (1990). Exploring the effects of ability to pay on persistence in college. *Review in Higher Education*, 13(3), 303-336.
- Chickering, A.(1969).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Davies S. & Guppy N.(1997). Field of study, college selectivity, and student inequalities in higher education. *Social forces*, 75(4), 1417-1438.
- Dey, E. L.(1997). Undergraduate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8(4), 398-413.

- Eide, E.(1994). College major choice and changes in the gender wage gap.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7, 55-64.
- European Commission(2012). Effects and Impact of Entrepreneurship Programmes in Higher Education, Brussels, March 2012, Enterprise and Industry.
- Fehrmann, P. G., Keith, T. Z. and Reiners, T. M.(1987). Home Influence on School Learn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0, 330-336.
- Feldman, K. & Newcomb, T.(1969).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Feldman, K. A., Ethington, C. A., & Smart, J. C.(2001). A Further Investigation of Major Field and Person-Environment Fi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2(6), 670-698.
- Franklin, M.(1995). The effects of differential college environments on academic learning and student perceptions of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6(2), 127-153.
- Ganzeboom, H., de Graeaf, & Treiman, D. (with de Leeuw, J.)(1992).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 pp. 1-56.
- Ganzeboom, H. B. G. & Treiman, D. J.(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3), 201-239.
- Grayson, J.(1998). Racial origin and student retention in a Canadian university. *Higher Education*, 36(3), 323-352.
- Gurin, P., Dey, E. L., Hurtado, S., & Gurin, G.(2002). D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heory and Impact on Educational Outcom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2(3), 330-366.
- Hossler, D., Ziskin, M., Kim, S. Cekiç, O., & Gross, J. P. K.(2008). *Student Aid and Its Role in Encouraging Persistence*, Baum, S., McPherson, M., & Steele, P.(ed.). The Effectiveness of Student Aid Policies: What the Research Tells Us. College Board.

- Hu, S. & Kuh, G.(2002). Being (dis)engaged in educationally purposeful activities: The influence of stud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3(5), 555-575.
- Hurtado, S., Han, J., Sáenz, V., Espinosa, L., Cabrera, N., & Cerna, O.(2007). Predicting transi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biomedical and behavioral science aspirants' and minority students' first year of colleg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8(7), 841-887.
- Kim, Y. & Sax, L.(2009).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research universities: Differences by student gender, race, social class, and first-generation statu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0(5), 437-459.
- Kuh, G. & Hu, S.(2001). The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the 1990s. *Review of Higher Education*, 24(3), 309-332,
- Kuh, G. D., T. M. Cruce, et al.(2008). Unmasking the Effects of Student Engagement on First-Year College Grades and Persistenc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9(5), 540-563.
- Lampert, M.(1993). Student-faculty informal interaction and the effect on college student outcom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dolescence*, 28(112), 971-990.
- LaNasa, S., A. Cabrera, et al.(2009). The Construct Validity of Student Engag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pproach.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0(4), 315-332.
- Leslie, L. L., McClure, G. T., & Oaxaca, R. L.(1998). Women and minoriti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9(3), 239-276.
- Lundberg, C. & Schreiner, L.(2004). Quality and frequency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learning: An analysis by student race/ethnic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5(5), 549-565.
- MaryBeth, W.(2003). Socioeconomic Status and College: How SES Affects College Experiences and Outcomes. *Review of Higher Education*, 27(1), 45-73.
- McCormick, A., G. Pike, et al.(2009). Comparing the Utility of the 2000 and 2005 Carnegie Classification Systems in Research on Students' College Experiences and Outcom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0(2), 144-167.

- Montmarquette, C., Cannings, K., & Mahseredjian, S.(2002). How do young people choose college major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1, 543-556.
- Mwasalwiba, Ernest Samwel.(2010).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review of its objectives, teaching methods, and impact indicators". *Education + Training*, 52(1), 20-47.
- Nusche, D.(2007). *Assessment of Learning Outcomes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Review of Selected Practice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No. 15. Paris: OECD Publications.
- Pascarella, E. & Terenzini, P.(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Vol. 2):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Pascarella, E.(1980). Student-faculty informal contact and college outcom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4), 545-595.
- Pascarella, E.(1984). College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tudents' educ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5(6), 751-771.
- Pascarella, E.(1985). Students' affective development within the college environmen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6(6), 640-663.
- Pascarella, E., Person, C. T., Wolniak, G. C., & Terenzini, P.(2004).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Additional evidence on college experiences and outcom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5(3), 249-284.
- Raudenbush, S. & Bryk, A.(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
- Rhee, B. S.(2008). Institutional Climate and Student Departure: A Multinomial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31(2), 161-183.
- Robinson, L.(1999).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school students*. LSAY Research Report. 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 research report; n. 9.
- Robst, J.(2007). Education and job match: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 397-407.

- Rumberger, R. W. & Thomas, S. L.(1993). The economic returns to college major, quality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of recent graduat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2(1), 1-19.
- Sax, L., Byant, A., & Harper, C.(200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college outcomes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6), 642-659.
- Shattock, M.(2005). European Universities for Entrepreneurship: Their Role in the Europe of Knowledge, The Theoretical Contextualism. *Higher Education Management and Policy*, 17(3), 13-25.
- Shin, J. C. & Milton, S.(2008). Student response to tuition increase by academic majors: empirical grounds for a cost-related tuition policy. *Higher Education*, 55(6), 719-734.
- Smart, J., Feldman, K., & Ethnington, C.(2000). *Academic discipline: Holland's theory and the study of college students and faculty*.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St. John, E. p. Asker, E. H. & Hu, S.(2001). *The role of finances in student choices: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In Michael B. Paulsen and John C. Smart(eds). *The Finance of higher Education: Theory, research, policy, &practice*. Agathon Press.
- Terenzini, P. & Pascarella, E.(1980). Student-faculty relationships and freshman year educational outcomes: A further investig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1(6), 521-528.
- Terenzini, P., & Pascarella, E., & Blimling, G.(1999). Students' out-of-class experiences and their influence on learning and cognitive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0(5), 610-622.
- Terenzini, P., Springer, L., Yaeger, P., & Pascarella, E.(1996).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s: Characteristics, experiences, and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7(1), 1-22.
- Volkwein, F., King, M., & Terenzini, P.(1986). Student-faculty relationships and intellectual growth among transfer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7(4), 413-430.

Willms J. D.(1992). *Monitoring School Performance : A Guide for Educators*. London : Falmer Press,

Wolniak, Seifert, Reed, & Pascarella.(2008). College majors and social mobilit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6, 123-139.

Abstract

Evidence-Based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olicies: Focusing on Policies regarding College Entrance, Engagement,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Researcher : Shin, Hye Sook(KEDI)
Kim, Yang-Boon(KEDI)
Choi, Jeung Yun(KEDI)
Nam, Sukyung(University of Kangwon)
Assistant : Yi, Kihye(KEDI)
Min, Byungchul(SNU)
Kim, Joengeun(University of Hongik)
Hwang, Na-Young(UC Irvine)

This is the first-year study of series on "Evidence-based study on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olicies". In 2012, we focused on policies regarding college entrance, campus life and student engagement,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regarding employment . In particular, this study evaluated the consequences of admission officer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Major results and recommendations of each study are as follows:

Admission Officer System

First, admission officer(AO) system has achieved at some points in terms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college life, equity, and needs for private tutoring.

Next, the effect of AO in terms of enriching public secondary edu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public/private) and location (capital area or not). In public universities, students selected through AO system showed better achievements in their high schools compared to non-AO students. More specifically, AO students showed better academic performance, more volunteering and less private tutoring time during their high school period. I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AO students reported higher parent academic support than non-AO students. Depending on university location, AO students in capital area universities showed higher self-regulation and less private tutoring compared to non-AO. In universities located at non-capital area, parents' academic support for AO students were higher than non AO students. The fact that AO students' distinct characteristics during high school period differ among universities suggests that AO system, at least partially, contributes to the university specialization.

Regarding students' academic activity and school engagement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students through AO system generally showed higher engagement in regular classes, more self-regulated study time and higher participation rate in university programs than students through non AO system. These differences were more distinct among private universities.

Financial support systems

When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upport systems for higher education and student engagement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A total of 34.2% of students received fellowship while a total of 17.3% had student loan. The recipient rate of fellowship was highest at Public universities and lowest at private universities. The percentage of students getting student loan was highest at two-or-three-year-colleges and lowest at public universities. When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 of fellowship recipients in public universities, female students, students with higher KSAT(Korean Scholar Aptitude Test) scores, and students majoring in humanity, society, and education had higher chance to receive fellowship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ch characteristics in private universities. In all

universities, family income of fellowship recipients was lower than that of non-recipi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fathers' educational levels betwee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of fellowship.

With regard to the differences betwee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of student loan, there was little difference among students in public schools. In contrast, family income and KSAT scores of recipients of student loan were lower than non-recipients in private universities.

The path analysis revealed that the fellowship support has positive impact on GPA, self-concept, sense of belonging, and school adjustment through time-management, student-faculty inter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However, the effect of student loan was not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se process and outcome variables of higher education.

It is concluded that,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of higher education,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should be customized to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universities. Next, given that the effects of fellowship were positive throughout student engagement and school achievement, it is needed to expand the fellowship programs. Also, it is need to develop special programs to motivate students with lower SES and/or lower KSAT scores along with fellowship assistance. Special programs should also be provided to students who has student loan.

Employment support program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ies' employment support program, this study first categorized universities' career-related program into career motivation program (CMP), career skill development program(CKDP). Key explanatory variable was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of each type of program and if participated, how helpful it was. Dependent variable was actual employment status (tenured, non-tenured and non employment).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both CMP and CKDP, those who participated, and especially reported that the programs were helpful had higher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on tenure track.

Second, multi-level analysis reveal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student background and process variable, the magnitude of CMP and CKDP effect were decreased. This result suggest that students with better family background and/or those who personally seek short-term overseas study, internship or job training actually participates more actively on CMP and CKMP and therefore achieve better chance to get employed.

Third, after controlling for university characteristics, the effect of CMP and CKMP tended to increase. This means that university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has very strong prediction power.

Finally, when the programs were divided into pre-preparation stage, early-stage preparation and skill-acquisition program, skill-acquisition program turned out to be the most effective one.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key factor of university's employment support program lies in its quality. The program had positive effect for those who felt that the program was actually helpful. However, for those who participated but felt the program was not helpful, the program tended to have negative effect on the likelihood of having high-quality (i.e. tenured) job. In addition, because CMP and CKMP were more beneficial to higher background and/or more active job seekers (those who personally develop job skills), it is highly needed to motivate economically underrepresented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se university programs.

Keywords: Admission Officer System, Financial support systems, Employment support program



부 록



- [부록 1] 한국교육종단연구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개요
- [부록 2]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 개요
- [부록 3] 장학금 및 대출이 대학교육성
과에 미치는 경로분석 결과
(경로분해)
- [부록 4] 취업지원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위한 HLM 결과

[부록 1] 한국교육종단연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개요

[부록표 I-1] 한국교육종단연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자료를 구축 - 학생의 지적·정의적, 사회·문화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학교에 대한 자료 수집의 목적 -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상급학교 진학과 교육 이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 - 정성적 차원의 통계 자료를 제공 - 교육정책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
조사주기	- 1년
조사대상	-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
조사방법	- 우편조사 혹은 전화조사를 통한 설문조사
조사설계	- 2005년에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30세가 되는 시점까지 매년 추적 조사
표본추출법	- 층화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

자료: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VI) 연구보고서(김양분 외, 2010) 참조

[부록표 I-2]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 이동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 도모 - 개별 학교 및 전공별로 세부 노동시장 성과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제공하여 대학(전공)의 합리적 선택 유도
조사주기	- 1년
조사대상	- 전국의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학 졸업자
조사방법	- 대면면접조사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
표집틀	- 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설계	- 매년 약 18,000명의 패널을 구축하고, 구축된 패널에 대하여 2년 후 1회 추적조사 실시
표본추출법	- 층화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
표본규모	- 각 연도별 대졸자 18,000명

자료: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데이터 설명회 자료집을 참조하여 작성

[부록표 I -3]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차년도 주요 조사내용

주제	조사항목	세부조사항목
대학진학	지원 및 입학 전형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 지원수
		재학 중인 대학의 입학 유형
		입학사정관계 전형 입학 여부
	대학과 전공 선호도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선호도
		현재 전공의 선호도
	대학지원 관련 부모의 영향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참여여부 및 종류		
대학과목선 이수제 프로그램 참여여부 및 종류		
대학에서의 학습경험	학생 개인의 학습과정	
	통학시간	
대학에서의 학습경험	학교 교육 프로그램 경험	
	이수 강좌수 및 학점	
	이수한 영어강의 수 및 학점	
	학업	성적
	성취도	학업우수관련 수상(장학금) 여부
	교수의 교수활동에 대한 인식	
	수강포기 및 철회경험	
	수업참여정도	
	학업태만	
	대학 생활적응 · 만족도 · 소속감	대학 생활 적응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수업내용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교내 대인관계 만족도
		재선택 여부
소속감		
대학풍토		
인적교류	교수와의 교류	
	친구및선후배와의교류	
교육경비의 출처와 수입	등록금액	
	등록금 충당경로	
	등록금마련에 대한 불안	
	교육비 및 생활비	
	사교육여부	
	사교육 참여개월 수 및 참여시간	
	사교육비	
대학생활과 향후 계획	대학생활 계획	
	향후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	
	졸업계획	
	휴학여부 및 사유	

[부록표 I-4]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차년도 주요 조사내용

조사항목		2005	2007	2008	2009
경제활동상황	경제활동상황 판별	√	√	√	√
현직장 일자리	일자리 성격, 산업 및 직업	√	√	√	√
	종사장 지위 및 고용형태	√	√	√	√
	비정규 고용		√	√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	√	√	√
	만족도 및 직무수준	√	√	√	√
	주 사용 외국어 및 활용빈도	√	√		
	사회보험 등 부가급여	√	√	√	√
	노동조합	√	√	√	√
	신입사원 교육, 일자리 진입 및 적응		√		
	동시일자리	√		√	√
첫직장 일자리	일자리 성격, 산업 및 직업	√	√	√	√
	종사장 지위 및 고용형태	√	√	√	√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근로소득	√	√	√	√
	만족도 및 직무수준	√	√	√	√
	주 사용 외국어 및 활용빈도		√		
	사회보험 등 복지 및 부가급여	√	√	√	√
	노동조합	√	√	√	√
	신입사원 교육		√		
	일자리 진입 및 적응, 그만 둔 이유	√	√	√	√
실업급여		√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근무기간	√	√	√	√
	직업 및 산업, 사업체 형태	√	√	√	√
	종사장 지위, 고용형태	√	√	√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근로소득			√	√
	그만둔 이유		√	√	√
학교생활	출신 고등학교	√	√	√	√
	출신 대학교	√	√	√	√
	이전 학교	√	√	√	√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

조사항목		2005	2007	2008	2009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경험여부 및 일자리 개수	√	√	√	√
	근무기간	√	√	√	√
	일자리 내용(직업 및 산업)	√	√	√	√
취업 준비	졸업 전 취업 목표	√	√	√	√
	졸업 전후 취업 준비	√	√	√	√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어학연수	√	√	√	√
	취업 사교육	√	√		
	직업관련 교육·훈련	√	√	√	√
	취득 자격증	√	√	√	√
	시험준비	√	√	√	√
향후 진로	현재 구직활동	√	√	√	√
	향후 진로계획	√	√	√	√
인적사항	인적사항, 가족학력 및 직업, 소득 등	√	√	√	√

[부록 2]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 개요

[부록표 II-1] 일반학자금의 주요 내용(2011학년도 기준)

분류		내용	
지원 자격	신청연령	대출 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기준	신입생	해당사항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 평점 70/100 이상 장애우, 졸업학기인 경우 이수학점 적용 제외
	대출여부	대학원생	대출가능
	소득기준		소득분위 제한 없음(단, 학부 1~2학년은 소득 8분위 이상)
제출서류		재단이 서류제출 대상으로 통보시 제출 -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시 또는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대출 규모	대출금리		연 4.9%(11년도 2학기 기준)
	등록금 대출한도	상한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하한	최소(부분)대출 금액: 50만원 (등록금만 기준)
	생활비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 + 원금납부) 최장 10년
	대출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 서류제출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 신청

[부록표 II-2] 든든학자금의 주요 특징

구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대상 학교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성적 기준	○ 신입생: 수능성적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영역 중 2과목 이상 6등급 이내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수, 성적 80점 이상 - 장애우는 이수학점, 성적 예외 적용(70점 이상시 대출가능) ※ 특별추천: 직전학기성적기준 미충족시 전체성적 80/100이상을 만족하면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이용 가능											
	소득 기준	○ 소득 7분위 이내 ○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 소득분위 관계없음											
	신용 기준	○ 제한 없음(금융채무 불이행자, 저신용자 수혜가능)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2회 변동) ○ 소득수준별 이자지원 없음												
대출조건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2백만원(학기당 1백만원) - 생활비 대출조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소득분위</th> <th>원금</th> <th>이자</th> </tr> </thead> <tbody> <tr> <td>기초수급자 1~3</td> <td>소득 발생 전 원금 상환유예</td> <td>무이자</td> </tr> <tr> <td>4~7</td> <td colspan="2">소득 발생 전 원금, 이자상환유예</td> </tr> <tr> <td>8~10*</td> <td colspan="2">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일반상환대출방식과 동일)</td> </tr> </tbody> </table> <p>※ 8~10분위는 다자녀 셋째이후 이용 가능</p>	소득분위	원금	이자	기초수급자 1~3	소득 발생 전 원금 상환유예	무이자	4~7	소득 발생 전 원금, 이자상환유예		8~10*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일반상환대출방식과 동일)	
소득분위	원금	이자											
기초수급자 1~3	소득 발생 전 원금 상환유예	무이자											
4~7	소득 발생 전 원금, 이자상환유예												
8~10*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일반상환대출방식과 동일)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초과 시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 원리금 완료시까지 상환 ○ 65세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방법	○ 의무상환: 국세청을 통하여 원천공제 및 강제징수 ○ 원금 조기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부록 3] 장학금 및 대출이 대학교육성과에 미치는 경로분석 결과(경로분해)

[부록표 III-1] 학점관련 장학금 효과 경로 분해

종속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학점	국공립	장학금→수업 참여도→학점	0.019	0.009	0.037
		장학금→상호작용→학점	-0.002	0.003	0.444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학점	0.004	0.002	0.065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학점	-0.001	0.001	0.212
		장학금→학점	0.250	0.038	0.000
		총효과	0.269	0.038	0.000
	사립대	장학금→수업 참여도→학점	0.020	0.005	0.000
		장학금→상호작용→학점	-0.002	0.002	0.169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학점	0.003	0.001	0.018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학점	0.000	0.000	0.182
		장학금→학점	0.215	0.022	0.000
		총효과	0.234	0.023	0.000
	전문대	장학금→수업 참여도→학점	0.011	0.005	0.020
		장학금→상호작용→학점	0.001	0.002	0.693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학점	0.002	0.001	0.110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학점	0.000	0.000	0.698
		장학금→학점	0.148	0.028	0.000
		총효과	0.162	0.028	0.000

[부록표 III-2] 자아개념관련 장학금 효과 경로 분해

종속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자아개념	국공립	장학금→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38	0.017	0.028
		장학금→상호작용→자아개념	0.005	0.006	0.412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08	0.004	0.054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자아개념	0.002	0.001	0.122
		장학금→자아개념	0.051	0.049	0.291
		총효과	0.105	0.052	0.045
	사립대	장학금→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46	0.011	0.000
		장학금→상호작용→자아개념	0.013	0.005	0.011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07	0.003	0.014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자아개념	0.002	0.001	0.021
		장학금→자아개념	0.056	0.026	0.031
		총효과	0.124	0.029	0.000
	전문대	장학금→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34	0.013	0.010
		장학금→상호작용→자아개념	0.015	0.006	0.012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06	0.003	0.093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자아개념	0.002	0.001	0.108
		장학금→자아개념	0.055	0.030	0.068
		총효과	0.112	0.034	0.001

[부록표 III-3] 소속감관련 장학금 효과 경로 분해

종속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소속감	국공립	장학금→수업 참여도→소속감	0.026	0.012	0.029
		장학금→상호작용→소속감	0.010	0.012	0.390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소속감	0.005	0.003	0.055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소속감	0.005	0.002	0.062
		장학금→소속감	0.017	0.036	0.637
		총효과	0.063	0.041	0.121
	사립대	장학금→수업 참여도→소속감	0.022	0.006	0.000
		장학금→상호작용→소속감	0.021	0.008	0.008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소속감	0.003	0.001	0.016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소속감	0.004	0.002	0.017
		장학금→소속감	0.058	0.021	0.006
		총효과	0.107	0.024	0.000
	전문대	장학금→수업 참여도→소속감	0.022	0.009	0.010
		장학금→상호작용→소속감	0.022	0.008	0.007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소속감	0.004	0.002	0.094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소속감	0.003	0.002	0.099
		장학금→소속감	0.031	0.025	0.219
		총효과	0.082	0.028	0.004

[부록표 III-4] 적응 관련 장학금 효과 경로 분해

종속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적응	국공립	장학금→수업 참여도→적응	0.022	0.010	0.033
		장학금→상호작용→적응	0.006	0.008	0.396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0.004	0.002	0.061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	0.003	0.002	0.078
		장학금→적응	0.102	0.038	0.008
		총효과	0.137	0.040	0.001
	사립대	장학금→수업 참여도→적응	0.025	0.006	0.000
		장학금→상호작용→적응	0.017	0.006	0.008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0.004	0.002	0.016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	0.003	0.001	0.017
		장학금→적응	0.087	0.021	0.000
		총효과	0.136	0.023	0.000
	전문대	장학금→수업 참여도→적응	0.020	0.008	0.011
		장학금→상호작용→적응	0.016	0.006	0.009
		장학금→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0.003	0.002	0.095
		장학금→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	0.002	0.001	0.103
		장학금→적응	0.061	0.026	0.020
		총효과	0.102	0.028	0.000

[부록표 III-5] 학점 관련 대출 효과 경로 분해

종속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학점	국공립	대출여부→수업 참여도→학점	-0.008	0.009	0.394
		대출여부→상호작용→학점	0.003	0.003	0.367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학점	-0.001	0.002	0.696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학점	0.000	0.001	0.704
		대출여부→학점	-0.049	0.040	0.225
		총효과	-0.054	0.041	0.185
	사립대	대출여부→수업 참여도→학점	0.010	0.005	0.064
		대출여부→상호작용→학점	0.001	0.001	0.483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학점	0.000	0.001	0.869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학점	0.000	0.000	0.870
		대출여부→학점	0.010	0.023	0.677
		총효과	0.020	0.024	0.402
	전문대	대출여부→수업 참여도→학점	-0.001	0.004	0.875
		대출여부→상호작용→학점	0.000	0.001	0.627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학점	0.000	0.001	0.869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학점	0.000	0.000	0.873
		대출여부→학점	-0.014	0.028	0.609
		총효과	-0.015	0.029	0.593

[부록표 III-6] 자아개념 관련 대출 효과 경로 분해

종속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자아개념	국공립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15	0,017	0,390
		대출여부→상호작용→자아개념	-0,006	0,006	0,312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02	0,004	0,696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자아개념	0,000	0,001	0,699
		대출여부→자아개념	-0,038	0,049	0,438
		총효과	-0,060	0,053	0,251
	사립대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21	0,011	0,061
		대출여부→상호작용→자아개념	-0,004	0,005	0,385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00	0,003	0,869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자아개념	0,000	0,001	0,869
		대출여부→자아개념	-0,005	0,026	0,853
		총효과	0,011	0,029	0,701
	전문대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02	0,013	0,875
		대출여부→상호작용→자아개념	-0,004	0,006	0,501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자아개념	0,001	0,003	0,869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자아개념	0,000	0,001	0,869
		대출여부→자아개념	0,019	0,030	0,534
		총효과	0,014	0,035	0,690

[부록표 III-7] 소속감 관련 대출효과 경로 분해

종속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소속감	국공립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소속감	-0.010	0.011	0.391
		대출여부→상호작용→소속감	-0.013	0.012	0.276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소속감	-0.001	0.003	0.696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소속감	-0.001	0.002	0.696
		대출여부→소속감	-0.033	0.036	0.350
		총효과	-0.058	0.041	0.154
	사립대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소속감	0.010	0.006	0.063
		대출여부→상호작용→소속감	-0.007	0.008	0.383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소속감	0.000	0.001	0.869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소속감	0.000	0.001	0.869
		대출여부→소속감	0.006	0.021	0.793
		총효과	0.009	0.024	0.716
	전문대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소속감	-0.001	0.009	0.875
		대출여부→상호작용→소속감	-0.005	0.008	0.499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소속감	0.000	0.002	0.869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소속감	0.000	0.002	0.869
		대출여부→소속감	-0.023	0.025	0.362
		총효과	-0.029	0.029	0.312

[부록표 III-8] 적응 관련 대출 효과 경로 분해

종속	구분	경로	효과	표준오차	P
적응	국공립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적응	-0.008	0.010	0.393
		대출여부→상호작용→적응	-0.008	0.008	0.286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0.001	0.002	0.696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	-0.001	0.001	0.697
		대출여부→적응	-0.057	0.038	0.135
		총효과	-0.075	0.041	0.066
	사립대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적응	0.012	0.006	0.062
		대출여부→상호작용→적응	-0.005	0.006	0.383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0.000	0.002	0.869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	0.000	0.001	0.869
		대출여부→적응	-0.019	0.021	0.376
		총효과	-0.013	0.024	0.589
	전문대	대출여부→수업 참여도→적응	-0.001	0.008	0.875
		대출여부→상호작용→적응	-0.004	0.006	0.500
		대출여부→시간활용→수업 참여도→적응	0.000	0.002	0.869
		대출여부→시간활용→상호작용→적응	0.000	0.001	0.869
		대출여부→적응	-0.065	0.026	0.012
		총효과	-0.070	0.029	0.014

[부록 4] 취업지원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위한 HLM 결과

[부록표 IV-1] 학점인정교과목(취업지원 프로그램1)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취업/미취업) 다층모형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학생수준										
절편	2.000*** (.058)	7.386	2.006*** (.170)	7.436	1.807*** (.075)	6.092	1.899*** (.154)	6.682	1.598*** (.219)	4.942
프로그램 도움	.212* (.096)	1.236	.192* (.096)	1.211	.130 (.093)	1.139	.229* (.099)	1.257	.132 (.094)	1.141
프로그램 미도움	-.366* (.150)	.694	-.386* (.149)	.680	-.417** (.153)	.659	-.334* (.153)	.716	-.398* (.155)	.672
남자			.109 (.077)	1.115					.174* (.076)	1.189
부모교육수준			-.002 (.013)	.998					-.004 (.014)	.996
가구소득(100만원)			.077** (.023)	1.080					.065** (.023)	1.067
전문고			.418* (.183)	1.519					.423* (.184)	1.526
특목고			.107 (.248)	1.113					.045 (.248)	1.046
인문계열			-.331 (.178)	.718					-.239 (.187)	.788
사회계열			-.005 (.158)	.995					.082 (.161)	1.085
자연계열			-.214 (.191)	.807					-.118 (.193)	.888
공학계열			.054 (.176)	1.056					.124 (.181)	1.132
대학학점 (100점만점)					.029** (.010)	1.030			.034** (.010)	1.035
해외연수경험					.215* (.096)	1.240			.209* (.101)	1.233
인턴경험					-.067 (.111)	.935			-.074 (.112)	.929
자격증 수 (1~2개=1)					.197* (.085)	1.218			.199* (.086)	1.221
자격증 수 (3개 이상=1)					.326** (.125)	1.386			.326* (.129)	1.385
직업교육훈련 경험					.287** (.110)	1.333			.257* (.110)	1.293
대학수준										
국공립							.155 (.146)	1.167	.174 (.151)	1.189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60 (.127)	1.062	.080 (.131)	1.083
수도권 소재							.215* (.105)	1.240	.211* (.102)	1.235
대학규모(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수혜율(10%)							.192 (.189)	1.212	.147 (.192)	1.159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2 (.028)	.988	-.009 (.028)	.991
참여율(10%)							-.060 (.053)	.941	-.061 (.053)	.941
분산										
학교수준	.074		.064		.082		.060		.059	

*p<.05, **p<.01, ***p<.001

[부록표 IV-2] 직장체험(취업지원 프로그램 2)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학생수준										
절편	1.958*** (.050)	7.087	1.976*** (.165)	7.217	1.780*** (.070)	5.929	1.868*** (.155)	6.476	1.576*** (.220)	4.836
프로그램 도움	.502*** (.123)	1.652	.494*** (.124)	1.638	.487*** (.132)	1.627	.512*** (.126)	1.668	.491*** (.134)	1.634
프로그램 미도움	-.105 (.210)	.900	-.113 (.210)	.893	-.102 (.215)	.903	-.090 (.211)	.914	-.091 (.216)	.913
남자			.128 (.077)	1.136					.185* (.076)	1.203
부모교육수준			-.004 (.013)	.996					-.005 (.014)	.995
가구소득 (100만원)			.074** (.023)	1.077					.064** (.023)	1.066
전문고			.414* (.183)	1.514					.423* (.185)	1.527
특목고			.076 (.250)	1.079					.042 (.251)	1.042
인문계열			-.347 (.179)	.707					-.223 (.187)	.800
사회계열			-.038 (.159)	.963					.070 (.162)	1.073
자연계열			-.252 (.192)	.777					-.138 (.193)	.871
공학계열			.026 (.178)	1.026					.112 (.182)	1.119
대학학점 (100점 만점)					.029** (.010)	1.030			.034** (.010)	1.035
해외연수경험					.200* (.096)	1.222			.195 (.101)	1.215
인턴경험					-.197 (.119)	.821			-.198 (.120)	.820
자격증 수 (1~2개=1)					.194* (.085)	1.214			.197* (.087)	1.218
자격증 수 (3개 이상=1)					.300* (.125)	1.349			.300* (.129)	1.350
직업교육훈련 경험					.263* (.110)	1.301			.233* (.110)	1.262
대학수준										
국공립							.155 (.146)	1.168	.174 (.152)	1.190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31 (.119)	1.032	.048 (.123)	1.049
수도권 소재							.224* (.106)	1.251	.224* (.104)	1.251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209 (.192)	1.232	.168 (.196)	1.183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6 (.028)	.994	-.002 (.029)	.998
참여율(10%)							-.090 (.062)	.914	-.083 (.061)	.920
분산										
학교수준	.071		.061		.081		.059		.057	

*p<.05, **p<.01, ***p<.001

[부록표 IV-3] 직업심리검사(취업지원 프로그램 3)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조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학생수준										
절편	1.972*** (.058)	7.184	1.974*** (.174)	7.201	1.787*** (.077)	5.973	1.885*** (.160)	6.589	1.587*** (.227)	4.889
프로그램 도움	.166 (.105)	1.181	.164 (.106)	1.178	.093 (.105)	1.098	.172 (.105)	1.187	.104 (.106)	1.109
프로그램 미도움	.103 (.140)	1.109	.089 (.140)	1.094	.043 (.142)	1.043	.110 (.140)	1.116	.043 (.142)	1.044
남자			.116 (.077)	1.123					.177* (.076)	1.194
부모교육수준			-.003 (.013)	.997					-.004 (.014)	.996
가구소득 (100만원)			.075** (.023)	1.078					.064** (.024)	1.066
전문고			.416* (.181)	1.516					.422* (.184)	1.526
특목고			.105 (.249)	1.110					.054 (.250)	1.056
인문계열			-.334 (.178)	.716					-.233 (.187)	.793
사회계열			-.010 (.159)	.990					.080 (.161)	1.084
자연계열			-.223 (.190)	.800					-.124 (.192)	.883
공학계열			.053 (.176)	1.055					.130 (.181)	1.138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0** (.010)	1.031			.035** (.010)	1.036
해외연수경험					.208* (.094)	1.232			.204* (.100)	1.226
인턴경험					-.074 (.113)	.928			-.084 (.114)	.919
자격증 수 (1~2개=1)					.197* (.085)	1.218			.199* (.086)	1.220
자격증 수 (3개 이상=1)					.313* (.123)	1.368			.312* (.126)	1.366
직업교육훈련 경험					.279* (.110)	1.322			.245* (.111)	1.278
대학수준										
국공립							.144 (.148)	1.154	.159 (.154)	1.173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35 (.120)	1.036	.048 (.123)	1.049
수도권 소재							.202 (.108)	1.223	.195 (.105)	1.215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226 (.189)	1.253	.186 (.194)	1.204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2 (.028)	.988	-.008 (.028)	.992
참여율(10%)							-.023 (.045)	.978	-.015 (.046)	.985
분산										
학교수준	.072		.062		.081		.059		.058	

*p<.05, **p<.01, ***p<.001

[부록표 IV-4] 교내취업박람회(취업지원 프로그램 4)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학생수준										
절편	1.994*** (.057)	7.343	2.019*** (.169)	7.530	1.799*** (.073)	6.043	1.890*** (.159)	6.621	1.590*** (.220)	4.903
프로그램 도움	.174 (.109)	1.190	.152 (.109)	1.164	.109 (.111)	1.115	.176 (.109)	1.192	.082 (.111)	1.086
프로그램 미도움	-.098 (.141)	.907	-.111 (.140)	.895	-.153 (.148)	.858	-.082 (.143)	.921	-.150 (.151)	.861
남자			.105 (.078)	1.111					.175* (.077)	1.191
부모교육수준			-.003 (.013)	.997					-.004 (.014)	.996
가구소득 (100만원)			.076** (.023)	1.079					.065** (.023)	1.067
전문고			.413* (.183)	1.511					.416* (.184)	1.515
특목고			.086 (.247)	1.089					.049 (.248)	1.050
인문계열			-.348* (.176)	.706					-.239 (.186)	.787
사회계열			-.020 (.157)	.980					.073 (.161)	1.075
자연계열			-.236 (.189)	.790					-.130 (.192)	.878
공학계열			.037 (.176)	1.038					.123 (.180)	1.131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0** (.010)	1.031			.035** (.010)	1.036
해외연수경험					.208* (.096)	1.231			.208* (.101)	1.232
인턴경험					-.067 (.117)	.935			-.069 (.119)	.934
자격증 수 (1-2개=1)					.198* (.085)	1.219			.199* (.087)	1.220
자격증 수 (3개 이상=1)					.322** (.123)	1.380			.321* (.128)	1.379
직업교육훈련 경험					.292** (.111)	1.338			.261* (.111)	1.298
대학수준										
국공립							.137 (.149)	1.147	.150 (.155)	1.162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54 (.120)	1.056	.075 (.124)	1.078
수도권 소재							.228* (.108)	1.256	.225* (.105)	1.252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207 (.191)	1.230	.164 (.195)	1.178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8 (.027)	.992	-.003 (.028)	.997
참여율(10%)							-.048 (.036)	.953	-.050 (.038)	.952
분산										
학교수준	.069		.060		.078		.059		.058	

*p<.05, **p<.01, ***p<.001

[부록표 IV-5] 진로관련상담(취업지원 프로그램 5)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조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학생수준										
절편	1.990*** (.051)	7.318	2.001*** (.166)	7.395	1.794*** (.072)	6.013	1.903*** (.154)	6.707	1.600*** (.219)	4.952
프로그램 도움	.252* (.122)	1.287	.256* (.121)	1.291	.184 (.121)	1.201	.261* (.122)	1.299	.203 (.121)	1.225
프로그램 미도움	-.036 (.198)	.964	-.038 (.199)	.962	-.102 (.199)	.903	-.018 (.199)	.982	-.096 (.203)	.909
남자			.110 (.077)	1.116					.175* (.077)	1.192
부모교육수준			-.003 (.013)	.997					-.005 (.014)	.995
가구소득 (100만원)			.076** (.023)	1.079					.064** (.023)	1.066
전문고			.413* (.182)	1.512					.421* (.183)	1.523
특목고			.102 (.249)	1.107					.052 (.250)	1.054
인문계열			-.350* (.177)	.705					-.241 (.187)	.786
사회계열			-.017 (.159)	.984					.078 (.162)	1.081
자연계열			-.229 (.191)	.795					-.127 (.193)	.881
공학계열			.048 (.177)	1.049					.126 (.181)	1.134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1** (.010)	1.031			.035** (.010)	1.036
해외연수경험					.205* (.095)	1.228			.201* (.100)	1.223
인턴경험					-.076 (.112)	.927			-.086 (.113)	.918
자격증 수 (1~2개=1)					.197* (.085)	1.218			.199* (.086)	1.220
자격증 수 (3개 이상=1)					.318* (.123)	1.374			.316* (.128)	1.372
직업교육훈련 경험					.276* (.110)	1.318			.242* (.110)	1.274
대학수준										
국공립							.145 (.148)	1.156	.159 (.154)	1.172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37 (.119)	1.038	.047 (.123)	1.048
수도권 소재							.211 (.111)	1.234	.199 (.107)	1.220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215 (.189)	1.240	.179 (.193)	1.196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1 (.028)	.989	-.007 (.029)	.993
참여율(10%)							-.052 (.060)	.950	-.033 (.061)	.968
분산										
학교수준	.073		.063		.082		.058		.057	

*p<.05, **p<.01, ***p<.001

[부록표 IV-6] 면접기술/이력서작성(취업지원 프로그램 6)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학생수준										
절편	1.979*** (.054)	7.238	2.000*** (.168)	7.387	1.791*** (.071)	5.993	1.893*** (.153)	6.639	1.605*** (.218)	4.976
프로그램 도움	.202* (.103)	1.224	.192 (.102)	1.212	.123 (.104)	1.131	.210* (.104)	1.233	.122 (.105)	1.130
프로그램 미도움	.094 (.219)	1.098	.092 (.220)	1.096	.041 (.218)	1.042	.106 (.220)	1.112	.055 (.219)	1.057
남자			.110 (.078)	1.117					.175* (.077)	1.192
부모교육수준			-.002 (.013)	.998					-.004 (.014)	.996
가구소득 (100만원)			.075** (.022)	1.078					.064** (.023)	1.066
전문고			.408* (.183)	1.504					.421* (.184)	1.523
특목고			.101 (.249)	1.106					.052 (.250)	1.054
인문계열			-.349* (.178)	.705					-.241 (.187)	.785
사회계열			-.025 (.159)	.975					.072 (.161)	1.075
자연계열			-.239 (.190)	.788					-.134 (.192)	.874
공학계열			.038 (.176)	1.039					.121 (.180)	1.128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1** (.010)	1.031			.035** (.010)	1.036
해외연수경험					.205* (.095)	1.228			.201* (.100)	1.222
인턴경험					-.075 (.111)	.928			-.085 (.112)	.918
자격증 수 (1~2개=1)					.196* (.085)	1.216			.196* (.087)	1.217
자격증 수 (3개 이상=1)					.313* (.124)	1.368			.311* (.128)	1.365
직업교육훈련 경험					.275* (.111)	1.316			.242* (.112)	1.273
대학수준										
국공립							.144 (.149)	1.155	.161 (.155)	1.174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28 (.119)	1.028	.041 (.123)	1.041
수도권 소재							.193 (.107)	1.213	.185 (.105)	1.203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233 (.192)	1.262	.192 (.197)	1.211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2 (.029)	.988	-.008 (.029)	.992
참여율(10%)							-.009 (.050)	.992	.001 (.051)	1.001
분산										
학교수준	.073		.063		.081		.059		.058	

*p<.05, **p<.01, ***p<.001

[부록표 IV-7] 취업캠프(취업지원 프로그램 7)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학생수준										
절편	2.004*** (.047)	7.419	2.021*** (.165)	7.548	1.802*** (.069)	6.064	1.918*** (.152)	6.809	1.615*** (.220)	5.027
프로그램 도움	.240 (.149)	1.271	.226 (.150)	1.254	.142 (.152)	1.152	.250 (.151)	1.284	.140 (.155)	1.150
프로그램 미도움	.067 (.318)	1.069	.077 (.320)	1.080	-.025 (.322)	.975	.082 (.319)	1.085	.000 (.326)	1.000
남자			.108 (.078)	1.114					.175* (.077)	1.191
부모교육수준			-.002 (.013)	.998					-.004 (.014)	.996
가구소득 (100만원)			.077** (.023)	1.080					.064** (.023)	1.066
전문고			.411* (.183)	1.508					.422* (.184)	1.525
특목고			.100 (.248)	1.106					.053 (.249)	1.055
인문계열			-.346 (.179)	.707					-.241 (.189)	.786
사회계열			-.021 (.160)	.979					.074 (.163)	1.076
자연계열			-.235 (.191)	.791					-.132 (.194)	.877
공학계열			.040 (.179)	1.041					.121 (.183)	1.129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1** (.010)	1.031			.036** (.010)	1.036
해외연수경험					.209* (.096)	1.233			.204* (.101)	1.226
인턴경험					-.068 (.112)	.934			-.079 (.113)	.924
자격증 수 (1~2개=1)					.198* (.085)	1.219			.198* (.087)	1.219
자격증 수 (3개 이상=1)					.313* (.123)	1.368			.311* (.128)	1.365
직업교육훈련 경험					.282* (.111)	1.325			.248* (.111)	1.281
대학수준										
국공립							.140 (.148)	1.150	.159 (.154)	1.172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32 (.116)	1.033	.044 (.121)	1.045
수도권 소재							.200 (.107)	1.221	.192 (.104)	1.211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242 (.200)	1.274	.193 (.204)	1.213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3 (.029)	.987	-.008 (.029)	.992
참여율(10%)							.007 (.064)	1.007	.001 (.065)	1.001
분산										
학교수준	.072		.062		.081		.058		.058	

*p<.05, **p<.01, ***p<.001

[부록표 IV-8] 학점인정 교과목(취업지원 프로그램 1)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
(정규직/비정규직+미취업)에 대한 다중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1.571*** (.063)	4.812	1.246*** (.194)	3.476	1.397*** (.079)	4.043	1.396*** (.162)	4.038	.739** (.246)	2.094
프로그램 도움	.215* (.098)	1.240	.195* (.098)	1.215	.130 (.095)	1.139	.232* (.101)	1.261	.127 (.096)	1.136
프로그램 미도움	-.526** (.161)	.591	-.553** (.160)	.575	-.571** (.165)	.565	-.496** (.164)	.609	-.562** (.167)	.570
남자			.236** (.083)	1.266					.317*** (.082)	1.373
부모교육수준			.002 (.014)	1.002					-.001 (.014)	.999
가구소득 (100만원)			.076** (.022)	1.079					.063** (.022)	1.065
전문고			.393* (.195)	1.481					.413* (.197)	1.511
특목고			.121 (.252)	1.129					.062 (.253)	1.064
인문계열			-.190 (.198)	.827					-.083 (.205)	.920
사회계열			.283 (.179)	1.327					.390* (.181)	1.478
자연계열			-.009 (.213)	.991					.115 (.216)	1.121
공학계열			.411* (.192)	1.508					.503* (.195)	1.654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7*** (.009)	1.038			.047*** (.010)	1.048
해외연수경험					.245* (.100)	1.278			.258* (.105)	1.294
인턴경험					-.130 (.115)	.878			-.138 (.116)	.871
자격증 수 (1~2개=1)					.170 (.090)	1.186			.190* (.092)	1.210
자격증 수 (3개 이상=1)					.256* (.129)	1.292			.280* (.133)	1.323
직업교육훈련 경험					.342** (.111)	1.408			.301** (.111)	1.351
대학수준										
국공립							.142 (.157)	1.152	.153 (.165)	1.165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92 (.142)	1.097	.127 (.154)	1.136
수도권 소재							.256* (.110)	1.292	.254* (.109)	1.289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281 (.195)	1.324	.250 (.200)	1.283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7 (.028)	.983	-.018 (.029)	.983
참여율(10%)							-.078 (.057)	.925	-.076 (.057)	.927
분산										
학교수준	.114		.099		.131		.082		.087	

*p<.05, **p<.01, ***p<.001

[부록표 IV-9] 직장체험(취업지원 프로그램 2)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
(정규직/비정규직+미취업)에 대한 다중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1.527*** (.054)	4.603	1.216*** (.187)	3.373	1.364*** (.074)	3.911	1.366*** (.164)	3.918	.717** (.246)	2.049
프로그램 도움	.494*** (.125)	1.639	.489*** (.124)	1.630	.494*** (.132)	1.639	.504*** (.127)	1.655	.497*** (.133)	1.644
프로그램 미도움	-.252 (.221)	.777	-.264 (.221)	.768	-.228 (.225)	.796	-.236 (.222)	.790	-.221 (.227)	.801
남자			.254** (.083)	1.289					.329*** (.083)	1.390
부모교육수준			.000 (.014)	1.000					-.002 (.014)	.998
가구소득 (100만원)			.073** (.022)	1.076					.062** (.022)	1.064
전문고			.388* (.197)	1.474					.412* (.199)	1.510
특목고			.087 (.255)	1.090					.055 (.256)	1.057
인문계열			-.205 (.198)	.814					-.068 (.205)	.934
사회계열			.249 (.179)	1.282					.377* (.181)	1.457
자연계열			-.052 (.214)	.949					.089 (.217)	1.093
공학계열			.380* (.192)	1.462					.488* (.197)	1.629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7*** (.009)	1.038			.046*** (.010)	1.047
해외연수경험					.228* (.100)	1.256			.240* (.105)	1.272
인턴경험					-.258* (.122)	.772			-.259* (.123)	.772
자격증 수 (1~2개=1)					.168 (.090)	1.183			.188* (.093)	1.207
자격증 수 (3개 이상=1)					.227 (.129)	1.255			.249 (.133)	1.283
직업교육훈련 경험					.316** (.111)	1.372			.275* (.111)	1.317
대학수준										
국공립							.140 (.158)	1.150	.151 (.166)	1.163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52 (.136)	1.053	.082 (.146)	1.086
수도권 소재							.270* (.113)	1.310	.268* (.113)	1.307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306 (.200)	1.358	.280 (.207)	1.323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0 (.030)	.991	-.010 (.030)	.990
참여율(10%)							-.107 (.070)	.899	-.092 (.069)	.912
분산										
학교수준	.114		.098		.132		.082		.087	

*p<.05, **p<.01, ***p<.001

[부록표 IV-10] 직업심리검사(취업지원 프로그램3)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1.550*** (.063)	4.712	1.222*** (.197)	3.394	1.382*** (.082)	3.982	1.392*** (.169)	4.021	.736** (.256)	2.087
프로그램 도움	.145 (.110)	1.156	.151 (.111)	1.163	.065 (.110)	1.067	.150 (.110)	1.162	.082 (.112)	1.085
프로그램 미도움	.007 (.137)	1.007	-.010 (.139)	.990	-.049 (.141)	.952	.011 (.135)	1.011	-.055 (.141)	.946
남자			.240** (.084)	1.271					.319*** (.083)	1.376
부모교육수준			.001 (.014)	1.001					-.001 (.014)	.999
가구소득 (100만원)			.074** (.022)	1.077					.062** (.023)	1.064
전문고			.391* (.196)	1.478					.413* (.199)	1.511
특목고			.118 (.254)	1.125					.069 (.256)	1.071
인문계열			-.194 (.198)	.824					-.078 (.206)	.925
사회계열			.276 (.179)	1.318					.388* (.182)	1.474
자연계열			-.021 (.213)	.979					.105 (.217)	1.111
공학계열			.408* (.192)	1.504					.507* (.196)	1.661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9*** (.009)	1.039			.048*** (.010)	1.049
해외연수경험					.238* (.099)	1.269			.251* (.104)	1.285
인턴경험					-.131 (.117)	.877			-.143 (.118)	.867
자격증 수 (1~2개=1)					.172 (.090)	1.188			.191* (.092)	1.211
자격증 수 (3개 이상=1)					.244 (.127)	1.277			.265* (.130)	1.303
직업교육훈련 경험					.338** (.112)	1.402			.293* (.113)	1.340
대학수준										
국공립							.129 (.159)	1.137	.137 (.169)	1.146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63 (.137)	1.065	.086 (.147)	1.090
수도권 소재							.245* (.112)	1.277	.237* (.113)	1.268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322 (.198)	1.380	.299 (.206)	1.348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6 (.028)	.984	-.016 (.029)	.984
참여율(10%)							-.032 (.049)	.968	-.016 (.050)	.984
분산										
학교수준	.113		.098		.131		.084		.089	

*p<.05, **p<.01, ***p<.001

[부록표 IV-11] 교내취업박람회(취업지원 프로그램)4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1.553*** (.061)	4.725	1.255*** (.191)	3.506	1.379*** (.077)	3.971	1.392*** (.166)	4.023	.745** (.245)	2.106
프로그램 도움	.221* (.112)	1.247	.183 (.112)	1.200	.153 (.113)	1.166	.220* (.112)	1.247	.103 (.113)	1.108
프로그램 미도움	-.172 (.142)	.842	-.201 (.140)	.818	-.220 (.148)	.802	-.158 (.144)	.854	-.240 (.150)	.787
남자			.233** (.084)	1.262					.318*** (.083)	1.374
부모교육수준			.001 (.014)	1.001					-.001 (.014)	.999
가구소득 (100만원)			.074** (.022)	1.077					.062** (.022)	1.064
전문고			.388* (.196)	1.474					.408* (.198)	1.503
특목고			.100 (.252)	1.105					.062 (.254)	1.064
인문계열			-.210 (.196)	.811					-.084 (.204)	.919
사회계열			.263 (.178)	1.301					.381* (.181)	1.463
자연계열			-.036 (.211)	.964					.099 (.216)	1.104
공학계열			.388* (.191)	1.474					.498* (.195)	1.645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8*** (.009)	1.039			.047*** (.010)	1.049
해외연수경험					.234* (.100)	1.264			.252* (.105)	1.287
인턴경험					-.134 (.120)	.875			-.135 (.122)	.874
자격증 수 (1~2개=1)					.170 (.090)	1.185			.189* (.093)	1.208
자격증 수 (3개 이상=1)					.248 (.127)	1.281			.270* (.132)	1.310
직업교육훈련 경험					.344** (.112)	1.411			.304** (.112)	1.356
대학수준										
국공립							.127 (.163)	1.135	.133 (.171)	1.142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55 (.137)	1.056	.090 (.147)	1.095
수도권 소재							.248* (.113)	1.281	.246* (.113)	1.279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317 (.201)	1.374	.287 (.208)	1.333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5 (.029)	.985	-.015 (.029)	.985
참여율(10%)							-.025 (.038)	.975	-.021 (.040)	.979
분산										
학교수준	.107		.093		.126		.084		.089	

*p<.05, **p<.01, ***p<.001

[부록표 IV-12] 진로관련상담(취업지원 프로그램5)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조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1.557*** (.056)	4.745	1.238*** (.189)	3.447	1.380*** (.076)	3.976	1.398*** (.164)	4.048	.742** (.247)	2.100
프로그램 도움	.249 (.128)	1.283	.258* (.128)	1.295	.177 (.126)	1.194	.260* (.128)	1.297	.200 (.127)	1.222
프로그램 미도움	-.116 (.199)	.890	-.128 (.205)	.880	-.185 (.201)	.831	-.098 (.201)	.906	-.191 (.210)	.826
남자			.237** (.084)	1.267					.319*** (.083)	1.376
부모교육수준			.001 (.014)	1.001					-.002 (.014)	.998
가구소득 (100만원)			.074** (.022)	1.077					.062** (.022)	1.064
전문고			.388* (.195)	1.474					.411* (.197)	1.508
특목고			.114 (.254)	1.121					.066 (.256)	1.068
인문계열			-.209 (.197)	.812					-.085 (.205)	.918
사회계열			.269 (.180)	1.308					.385* (.182)	1.470
자연계열			-.028 (.214)	.973					.103 (.218)	1.108
공학계열			.402* (.193)	1.495					.503* (.197)	1.653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9*** (.009)	1.039			.048*** (.010)	1.049
해외연수경험					.234* (.098)	1.263			.246* (.104)	1.280
인턴경험					-.140 (.116)	.869			-.151 (.116)	.860
자격증 수 (1~2개=1)					.171 (.090)	1.186			.189* (.093)	1.208
자격증 수 (3개 이상=1)					.245 (.127)	1.277			.266* (.132)	1.304
직업교육훈련 경험					.332** (.111)	1.393			.287* (.112)	1.333
대학수준										
국공립							.128 (.160)	1.136	.135 (.169)	1.144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60 (.135)	1.061	.081 (.146)	1.084
수도권 소재							.254* (.119)	1.290	.239* (.117)	1.270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313 (.195)	1.367	.294 (.203)	1.342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5 (.029)	.985	-.015 (.029)	.985
참여율(10%)							-.068 (.067)	.934	-.032 (.069)	.968
분산										
학교수준	.114		.098		.132		.082		.089	

*p<.05, **p<.01, ***p<.001

[부록표 IV-13] 면접기술/이력서작성(취업지원 프로그램6)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1.535*** (.059)	4.644	1.230*** (.190)	3.421	1.369*** (.077)	3.932	1.382*** (.163)	3.981	.747** (.245)	2.111
프로그램 도움	.241* (.106)	1.272	.226* (.106)	1.254	.159 (.106)	1.172	.246* (.106)	1.279	.147 (.108)	1.159
프로그램 미도움	.048 (.227)	1.049	.047 (.230)	1.049	.002 (.226)	1.002	.055 (.228)	1.057	.013 (.229)	1.013
남자			.238** (.084)	1.269					.320*** (.083)	1.377
부모교육수준			.002 (.014)	1.002					-.001 (.014)	.999
가구소득 (100만원)			.074** (.021)	1.077					.062** (.022)	1.064
전문고			.383 (.197)	1.467					.412* (.199)	1.510
특목고			.114 (.254)	1.120					.068 (.256)	1.070
인문계열			-.212 (.198)	.809					-.090 (.205)	.914
사회계열			.256 (.179)	1.292					.375* (.181)	1.455
자연계열			-.041 (.212)	.960					.091 (.216)	1.095
공학계열			.389* (.191)	1.475					.493* (.195)	1.637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8*** (.009)	1.039			.048*** (.010)	1.049
해외연수경험					.230* (.099)	1.259			.244* (.104)	1.276
인턴경험					-.141 (.115)	.868			-.153 (.116)	.858
자격증 수 (1~2개=1)					.168 (.090)	1.182			.185* (.093)	1.204
자격증 수 (3개 이상=1)					.238 (.128)	1.269			.258 (.132)	1.295
직업교육훈련 경험					.324** (.112)	1.382			.281* (.113)	1.325
대학수준										
국공립							.127 (.162)	1.135	.137 (.171)	1.147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40 (.135)	1.041	.068 (.145)	1.070
수도권 소재							.221 (.113)	1.247	.214 (.114)	1.239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342 (.201)	1.407	.314 (.208)	1.368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6 (.029)	.985	-.015 (.030)	.985
참여율(10%)							.006 (.055)	1.006	.023 (.056)	1.023
분산										
학교수준	.115		.099		.132		.085		.089	

* $p < .05$, ** $p < .01$, *** $p < .001$

[부록표 IV-14] 취업캠프(취업지원 프로그램 7)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조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권	1.568*** (.052)	4.796	1.258*** (.188)	3.518	1.387*** (.073)	4.001	1.412*** (.162)	4.105	.758** (.247)	2.134
프로그램 도움	.275 (.156)	1.316	.248 (.156)	1.281	.175 (.157)	1.191	.281 (.157)	1.325	.153 (.160)	1.165
프로그램 미도움	-.119 (.318)	.888	-.122 (.320)	.886	-.227 (.320)	.797	-.105 (.318)	.900	-.221 (.324)	.802
남자			.235** (.084)	1.265					.319*** (.083)	1.376
부모교육수준			.002 (.014)	1.002					-.001 (.014)	.999
가구소득 (100만원)			.075** (.022)	1.078					.062** (.022)	1.064
전문고			.385* (.196)	1.469					.411* (.198)	1.509
특목고			.116 (.253)	1.122					.072 (.255)	1.074
인문계열			-.207 (.198)	.813					-.087 (.207)	.917
사회계열			.263 (.180)	1.300					.379* (.182)	1.461
자연계열			-.035 (.214)	.965					.096 (.218)	1.100
공학계열			.392* (.193)	1.481					.496* (.197)	1.641
대학학점 (100점 만점)					.039*** (.009)	1.040			.048*** (.010)	1.049
해외연수경험					.238* (.099)	1.268			.250* (.105)	1.284
인턴경험					-.133 (.116)	.876			-.143 (.116)	.866
자격증 수 (1~2개=1)					.171 (.090)	1.186			.189* (.093)	1.208
자격증 수 (3개 이상=1)					.237 (.128)	1.268			.258 (.133)	1.294
직업교육훈련 경험					.335** (.113)	1.398			.292* (.113)	1.339
대학수준										
국공립							.121 (.162)	1.129	.135 (.170)	1.144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50 (.133)	1.052	.078 (.144)	1.081
수도권 소재							.237* (.114)	1.268	.232* (.114)	1.261
대학규모 (100명)							.000 (.001)	1.000	.000 (.001)	1.000
장학금 수혜율(10%)							.351 (.210)	1.420	.309 (.216)	1.362
1인당교육비 (100만원)							-.018 (.030)	.982	-.017 (.030)	.983
참여율(10%)							.020 (.068)	1.020	.006 (.069)	1.006
분산										
학교수준	.114		.099		.132		.084		.089	

*p<.05, **p<.01, ***p<.001

[부록표 IV-15] 학점인정 교과목(취업지원 프로그램 1)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취업여부
(비정규직/정규직+미취업)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898*** (.060)	2.455	1.379*** (.160)	3.972	.658*** (.085)	1.932	.965*** (.176)	2.626	1.127*** (.226)	3.087
프로그램 도움	.218* (.104)	1.243	.197 (.104)	1.218	.142 (.101)	1.153	.223* (.107)	1.249	.144 (.104)	1.155
프로그램 미도움	-.092 (.160)	.912	-.109 (.160)	.897	-.152 (.161)	.859	-.084 (.165)	.919	-.150 (.166)	.861
남자			-.122 (.080)	.885					-.071 (.082)	.932
부모교육수준			-.013 (.015)	.987					-.010 (.015)	.990
가구소득 (100만원)			.073** (.027)	1.076					.067* (.028)	1.069
전문고			.486* (.191)	1.627					.438* (.190)	1.549
특목고			-.015 (.267)	.985					-.018 (.274)	.982
인문계열			-.491** (.179)	.612					-.410* (.189)	.664
사회계열			-.393* (.153)	.675					-.329* (.159)	.720
자연계열			-.467* (.189)	.627					-.404* (.189)	.667
공학계열			-.537** (.189)	.584					-.481* (.193)	.618
대학학점 (100점 만점)					.017 (.012)	1.018			.014 (.012)	1.014
해외연수경험					.108 (.098)	1.114			.097 (.106)	1.102
인턴경험					.036 (.119)	1.037			.033 (.121)	1.033
자격증 수 (1~2개=1)					.267** (.093)	1.306			.218* (.093)	1.244
자격증 수 (3개 이상=1)					.492** (.136)	1.635			.410** (.138)	1.508
직업교육훈련 경험					.196 (.126)	1.216			.184 (.126)	1.202
대학수준										
국공립							.220 (.153)	1.246	.262 (.153)	1.300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19 (.149)	.981	-.025 (.142)	.975
수도권 소재							.126 (.128)	1.134	.136 (.124)	1.145
대학규모 (100명)							-.001 (.001)	.999	-.001 (.001)	.999
장학금 수혜율(10%)							.017 (.204)	1.017	-.038 (.209)	.963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1 (.034)	.999	.008 (.034)	1.008
참여율(10%)							-.014 (.059)	.986	-.022 (.058)	.978
분산										
학교수준	.071		.065		.067		.070		.057	

*p<.05, **p<.01, ***p<.001

[부록표 IV-16] 직장체험(취업지원 프로그램 2)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조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865*** (.053)	2.375	1.356*** (.159)	3.879	.644*** (.082)	1.904	.927*** (.176)	2.527	1.107*** (.228)	3.025
프로그램 도움	.520*** (.138)	1.683	.512*** (.139)	1.668	.479** (.149)	1.615	.528*** (.140)	1.695	.488** (.151)	1.630
프로그램 미도움	.136 (.230)	1.145	.128 (.233)	1.137	.093 (.239)	1.098	.138 (.231)	1.148	.094 (.241)	1.099
남자			-.104 (.080)	.902					-.061 (.082)	.941
부모교육수준			-.014 (.015)	.986					-.011 (.015)	.989
가구소득 (100만원)			.071* (.027)	1.074					.066* (.028)	1.069
전문고			.490* (.192)	1.633					.441* (.191)	1.555
특목고			-.049 (.268)	.952					-.031 (.276)	.970
인문계열			-.508** (.180)	.602					-.403* (.189)	.668
사회계열			-.421** (.155)	.656					-.340* (.161)	.712
자연계열			-.497** (.189)	.608					-.419* (.189)	.658
공학계열			-.566** (.190)	.568					-.496* (.193)	.609
대학학점 (100점 만점)					.017 (.012)	1.017			.013 (.012)	1.013
해외연수경험					.097 (.099)	1.102			.088 (.106)	1.092
인턴경험					-.097 (.130)	.908			-.094 (.132)	.910
자격증 수 (1~2개=1)					.265** (.093)	1.303			.216* (.093)	1.242
자격증 수 (3개 이상=1)					.471** (.137)	1.602			.390** (.138)	1.476
직업교육훈련 경험					.177 (.126)	1.193			.166 (.126)	1.180
대학수준										
국공립							.227 (.152)	1.254	.270 (.153)	1.310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20 (.137)	.980	-.032 (.131)	.969
수도권 소재							.129 (.128)	1.138	.148 (.125)	1.160
대학규모 (100명)							-.001 (.001)	.999	-.001 (.001)	.999
장학금 수혜율(10%)							.013 (.203)	1.013	-.038 (.211)	.963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0 (.033)	1.000	.011 (.034)	1.011
참여율(10%)							-.049 (.062)	.952	-.054 (.062)	.948
분산										
학교수준	.069		.062		.065		.069		.055	

*p<.05, **p<.01, ***p<.001

[부록표 IV-17] 직업심리검사(취업지원 프로그램 3)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859*** (.061)	2.361	1.339*** (.163)	3.814	.631*** (.085)	1.879	.926*** (.180)	2.524	1.097*** (.231)	2.994
프로그램 도움	.210 (.108)	1.233	.188 (.107)	1.207	.146 (.107)	1.157	.211 (.108)	1.235	.140 (.107)	1.150
프로그램 미도움	.288 (.167)	1.334	.269 (.166)	1.308	.218 (.166)	1.243	.285 (.169)	1.330	.208 (.167)	1.231
남자			-.113 (.080)	.893					-.065 (.082)	.937
부모교육수준			-.013 (.015)	.987					-.010 (.015)	.990
가구소득 (100만원)			.072* (.028)	1.074					.066* (.028)	1.068
전문고			.489* (.189)	1.631					.441* (.189)	1.554
특목고			-.019 (.267)	.982					-.015 (.276)	.985
인문계열			-.493** (.177)	.611					-.405* (.188)	.667
사회계열			-.394* (.153)	.674					-.327* (.159)	.721
자연계열			-.472* (.188)	.624					-.408* (.187)	.665
공학계열			-.540** (.188)	.582					-.479* (.192)	.619
대학학점 (100점 만점)					.018 (.012)	1.018			.014 (.012)	1.014
해외연수경험					.100 (.097)	1.105			.092 (.105)	1.096
인턴경험					.019 (.121)	1.019			.016 (.123)	1.016
자격증 수 (1~2개=1)					.265** (.093)	1.304			.217* (.092)	1.243
자격증 수 (3개 이상=1)					.479** (.135)	1.615			.398** (.135)	1.489
직업교육훈련 경험					.182 (.125)	1.199			.170 (.126)	1.185
대학수준										
국공립							.221 (.154)	1.247	.262 (.155)	1.299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33 (.142)	.968	-.040 (.135)	.961
수도권 소재							.116 (.129)	1.123	.128 (.125)	1.137
대학규모 (100명)							-.001 (.001)	.999	-.001 (.001)	.999
장학금 수혜율(10%)							.030 (.201)	1.030	-.022 (.208)	.978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2 (.033)	.998	-.008 (.033)	1.008
참여율(10%)							.000 (.051)	1.000	-.007 (.051)	.993
분산										
학교수준	.068		.062		.064		.066		.054	

*p<.05, **p<.01, ***p<.001

[부록표 IV-18] 교내취업박람회(취업지원 프로그램 4)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연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929*** (.063)	2.531	1.410*** (.162)	4.097	.679*** (.084)	1.972	.943*** (.184)	2.568	1.096*** (.233)	2.992
프로그램 도움	.048 (.114)	1.049	.067 (.115)	1.069	-.017 (.117)	.983	.080 (.116)	1.083	.040 (.119)	1.041
프로그램 미도움	.024 (.158)	1.024	.042 (.157)	1.043	-.053 (.165)	.949	.050 (.160)	1.051	-.001 (.168)	.999
남자			-.129 (.082)	.879					-.072 (.082)	.930
부모교육수준			-.013 (.015)	.987					-.010 (.015)	.990
가구소득 (100만원)			.074** (.027)	1.077					.068* (.028)	1.071
전문고			.482* (.191)	1.619					.430* (.191)	1.538
특목고			-.028 (.264)	.972					-.015 (.271)	.985
인문계열			-.503** (.178)	.605					-.413* (.188)	.662
사회계열			-.400** (.152)	.671					-.339* (.158)	.713
자연계열			-.478* (.189)	.620					-.411* (.188)	.663
공학계열			-.544** (.189)	.580					-.481* (.192)	.618
대학학점 (100점 만점)					.019 (.012)	1.019			.015 (.012)	1.015
해외연수경험					.115 (.100)	1.121			.104 (.107)	1.110
인턴경험					.049 (.127)	1.051			.045 (.129)	1.046
자격증 수 (1-2개=1)					.272** (.093)	1.312			.221* (.093)	1.247
자격증 수 (3개 이상=1)					.495*** (.135)	1.641			.412** (.136)	1.510
직업교육훈련 경험					.208 (.128)	1.231			.193 (.128)	1.213
대학수준										
국공립							.207 (.154)	1.230	.242 (.155)	1.274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34 (.144)	1.035	.024 (.139)	1.024
수도권 소재							.177 (.131)	1.194	.184 (.127)	1.202
대학규모 (100명)							-.001 (.001)	.999	-.001 (.001)	.999
장학금 수혜율(10%)							-.012 (.198)	.988	-.060 (.207)	.942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5 (.032)	1.005	.015 (.032)	1.015
참여율(10%)							-.078 (.047)	.925	-.082 (.046)	.921
분산										
학교수준	.070		.064		.065		.070		.058	

*p<.05, **p<.01, ***p<.001

[부록표 IV-19] 진로관련상담(취업지원 프로그램 5)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901*** (.054)	2.463	1.386*** (.158)	3.997	.654*** (.082)	1.923	.966*** (.174)	2.627	1.125*** (.225)	3.079
프로그램 도움	.259* (.130)	1.295	.251 (.129)	1.286	.198 (.130)	1.219	.263* (.130)	1.300	.207 (.128)	1.230
프로그램 미도움	.119 (.228)	1.126	.125 (.225)	1.133	.053 (.228)	1.055	.118 (.233)	1.126	.061 (.232)	1.062
남자			-.124 (.081)	.883					-.072 (.082)	.931
부모교육수준			-.013 (.015)	.987					-.011 (.015)	.989
가구소득 (100만원)			.073** (.027)	1.076					.067* (.028)	1.069
전문고			.486* (.191)	1.626					.437* (.190)	1.549
특목고			-.017 (.265)	.983					-.014 (.273)	.986
인문계열			-.509** (.178)	.601					-.418* (.188)	.659
사회계열			-.400* (.154)	.671					-.331* (.159)	.718
자연계열			-.475* (.189)	.622					-.410* (.188)	.664
공학계열			-.541** (.189)	.582					-.481* (.192)	.618
대학학점 (100점 만점)					.018 (.012)	1.018			.014 (.012)	1.014
해외연수경험					.101 (.099)	1.106			.092 (.106)	1.097
인턴경험					.030 (.120)	1.030			.027 (.122)	1.027
자격증 수 (1~2개=1)					.269** (.093)	1.309			.220* (.092)	1.246
자격증 수 (3개 이상=1)					.490** (.135)	1.633			.409** (.136)	1.505
직업교육훈련 경험					.186 (.126)	1.204			.173 (.127)	1.189
대학수준										
국공립							.224 (.154)	1.251	.261 (.155)	1.299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17 (.137)	.983	-.031 (.132)	.969
수도권 소재							.126 (.129)	1.135	.137 (.123)	1.147
대학규모 (100명)							-.001 (.001)	.999	-.001 (.001)	.999
장학금 수혜율(10%)							.015 (.204)	1.015	-.034 (.211)	.967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1 (.033)	.999	.009 (.033)	1.009
참여율(10%)							-.023 (.073)	.978	-.029 (.069)	.971
분산										
학교수준	.070		.064		.066		.068		.054	

*p<.05, **p<.01, ***p<.001

[부록표 IV-20] 면접기술/이력서작성(취업지원 프로그램 6)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908*** (.055)	2.480	1.394*** (.161)	4.032	.663*** (.081)	1.940	.969*** (.172)	2.636	1.132*** (.224)	3.102
프로그램 도움	.133 (.112)	1.142	.132 (.109)	1.141	.058 (.115)	1.060	.136 (.113)	1.146	.073 (.115)	1.076
프로그램 미도움	.202 (.233)	1.223	.190 (.230)	1.210	.139 (.233)	1.150	.199 (.237)	1.220	.139 (.234)	1.150
남자			-.125 (.082)	.883					-.073 (.082)	.930
부모교육수준			-.012 (.015)	.988					-.010 (.015)	.990
가구소득 (100만원)			.073** (.027)	1.076					.067* (.028)	1.069
전문고			.480* (.192)	1.616					.435* (.191)	1.545
특목고			-.022 (.266)	.978					-.019 (.275)	.981
인문계열			-.504** (.178)	.604					-.412* (.188)	.662
사회계열			-.401** (.154)	.670					-.330* (.160)	.719
자연계열			-.479* (.188)	.619					-.410* (.187)	.664
공학계열			-.544** (.188)	.581					-.480* (.192)	.619
대학학점 (100점 만점)					.019 (.012)	1.019			.015 (.012)	1.015
해외연수경험					.107 (.098)	1.113			.097 (.105)	1.101
인턴경험					.037 (.120)	1.038			.032 (.122)	1.032
자격증 수 (1~2개=1)					.270** (.094)	1.310			.220* (.093)	1.246
자격증 수 (3개 이상=1)					.490** (.136)	1.632			.408** (.136)	1.503
직업교육훈련 경험					.196 (.128)	1.217			.182 (.129)	1.199
대학수준										
국공립							.224 (.154)	1.251	.262 (.155)	1.300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15 (.139)	.985	-.032 (.134)	.969
수도권 소재							.129 (.127)	1.138	.135 (.124)	1.145
대학규모 (100명)							-.001 (.001)	.999	-.001 (.001)	.999
장학금 수혜율(10%)							.018 (.203)	1.018	-.028 (.212)	.972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2 (.034)	.998	-.008 (.034)	1.008
참여율(10%)							-.018 (.055)	.982	-.016 (.055)	.985
분산										
학교수준	.069		.063		.064		.068		.055	

*p<.05, **p<.01, ***p<.001

[부록표 IV-21] 취업캠프(취업지원 프로그램 7) 참여/도움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변인명	모형1 (기초모형)		모형2 (학생배경통제)		모형3 (학생과정통제)		모형4 (학교변인통제)		모형5 (최종모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B(SE)	OR
학생수준										
절편	.920*** (.050)	2.509	1.406*** (.158)	4.078	.666*** (.081)	1.946	.982*** (.172)	2.669	1.140*** (.228)	3.125
프로그램 도움	.189 (.161)	1.208	.209 (.163)	1.232	.098 (.164)	1.103	.192 (.161)	1.212	.130 (.167)	1.138
프로그램 미도움	.356 (.347)	1.428	.368 (.350)	1.444	.290 (.351)	1.337	.351 (.352)	1.420	.301 (.360)	1.352
남자			-.126 (.082)	.882					-.073 (.083)	.929
부모교육수준			-.012 (.015)	.988					-.010 (.015)	.990
가구소득 (100만원)			.074** (.027)	1.077					.067* (.028)	1.069
전문고			.485* (.192)	1.625					.439* (.191)	1.552
특목고			-.025 (.265)	.975					-.019 (.273)	.981
인문계열			-.505** (.180)	.604					-.415* (.190)	.660
사회계열			-.403* (.155)	.669					-.334* (.161)	.716
자연계열			-.479* (.189)	.620					-.413* (.189)	.662
공학계열			-.547** (.191)	.579					-.484* (.194)	.616
대학학점 (100점 만점)					.018 (.012)	1.018			.014 (.012)	1.014
해외연수경험					.105 (.099)	1.110			.093 (.107)	1.097
인턴경험					.039 (.121)	1.040			.033 (.123)	1.033
자격증 수 (1~2개=1)					.270** (.093)	1.310			.220* (.093)	1.246
자격증 수 (3개 이상=1)					.492*** (.134)	1.635			.408** (.135)	1.504
직업교육훈련 경험					.195 (.127)	1.215			.179 (.128)	1.196
대학수준										
국공립							.221 (.153)	1.248	.260 (.154)	1.297
대학 위세 30위권 이내							-.016 (.136)	.984	-.034 (.130)	.967
수도권 소재							.128 (.127)	1.136	.132 (.123)	1.141
대학규모 (100명)							-.001 (.001)	.999	-.001 (.001)	.999
장학금 수혜율(10%)							.028 (.209)	1.028	-.016 (.218)	.984
1인당교육비 (100만원)							-.003 (.034)	.997	-.007 (.034)	1.007
참여율(10%)							-.002 (.083)	.998	-.008 (.081)	1.008
분산										
학교수준	.069		.062		.064		.067		.053	

*p<.05, **p<.01, ***p<.001

연구보고 RR 2012 - 20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I)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인 백 순 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1길 35(우면동)
전화 : (02) 3460-0114
FAX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처 디자인프리즘
(02)2264-1728
I S B N 978-89-6113-886-4 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